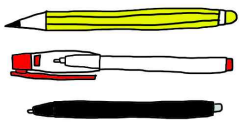


人 Turn

2011년도 제천간디 06학번 인턴십 보고서



일러스트: 빛나



QR코드를 찍으면
빛나 소개가 짠~!

만든 사람들_



꿈꾸는 이들의 여정을 축하하며

물의 꽃

펼 펼 끓는 물에
꽃이 핀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든다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펼 펼 끓는 물에
꽃은 다시 깊게
뿌리를 내린다
- 정호승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고 창조하는 힘, 거울을 비추어 자신을 보며 나의 꿈은 무엇이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과정을 겪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뿌듯해하며 만들어간 작은 꿈들이 언젠가는 꼭 결실을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타인과 만나기, 낯선 나를 들여다보며 용기내기,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이며 좀 더 당당하고 겸손하게 세상과 관계 맺기, 여러분은 열정과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다시 펼 펼 끓는 물로 나아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꿈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해 주세요.

2011년 8월
제천간디학교장 양희창

십대의 끝자락에서 맛본 세상의 첫 맛

8개월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잠시 속했다 돌아와서 어정쩡합니다. 1학년과는 같은 간디인이 된지 한참 되었는데 이제사 어색하게 첫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저 어려 보이는 아이와 이 어른 비슷한 사람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관계가 신기합니다. 학교 밖 생활을 하다 보니 능청도 너스레도 많이 늘었고, 저녁시간 어른들 틈에서 막내로 끼어 회식했던 기억들도 떠올리며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농담도 던집니다. 마치 어른 다 된 양 행동하면서도 썸들만 보면 앞뒤논리도 맞지 않는 말로 떼쓰고 어리광 피우는 거 보면 하나도 안 큰 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주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을 진행시키며 다시금 놀랍니다. 컸습니다. 1학기 활동 현장 방문 때 ‘학교에선 애 같더니 역시 나오면 잘 하네~’ 싶었던 느낌들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성장과 성숙.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잘 크고 있는 건지, 가우똥하게 될 때가 있지요. 이번 2011 인턴십을 마치고 다함께 돌아보는 과정을 가지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성격, 장단점, 잘하는 거,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갈 도구, 그리하여 살아갈 각자의 인생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꾸려갈 밑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실감(實感)하기 위해 첫 날갯짓을 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꿈들을 현실 속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으로만 부풀려 생각했던 거품을 현실의 크기와 비슷하게 조정하고, 작지만 중요한 일상의 힘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성숙한 태도, 성실한 노력, 소소한 일상의 힘, 건강하고 열린 관계 맺음, 전문성, 겸손함, 도전정신……. 나에겐 무엇이 더 필요할지.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준비할 지.

어른스럽게 혹은 어른스러운 척 보냈던 시간들 그 노력들에 애정을 담아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설레었던 첫 출근, 적응과정, 인정을 받고, 역할을 받고, 자리매김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채로 좌충우돌 경험한 그 시간들이 당신들의 이십대를 이끌어갈 원동력과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어른스럽게 혹은 어른스러운 척 발표했던 6학년 인턴십 발표, 그 준비의 과정에 쏟았던 땀과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의 기억은 다음번 도전과제를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당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하여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면 부끄러워 감추지 말고 그 부분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이팔청춘. 부딪히고 실패하고 깨어지며 다시 일어나고, 자신의 꿈으로 계속 다가갈 때입니다. 꿈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웬만하면 다 닦여 있고, 모범답안이 나와 있고, 그 길에 올라탄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새 길만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됩니다. 없는 길 가겠다고 모여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막막함을 안고 있지만 적어도 이 시대의 10대 후반, 20대들의 불안과는 다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맥주병따개들의 인턴십이 막막한 어둠을 헤쳐 나갈 작은 촛불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6학년 멘토 박상현

순서

여는 글

- 꿈꾸는 이들의 여정을 축하하며 | 양희창 5
십대의 끝자락에서 맛본 세상의 첫 맛 | 박상현 6

인턴십 보고서

- <민들레출판사> 나는 얼마큼 성장했을까? | 김혜민 8
<퍼포먼스 반지하, 성미산마을극장> 빈티샵 | 한다빈 37
<간디 어린이 학교> 나는 교사다 | 김현준 47
<인권운동 사랑방, 일본키노쿠니학교> ギルちゃんの インタナシッ! | 오한길 71
<쿵바야, 문.전.성.시 사업팀> 인턴 활동 보고서 임강토 100
<에코밥상, 작은 나무 카페> 시작이 반! | 신지수 110
<네팔 고아원 새빛흙> 개미, 벼지이 탈을 쓰다 | 문혜린 128
<인권교육센터 '들'> 人 Turn | 고예솔 157
<흙집짓기, 상상공장> 인턴십 보고서 | 김민성 191
<극단 진동> 부비대기 | 조하늘 201
<충북환경운동연대> 인턴십 보고서 | 김민욱 222
<홍동면 갯골마을> 지역에서 나를 만나다 | 김현지 232
<인도 생명누리공동체> INTERN 'IN' INDIA | 이기봉 257
<변산공동체> 별을 노래하다 | 우도연 274

닫는 글

- 소중한 시간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287

나는 얼마큼 성장했을까?

민들레출판사에서의 이야기

장소 : 민들레출판사

일시 : 3 / 2(수) ~ 6 / 24(금), 주 5일 근무

김 혜민

목차

I. 다녀오다.

- i. <민들레 출판사>
- ii. <민들레 출판사>를 선택한 이유

II.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 i. 인턴십 목표
- ii. 준비

III. <민들레출판사>의 하루

- i. 나의 활동
- ii. 하루일과

IV. 4개월간의 인턴생활

- i. 나는 누구? 여긴 어디?_ 첫 달
- ii. Up and Down_ 두 달
- iii. 앞으로 감시다_ 세 달
- iv. 끝이 난다니!_ 네 달

V. 인턴십을 마치고

VI. 부록

- i. 인턴십 계획서
- ii. 『민들레』에 실은 글
- iii. 내 글이 실린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책 소개
- iv. 민들레에서 만난 사람들_인터뷰

I. 다녀오다.

i. 민들레출판사

민들레 출판사는 1998년에 출발하여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출판과 교육,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육은 곧 학교교육'이라는 통념을 깨고, 더 나아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길을 열어 가고자 하는 곳이다.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이들과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헤매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조언하는 것이 격월간 민들레를 내는 목적이며, 제도 학교 안에서든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통해서든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어 가는 이들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들레>는 '교육 전문가'라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과 교육에 열정을 잃지 않는 선생님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열린 마당이다. 뜻이 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민들레 출판사에서서는 정기적으로 대안교육잡지 『민들레』를 격월로 내고 있으며, 단행본은 1년에 2~3권정도 나오고 있다.

ii. <민들레 출판사>를 선택한 이유

간디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좋은 기회들도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얻을 수 있어서였는지 '이건 좋은 기회이다.'라고 느끼지 못했었다. 그랬던 내가 고등부가 되면서 나 스스로 '무엇을 할까?'하며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구나, 그럼 제대로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등부가 된 4학년 때는 나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유치원 선생님'을 경험해보고자 공동육아에 한 달 동안 다녀왔고, 5학년 때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과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어색하지 않은 창고(경북대 근처에 위치한 대구 녹색소비자 연대가 만든 작은 카페)'에 한 달 동안 다녀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나는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면 자신의 진로라든지, 현재 관심사와 성격이 비슷한 곳으로 체험 장소를 골랐던 친구들과는 달리,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려 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인턴십 장소를 고민할 때도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경험하지 않아도 20살이 되어 성인이 된 후에 평생 혹은, 오랜 시간동안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굳이 이번 인턴십에 나의 진로와 연관 지을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어떤 인턴십을 보내야 할까? 인턴십이 간디학교에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 나 자신을 스스로 열어보고, 내가 6년 동안 있던 학교를 좀 더 알고 싶어졌다. '대안교육이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오랜 고민 끝에 이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떠올랐다. 그곳이 바로, 새로운 경험과 대안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글과 책을 만날 수 있는 일석3조의 공간인 '민들레 출판사'이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인턴십을 시작하였다.

Ⅱ.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i. 인턴십 계획서에 썼던 나의 다짐

- 인턴십 목표
 1. 대안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기
 2. 나의 단점 고치기
 3. 사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4.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기
 5.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 인턴십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사람을 대하는 법
 2.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
 3. 내가 하고픈 일이 무엇인지 찾는 법

ii. 준비

1. 인턴십 장소 정하기 전, 자료 모으기.
 - 가고 싶은 곳, 관심 있는 곳, 관심 있던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직접 인터뷰를 하였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 내가 모은 자료 : 노희경 드라마작가님과과의 인터뷰, 극단 '해', '드림플레이'/'민들레 출판사' 자료
2. 단체를 정한 후, 연락하기
 - 가고 싶은 단체를 확정된 후,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해보았다. 메일로 언제든지 쉽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지만, 처음 연락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이고, 바로 소통이 가능한 전화를 이용하여 나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3. 소통하기
 - 나를 소개 할 수 있는 글과 자료, 그리고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메일로 주고받은 뒤, 인턴십이 시작되기 전, 사전 만남을 가졌다.

Ⅲ. <민들레출판사>의 하루

i. 나의 활동

- 단행본 교정 교열 보기 :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빈집에 깃들다』
- 민들레 교정 교열 보기 : 3·4월 74호, 5·6월 75호
- 피드백 하기 : 단행본 예정 원고, 민들레 격월지 원고, 민들레 홈페이지 외 등등
- 인디자인, 포토샵 작업 : 광고 만들기, 격월지 내 자잘한 작업
- 홈페이지 관리 : 배너, 게시판 수정, 글 올리기, 팝업 띄우기, 만들어 주신 분과 연락하기
- 글쓰기 : 단행본 글, 민들레 글, 개인 프로젝트 글
- 기타 : 책&필자 목록 정리, 파주출판도시 견학, 타 대안학교 탐방가기, 인터뷰, 녹취풀기, 각종 잡일, 회식참여

ii. 하루 일과

시간	활동
6:40 ~ 7:40	기상, 출근준비
7:50 ~ 8:50	출근길
9:00 ~ 12:00	민들레 도착, 오전업무
12:00 ~ 1:00	점심시간
1:00 ~ 6:00	오후업무
6:00 ~	퇴근 (운동을 가거나, 집으로)
00:00	취침

- 출근시간 : 9시
- 퇴근시간 : 6시
- 하루 근무시간 : 9시간
- 출·퇴근 시간 : 총 3시간
- 야근 시 퇴근시간 : 8시~10시

IV. 4개월간의 인턴생활

월	기간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27-5	1				첫 출근	기획회의참여	교정보기	
	6-12	2		글쓰기 시작 →	첫 회식				
	13-19	3		구독전화 돌리기→	필자 정리시작→		책 참고 정리	전화 끝	
	20-26	4			대표님과 이야기		상현쌤 방문		
	27-2	5			필자정리 끝	글 완성	격월지 참고정리		
4	3-9	6		글 수정→	교정·교열	첫 야근			
	10-16				대표님과 이야기			민들레 포장,회식	
	17-23	7		피드백하기		원고읽기			
	24-30	8		홈페이지 관리	신간책 신문사에 전달	일지정리			
5	1-7	9		고양이 목욕시키기	인디자인 작업하기→			일지정리	
	8-14	10					대안학교 탐방가기	파주출판 도시견학	
	15-21	11				인터뷰가기	녹취풀기		
	22-28	12			인터뷰 사진찍기	인터뷰하기			
6	29-4								*
	5-11	13				디자이너 언니마지막	민들레 디자인작업	책 포장	
	12-18	14		마감마무리					
	19-25	15				대표님돕기	설명서제작	인턴 끝	

* 주 5일근무 빈칸은 겹치는 일들 (글쓰기, 심부름, 잡일 등등)

i. 나는 누구? 여긴 어디?_ 첫 달

어젯밤 인턴십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아님 설렘 때문인지 그것도 아님, 원래 항상 늦게 자던 버릇 때문인지, 3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잠이 들었다. 늦게 잤으니 3시간밖에 못자는 나는 분명 피곤해야 할 텐데 그동안 정말 잘 쉬어서 그런지 6시 알람소리에 깨었을 땐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민들레의 오전은 무척이나 바쁜 분위기이다. 다들 자기 일들을 열심히 처리하시고 계신다. 소심한 나는 일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컴퓨터만 만지작거린다. 결국 오늘 오전은 민들레 홈페이지를 본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종이에 정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되었다. (중략) 아, 일거리를 구하려고 물어보는 것에 용기를 내야 하는 내가 참 너무 안타깝다.



<민들레출판사에서 4개월간 내가 머문 자리>

인턴십이라는 것에 기대감을 너무 많이 품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소풍 가기 전의 아이 마음 같은 것이었을까? 모두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인턴십을 시작하는 첫 주는 왠지 모를 기분과 함께 민들레로 향했다.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초롱초롱해진 눈으로 ‘실수 않고 열심히!!’라고 하며 작은

일에도 하루 종일 하는 정성을 보일 준비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은 하고 싶지만, 소심한 나로서는 “할일이 있을까요?”라는 쉬운 한 마디조차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기 시작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니야, 아무 것도 안하는 것 보단 낫잖아!’ 하며 용기를 낼 때쯤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겨우겨우 꺼낸 용기로 물어보면 “나중에 회의 하고 나면...”, “그럼, 책 좀 가져다줄래?” 같은 조금 힘이 빠지는 대답으로 돌아 왔지만, 그때는 왠지 나 자신과 싸워 이긴 기분이었다.

처음은 분위기 파악을 하라고 날 그냥 놔두셨는지, 시간이 지나 회의를 몇 번 하고나니, 나에게도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처음 나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해왔기에 민들레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민들레에서 처음으로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주어지는 순간이 되니, 왠지 모를 부담감이 생겨나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렸다.

피드백을 하면서는 민들레에서 이 책을 내는 의도와 책 속의 내용이 맞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점은 어떻게, 그건 어떤지, 책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생각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너무 생각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던 시기가 있어 어느 날부터 나는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도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게 맞나하고 머리로는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된 내가 웃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일이 있을까요?”라는 말을 꺼내기) 끝에 맡은 일이여서 인지, 내가 맡은 일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다. ‘과연 이게 맞을

까?’하고 말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끝내서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어 빨리하다, 대충한 것처럼 보일까봐 천천히 하다가 반복하니 나 자신이 서서히 지쳐가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민들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된 것은….

그곳에 있는 민들레 식구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프로이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은 한 없이 어린아이였고, 도움이 되기보단 짐이 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나 자신을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다. 사실 다들 프로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어리다는 것은 사실이었음에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어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어른과 아이의 거리감, 나의 위치를 느끼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열심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가볍게 극복해내고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원래가 인턴이라는 것이 원래 없던 자리를 부탁으로 들어간 곳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말이다. 물론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의 나는 그것을 가볍게 극복하지 못했고, 그 짐의 무게는 조금씩 더 무거워 졌던 것 같다.(어쨌면 처음 하는 일에 대한 의욕과다로 생겨난 것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매일 같이 지하철에서 3시간씩 보내니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몸살 상태이다. 그래도 지하철에서 잠이라도 자면 일할 때는 졸리지 않아…….

오늘은 글을 완성시켜 보자하고 오전 중에는 글을 쓰려 노력했다. 겨우 2장..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들레에서 처음 원하던 주제에서 살짝씩 벗어나간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싶고… 나 말고 다른 사람 한분 또 구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안 쓰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내가 너무 책임감 없는 아이가 되어버릴 것 같아 내일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든 써보려고 한다.

솔직히 정말 막막하고, 나의 글재주에 아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글이라는 것이 읽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건 몇 배로 더 힘들다는 걸 새삼스레 배우고 있는 중이다.

- 여덟 번째 인턴일지 中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느리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8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잠실역의 지하도는 무섭다.

몇 분 안 되는 그 짧은 길을

수백 명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발소리를 내며,

한 곳을 향해 걸어간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모두가 한 곳을 향해 가는 길이 낯설기만 하다.

그 길을 걸을 때면 이상하게도 나는,

앞사람을 앞질러 가고 싶어지고,

내 주변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몇 분 안 되는 그 길은

매일 아침 나에게 이상한 기분을 들게 만든다.

매일 아침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덕산 시골의 '느림'이 너무나 그리워진다.

- 열한 번째 인턴일지 中

인턴에 대한 설렘으로 에너지가 넘쳤던 내가 '서울'도시에서 총 3시간이 걸리는 출퇴근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서서히 지쳐갔다. 그래서인지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출근한 지 며칠 만에 쉬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거기다 홈페이지 관리와 민들레 격월지에 한 쪽지를 맡았을 때의 즐거움도, 나의 생각과 민들레 색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과 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야 쓸 수 있는 글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중간 중간 민들레 구독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음식배달점에 전화하는 것조차 두근거리는 내가 무언가를 권하는 전화라니... A4용지 가득 채워져 있는 독자목록이 여러 장이기에 빨리 빨리 전화를 돌려야 했지만, 전화 한통을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

처음엔 일을 받아서 즐거웠고, 뭐든 다 도와드릴 준비가 되었었는데, 몸이 힘들어서 마음마저 더 힘들어지니, 민들레를 다니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가 않다고 느껴졌다. 나는 몸이 힘들다는 것을 방패삼아 처음의 초롱초롱했던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매일이 똑같은 도시생활을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나 스스로가 얽매어 있지 않았던 학교가 너무 그리웠다.

출퇴근길이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어제 오랜만에 사감 쌤과 통화를 하면서 나를 아는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반가운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었다. 냉정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요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

오늘은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논 것만 같다. 일을 달라고 하기도, 가만히 있기도 무안한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루 종일 놀다가도, 양심이 마구 찢리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머리 식히기 정도로 넘겨야겠다.

- 스물 번째 인턴일지 中

물론, 도시가 싫다거나 민들레에 다니는 것이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서울 도시 생활이 낯설었던 것 같다. 익숙하지 않은 생활 때문에 몸이 지쳐버렸으니...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지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그 중 다행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민들레는 날들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것이었다. 처음해보는 일이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을 한다는 뿌듯함과 기분 좋은 느낌 덕분에 의욕과 재미는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었다.

ii. Up and Down_ 두 달

민들레에서 일을 하다보면, 작은 일에도 '아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면서 하게 된다. 만약, 내가 잘못 하고 있다면, 일을 두 번 하시게 만드는 거라 더 조심스러워 진다고 할까?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 같다. 뭘까 이 이상한 기분은..? 외로운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진 않네.

요즘 내 상태는 저 먼 우주에 있는 것 같다. 정해진 스케줄에 딱딱 움직이게 되네. 언제 일주일 이 다 간 거지? 왜 벌써 4월이지?

아. 정신아 말짱해 지길 바라.

- 스물세 번째 인턴일지 中

힘들었던 출퇴근도, 어색했던 민들레에서의 업무도 서서히 적응이 되어갔다. 힘들었던 출퇴근이 익숙해지니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인턴십은 처음 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형태의 인턴인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기회들이 찾아왔기에 그것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왠지 모를 답답한 기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민들레 식구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이 엄청 많다는 건가? 학교 쌤들도 일하다가 쉬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도 중간 중간 다른 것도 하면서 일하는 것 같던데(몰라서 막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식구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네요. 목요일까지 마감을 끝내 시려고 힘드신 것 같은데, 민들레는 사람이 소수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지네요. 디자이너 언니는 정말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나도 인디자인을 배워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으앙...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배우고 있긴 하지만, 배우기만 하고 도움이 안 되니깐 자꾸만 죄송해지네요. 왜 회사에서 능력자를 찾는지 알 것 같다고나 할까.. 의욕이 있는 것도 좋지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인턴을 하면서 하루하루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사는데, 생각의 꼬리를 길게 가지고 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서 항상 중간에 돌아 와버리는 것 같다. 생각을 이어가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다.

- 스물다섯 번째 인턴일지 中

그런 답답함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 이었나보다. 학교를 다닐 때는 개인적인 일들도, 학교일들도 막힘없이 해냈던 내가 민들레에서는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 것 같았다. 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나 자신이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회 속 나의 위치를 알아가고 있다고 할까? 왠지 한 없이 작아 보이는 나의 모습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갔다.

요즘 이상하게 낮가림이 심해진 것 같아요. 아님 더 무뚝뚝해 진건지 그것도 아님, 여기 사람들과 익숙해졌지만, 친하진 않아서 조용히 있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딱히 달라질 일이 없네요. 같이 일하는 분들도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다들 조용 하셔서 활기찬 모드가 될 수가 없네요.<중략>

퇴근 전에 현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 인턴 기간이 3개월 아닌, 2개월 하고 보름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는구나.... 현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계획을 같이 해보자고 하셨다.

정말 나도 민들레에서 바쁜 사람이 되고프다.....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지고 다 해보자! 싶다.ㅎ 어느새 인턴이 끝나버리면 안되니 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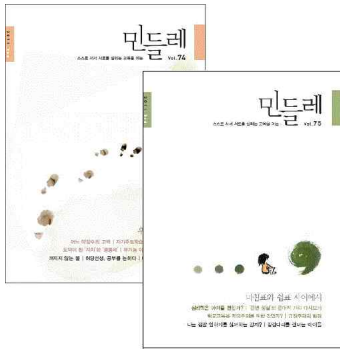
- 서른 번째 인턴일지 中

낮선 환경 속에서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곳의 생활에 커다란 벽을 느꼈다.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 속에서 처음 접해보는 영역의 일들과 익숙하지 않은 생활. 그래서인지 한 동안은 할 일 없이 노는 것으

로 나에게 반항을 한 것 같다.

내가 왜 나 자신에게 반항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깨닫고 나니 변화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익숙해진 생활 패턴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현선생님 옆에서 이것저것 배워라 라는 것 같지.. 이제 나올 단행본 안에 들어갈 필자 소개 글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아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 고치고 말고가 되지가 않았다. 나를 잘해보고 싶어서 좀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잘한 것 같진 않다. 만족도가 매우 낮아서 아쉽다고 할까.... 현선생님은 내가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잘해주신다. 그렇게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격월지 『민들레』 74,75호>

글 교정보기를 연습하는데, 사실 어디까지 고쳐도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고치면 안 되는 부분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 애들 글이나 내 글을 볼 때면 앞뒤 안 맞는 말을 고친다면서 결국 다 고치는 셈인데, 글을 좀 많이 써본 사람들. 그것도 책으로 내는 사람들의 글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내공이 없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조심스럽다.

그래도 오늘은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다. 하나하나 배우는 것에 재미가 쏠쏠하다.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플러스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ㅎ. 아무튼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나는 구나~

- 서른세 번째 인턴일지 中

나의 방향의 모습을 보신 걸까, 아니면 그 동안 할 일 없어 심심해 보였던 걸까? 대표님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주셨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역시나 즐거웠다. 물론 처음 접하는 일들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 하며 완성도가 매우 낮아 죄송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일단, 나 스스로가 즐기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구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 노력했다.

세상을 바르게 사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아.. 글 쓰는 것도 힘들고... 남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내가 웃기고, 머리로 나쁜거, 잘못된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는 내가 부끄럽고...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할 자격이 있을까? 남을 부러워만 하고 있는 내가 그럴 자격은 있을까? 학교에서 원하는 더불어 행복한 사람은 도 대체 어떤 걸까? 더불어 우리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언제까지 듣기 싫은 거 안 듣고,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나 잘났네, 난 상관없네 하며 살까..

- 서른일곱 번째 인턴일지 中

조금은 아쉬운 이야기지만, 나 스스로가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일과 중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시간도 꽤나 많았다. 그래서인지 나를 돌아보거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뜬금없이 떠오르는 이야기 등의 혼자 긴 생각에 빠져있을 때도 많았다. 그 덕에 많은 고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면서 의외의 시간에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물론, 생각이 많았던 만큼 둘째 달은 기분의 기복이 심했기도 했다.

앞자리가 4가 되었다. 오늘로 인턴십을 한지 2달째 되는 날이다.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가는구나 싶다.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올린 일지를 한글파일로 정리하는데, 확실히 블로그는 편하다보니 일지에 오다가 넘쳐난다. 그걸 하나하나 수정하다보니 10개 밖에 하지 못했다. 앞으로 30개 이상은 언제 정리할지 한숨이 조금 나온다. (블로그에도 좀 정성스럽게 써야겠는걸..)

다른 때보다 일어나기 힘든 아침이었던 터라, 다른 때보다 늦게 일어나 느릿느릿 준비를 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기위해 아침부터 뛰기 시작한다. 한정거장 밖에 가지 않지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위해 다시 뛰고, 사람들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 지하철에 타서, 번기 물처럼 빠져나가는 환승역에서 또 달리기를 시작한다.

바로 계단 앞에서 문이 열리는 곳까지 열심히 또 걸어가서 지하철을 다시 탄다. 타자마자 자리를 찾고, 자리가 없을 땐 학생 같아 보이는 사람 앞에 자리를 잡고, 빨리 내리길 기도한다. 자리가 생기면 빠르게 앉아, 책을 읽으려 노력하지만, 눈이 감긴다. 결국 목이 아픈 자세로 잠이 들고, 내리기 전 2~3정거장 전에 잠에서 깨어난다. 떠지지 않는 눈을 뜨고, 내려야 하는 역에 도착하면 벌떡 일어나 나간다. 자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웃길까? 하며 혼자 어이없어 하며 민들레로 향한다.

민들레에 도착해 아침인사를 하고,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자리에 앉는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인터넷을 켜고, 네이트에 들어갔다 어제 못한 팝업창이 생각나 마저 만들어서 다시 띄운다. 그러곤 다시 네이트 뉴스를 보다가, 정민씨가 시키는 일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전의 절반이 갔다.

점심시간. 특별히도 사람이 없는 오늘은 식당에 모여 앉아 밥을 먹었다. 밥 먹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오직 밥만 먹고, 다른 사람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사람이 적은 날이니 이모님께서 자신이 설거지를 해준다면 놓고 가라신다. 잘 먹었다며 인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봄이라 그런가? 일지를 정리하는데, 잠이 몰려온다. 잠깐 었드렸다, 일어나서 일지 정리하고, 다시 었드렸다 일어나서 일지 정리하기를 반복하다. 잠을 이기기 위해 커피를 타 마셨다. 커피를 자주 안 먹어서 그런지, 잠이 많이 도망갔다.

일지가 많아 10개밖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리하지 않는 날들을 후회한다. 간디학교의 6년을 정리하는 글을 쓴다. 간디학교 들어가기 전 과정을 며칠째 쓰고 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할 때, 커피를 사주신다는 말씀에 밖에 나가고픈 마음에 커피를 사러 따라 나갔다. 커피 집에서 바리스타의 유혹을 받고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제대로 배워야지 하곤 다짐한다.

녹차라떼를 마시며 다시 민들레에 돌아와 책상에 둘러 앉아, 이야기 나눈다. 평소애 말을 하지 않고 내성적으로 있던 내가, 수다쟁이가 된다. 학교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밝은 아이가 되는 듯하다. 졸업할 때가 되서 그런가. 아쉬움도 남는다. 학교 그리운지,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 민들레 식구들에게 간디의 좋은 점만 알려줘 버렸네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아마도 대안학교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 괜찮겠지? 하곤 넘어간다. 학교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글이 잘 써진다. 나는 확실히 혼자 글을 쓰는 것보단, 이야기를 나누는 스타일인가? 하지만, 말이 많아지는 건 웬지 싫기에 다시 내성적인 아이가 된다.

드디어 1학년 이야기로 들어갔다. 다시 막막해지지만 일단 쓰고 보자 식으로 글을 쓴다. 퇴근 시간이 되어간다. 글을 멈추고 일지를 쓰기 시작한다. 일지를 쓰다 보니 퇴근시간이 넘어갔다. 요가학원을 가는 날이면 퇴근 시간이 되면 요가학원을 가지 말고, 집에 빨리 가버릴까? 고민하게 된다. 오늘 혼자 있을 집에 웬지 일찍 들어가고 싶어졌다. 내일 요가를 가야겠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났다.

민들레에 있으면서 나 혼자 여유로운 것만 같은 기분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간디학교의 6년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 생각났다. 6년 정리도 되고, 글쓰기 연습도 되어서 민들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매일 매일 꾸준히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쉬운 작업 아니라 한 줄 쓰고, 딴 짓하고를 반복하

지만, 계속 하다보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해봐야겠다. 하는 일이 없다고 징징대는 것도 질린다. 앞으로 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글을 쓰고, 글이 안 써질 때는 인디자인 연습과, 영어공부를 해야겠다. 남은 2달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길 바라본다.

- 마흔한 번째 인턴일지 中

iii. 앞으로 갑니다_ 세 달



<민들레 마스크트 꽃내>

완성시켜야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모닝 졸림으로 힘든 정신을 붙잡고 비몽사몽으로 글을 썼다. 열심히 잠과 싸우다 나 혼자선 잠에게 이길 수가 없어서 커피라는 마지막 카드를 쓰고서야 잠에게 이길 수가 있었다. 커피를 자주 먹는 게 아니라서 카페인에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 잠을 이길 수 있다는 내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커피의 효과는 99%이다.

요즘 민들레에서 할일들이 많이 생겼다. 아니 요즘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서야 할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인턴을 한 달 조금 넘게 남기고서야 발동이 걸린 걸까? 늦게 걸린 발동이어서 인지 잘 돌아가지는 않는다. 6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기엔 몇 주 안 된 이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가보다.

- 마흔아홉 번째 인턴일지 中

생활도 익숙해지고, 잠깐 방황도 하고 나니 여유가 생겨난 것 같다. 물론, 친구들의 인턴 소식을 들을 때나 나의 결과물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긴 했지만, 우울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다. 의욕도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무빙스쿨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지만, 기간의 영향인지 매달 내 자신이 그때보다 더 성장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시 첫 달의 긍정적이었던 나로 돌아간 기분이다.

파주에 있는 인쇄소에 구경을 갔다. 운전을 하는 디자이너언니를 보면서 빨리 면허를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섭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 시간 가량을 달려서 파주출판도시에 도착했다. 출판도시라고 하기에 '도시라니 너무 거창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 했는데 도시가 맞았다. 상상만 해봤던 컨셉이 있는 도시가 진짜 있을 줄이야. 서울과 거리가 있다는 점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걸 빼면 참 괜찮은 것 같았다.

처음엔 책을 유통하는 '복세'라는 곳을 잠깐 구경하고 돌아 돌아 인쇄소에 도착했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기분이다. 이제 나도 출판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었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말 신기한 것 같다. 그리고 책이란 가벼워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책을 쓰는 것, 책으로 출판하는 것, 그리고 읽는 것 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작업이 사람 손 하나하나가 닿아 정성이 넘치는 것이 책이니 어쩌면 가벼워지는 게 이상한 것이다. 인쇄소 사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전자책에 관한 생각을 해보았다. 전자책 과연 좋은 걸까? 오히려 책이 더 멀어지고 지금의 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전자책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책들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를 일깨우게 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잘못 된 것은 혼도 내주는 것을 전자책은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깐.출판사에 오고 나서 내 특유의 생각 경쟁은 더 진화한 것 같다. 인턴의 마지막에 난 어디에서 있을까?

- 쉰한 번째 인턴일지 中

새로운 경험 또한 많이 보고, 그동안 배워왔던 일들도 익숙해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그래서인지 생각할 주제들의 폭도 넓어진 느낌이다. 별 생각 없이, 주장 없이 살았던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며 나만의 대답들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잠깐 주춤했던 만큼 다시 전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을까? 3개월째의 일지를 보니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긴다.

나는 요즘 들어 잔피가 늘어서인지 정확히 9시에 도착을 하거나, 9시 5분 안에 민들레에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더 자고 싶어서 기상시간도 20분 늦어지고, 나가는 시간도 10분 늦어졌어. 익숙함은 역시 띠까? 처음 민들레에 출근을 할 때는 6시에 일어나서 9시가 되기 30분 전에 도착을 했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늦어도 아슬아슬함이 없는 것 같아. 편안함과 익숙함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아.

- 셋째 번째 인턴일지 中

오늘따라 민들레 식구들이 "헤민이 없으면 어떻게~"를 많이 말하시는데 너무 높게 비행기를 띄워서 타고 있는 나는 비행부터 착지까지 모든 게 걱정이 된다. 나의 의심병 또한 어쩌나 크던지, 칭찬을 들어도 "빈말이겠지? 내가 뭘 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네이버 웹툰 중에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 칭찬편'에서 AB형은 칭찬을 하면 의심부터 한다던데 진짜인가보다. 뭐, 남은 기간마저 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저 잘 해야지.

- 셋째 번째 인턴일지 中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라고 말한다. 생활이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일들이 더 재밌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진 만큼이나 조금은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이래도 되나' 하다가도 금방 '이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이걸 어쩔 수 없는 것 중 하나였을까? 사람은 한 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다. 방심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면 '정신 차려야지!' 하며 혼을 냈다.

그런데 조금씩 게을러지던 나인데도 민들레 식구들은 '참 잘하는 아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나보다. 초반부터 그런 이미지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 게을러지는 내 모습을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활 잘하는 아이'로 보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기도 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나는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도움만 받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 왠지 양심이 찢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를 위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거겠지' 하며 위로하며 지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민들레 식구 중 한분이 떠나시는 날. 점심 때 김치전이 나오니 다들 막걸리를 찾으신다. 결국 오후에 막걸리 파티~ 대낮부터 술이라. 그럴지 건강하게 즐긴다면야. 하하하 어색한 관계 속에서 오고가는 대화 속, 가끔씩 찾아온 정적. 이전 그 정적에서 숨 막힐 듯한 기분은 들지 않는다. 그래도 친근함의 선(?)은 역시 존재하는구나 싶다.

- 넷째 번째 인턴일지 中

처음 인턴십을 시작할 때 목표 중, 나의 단점 고치기가 있었다. 나의 단점 중 하나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겁내는 것이었다. 민들레 식구들은 부모님 세대 분들이라 나는 이 단점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었다. 거리감도 느껴지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예의가 더욱 더 차려지는 이 관계가 불편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또 내가 만든 선이구나 싫어졌다. 나의 단점이 완벽하게 고쳐질 수는 없었지만, 왠지 이제부터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iv. 끝이 난다니!_ 네 달

어제 디자이너 언니가 그만 두었지만, 아직 격월간 민들레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잡 일을 내가 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오는 일이라 즐겁게 했지만, 오늘 또 한 가지를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이 되었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셨길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 난 기술이 없으니깐. 위기의 민들레. 어떻게 되려나..? 민들레만큼이나 위기인 나는 어찌하면 될라나? 노력할 생각 없이 자책만 하고 있으니 시간 죽 쑤는 건데, 잘 아는데도 머리만큼 몸이 안 따라 간다.

- 예순여덟 번째 인턴일지 中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탐방사진>

인턴십 마지막 한 달. 어깨너머로 배운 일들이 익숙해지니, 의도치 않게 내 역할이 커져버렸다. 도움이 된다는 기쁨에 최대한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상대방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실망 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거기다 은근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진 터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오기가 생겼던 것 같다.

와 70이다. 또 다시 찾아 온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진짜로 2주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 같으니라고!

디자이너 언니가 떠난 이후로부터 남은 자잘한 디자인 작업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잡일 들이지만, 이런 자잘한 일이라도 민들레격월지에 제 손이 닿는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처럼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되겠죠?

저번 주는 왠지 모를 슬럼프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짜증도 나고, 소심해지고, 하기 싫고, 무기력 증에 빠져 뭘 하고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제 자신이 싫어만 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씩 찾아오는 타임이었던 걸까요? 이번에는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우울함에 빠져 있는 내가 싫었다고 생각했는데 은근 그 시간들을 즐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한번 폭 담갔다 나오는 게 가장 빨리 나오는 방법이란 걸 무의식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뭔가 할 의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과거를 돌아보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빨리 돈 벌고 싶고, 누구든 만나기 싫고 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돈을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만나기 싫은 이 마음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여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생각을 하니 다시 심승생승 해지려고 합니다.

- 일흔 번째 인턴일지 中

다시 우울함이 찾아왔다.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으로 부터였을까?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까지 여러 가지가 날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즘 마감기간이 훨씬 많이 지나간 이 시점. 민들레의 빨간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찝찝하게 다가온 여름처럼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전자파와 친구 먹고, 어깨너머로 본 기억들을 더듬 더듬 찾아가며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한번 누를 때마다 정신이 나가고, 전자파가 내 속으로 들어와 마구 헤집고 가는 것만 같다.

요즘 정신이 반짝반짝해지려고 하면서 글을 써볼까 하는데, 마감기간이라 쓸 여유가 안 생긴다. 좋으면서 당황스럽다. 아니 이것조차 핑계일지도 모르겠다. 비는 시간은 딴 짓하는 내 모습이 보이니깐. 핑계와 회피가 익숙한 내 정신머리를 어찌하면 좋을지 아직 내가 올라가야 할 계단이 많다는 것만 다시 한 번 깨달을 뿐이다.

인턴의 끝이 보이는 이 시점. 나는 지금 잘 걸어 온 걸까? 디데이를 세고 싶지 않은데, 달려만 보면 한 눈에 보이는 인턴의 마지막 날. 헐!!

- 일흔두 번째 인턴일지 中

어쩌면, 모든 것들이 인턴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른다.

인턴 마지막 주. 할일이 태산인데, 나에게 시간이 없다. 끝날 때가 되니 나의 역할이 조금 커졌다. 아니, 원래 할일은 항상 그만큼씩 있었나? 그래도 책임의 정도가 커진 것 같아.

어제 격월지가 나왔다. 내 글을 봤는데, 왜 그렇게 유치해보이던지... 책을 많이 읽고, 글 쓰는 연습도 많이 해야지 라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심삼일이 될 것 같은 다짐을 하게 된다.

인턴 마지막 주인데, 나의 인턴십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할 여유가 안 생긴다. 어쩌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아직 인터뷰도 두 분정도 못 했고, 보고서, 일지 정리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인턴 끝나자마자 캐나다를 가버려서 캐나다에서 인턴십 정리를 해야 하는데, 흐지부지 정리가 될까 걱정이야. 누가 내 머리 속에 들어가서 나를 빼간 것만 같다. 멍.....

인턴십의 의미,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형식적이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쳐다보기도 보기 싫다. 능력 없는 사람이 되기 싫고, 완벽해지고 싶은 이 마음과는 반대로만 행동하는 내 자신이 짜증이 난다. 날 아끼지 않는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할 텐데.

민들레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정말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그걸 받을 만큼 잘했는지 모르겠다. 끝날 때쯤 되니 이 전에 있던 조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 끝이라는 걸 인정할 것일까? 민들레에 와서 난 어떻게 변했을까? 아,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상태이다.

- 일흔여섯 번째 인턴일지 中

혼자 고민에 너무 빠져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 것 보단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들을 뒤로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의 행적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큰 걸림돌이 되었다. 민들레에 들어갔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에게 참 많은 걸림돌들이 내 앞을 막고 있었던 것 같다.

인턴십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로 종이라니.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4개월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백지화 돼버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4개월, 참 길고도 짧은 시간. 가야 할 때가 되니 아쉬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송별회를 하고, "헤민이가 없으면 어찌하나"라는 말까지 들었는데(물론 예의상의 말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도움을 드렸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받기만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저를 비교하기는 아직 힘듭니다. 어쩌면 시작하기 전 의욕이 넘치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겁이 나서 일지도 모릅니다. 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싶어서 일지도 모르구요. 하지만, 아직 정리는 안 되지만, 분명 저 자신이 길고도 짧은 4개

월간 한 단계 성장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부터가 이미 발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글로 나의 이야기를 풀고 있다는 것 역시 발전이니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까지 얼만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것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고,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죄송하고 후회스럽지만, 인턴십 선택 잘했구나 싶습니다.

끝이 난 이 시점. 정리가 안 되는 내 머릿속을 정리하려면 한참이 걸릴 것 같고, 또 보고서를 쓸 때면 지하 밀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와야 할 것 같지만, 일단은 4개월간 수고한 제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 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면 캐나다에 갑니다. 가면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지요. 아마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끝이 나야 인턴십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일흔아홉 번째 인턴일지 中

끝이 났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았다. 4개월간 나는 성장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성장했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민들레 식구들은 “혜민이가 가면 이제 어떡해야하나 걱정이다.”라고 말씀 하셨지만, 나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았다. 붕~ 하고 떠있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그냥 끝났다고 하니, ‘휴식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다. 물론 얼마나 일했다고 휴식을 반가워하나 싶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생활, 고민이 잔뜩 생긴 시간들, ‘자아’를 다시 찾느라 나대로 피나 힘들게 보냈던 터라, 그냥 단순하게 인턴이 끝이 났다는 것은 ‘휴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인턴이 끝나고, 생각이 많으면서도, 머릿속이 텅 비어진 것 같기도 했다. 끝, 끝이 뭘지.... 끝이 나고 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넘쳐나는 가운데, 조금 씩 후에 정리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인턴이 끝이 나고 나는 얼마큼이나 성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경험하기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피나 많은 영향들을 준 것 같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던 시간들이 끝이 났다.

V. 인턴십을 마치고

인턴십 장소를 민들레출판사로 정했을 때 나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다. 그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 어느새 ‘출판사’가 떠올랐고,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출판사 중 ‘민들레 출판사’가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인턴십 장소로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 할 줄 모르는 나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적 없는 나에게 민들레출판사는 이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였다. 다행히도 민들레출판사에서는 나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나는 내 품에 가득 찼 토끼들을 생각하며 부푼 마음으로 인턴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시라고 할까? 인턴십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턴십 시작한 첫 주 만에 느낄 수 있었다. 인턴십을 시작하지 며칠 만에 ‘나는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에만 너무 힘을 쓴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서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목표나 다짐들을 거창하게 써냈지만, 그런 다짐들은 결국 작심삼일이 되었던 것 같다.

처음엔 민들레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는 어색하긴 했지만 설렘이 가득했다. 놀이공원에 놀러간 아이처럼 내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와 먹고 싶은 것들, 그리고 신기한 것들이 한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아 신이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의 다짐과 목표들을 80%는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시작부터 나의 위치를 알려주려 하였다. “너는 아직 키가 안 돼서 이걸 못 타”, “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깐 이걸 못 먹어” 하며 말이다.

내가 간 곳 놀이공원이 아닌 ‘민들레출판사’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민들레 식구들은 처음부터 날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들레 출근 첫 날 만에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은, 그 동안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하는 학생의 모습’ 덕에 높이 올라가있던 코가 민들레 내공을 느끼고 꺾어버려서 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시작부터 경고가 온 것은 괜히 온 것이 아니었다. 인턴십할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이었는지, 인턴십을 하면서 나는 예고했던 대로 많은 산들을 넘어야 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

민들레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도시와의 거리감이었다. 간디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하철 안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 오직 편리함만 생각한 불필요한 것들,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같이 도시의 많은 유혹거리와 당연하다는 듯이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 있으니 ‘더불어 행복하게’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면서 거리감이 생겨났다.

나의 6년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느낀 것들을 부정하고, 배운 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박관념이 생길 정도로 그것을 지키려 애쓰기 시작했다. 생활 속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연을 지키지 않은 행동들, 서로 배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 양심이 콕콕 찢리는 생활을 몇 주하고 나니, 어느 샌가 나는 출퇴근만으로도 몸이 지쳐버리는 지경까지 가버렸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니 학교가 자꾸 생각이 났고, 학교로 도망가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도 되는 그곳이 너무나 그리워졌다.

그러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많이 불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쓰러질까봐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 자신을 괴롭히며 무리를 했던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하기 벅찰 만큼 끌어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될 것을, 나는 불안함에 욕심을 부렸던 거다.

자기 합리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냥 학교에서 했던 대로만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니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고, 이전보다 편안해졌다.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가 필요한 법. 나는 작은 소수가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것들을 잊지 않고 지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 작은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만의 답을 정해보면서 말이다.

다르다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인턴십을 계획할 때 있었던 나의 목표 중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기’가 있었다. 그런데 인턴십을 시작하고 보니 전보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민들레 식구들은 부모님 세대 분들이라 더욱 더 긴장하게 되고, 집 - 지하철 - 회사 - 지하철 - 집만 왔다 갔다 하니 하루의 대화량도 한정적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에 익숙해진 것이다. 혼자에 익숙해지니 말도 더 없어지고,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것 같았고 낮가림도 더욱 더 심해져갔다. 거기다 점차 예민해지기까지 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머리가 복잡했고, 첫인상만 보고는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편견을 가지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다.

그런 상태에서 타 대안학교인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이하 꿈학교)’에 탐방을 가게 되었다. 나의 임무는 사진을 찍고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 학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꿈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며 과거의 나를 빛되어 보게 되고, 오랜 간만에 대안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꿈학교에 있는 또래친구와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면서 ‘내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미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겪고 지나가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똑같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일을 치룬 것이다.

내가 민들레 식구들을 어려워했던 것도 땅을 파는 것에 큰 영향을 끼쳤다. 생각깊이의 차이를 느끼고, 경험치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직접 차이를 느끼고 나니 먼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는 회식을 해도, 이야기를 나눠도 다른 사람들처럼 재미있게 즐기며 웃고 떠들 수만은 없었고, 그래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나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이것역시 나에게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한꺼번에 떨어지는 문제점들을 모두 잡으려고 욕심을 부렸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대화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민들레에 익숙해지면서 한분 한분과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대화 전에는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조차도 모르고 있다, 대화를 하고 나면 ‘아!’하며 떠올랐고,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인터뷰를 나누면서 그 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혼자 끙끙 몇 날 며칠 앓고 있어야 꿈학교 아이들과의 잠깐의 인터뷰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매번 새로운 곳에 갈 때면 이 문제도 함께 따라와 날 괴롭혔었다. 겨우 해결하고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잠깐 내려놓으면, 다시 짠하고 등장해 나를 괴롭혔다. 아마도 이 문제는 평생 날 괴롭힐 것이고, 나는 아마 그 때마다 괴로워 할 것이다. 하지만 매번 나는 나의 목표와 조금씩 더 가까워질 것이고 괴로워하는 시간 역시 짧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결국 익숙해지는 것이다. 단, 다르다는 것에 내가 만든 편견이라는 ‘덧’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이번에 나는 덧에 한번 걸리고 말았다. 낯선 환경이라 경계를 너무 열심히 하다 함정에 푹 빠져버려서 두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역시 경험으로 쌓여 나에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디가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또 한 번 목표와 가까워진 것 같다.

시간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 내가 도움이 되는 걸까?

민들레 출판사에 다니면서 이 질문은 가장 넘기가 힘든 산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들레출판사 식구들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프로들이다. 다들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만약 민들레출판사에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까지 계셨다면 민들레에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했을 것 같다.

민들레에서 내가 한 일을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나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홈페이지 관리도 전문가 분에게 연락만 주구장창 했던 것뿐이고, 글을 쓴 것도 아마 꽤나 손이 많이 가는 필자였을 것이다. 잡일만 너무 많이 줬다고 걱정을 하시곤 했는데, 사실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일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겼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내가 민들레에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버리고 나의 인턴십은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아 초조했던 것 같다. 민들레식구들은 내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나는 내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때 당시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있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최고학년으로써 항상 큰일들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가 인턴십을 하면서 새삼 스레 19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니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라며 나를 자책했던 것이다. 거기다 민들레 식구가 나를 많이 챙겨주고,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나는 보답할 수가 없었던 것에 나에게 화가 났던 것도 있는 것 같다.

한참 후에 깨달았다. 내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애초에 나에게 기대를 하고, 내 능력을 보고 민들레에 오라고 했던 것도 아니니, 나는 차근차근 배우고,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단순한 것을 나는 인턴십이 끝날 무렵 깨달아 버린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지만, 무언가를 배울 의욕과 작은 역할의 중요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민들레 단행본과 격월지에 내가 도움이 되었다고 얼마큼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얼마큼 성장 했을까?

인턴십을 하는 동안, 나는 나의 발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특히나 이번 인턴십을 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까지. 앞에 말한 것처럼 이번 인턴십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었다. 이 과정은 굴곡이 꽤나 많았다. 문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바닥까지 내려가기도 여러 번이었다.

사실 인턴십 끝나고 나서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분명 수없이 밀바닥을 치고, 겨우겨우 올라왔던 것 같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발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뭐라 정의 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막막해졌다. 그때 떠오른 질문이 바로 ‘나는 얼마큼 성장 했을까?’이었다.

이미 길게 설명을 했지만, 많은 고민들은 나를 꽤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고민들의 답은 결국 하나였던 것 같다. ‘나는 나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지켜나가는 방법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인간관계에 대한 해결방법 모두 나는 나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다. 답이 하나였다고 정의를 하니 조금 힘이 빠지긴 하지만, 그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다 다른 고민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던 점이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된 것이다.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나대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나대로’ 말은 이전의 나에게서 쉽게 나올 수가 있는 대답은 아니었다. 그런 내게 인턴십을 하면서 ‘나는 나대로’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힘을 실어준 것이 생겨났다. 그것은 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났다는 것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사실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언가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도움이 되고 싶어. 나는 무엇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 ‘그럼 이것들로 도움이 되면 되겠구나.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끝도 없는 꼬리를 물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이 생겨난 것이다. 꿈도, 열정도 많지 않았던 내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이 생겨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되어주는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민들레에서 나는 참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 나를 표현하는 방법, 대안학교에 대한 나의 인식부터 나의 자잘한 고민들까지. 욕심을 부려 조금 힘들긴 했지만, 결국엔 여러 마리의 토끼를 내 품 가득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짧다면 짧고, 길다하면 긴 민들레출판사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도시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워온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의 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을 지켜나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 스스로가 외로움과 편견을 만들고 그 속에 파묻혀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었고, 길을 잃은 아이마냥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문제와 또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 자신이 ‘편견’이라는 함정에 빠져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거기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며 지냈다. 그 고민의 끝에는 ‘나는 나대로 하면 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기다리고 있었다. 꿈도 열정도 없던 내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인턴십이 끝나고 나니 내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 모진 바람과 추운 나날들을 보내고 열린 열매들이라 달콤할 것 같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맛있게 보이는 열매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지금은 많은 열매들을 키워냈다는 것에 만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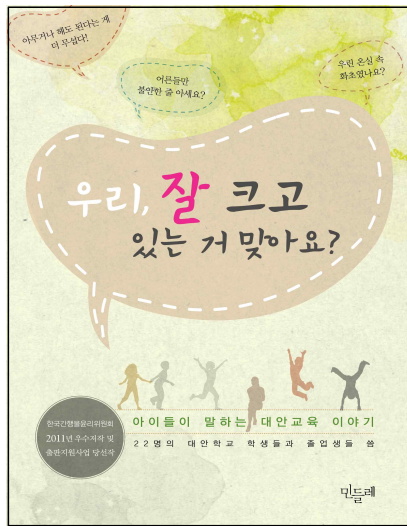
이 정도면 나의 인턴십 성공적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VI. 부록

i. 인턴십 계획서

단체	이름	민들레 출판사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등)	전화02-322-1603 팩스02-6008-4399 이메일mindle98@empal.com, www.mindle.org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8번지
단체를 선택한 동기	<p>첫 번째로는 대안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p> <p>나는,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도 나 스스로가 대안교육에 대해 ‘좋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대안교육을 받는 사람이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 5년간 교육받은 대안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민들레를 찾아보게 되었다.</p> <p>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고 싶었다.</p> <p>간디학교를 졸업하면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만 하고 살게 될 것이고, 지금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기회를 더욱 더 앞으로 해보지 못할 일에 도전하고 싶었다.</p> <p>세 번째, 나의 단점을 고치고 싶었다.</p> <p>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될 것이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분명 나의 단점은 나의 생활에 큰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을 무서워하는 단점을 고치고 싶었다. 그 점에서 민들레는 출판사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책을 만드는 것이기에 충분히 나의 단점을 고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p>	
단체소개	<p>민들레는 ‘교육 곧 학교’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고, ‘삶이 곧 배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애쓰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이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출판과 교육,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짓누르는 지금의 교육 현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p> <p>1998년 8월 출판등록을 하고서 ‘학교를 넘어서’라는 책을 내면서 교육 관련 책들을 꾸준히 내고 있고, 1999년 1월부터는 대안교육 전문격월간지 민들레를 두 달마다 내고 있다.</p>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	<p>1. 사람을 대하는 법 2.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 3.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는 법</p>	
인턴십의 구체적인 계획	<p>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민들레 출판사의 다양한 일들을 맡아보고, 공간 민들레의 활동도 함께 하고, 한번쯤 민들레에 글도 써보고 싶다. 또, 민들레에 있으면서 한 가지 정도 내가 책임 질 프로젝트를 맡아 보고 싶다.</p>	
나의 다짐	<p>1. 대안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기 2. 나의 단점 고치기 3. 사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4.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기 5.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p>	

iii. 내 글이 실린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책 소개



◆대안교육의 빛과 그늘, 쓴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우리 사회에 대안교육이란 말이 등장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대안학교 수는 백여 개가 넘는다.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생겨나면서 부적응 청소년 집합소처럼 바라보던 오해는 많이 줄었지만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오히려 커졌다.

입시교육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정작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그동안 대안학교 교사나 부모들을 통해 대안교육의 성과에 관한 이야기는 간간히 들어보았지만 실제 대안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대안학교를 다녔던 다양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 나왔다. 지금 대안학교에 몸담고 있는 아이들, 도중에 학교를 떠난 아이들, 졸업을 하고 대학과 사회에서 자기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대안교육이 어떤 깨우침을 주었고 또 상처를 남겼는지 생생하게 들려준다.

◆책 흐름

첫째 마당_ 관계, 공동체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그 원칙이 아이들의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밀도 높은 대안학교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기란 녹록치 않다. 친구와 선후배, 선생님, 부모님의 관계 안에서 대안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들려준다.

둘째 마당_ 학습,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

입시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려는 대안학교. 그 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학습하고 있을까. 노작교육, 자연과 예술수업, 여행학습, 인턴십, 자기주도 프로젝트 학습, 해외체험학습 등 교과서도 없이 일반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들을 통해 삶을 바로 세우는 배움을 만날 수 있다.

셋째 마당_ 진로,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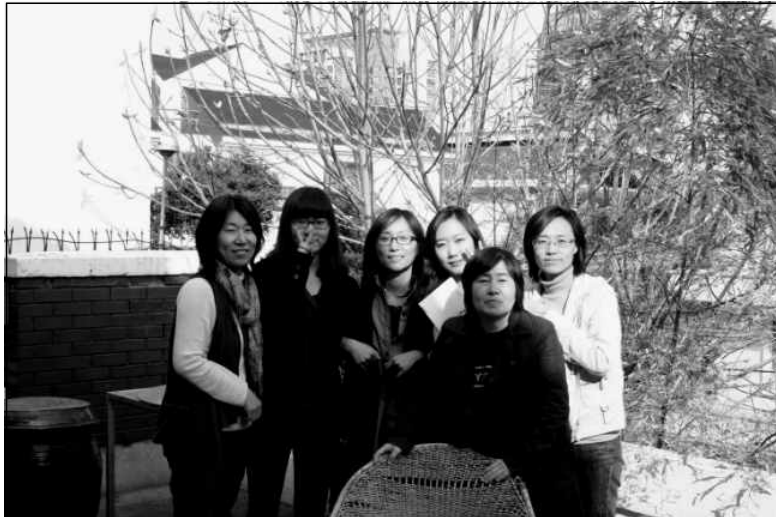
대안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대학에는 갈까?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제 몫을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정작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현실을 마주하며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넷째 마당_ 쓴소리, 우리도 할 말 있어요

대한민국 학생들 중 0.07%의 소수의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닌다. 소수의 인원에도 비주류의 불안감을 안고 사는 아이들에게 고충이 없지는 않다. 어른들이 꿈꾸는 가치관을 주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부모들 똑바로 살라고 따끔하게 질책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고민과 목마름, 어른들을 향한 쓴소리를 생생하게 담았다.

<출처 : 민들레 홈페이지>

iv. 민들레에서 만난 사람들_인터뷰



<민들레 격월지 나온 기념 촬영. 민들레식구들>

민들레 식구 권정민씨와의 인터뷰

Q : 민들레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A : 이전부터 잡지에 관심이 있었고, 또 원래 교육에도 관심이 던 사람이라 교육 활동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민들레라는 잡지가 생긴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반가웠어요. 2004년도부터 민들레 정기구독자가 되면서 민들레를 통해 영감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지냈었죠.

그렇게 민들레와 만나다가 예전에는 친구가 민들레 출판사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도 보고 놀러갈 겸 민들레에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경옥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민들레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게 되면서 독자에서 일꾼이 된 거죠.

Q : 민들레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 처음엔 독자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격월간 민들레 취재&글쓰기&기획, 원고 청탁, 원고 손보기, 서점, 단행본, 광고와 홍보까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자관리, 독자모임만 빠졌죠.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깐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Q : 민들레에 계시진 4~5년 되셨는데, 민들레에 와서 꼭 해보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세요?

A : 독자 모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었죠! 처음에 독자모임을 합시다! 하고 홈페이지에 띄우는 걸 시작으로 모임을 꾸려갔어요.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독자 모임들이 늘어나게 됐죠. 지금은 일이 많아져서 손을 뺐지만, 그 직위를 이어가시는 분이 좋은 분이라 잘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Q : 일을 하면서 뿌듯한 순간 / 힘든 순간

A : 며칠 전에 우이동 취재를 다녀왔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내가 글로 정리하고.. 글로 만들어 냈을 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또, 민들레에 도움이 요청했던 사람들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내가 민들레에서 배운 어떤 영향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그것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 뿌듯하고.

힘들었을 때는, 글이 잘 안 나왔을 때.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옆에서 질책을 하시면 ‘그래 내가 그것 밖에 안 되지’ 하게 될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 같고 그걸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 같죠.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업무를 했을 때는, 내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와 나의 가치가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힘이 들죠.

그리고 지금은 바람개비가 오셔서 내가 크게 관련하지 않고 있지만. 바람개비 오시기 전, 기획하고 청탁하고 이런 저런 일을 했을 때 69호가 가난한 아이들 교육이었어요. 대안교육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글을 쓰고, 만들 때 그 때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밖에서 더 많이 고생하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안교육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서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69호를 만들면서 실제로 대면을 하게 되니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랬죠.

Q :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세요?

A : 민들레가 세상에 이야기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가 되고, 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일을 내가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만, 옆에 지켜봐서 알겠지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많이 지켜있기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해요.

Q :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있으신가요?

A : 그게 참 난 아직 사춘기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길을 가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걸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돌아보기를 하면서 마음의 움직임이나 관계 안에서 자신의 평화를 지키며 그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일이 교육운동을 통해서 막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민을 있을 때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도움이 되었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A : 앞으로 계획은 사실 구체적으로 된 건 없어요. 나 자신에게 도전을 해서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큰 경험이겠다 싶어요.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다는 불만만 계속 이야기 하면서 계속 그냥 젖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건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뭐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요. 나는 좀 고민을 습관처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니깐.

나는 새로운 일에 있어 좀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지식하게 걸어온 것 같아요. 물론 자기 관심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이들 자라면서도 겪을 건 겪어야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랬으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 해봐서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겪을 거 겪는 것 같아요.

Q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점 ★ x 5

A : 별 5개? 박하게 주면 4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일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내가 돌아온 세월을 보면 아주 만족스러워요. 물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많고, 되게 약한 존재이고 그런데, 그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부딪치면서, 다는 아니지만 나 자신을 알게 되던 과정들을 생각하면 긍정적이죠.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아주 만족스러워요. 예전에는 못 만족스러웠지만, 나이도 조금씩 먹고, 나의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돌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Q : 이 일에 어떤 소질이나 적성, 성격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 꼼꼼함. 진짜 책 만들 땐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난 되게 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꼼꼼하지 않은데 불안증은 많은 거지. 그래서 나의 안 꼼꼼함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아무튼 책 만드는데 놓지 말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것이 대개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꼼꼼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Q : 인터뷰가 너무 식상하지 않으세요?

A : 너무 재미있어요. 아시는 분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주는 정말 유머러스해서, 내가 고민을 하는 것의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한 마디에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헤민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완전한 실마리는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맞네, 우주는 참 유머러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질문이 식상하다고 느껴지는 모르겠지만, 나 개인의 대답은 나만의 이야기이니깐.

인터뷰를 하면서 뿌듯할 때가 어떨 때냐면, 내가 했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돌아보니깐 참 그러네요. 인터뷰를 하고 나니깐 나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라고 할 때.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느꼈을 때. 그게 인터뷰를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Q : 이건 민들레 공식질문. 항상 질문만 하시고, 질문을 받아 보신 적을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받아보시라고 물어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나요?

A : 그게 진짜 식상한 질문인데?!^^ 일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내 삶과 관련해서는 가슴이 뛰어요. 사실은 민들레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찾게 되고 알게 된 거라서 세상에 관련 없는 것은 없다고 봐요. 크게 삶 전체를 보면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Q : 잠깐 동안 머무르시는 거지만, 민들레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A : 전에 고양자유학교에 있을 때 민들레에 글을 몇 번 썼었어요. 그렇게 필자로 경옥쌤과 알고 지내다가, 기획회의 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또 이래저래 학교에 있으면서 민들레에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민들레에서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것보단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학교를 정리하고 여행을 다녀왔을 때, 현 선생님께서 민들레에 오래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죠. 근데 현선생님께서 올 초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난 안식년을 쓰러 가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경옥쌤이 그럼 나는 혼자 일을 어떻게 하나하시면서 와서 도와 달라고 하셔서 도와드리게 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쉬어보니까 쉬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지 깨닫게 되었고, 특히나 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10년이 넘게 쉽 없이 너무 고달프게 사신 거에 대한 마음 아픔도 있고. 쉬시는 게 필요하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1년 동안 도와드리게 됐는데, 알겠지만, 현선생님 보다 경옥선생님이 먼저 쉬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해서 여전히 현선생님은 못 쉬게 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들레를 만드는 것을 나의 나머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 한 건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내가 싫어하고, 아주 못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거든요.

Q : 이전엔 대안학교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국어선생님이셨나요?

A :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들을 국어, 수학, 사회라고 나누는 게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와 셈’, ‘우리말과 글’, ‘알쏭달쏭 우리역사’ 이렇게 교과목을 만들었어요. 저는 전 학년 우리말과 글 수업을 가르쳤었고, 나머지는 말과 글과 프로젝트 수업을 담당 했죠.

Q : 담당과목 이름을 바꾸는 것이 크게 다른 것이 있나요?

A : 그게 교사들의 강박관념일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자어를 습관적으로는 쓰지 말자, 꼭 필요해서 그게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국어, 국어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말인데, 한자의 문제점은 ‘국어’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기본적인 한자의 뜻을 모르고서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기호나 다름없는 글이거든요. 근데 우리말과 글은 그 안에 그 말들이 담긴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목을 하나 부를 때에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암기하듯이 외워서 부르는 것 보다는 내가 뭘 배우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 이름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Q : 여행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꽤나 긴 시간동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갔을 때 생기는 공백기에 대한 불안함 같은 건 없으셨어요?

A : 그때는 여행을 가야겠다는 절실함이 컸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은 몸이 아파서 한 학기 동안 휴직을 했던 건데, 휴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렇게 잠깐 아픈 걸 면하고 다시 무언가를 하기에는 휴직을 취한 것 같지 않았어요. 진짜 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계속 여행을 하고 싶었던 터라 여행을 가야겠다고 했죠. 그게 점점 더 확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 가야겠다, 했었는데, 첫째를 잠깐 데리고 갈까? 하다가 밑에 두 명도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갈까? 하다가 그럼 애들 다 데리고 가는데 좀 길게 갈까? 그럼 계속

움직이는 건 힘들겠다, 그럼 한곳에 오래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그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겠다, 하는 막연한 스케줄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케줄이 완벽하게 있는 게 되게 답답한 성격이라 서요. 나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하고 시작했던 여행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나마 애들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Q : 이제 두 번째 민들레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하기가 조금 이렇지도 모르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큼 있으신 것 같아요?

A : 저는 원래 글을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제가 도와드리죠, 할 수 있을 만큼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던 거라서 이것 때문에 크게 고민이 되고 너무 어렵고 그렇다기보다는 재미있는데, 여전히 저는 제 글을 쓰는 게 더 좋긴 해요.

이건 다른 사람의 글을 다듬어 줘야 하고, 우리가 기획한 것에 맞게 글을 배치해야 하고, 잡지의 시선으로 계속 글을 봐야하는 것이 어쩔 때는 살짝 불편하기도 해요. 자유자제로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대체로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랑 타협해야 하는 지점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시작한 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Q : 일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일과 삶은 다른 것 같아서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세요? 만점 ★ x 5

A : 별 다섯 개 다 하는 건 좀 그런가? 근데 사실 저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남들보다 좋은 조건이었다거나 실패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 성격상 제가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하는 편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야 하고 나한테 우기는 거예요. 남들한테도 막 우겨요. “이게 가장 최선이었어.” 하고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최선이 아니었겠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냥 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졸이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일을 치르고 수습하는 스타일이라, 일을 치를 때는 얼마나 열정적이겠어요. 일을 치를 때까지는 내가 막 에너지를 끌어 올려서 치루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치르고 나면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걸 못 견뎌서 늘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텐데’ 하고 찾고 다니고 살아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Q :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 라는 건 있을까요?

A :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롤모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다른 사람의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이 만들어놓은 어떤 삶을 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Q : 민들레 공식질문.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A : 이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따라온 것 같아요. 그 일들이 조금씩 모양이 달랐지만,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의지 가장 처음 선택한 일이 고등학교 서클을 하는 거였어요. 교집편집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학교 안에서 자기네들의 공간을 만들

어서 책을 만든다고 온갖 짓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연극을 했던 그런 일들, 그 후에 방송작가를 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보았던 것.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어린이 서점에서 아이들과 책 수업을 함께 하면 글을 쓰다가, 우연한 기회로 고양자유학교에 갔다가 다시 글을 써야겠다면서 돌아가려다가 민들레가 잠깐 끼어들어서 잠깐 민들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큰 흐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글을 쓰면서 바탕이 되고 소리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내가 원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따라왔고,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아이들의 책을 내는 게 정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글을 쓸 때에는 정말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Q :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 음, 저는 헤민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다, 여자로 사는 게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림돌이 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계속 핑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는 여자니깐”는 말을 되게 못 견디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피를 부리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는 저 스스로 그걸 카드로 내밀면서 도망쳤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되게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편리한 카드였었어요.

도망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도망칠 때 ‘내가 여자니깐’이라고 하고 도망치는 건 안 좋은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민도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때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면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걸림돌이 될 때 사회에서 “니가 여자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싸우는 건 쉽죠. 근데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걸림돌이 되는 것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사는지, 여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를 훈련시켜나가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근데 여자가 여행을 실제로 가는 것에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위험한데’, ‘이러한데’ 같이 사회에서의 습과 주변에서 만들어놓은 습을 생각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뚜벅뚜벅 걸어 가면서 자신만의 습을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남자애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 조언이 여자들에게는 아직 필요한 것 같죠? ‘여자니깐 어떡하지’가 아니라 ‘여자니깐 뭘 더 챙겨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다빈의 인턴십 빈턴쉽

한다빈

목차

I. 들어가면서

- 1) 인턴십 준비과정
- 2) 인턴십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가짐

II. 나의 인턴

- 1) 퍼포먼스 반지하
 - 1-1 활동단체소개 및 활동기간
 - 1-2 이곳에서 인턴을 하기까지
 - 1-3 무엇을 했나?
 - 1-4 이곳에서 배운 것과 느낀 것
- 2) 성미산마을극장 지역사업팀
 - 2-1 단체소개 및 사업소개
 - 2-2 이곳에 오기까지, 이 단체를 선택한 이유
 - 2-3 무엇을 했나?
 - 2-4 이곳에서 배운 것과 느낀 것
- 3) 인턴, 그리고 사회생활

III. 4개월의 길었던 인턴십을 마친 후

I. 들어가면서

1) 인턴십 준비과정

나의 인턴십 준비과정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조금 어영부영? 했다. 본의 아니게 필리핀을 늦게 다녀오는 바람에 인턴십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것 도 있었지만 그 것 보다는 내 스스로가 인턴십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다른 친구들은 일찌감치 인턴십활동을 할 단체와 연락하고 단체를 확정지을 시기에 나는 돈 벌고 놀기 바빴다. 그렇게 멋모르고 놀다가 조금씩 사태의심각성을 느끼고 '자 이제 인턴십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3월 달 이었다. 대부분이 자기가 인턴십을 하게 될 단체와 연락을 마친 상태이고 몇 명은 이미 시작한 놈들도 있었다. 아마 요맘때쯤에 마음잡고 인턴십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 담당선생님이랑 상담하기도 하고 졸업생들이 해왔던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리스트 업 해보기도 하고 이미 인턴십을 경험했고 마친 졸업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인턴십을 진행 해볼 단체를 찾아보는 도중 생각해보니 나는 딱히 인턴십으로 해보고 싶은 뚜렷한 관심분야가 없었던 것 같다. 관심분야가 없다는 것은 인턴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걸림돌이었다. 다른 놈들은 인권, 평화, 음악 같은 관심분야가 뚜렷하여 그 분야에 관련된 단체에 연락해 인턴십을 진행하면 되지만 당시 나로 써는 '나는 이 것 과 관련된 단체를 갈꺼야' 라는 뚜렷한 관심분야가 없어서 안 그래도 빠빠한 일 정속에서 먼저 내가 해보고 싶은 관심분야를 찾아본 다음 그 분야의 관련된 단체를 찾느라 다른 친구들보다 인턴십 준비과정이 더 늦어지고 힘들었던 것 같다.

2) 인턴십 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가짐

몇몇 학부모님들이 인턴십에 대해 말하시길 '이 나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건 정말 좋은 것 같다', '나이 쯤만 먹으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간디6년 교육중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등등 인턴십에 관한 말들을 자주 들곤 했다. 생각해보면 간디6년 생활을 마무리 짓는 프로그램이라고도 생각되고 졸업 후 사회에 나갈 시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점에서 늦게나마 이번 인턴십에 동기부여가 되어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II. 나의 인턴

1) 퍼포먼스 반지하

1-1. 단체소개 및 단체의 이념

인천시 창영동에 위치한 퍼포먼스 반지하는 2001년 지역민들의 삶의 기반인 집을 기록하는 작업과 현실을 비판 하는 퍼포먼스 공연을 하면서 결성된 '공존을 위한 공공문화 표현집단'이다.

오랜 시간 청소년 대안교육 활동을 해왔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교육 받은 아이들이 졸업해도 소용없는 것을 보고는 '세상이 변하려면 지역사회가 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후 마을 어르신들, 마을주민들과 지역민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을 환경작업(벽화), 청소년대안교육 .지역문화 기획 및 전시 작업을 을 하는 지역문화단체이다.

반지하가 하는 모든 공공문화 활동은, 마을사정을 모른채 '잘 꾸며놓으면 된다' 는 식이거나 예술적 능력만 뽐내는 활동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녹여내고 담아낸 활동들이다. 퍼포먼스 반지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할때 '먼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했고, 그리고 나서 마을 꾸미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단지 동네 입구에 '아름다운 마을' 이라는 표지판만 돈 많이 들여 그럴싸하게 붙여놓고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여느곳과 달리, 주민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진짜마을'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이다.

<네이버 블로그 '공동체미술을 가꾸다.' >

한쪽공간에는 자율모금방식으로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공간에는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등 여러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운영하고 있다.

<활동기간>

4월 1일~~ 4월 30일

1-2. '퍼포먼스 반지하'에 오기까지?!

때가 많이 늦은 3월 덕산카페에서 담당선생님과 많은 시간의 상담 후 어렵게 찾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턴십으로 해보고 싶은 관심분야는 봉사, 기획, 문화(지역문화?) 였다. 그 분야에 맞는 단체를 모색하던 도중 쌤이 '아!! 맞다' 이라시면서 추천해준 곳이 퍼포먼스 반지하였다. 작년에 몇몇 친구가 무빙스쿨을 다녀온 적 있고 그 곳도 간디와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였다.

대충 이러저러한 설명을 듣고 퍼포먼스 반지하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했는데도 당체 여긴 뭐하는 곳인지도 알 수 없었다. 대충 홈페이지 보니 꼬맹이들 교육하고 벽화도 그리고 마을 카페도 운영하고 근처에 여고도 있고 나름 좋은 곳 같았다. 이곳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 같은 것도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뭐 일단 해보면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배울 것들이 생기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곳 '퍼포먼스 반지하'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맘을 굳게 먹고 바로 연락을 드렸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퍼포먼스 반지하에 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무조건 환영이라고 하셨다. 와우 뒤 이어 '나의 청소년기가 준 삶의 질문'이란 주제로 레포트를 써오는 것과 그 작성한 레포트에 대해 얘기해보는 간단한 면접이 있다고 말해주셨다. 나는 면접을 위해 레포트를 쓰는데 아니 이게 무슨 한글자도 못쓰고 있었다.

그 쪽에서는 당연히 대안학교를 나왔고 여러 경험을 해봤을 테니 자기 자신에게 여러 질문을 해봤겠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자기 자신에게 질문? 아니 뭐 그런 질문방법이 존재했는지도 그 날 알았다. 무튼 그 주제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필리핀여행, 무빙스쿨, 학교생활에서 그 자기질문? 그 비스무리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해 나름 열심히 작성했었다. 다 쓰고 완성시켜보니 그 동안 간디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정말 좋은 시간 이였고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쯤 이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 할만한 주제인 것 같다.

완성된 레포트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며칠 뒤 '퍼포먼스 반지하'에 찾아가 여러 선생님들과 그 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 곳 쌤들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튼 성공적인 면접 후 인턴십 확정.

1-3. 무엇을 했나??

- 외부교육프로그램 참가 및 보조
- 마을카페지기

- 작은 마을사진 에세이집 만들기
- 여러 마을일
- 방과후 아이들 미술보조 등등

*** 나의하루일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격주)
오전 10:00~ 12:00	마을카페 오픈준비, 오전회의					
12:00~ 13:00	점심준비 및 점심시간					
오후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작은나무숲 (외부교육)	우리들이 그리는마을 (외부교육)	마을사진집 만들기	어르신들을 위한상영회

1-4. 작은나무 숲을 노래하다. (외부교육프로그램)

<작은나무, 숲을 노래하다>는 인천시 인주중학교 1~3학년 약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단어외우기 수학공식외우기 같은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부’와는 거리가 먼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을 나와 이웃, 사회와 연결 지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스스로 질문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 보는 것, 지금 이곳에서 소통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것’같은 대안적인 주제로 강의 및 직접활동을 위주로 주 1회 약 3시간 씩 진행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 대부분이 소위말하는 문제아 (?)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 (?)

처음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 수업에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수업보조 진행과 형으로써 몇몇 친구들의 돌발행동??을 케어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첫 수업 후 역할이 조금 바뀌었다. 솔직히 나이차도 별로 나지 않는데 교사로서 수업에 참가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고 아이들도 조금 거부감을 느낄까 싶어서 나도 아이들과 같이 학생신분으로 수업에 참가하여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며 같이 배우는 입장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이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일단 일반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이런 대안학교적인?수업이 정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에 조금 신기했고 30명의 학생 중 반 이상이 담임선생님의 추천?강요? 로 들어 온 아이들이 많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신청했다는 것도 신기했다. 몇몇 친구들은 ‘이걸 왜 해요?’, 열심히 준비해온 수업이 끝나갈 무렵 ‘우리 맨날 이렇게 놀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대부분 이 수업에 대해 낯설어 하는게 보였다.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5년째 간디학교에 다녔던 나도 이런 수업은 아직도 어색하고 못하겠는데 애네 들은 어 뭘까 라는 생각도 했다. 공부한답시고 이런 수업 하는 건 다들 처음일 꺼 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문제아 (?) 동생들과 만나고 그 들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다가왔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진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바라 보기에는 이 친구들은 학교라는 굴레 속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고 공부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싫고 그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탈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굳이 이 친구들 말고 나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

거나 생활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면 일탈을 하곤 한다. 너무 잦은 일탈은 분명 옳지 못한 일이지만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문제아 라는 낙인을 찍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학교의 행동도 옳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들이 그리는 마을(외부교육프로그램)

<우리들이 그리는 마을>은 초등학교 1~2학년 꼬꼬마아이대상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춘 재미있는 미술활동을 매개로 공동체적 자존감을 심어주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미술보조 활동을 주로 하였다. 어린아이들답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만 몇몇 수업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그 외 활동들

1) 마을사진에세이집 만들기

딱히 일정이 없을 때 이 곳 반지하 도서관에 있는 사진관련 책들을 보기도하고 바로 옆에 있는 마을사진공방에 자주 놀러가다 보니 자연스레 사진에 관심이 생겼다.

DSLR사진을 배워보기 위해 카메라도 구입하고 오프라인 사진강의도 들으며 배우던 중 반지하에 무얼 남기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집을 만들게 되었다.

2) 방과후 미술 보조

학교시간이면 반지하에는 많은 초등학교생들이 놀러온다.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더욱더 재밌고 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도구로부터 안전하게 미술을 하고 갈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었다.

3) 마을카페일

퍼포먼스 반지하 한쪽공간에 위치한 카페 ‘풍경’ 이곳은 자유롭게 마을사람들이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차와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찾값은 자율모금제로 받으며 카페에 모든 운영은 그 모금으로 운영된다.

나는 할 일이 없는 시간에는 주로 이곳에서 커피원두를 볶거나 차, 커피를 내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 곳 이용하는 방법소개를 해드리는 카페지기로 활동하였다.

4) 마을일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시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먼 주로 반지하로 직접 오셔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마을관계망이 워낙 잘돼있다 보니 전화가 온다. 그리곤 나는 출동.

내가 있을 시기에는 주로 지붕 보수나 집내부 수리 같은 살고계시는 집 관련한 마을일들을 주로 한 것 같다. 이 외에도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독립영화 상영 및 지역다큐 관람, 반지하에 놀러오는 학생들 마을소개 같은 활동들을 하기도 하였다.

활동을 마치고....

이곳에서 약 한 달 정도 인턴십을 하면서 주로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나보다 어린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거의 나보다 어린친구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던 나로써

는 이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나를 받아들이고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나의 행동이나 성격을 바꿔보며 뭐가 더 아이들에게 더 거부감 없이 다가 갈 수 있는지 연구도 해보기도 한 것 같다. 나름의 연구 끝에 아이들이 나에게 쉽게 마음을 열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보는 것이다. 먼저 다가가다 보면 뭐 내가 키가 커서 싫다거나 생긴 게 무섭다는 놈들 외에는 쉽게 나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다. 나에게도 이런 의외의 면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었던 시간이었다.

또 이 곳 퍼포먼스반지하에 있는 기간에는 딱히 할 일이 없는 시간이 쯤 있었다. 초기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이지 몰라서 눈치보며 웹서핑이나, 어떤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짓이 지겨워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여러 사람들에게 ‘저 할 일 없으니 일좀 주세요’ 라고 말씀 드렸다. 그랬더니 적은 인원이었지만 나하나 때문에 작은회의가 소집 된 적도 있다.

그 회의에서 여러 쌤들이 나에게 준 답은 이곳에서 내가 그 동안에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해보라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인턴십은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 정해진 일정들 안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로써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생각하게 되어 마을사진집 만들기, 마을 어르신들과 소통하기등등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해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런 작은 프로젝트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일이 없어지고 당당한 뒷모습으로 칼퇴근을 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의 한달 간은 인턴십에 대한 관념을 깨준 시간이였고 여러 방향으로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배움의 자세를 갖추게 해준 시간이었다.

2) 성미산마을극장 <지역사업팀>

<활동기간> 5월 9일~ 8월 10일

2-1 활동단체소개 및 사업소개

<성미산마을극장>소개

2007년 겨울 시민단체 ‘나루’ 나루 가 성미산 마을로 이사를 할 때 그 터전을 마을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공간을 내놓았고, 그 때 예전부터 극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쟁가(현 성미산 마을극장 장)의 추진으로 2009년 2월7일 시민단체 나루 지하에 생겨났다. 전문 예술인부터 마을의 작은 동아리 까지, 연극부터 춤, 영화상영, 마임, 음악, 전시, 소소한 마을 이벤트까지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CI프로젝트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마을로>소개

* CI = Community Impact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주최하고, 마포복지네트워크 ‘앗싸’가 진행하는 CI프로젝트 <나에서,우리로 우리에서 마을로> 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복지사업 프로젝트로써 마포지역에 거주하는 있는 청소년 (초등 4학년~중2까지)들을 대상으로 총 4가지 {1. 가:歌 (노래와 합창), 2. 무:舞 (발레 or 댄스), 3. 악:樂 (기타 (Guitar), 4. 극:劇 (연극)) 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 하여 아이들에게 평소 해보고 싶었던 예술 활동을 직접체험하고, 배우며 관련공연도 보고 마지막에는 그 동안 배운

것 들을 토대로 한 자리에 모두 모여 신나는 공연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음. 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지속하며 예술 활동 교육을 매개로 청소년들의 및 내적강점 발굴 및 자존감 확립 과 지역 문화자원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웃 간의 관계망형성을 목적으로 함.

예술교육프로그램 말고도 해당아동 들을 대상으로 캠프, 인문학특강, 비전워크숍 등등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2-2 이곳에 오기까지, 이 단체를 선택한 이유

1차인턴이 끝나고 2차인턴을 할 단체를 찾던 도중 1차인턴과의 연관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성미산마을에 가보기로 정했다.(성미산마을에 많은 간디학교(산청,금산 포함)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소로 많이 찾는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행여나 다른 친구가 먼저 인턴십을 진행할까 걱정하며 몰래 염탐하던 곳 이었다.)

그 중에서 성미산마을극장을 알게 되었다. 그 곳은 사회적 기업이며 단지 영화만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 아니고 여러 프로젝트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먼가 재밌는 일이 많을 듯한 냄새를 풍기는 단체였다. 조금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꼭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무작정 연락, 통보 메일없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짱가(마을극장 대표) 에게 메일로 '저는 이러이러한 학생인데 성미산마을 극장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 ' 하고싶은 이유와 함께 연락을 드렸더니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자기소개서를 보시곤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곤 약 30분? 정도 뒤에 문자가 왔다. '월요일날 보자꾸나'. 그리고 다음날 나는 성미산마을극장의 지역사업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성미산 마을 극장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1차 인턴과 비슷한 성격과 연관성을 가진 곳을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한 연관주제는 지역사회이다. 성미산 마을 극장은 퍼포먼스 반지하 같이 더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힘쓰는 지역이기 때문이고 지역단체 특성상 그 지역단체의 연결망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볼 수도 있고 한가지 장르에 고정된 프로젝트 말고도 다양한 장르의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

2-3 무엇을 했나

- 성미산 마을축제 홍보부스

5월?일 성미산마을 축제가 있었다. 당시 많은 지역 주민들이 CI프로젝트에 대해 잘모르고 있어서 <CI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요물조물 모자놀이>란 타이틀로 홍보부스를 하나 얻기로 하여 여러 여러 CI 프로젝트를 알릴수 있는 홍보자료준비와 축제당일 진행할 '모자놀이' 란 프로그램도 오랜 시간 준비하여 축제 당일 부스에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모자놀이 방법설명 및 CI프로젝트 소개, 지지서명을 받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 홍보물만들기

1. 뉴스레터

성미산마을과 관계망이 닿는 지역주민들, 성미산마을 축제 때 지지서명을 해주실분들, 여러 공공기관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될 CI프로젝트 소식지,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발송하기도 하였다.

2. 영상물

사업관련 모임 및 행사의 상영을 목적으로 4가지 예술교육장르 춤,합창, 기타, 연기의 관한

여러 영상물을 한데 모아 편집하여 아이들용(와 이거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흥미유발))과 어른들용 (이미 다른 곳에서 실행되었던 CI프로젝트와 비슷한 취지의 사업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각 장르들을 하므로써 아이들의 변화 및 좋아지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물)을 만드는 업무를 맡았었다.

- 문건작업

위와 같이 사업관련 모임 및 행사에 쓰일 용도로 ci프로젝트관련 한글문서들을 모아 PPT 파일로 만들고 여러 간단한 편집을 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 사업관련 회의참석 및 기록

이 곳 CI프로젝트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것이 회의이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특성상 여러 회의가 정말 많은데 대부분의 사업관련 회의에는 다 참여하여 CI프로젝트 실무자 입장으로 회의를 참가하기도 하고 간단히 요약기록을 하는 일을 맡기도 했었다.

- 사진기록

사업관련 모임 및 행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담당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 캠프

ci프로젝트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자연속에서 청소년 및 관련자 전체가 함께 모여 창의적 예술활동 경험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성취와 교감 및 긍정적 관계형성을 도모 한다.’ 라는 목적으로 8월 9일~10일 캠프가 있었다. 주 업무는 아니었지만 캠프기획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한도 안에서 도와드리고 캠프에 참여하여 아이들을 보조하고 사진기록도 남기는 일을 맡았다. 사업특성상 아이들의 수가 많다보니 선생님 한 분당 8~10 명의 아이들을 맡았다.

나도 아이들을 맡았는데 나는 뭐 별거있겠어? 초딩 들인데 알아서 기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여 했는데 아이들을 통괄하며 느낀점? 배운점? 그런거 없다. 그냥 말 진짜 더럽게 안 듣더라.

2-4 이곳에서 배운 것

앞서 말했듯이 사업특성상 회의가 정말 많다. 인턴이 끝난 지금 생각해보면 왜 소리랑(CI프로젝트대표)이 높으신 분들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회의 장소에 날 왜 자주 데려가는 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회의 장소에서 그냥 조용히 회의요약 기록에 집중 하고 있으면 소리랑이 기록은 그만하고 각자 하는 말들을 잘 들어봐 라고 하셨다. 펜을 내려놓고 귀귀울여 들어 보았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러 참석자 분들은 논리적으로 각자 자기생각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었고 완벽한 자기주장과 논리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데 모아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본 것이다.

나로써는 그런 회의가 정말 새로웠고 신기했다. 이런 회의를 자주 참석하다보면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대표님이 회의에 갈 기세가 보이면 나도 짐을 싸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며 꼬박꼬박 여러 회의를 쫓아다녔다.

그렇게 여러 회의를 다니며 느낀 것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목소리(자기 주장과 논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이다. 누구나 각자의 그 동안 봐왔던 회의라고 해봤자 어

른에 비해 논리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나의 또래들의 회의에 참여한 기억뿐이 없다.

이런 회의에서 나의 역할은 그냥 조용히 전체의견에 수긍하는 것 이것 뿐 이었다. 내 생각과 논리를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단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런 행동이 어리석은 것 이었던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이제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 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생각과 논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나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

3) 인턴, 그리고 사회생활

이번 인턴ships을 통해 약 4개월 가량 한없이 작디작은 19살의 나이로 사회에 몸을 담가 보았다. 사회생활 속에서 고학년이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신입생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일을 하면서 조금은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배움과 보람이 있는 시간이였다.

나의 인턴ships은 내가 체험한 작은 사회였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고 정해진 시일까지 맡은 일을 마쳐야 되는 것, 처음에는 출퇴근 이라는 말조차 뭔가 오그라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적응이 되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 그러곤 생각한다 ‘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이런 사회경험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무수히 많은 것 들을 얻게 된 것 같다.

III. 4개월간의 인턴ships을 마친 후

힘들 것만 같았던 4개월간의 인턴ships 기간이 벌써 다 끝났다. 나에게 있어 인턴ships 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하고 다시 한 번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준 고마운 기간이였다. 또한 인턴ships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조언이 되었다.

4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힘든 적도 많았고 좋았던 적도 많았다. 처음 배우고자 하는 것 없이 막연하게 인턴ships 장소를 찾아갔지만 그 곳에서는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반지하에서는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경험이 나의 생각을 더 넓혀주었고, 성미산마을극장은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인턴ships 기간 동안 내가 몸소 체험한 것들은 잊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서도 이번 인턴ships은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찾지 못했었는데 이번 인턴ships을 통해 조금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였다. 이 보고서안에 나의 4월 간에 배움이 다 실려있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그리고 빈틈없이 아닌 알이 가득찬틈없이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교사다

* 대안학교 교사로 지낸 한 학기 (간디어린이학교 인턴교사체험기)

김 현 준

목차

I. 인턴십 시작 전

- I-1. 간디 어린이학교로 결정하게 된 계기
- I-2. 인턴십 시작 전 내가 바라본 간디 어린이학교
- I-3. 인턴십 시작 전 나의 계획
- I-4. 인턴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II. 간디 어린이학교 인턴십

- II-1. 간디 어린이학교는?
- II-2. 인턴교사란..
- II-3. 내가 진행했던 수업
- II-4. 간디 어린이학교에서의 나의 역할
- II-5. 인턴십 동안의 나의 생활 그리고 평가
- II-6. 어린이학교 인턴십을 통해 느낀 점

III. 간디대안교육센터(간디대학원)

- III-1. 간디대안교육센터(기초과정)를 시작하게 된 계기
- III-2. 기초과정 12기에 대해
- III-3. 기초과정을 통해 느낀 점

IV. 부록

- IV-1. 수업평가서
- IV-2. 주간별로 본 어린이학교 일정
- IV-3. 기초과정 신청 지원서
- IV-4. 기초과정 분들과 인터뷰
- IV-5. 기초과정 수료 작품

I. 인턴십 시작 전

I-1. 간디 어린이학교로 결정하게 된 계기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제를 정하고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다. 나는 마땅한 인턴십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내가 잡은 주제는 여행, 교육, 영어, 봉사였다. 나는 항상 여행을 하고 싶어 했고 여행을 통해 자유로운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에 여행이란 주제를 먼저 잡았고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나의 관심사였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고 더불어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막연히 교사라는 직업을 선호하던 나는 간디학교에서 영어라는 과목의 매력을 느끼고 영어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었다. 3학년 때는 영어교육에 대해 논문을 썼었고 이번 인턴십에서도 내가 좋아하던 교육과 영어랑 관련 있는 인턴십을 하고 싶었다. 또 간디학교에서 몇 번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누군가를 위해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어서 주제와 관련 있는 인턴십 장소를 찾고 있었다.

주제와 맞는 장소를 찾다보니 NGO단체를 알게 되었다. 물론 NGO단체도 내가 원하는 완벽한 인턴십 단체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다. 나는 NGO단체 중에서도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단체를 알아보았다. 내가 알아본 단체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등이다. 총 10개가 넘는 단체를 알아보며 내가 NGO단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지 연락하고 찾아갔었다. 많은 공금증을 가지고 몇몇 단체들을 직접 찾아갔었는데 NGO단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했다. 월드비전과 같은 규모가 큰 NGO단체 같은 경우 대학생도 잘 안 받을뿐더러 자원봉사로 가는 경우 고된 일만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빠르게 NGO단체를 통해 해외봉사 가는 계획을 포기했다. 다양한 곳을 알아보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나였기에 더욱더 앞이 캄캄했다.

당장 인턴십 장소를 정해야 하던 찰나에 나는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나의 멘토쌤이신 상미쌤께서 간디 어린이학교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상미쌤께서는 어린이학교에 남자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들어 나에게 추천해주셨다. 남자교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린이학교에서는 공동체놀이와 같은 활동적인 수업을 진행할 교사가 부족했고 남자아이들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해서였다. 처음에는 내가 교사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고민하다보니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았다.

처음 홈페이지로 본 어린이학교는 정말 작은 학교였다. 작지만 대단한 학교라고도 생각했었다. 조그마한 학교에서 제법 간디학교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되지 않았다. 간디 어린이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나는 바로 간디 어린이학교에 연락을 드렸고 간디 어린이학교에 직접 가서 자세한 설명도 듣고 공금증도 풀기로 결정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던 곳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서로의 의견을 더 나누기 위해 나는 1박2일로 간디 어린이학교 탐방을 다녀왔었다. 처음 받을 디딤 둔철은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다. 체천간디학교보다 훨씬 더 외진 곳이었다. 또 시골다운 시골이라서 그런지 공기는 맑았고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다. 긴장되는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어린이학교에 들어섰다. 학교를 처음 봤을 때 정말로 작고 아담한 학교라고 생각했었다. 아이들은 나를 신기해하며 바라보았고 다가오지는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순수하고 예쁘게만 보였다.

쌤들은 나를 가족처럼 맞이해주셨다. 쌤들께서 친절하게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

했다. 교무실과 교실, 식당, 기숙사를 천천히 둘러본 뒤 교무실에서 쌤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디 어린이학교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듣고 내가 궁금한 것들도 질문하고 답해주셨다. 내가 만약 어린이학교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쌤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정리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린이학교가 마음에 들었고 나의 인턴십 장소로 결정하고 싶었다. 1박2일을 즐겁게 보내다 온 나는 어린이학교로 마음을 굳혔다. 쌤들과 아이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나의 1박2일은 인턴십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준쌤으로 불리게 될 나, 규모가 작은 학교, 아담한 나의 생활공간, 유일한 남자교사, 깨끗하고 밝은 아이들, 친절하고 자상하신 쌤들, 가족 같은 분위기, 아름다운 주변 환경 등 이곳에서의 생활도 기대되었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지내던 내가 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대되었다. 그리고 내가 간디 어린이학교에 인턴교사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간디 어린이학교에는 남자교사가 한명도 없기 때문이었다. 또 어린이학교에서는 남자교사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고 남자교사 뿐만 아니라 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래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한두 분씩 어린이학교에 인턴교사로 가시는데 운이 좋게도 2011년도 1학기에는 대학원과정이 바뀌어서 내가 인턴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I-2. 인턴십 시작 전 내가 바라본 간디 어린이학교

언젠가 한번 산청에 간디 초등학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간디 초등학교, 게다가 시골에 위치해 있는데 아이들은 통학을 하는 것일까 기숙사생활을 하는 것일까 많이 궁금했었다. 초등 기숙형 대안학교유지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었다. 처음 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디 어린이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간디 어린이학교 홈페이지는 다음 카페로 되어있다. 다른 간디학교는 다 일반적인 홈페이지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린이학교만 카페로 되어있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카페라서 그런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았다. 또 카페회원 수도 많은 것을 보고 어린이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사진으로 본 어린이학교 생활은 너무나도 즐거워 보였다. 자연을 벗 삼아 놀고 활동하는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쌤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도 편하고 좋아보였다. 학교 시설은 20명의 아이들과 5명의 쌤들이 지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다. 각 건물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또한 탄탄했다. 직접 체험해보기 전,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내가 인턴교사로 지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I-3. 인턴십 시작 전 나의 계획

나의 인턴십 장소가 간디 어린이학교로 결정되고 나는 교사가 되는 상상을 계속 했다. 먼저 나는 독립하기를 원했었는데 어린이학교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다. 가장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다. 혼자 지낼 계획을 세웠고 학교 일정을 참고해서 나의 일과를 구상했다.

학교 일정을 제외한 나의 자유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학교생활과 더불어 외국어공부와 제과제빵, 타 수업참석, 독서 등을 계획했다. 또 평일과 주말 계획을 분리했었는데 평일에는 학교일정 중심으로 생활하고 주말에는 한 주 점검하기, 영화보기, 진주구경, 산청과 원지 등 주변 관광지 둘러보기, 지리산종주, 산청고 아이들과의 교류, 경남지역 여행하기 등 주말에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미리 계획을 했었다.

나의 마지막 목표는 교사체험기를 쓰는 것이었다. 보고서와는 다르게 내가 지내왔던 5개월 동안의 생활들을 사진과 나의 이야기로 에세이처럼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또 하나의 계획은 체계적인 독서였다. 어린이학교로 확정된 후 내가 맡을 과목이 정해질 무렵 저녁프로그램

램으로 진행되는 독서활동 보조교사를 맡게 되었다. 독서목록을 세우던 중 쌤들한테 추천받는 방법이 떠올라 모든 쌤들에게 2~3권씩 추천을 받았다. 쌤들의 도움으로 목록이 완성되었고 목록에는 50권 정도의 책이 나열되었다. 독서와 마찬가지로 일지 쓰고 기록하기와 같은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꼭 해야 하는 과제들도 실천하기 위해 다짐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I-4. 인턴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인턴교사가 되기 위한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다. 먼저 인턴십 시작 전 전체적인 점검을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어린이학교에서 필요한 일이 일치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고 내가 가르칠 과목과 내가 맡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조사와 공부가 필요했다.

나는 내가 공부해야 하는 교과목을 준비하며 수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처음 써보는 수업계획서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또 수업 중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았는데 제천간디학교 쌤들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졸업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나의 부족한 것들을 점점 채워갔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고민했는데 친해지는 방법부터 학교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동아리까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어린이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나는 현장에서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교사이기에 더더욱 준비할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겨울방학을 인턴십 준비기간으로 보내고 3월 1일 간디 어린이학교로 입교했다.

II-1. 간디 어린이학교는?

간디 어린이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을 철학으로 금산, 제천, 산청에 중고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간디학교의 자매학교이다. 2009년 3월에 개교한 기숙형 대안초등학교이고 원래 산청중학교가 위치해있던 경남 산청의 둔철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최고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2011년 간디 어린이학교에는 3,4,5,6학년(4년 과정) 총 20명의 학생과 대표교사, 행정, 학생부, 생활교사, 조리교사, 인턴교사 까지 7명의 교사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강사 분들은 3명이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3년 과정(4,5,6학년)이었는데 이번년도 새롭게 4년 과정으로 바뀌었다. 내년에는 2학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1학년도 받고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간디 어린이학교 입학금은 각 한명마다 다르지만 4학년 기준으로 500만원이다. 학년이 낮을수록 입학금이 비싸고 학비는 기숙사비 포함 70만원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식구총회, 간디문화의 날 그리고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이 있고 학급회의, 동아리 등 자치활동이 있다. 수업은 자립교과, 감성교과, 지식교과로 이루어진다. 교육목표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아는 아이이다.

또한, 간디 어린이학교는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이므로 중학생이 되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학력인증이 된다. 중학교 진학은 추천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특별전형을 거쳐 자매학교인 산청간디중학교, 금산간디중학교로 진학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활은 월요일 오전에 입교하고 금요일까지 기숙사생활을 하며 학교일정에 맞춰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친환경 제품과 생협 먹거리, 유기농 간식을 항상 사용하며 핸드폰, 게임기 등 전자제품은 쓰지 못하고 돈을 사

용할 일이 없으므로 지갑과 핸드폰은 맡기고 생활하게 된다.

간디 어린이학교 아이들은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수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교과 과정을 다 참여해야 한다. 자유 시간 때는 맑은 자연 속에서 곤충채집과 동물과 함께 뛰어 놀고 계곡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또 학교와 가까운 도서관을 자주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책을 많이 읽고 교무실에서 쌤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상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유롭게 친구들과 쌤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생활한다.

II-2. 인턴교사란..

나는 인턴교사라는 자격으로 어린이학교에 가게 되었다. 인턴은 인턴십의 인턴과 같은 의미이다. 인턴교사는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를 뜻한다. 직접 교사라는 직업을 체험하며 보통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기간을 갖는다. 일반학교에도 인턴교사가 있지만 대안학교 인턴교사와는 조금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학생을 지도하고 수업을 진행하며 보조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턴교사도 현직교사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사실 인턴교사가 되어보면 정교사보다 위치가 낮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보조업무와 지원이 필요한 일을 바로바로 해야 하고 교사회의 등 공식적인 모임에서도 생활하다보면 느낄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 나이가 어려서 더더욱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인턴교사 같은 경우 수업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1~2과목으로 최소화 한다. 인턴교사는 현직교사와는 다르게 경험이 부족하므로 시작과 동시에 무리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다. 또 인턴교사는 전공한 과목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인턴교사는 수업과 보조업무 그리고 현직교사와 같이 여러 업무도 맡고 공식적인 일정은 물론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인턴교사는 무엇보다도 배우려는 자세와 새로운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II-3. 내가 진행했던 수업

2011년 1학기 간디어린이학교 시간표!!

기상	06:30-07:30	씻기, 식당으로 이동					
식사	07:40-8:30	아침 식사 (배식: 7:40-8:00)					
	8:30-9:00	기숙사청소					
담임시간	09:00-09:30	아침활동 및 담임과의 시간(9:00 교무회의)					
학교청소	09:30-9:50	담임과의 시간 뒤 학교 청소					
1교시	10:00-10:50	9시부터 월요일교사 연수 (교무회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마음 알기 (6학년)	철학 (3~5학년)	간디문화의 날
2교시	11:00-12:30	12시 아이들 입교	학생회모임		선택수업 (텃밭, 전통무예, 영어)		
점심식사 12:30-14:00 (90분/ 배식: 12:30-12:50)							
3교시	14:00-15:30	프로젝트 회의	공동체놀이	프로젝트	풍물		집으로
4교시	15:50-16:50	철학 마음알기	식구총회		동아리		
저녁식사 17:00-18:30(90분/ 배식: 5:00-5:20)							
저녁활동	19:00-21:00	도서관	기숙사회의	도서관	영화보기		
잠자기	21:30-	꿈나라로					

위 시간표는 2011년 상반기 간디 어린이학교의 시간표이다. 간디 어린이학교 교과목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철학과 동시간대 이루어지는 마음알기, 그리고 화요일에 있는 공동체놀이 수업이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주된 수업이다.

마음알기 수업은 태쌤의 마음공부 수업내용과 비슷하다. 내가 마음알기수업을 가르치게 된 계기는 처음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중 아이들에게도 마음공부와 같은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다. 아이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꿈과 관련된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다행이도 내가 제천간디학교에서 마음공부를 꾸준히 수강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

공동체놀이수업은 원래 보조교사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청중학교에서 오시는 강사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후 분반이 결정되고 어린이학교에서 맡아달라고 부탁하셔서 맡게 된 과목이다. 내가 잘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가르칠 또 하나의 수업이 되었다.

마음공부와 공동체놀이 외에도 내가 제안한 수업은 기초영어, 여행영어, 10대의 성, 핸드메이드, 기타수업 등이 더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제안한 수업 중 마음공부만 교과과정에 포함되었고 영어수업 같은 경우 강사선생님께서 가르치게 되었다. 10대의 성은 철학과 마음알기 시간대에 따로 일정을 나눠서 가르치기로 결정되었었고 핸드메이드는 공간부족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다. 기타수업은 수업으로 개설하지 않고 동아리로 개설하게 되었다.

마음알기 수업계획서

교과목 : 마음알기 수강대상자 : 3~6학년

수업요일 : 월요일 4교시, 목요일 1교시 철학과 동시간대

담당교사 : 김현준 e mail - wns7469010@naver.com / wns9010@daum.net

수업준비물 : 간단한 필기도구, 학습자료

교과설명 : 마음알기수업은 자기 마음을 찾아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알기수업에서는 삶에 대해 폭넓게 배우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미덕을 배웁니다. 마음알기수업은 자신과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서로 소통하며 마음(나눔) 속의 여행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또한 마음알기수업은 마음코칭으로도 진행됩니다. 수업시간 외 코칭시간을 정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과주제 : 관계(자신, 타인), 꿈(비전, 목표) 미덕(행복, 도덕) 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의 마음, 성격 자신이 좋아하는 것 등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꿈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비전과 목표를 동시에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노력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과 좋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미덕을 배웁니다. 미덕과 동시에 우리들이 지켜야할 기본도덕들도 함께 배우는 과정을 가집니다.

교과목표 : 자신에 대해 바로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흥미를 느끼는 것을 더 많이 알아보고 넓히기

꿈의 목록과 비전(목표)보드를 만들어보기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을 읽고 독후감쓰기

주차	수업내용	준비물 또는 숙제	비고
1	수업 오리엔테이션 수업소개(교과목표, 수업방법 설명) 겨울방학 돌아보기 자기소개하기, 미덕에 대해 알아보기	자기소개 준비해오기	수업 소개, 미덕자료, 나는 이런사람!
2	DISC, MMTIC 성격검사 나는 이런 사람 작성 후 발표하기 나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친구들과 나누기 1.친구들과 서로의 장점과 강점 나누기	자신의 장점을 활용할 방법 생각하기	성격검사 준비
3	성격유형검사 결과 나누기(성격탐구) 나에게 부족한 것 찾고 그것을 채울 미덕 찾기 미니 미덕보드 만들기 친구와의 관계 이해하기 하나뿐인 좌우명 새기기 마음으로 대화하기	마음에 드는 미덕들을 고르고 이유, 감사일기 써보기	미덕보드, 감사일기 예시
4	명상으로 시작하는 마음공부 마공수업 활동지 작성(가족과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기) 여러 가지 감정, 열정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기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책 소개, 과제설명 감사 일기에 대해 설명하고 알아보기 자신에게 편지 쓰고 마음을 그리고 표현하기	명상을 통해 느낀 점 써오기	명상음악, 어린이 시크릿 책
5	전체 성교육		
6	여자, 남자 성교육 가정학습 목표 세우기		
7	지리산 보도여행		
8	가정학습		
9	성교육 복습, 지리산, 가정학습 돌아보기 (지난 한주를 감정으로 표현하기)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알아보고 가치 찾기 마공수업 활동지 작성 친구들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기 감정에 대한 동영상 보기	새로운 감정 찾아오기, 감사일기 써오기	여러 가치, 감정들 준비
10	명상으로 시작하는 마음공부 꿈의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꿈을 찾아보기 (꿈의 목록작성) 만다라, 미덕을 이용한 놀이 시크릿 과제상답	꿈의 목록 완성시키기, 나의 역할모델 찾아오기	명상음악, 꿈의목록 예시, 버츠크드

11	시크릿영상보기 목표의 힘에 대해 알아보기 나의 열정의대상과 롤모델 알아보고 목표 찾아보기 롤모델 보드 만들기 (롤모델인 이유, 롤모델에게 배울점)	롤모델보드 보충하기	학생들의 롤모델 동영상 준비
12	꿈의 목록을 이루는 상상(명상)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알아보기 미래 스케치 해보기(그림, 글 등으로 표현하기) 행복에 대해 자신의 생각 글로 써보기	비전보드예시 작성해오기	미래 스케치 할 준비물
13	비전보드에 대해 알아보고 비전보드 구상, 스케치 및 준비물 설명 비전보드 만들기	비전보드 만들어오기	비전보드
14	비전보드 발표하기 꿈의 목록 이루기 위한 노력 약속 수업평가. 자기평가 [종강]	비전보드	

위 수업계획서는 내가 가르쳤던 마음알기 수업계획서이다.

인턴십 시작 전부터 태쌤의 마음공부 수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나름대로 바꾼 것이다. 마음공부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친구들과의 관계, 꿈 찾기, 예절과 도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했다.

성교육은 총 4주차를 거쳐 진행했다. 여자, 남자 아이들 전체대상으로 성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남자와 여자 따로 사춘기와 성(아이의 탄생, 신체, 음란물, 성폭력 등), 을 수업했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마지막에는 간단한 퀴즈로 되돌아보며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성교육기간에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성지식과 성 예절을 가르쳐주었다.

공동체놀이 수업계획서

교과목 : 공동체놀이

수강대상자 : 3~6학년

수업요일 : 화요일 3교시

담당교사 : 백정명, 김현준 e mail - wns7469010@naver.com / wns9010@daum.net

수업준비물 : 편안한 복장, 운동화

교과설명 : 공동체 놀이는 서로 경쟁해서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놀이입니다. 남을 억누르고 남보다 잘해야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협동이 되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불어 야외활동과 실내 활동을 골고루 하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주차	수업내용	준비물 또는 숙제	비고
1	수업소개, 수업설문지 야외활동 - 발야구, 톱과제리, 피구		
2	야외활동 - 축구, 짝축구 실내 활동 - 탁구		
3	실내 활동 - 게임파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간단한 게임들 진행)		비가 올 경우
4	야외활동 - 야구 실내 활동 - 퍼즐, 답싸움		
5	실내 활동 - 책속의 보물찾기(도서관), 릴레이게임, 퀴즈 맞추기(OX퀴즈, 골든벨)		
6	야외활동 - 4.19기념마라톤 실내 활동 - 4.19관련영상보기, 코스안내		4.19 영상 준비
7	야외활동 - 미션계주 달리기, 줄다리기, 축구		줄다리기 준비, 계주 준비
8	실내 활동 - 옷놀이, 민중가요에 맞춰 몸짓배우기		3~5학년 아이들만
9	실내 활동 - EM흙공 만들기		비가 올 경우
10	야외, 실내 활동 - 짝 게임. 연극놀이		
11	실내활동 - 새천년체조 배우기 야외활동 - 물 풍선놀이		
12	야외활동 - 친구의 눈이 되어 숲속도서관 다녀오기		안대준비
13	야외활동 - 농구, 계곡 놀러가기		날씨가 좋을 경우
14	야외활동 - 자연으로 그림그리기, 이어달리기 실내 활동 - 수업평가서 작성 [종강]		

위 수업계획서는 공동체놀이 수업계획서이다.

공동체놀이수업은 갑작스럽게 내가 가르칠 과목이 되어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급하게 수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정도이기에 야외활동과 실내 활동 모두 무리가 없었다. 공동체놀이 역시 제천간디학교의 수업내용을 도움 받았고 되도록 야외활동과 실내 활동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수업을 진행했다. 실내 활동은 숲속도서관의 강당을 이용했고 야외활동은 숲속도서관 앞의 운동장을 이용했다. 또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획한 수업내용을 미루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

수업계획서를 토대로 자료들만 잘 챙겨서 수업을 진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내가 계속 공부했던 영어와는 달리 나도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을 해 나갔었다. 아이들이 항상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업진도와 수업분위기 모두 신경 쓰며 아이들에게 수업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수업주차가 늘어날수록 가르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마음알기수업과 공동체놀이수업 외에도 프로젝트수업 보조교사와 저녁프로그램 보조교사를 맡았었다. 이번년도 간디 어린이학교는 프로젝트 중심 교과과정으로서 아이들의 수업 중 프로젝트 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프로젝트 수업은 세바꾸(세상을 바꾸는 꾸러기 탐험대-여행), 희망쿱(희망을 쿱하라-요리), 출판사(출판) 3가지다. 수업시간도 많이 차지하는 만큼 반도 학년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반별로 나뉘었는데 나는 출판사 보조교사를 맡았다. 원래 프로젝트수업에는 참여할 예정이 없었는데 내가 출판사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출판사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보조교사와 한반의 부담임을 맡았다.

사실 말로만 부담임이지 내가 맡은 것은 크지 않은 역할이었고 담임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였다. 나는 프로젝트수업시간에 가끔씩 수업에 참여하고 반별행사가 있을 때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은 부담임이 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다. 나는 부담임을 맡고나서 반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다. 저녁프로그램은 기숙사자체내에서 진행되고 묵학과 비슷하다. 초등학생들은 묵학시간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사감쌤과 보조교사인 내가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과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진다. 사감쌤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시고 나는 아이들이 독서를 잘 하는지 봐주고 독서일기를 지도해준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혼내고 집중시키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저녁프로그램 때는 나도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기도 하고 가끔 답소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담당교사와 보조교사 둘 다 경험해봤는데 보조교사는 오히려 담당교사보다 더 많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확인해야 한다. 담당교사가 원활하게 수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담당교사보다 보조교사가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야하고 더 힘든 것 같았다. 보조교사는 서글픈 입장일지 몰라도 담당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II-4. 간디 어린이학교에서의 나의 역할

나는 어린이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부담임을 맡은 것 말고도 여러 일들을 추가적으로 했다. 시간표에 포함되어 있는 동아리시간에도 기타동아리를 개설하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코드를 가르쳐주고 같이 기타치고 노래 부르며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었다. 또 선택수업 3가지 모두를 참관하며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구경도 하고 참여하기도 했었다.

평소에는 공구관리, 시설관리, 프린트관리 등 남자가 해야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학교 카페에 글 올리기, 식사배식, 아이들 집으로 보내기 등 지원이 필요한 일도 자원해서 했다. 또 꾸준히 EM을 만들었고 분리수거와 야외청소 검사담당을 맡았었고 교사독서모임에도 참가해 교사문화를 경험했고 교무실에서 입학문의 전화 받기와 같은 사소한 일도 했었다.

학기에 한두 번 진행되는 입학식과 기말축제 준비, 체험학습인솔교사, 계절학교 자원교사도 참여했었다. 계절학교에서는 핸드메이드수업을 진행하면서 전 일정을 모두 참여했었다. 또, 나는 학교건물에서 지내서 매일 당직을 맡았었다. 나는 평소에 퇴근시간이 지나도 교무실에서 업무를 봤었기에 당직을 하면서도 교무실에서 내 할 일을 하며 잠깐씩 아이들을 봐주었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II-5. 인턴십 동안의 나의 생활 그리고 평가

* 3월

인턴십의 시작이었던 3월이 나에게서는 정신없었지만 긴장되고 기대되는 달이었다. 내가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씩 해 나아가고 적응하기에 바빴다. 처음 진행하는 나의 수업은 어색하기만 했다. 어설피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업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처음으로 교사라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다. 선생님이라는 직업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쌤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편하고 즐거웠다. 간디 어린이학교에서의 3월은 천천히 적응을 해가며 낯선 곳에서 집 같이 편한 곳으로 바뀌는 과정이었고 인턴십 시작 전 계획하고 그렸던 생활들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 같다.

* 4월

현준아 보다 현준쌤이 더 적응된 4월이었다. 생활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4월 달에는 교사로서의 삶이 힘들었다. 아직 교사답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혼내는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다보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기도 했다. 3월에 비해 쌤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적어진 것 같았다. 인턴교사라 그런지 쌤들과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쌤들과 아이들을 통해 매번 확인하게 되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친구같이 편한 쌤이 되고 싶었는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잘 찾지 못해 걱정을 많이 했었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다. 예상은 했었지만 내가 너무나도 어려서 부족한 점을 잘 채워가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다. 어린이학교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 5월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낸 5월이다. 4월 달의 고민을 풀지 못한 채 더더욱 고민이 늘어났다. 내가 굉장히 나약한 존재 같았고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생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업준비와 밀린 일지를 쓰느라 매일을 급급하게 지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교사가 아닌 학생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인 듯 했다. 5월 달에는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며 교사다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일정은 빠듯한데 생각은 정리가 되지 않아 복잡한 마음으로 보낸 5월이었다.

* 6월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마음먹은 6월이었다. 나의 생활패턴을 위해 에너지관리를 했고 시간들을 유용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는데다가 학교 일정이 빡빡해서 많은 일들을 잘 소화하지 못했다.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지만 가정학습을 보내며 재충전을 했고 천천히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아이들과 쌤들과의 관계부터 나의 인턴십까지 한번 점검을 하고 정리하는 6월이었다.

* 7월

천천히 마무리를 해가는 7월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바쁜 한 달이었다. 학기 말이라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수업을 끝내니 서로가 아쉬우면서도 후련해했다. 기말을 준비하고 보내면서 바빴지만 아이들과 쌤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았다. 혼자 시간

을 보냈던 5, 6월과는 다르게 쌤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모두가 노력한 7월이다.

평일의 나는 학교일정을 소화하기 바빴다. 처음 교사가 되어본 나는 학생일 때와는 다르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수업이 있을 때만 수업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충분한 소통을 위해 철저한 수업준비가 필요했다. 공간이 별로 없는 나의 일정에서 틈틈이 짬을 내어 수업준비와 나의 역할을 소화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평일의 자유시간은 낮과 밤에 있는데 낮에 시간이 많을 경우 근처 시내로 외출을 나가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며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 있어야 하는 경우 낮에는 주로 인터넷을 하거나 독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기타연습을 하거나 빨래, 농사, 영어공부를 하기도 했다. 가끔 피곤할 때는 방으로 가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

밤에는 공식 일정이 끝난 뒤로 수업일지와 일지작성 등 여러 문서정리를 하느라 바쁘고 영화나 TV프로그램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또 자주 쌤들과 요리를 하고 제과제빵을 배우기도 했다. 낮에는 아이들과 면담이 있기도 하고 밤에는 쌤들과 이야기 나누느라 자유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유 시간을 길어지거나 짧아졌다.

어린이학교에도 가정학습이 있는데 1학기에 2번이 있었다. 나는 가정학습동안 학교에 지내기도 하고 집으로 가거나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학교에 지내면서는 혼자 밥을 해먹으며 밀린 작업과 수업준비, 일지작성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 경상남도 관광지역행, 지리산종주 등을 하면서 새로운 곳을 다니며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 친구들, 쌤들을 만나며 보고 싶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정학습을 채웠다.

체천간디학교에서의 가정학습은 마냥 노는 시간이었는데 어린이학교에서의 가정학습은 바쁘기도 했고 여러 경험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 특히 여행을 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5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왔다. 학기 초에는 적응하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 학기 말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정신없어지고 계절학교까지 너무나도 바쁘게 보내다보니 어느새 인턴십이 끝났다. 하지만 학기 초에는 요령이 없어서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학기 말이 돼서는 적절하게 나의 일정을 배치하고 에너지관리도 하며 뒤늦게 생긴 나만의 노하우로 요령 있게 보냈다. 나는 바쁘게 지냈던 나의 생활을 만족한다.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아니었기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과 기억에 남는 시간, 어려움을 느꼈던 시간과 의미 있던 시간들이 내 생활 속에 묻어있는 것 같다.

II-6. 어린이학교 인턴십을 통해 느낀 점

나는 이렇게 5개월 동안의 어린이학교 교사체험을 마무리 했다. 나는 학기 초부터 어린이학교에서 맡은 것과 한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배우려는 욕심 때문에 많은 일들을 벌였었는데 나에게겐 벅찬 일도 많아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힘들어 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계속 넘어갈 때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내가 맡은 역할을 책임지지 못해 힘들었었다.

나는 인턴십을 하면서 학생이기도 했지만 교사였고 사회인이었다. 하나의 모습만 보이던 내가 여러 모습을 보여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 교사였던 나는 학생다워야 하는 것도 아니었

고 어른다워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다워야 했다.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고 학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나는 이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해 어린이학교에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어린이학교에서는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쌤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흐트러졌었는데 관계로 힘들어했던 시간이 인턴십의 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이 기간에는 수업을 진행 못할 정도였고 쌤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었다. 견디기 힘들어서 어린이학교를 도망치고 싶기도 했지만 쌤들의 조언 때문이었을까, 인턴십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던 걸까, 나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즐거웠던 과정보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던 인턴십기간만 봐도 행복했던 시간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에게 더 큰 도움을 준 것 같다.

나는 어린이학교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사였기에 괴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편하게 교사의 권리를 누리기도 했다. 교사였기에 쌤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많았는데 아이들의 눈을 피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잘 때 쌤들과 야식을 챙겨먹을 때, 쌤들과 함께 휴일을 보낼 때 나는 이렇게 즐거울 때가 없었다. 먹는 것도 좋았지만 쌤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항상 즐거웠다. 쌤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쌤들의 이야기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쌤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조언은 너무나도 좋은 자산으로 남았다.

쌤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지금까지의 배움과는 다른 것이었다. 직접 작은 사회를 통해 몸소 체험한 경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울 수 있는 능력,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등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쌤들과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고 때론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 힘이 되어주며 가족같이 지내는 기간이 행복했다. 나에게 어린이학교는 아이들과의 추억이 묻어나는 곳 보다는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곳으로 기억되고 싶다. 난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 감사하고 잠시나마 현준쌤으로 불리 우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현준쌤으로서의 삶,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III-1. 간디대안교육센터(기초과정)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간디대안교육센터는 대안학교교사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2001년 '간디교육연수원'이 처음 만들어지고 2005년에는 '간디교사대학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1년 과정만 하였는데 성과를 이어받아 '간디대안교육센터'로 바꾸면서 사업을 늘리고 더더욱 확대해서 입문자과정인 기초과정, 교사양성과정인 심화과정, 그리고 학부모학교, 교장학교, 대안교육연구, 컨설팅, 텐트메이커 등의 사업과 과정이 존재한다.

여러 과정 중 나는 기초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였는데 기초과정은 대안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는 가벼운 이해를 위한 자기 찾기와 대안교육 이해하기, 간디학교 알아가기를 함께 한다. 간디대안교육센터 기초과정 또한 간디 어린이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간디 어린이학교 쌤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간디대학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나는 간디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혹시 나도 할 수 있으려나, 라는 호기심으로 바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간디 어린이학교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배움을 찾던 중이었고 간디학교를 다니지만 정작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에 대안교육에 대해 배우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또 기초과정은 격주로 토요일마다 금산 간디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주말에 할 것이 별로 없던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나도 기초과정을 수강하려고 인터넷 공고를 확인했지만 신청기간이 지나 수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초과정 담당자분과 어린이학교 대표교사님과 친분이 있었기에 조심스레 부탁드려 신청기간이 지나도 지원서를 작성해 보내

드렸었다. 나는 운이 좋게도 기초과정을 주말마다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III-2. 기초과정 12기에 대해

	날 짜	내 용
1강	3/12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보는 기초과정 2010 주제특강 대안학교 교사의 사명과 자기 찾기 - 양희창 모듬별 토론 및 발표 및 전체모임
2강	3/26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이 지나온 길 - 황윤옥 금산숲속마을모꼬지 (1박2일) 기초과정 선배들과의 만남
3강	4/9	숲속마을 작업장 체험 도자기 / 목공 코칭의 교육학 - 태영철 모듬별 활동 및 토론
4강	4/23	숲속마을 보석사 함께 걷기 자기 치유와 행복 찾기 (간디학교 철학과 나) - 양희규
5강	5/14	찾아가는 대안 현장 (학교와 마을) 간디학교 탐방하기 산청 간디학교 또는 금산 간디학교
6강	5/28	대안현장 선생님 만나기 대안학교 교사로서의 나의 성장과 발견 - 유준혁 내가 발견한 작은 대안
7강	6/11	대안적인 삶으로의 소박한 하나의 선택, 스스로의 선택 - 권춘현 시골에서 산다는 것, 느리게 산다는 것 - 김순자
8강	6/25	대안현장 졸업생 및 재학생 만나기 - 김한성 (산청간디고, 하자센터, 사회적 기업) 수료식 및 수료식 준비모임 (모듬별, 전체)
9강	7/9	수료식 및 주제특강 아름다운 12기의 수료식 우리가 나아갈 길 (간디학교의 비전과 과제) - 양희규

위 표는 기초과정 12기의 교육과정이다.

나는 위 강의들을 수강하러 산청에서 금산으로 향했다. 자가용으로 움직이면 가까운 거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나는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버스 타는 곳까지 1시간을 걸어가고 홍화원(버스정류장) - 원지 - 진주 - 대전 - 금산 - 금산 간디학교로 움직여야 했다. 총 6~7시간을 걸러 도착하면 강의가 끝나고는 운이 좋으면 되돌아왔고 회식이 있거나 강의가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하루 자고 이동해야 했다.

교통은 불편하고 차비와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지만 강의를 듣다보면 힘든 과정들을 다 잊게 되었다. 12기 인원수는 40명 정도이고 8명씩 5모둠으로 나뉘어 모둠별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된다. 나는 12기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막내쌤이라 불리었다. 나는 이곳에서도 쌤이었다.

III-3. 기초과정을 통해 느낀 점

기초과정은 나의 인턴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찾아간 곳이었다. 첫 만남, 첫 강의가 나의 생각을 180도 바꾸었다. 새로운 만남이었는데 연령대도 직업도 너무나도 다양했다. 내가 속해있는 모듬은 '행복 모듬'이었고 나는 행복 모듬의 모듬장이었다. 모듬 분들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 3번째 만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서로 소통이 되었고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나보다 사회경험이 풍부하신 모듬 분들을 만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는 대안학교 학생일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신선한 대안교육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강의 후 토론을 할 때는 대안교육에 대해 뜨거운 의견들이 오갔다. 나는 이 토론이 너무나도 재미있었다. 대안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나의 생각을 전했다. 기초과정에서 유일한 대안학교 재학생이었기에 내가 줄 수 있었던 정보도 많았고 모듬 분들은 생생한 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였고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다.

내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연륜이 묻어있는 다른 쌤들의 이야기는 책보다 더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나의 개인적인 고민들, 엉뚱한 질문들도 다 소중한 주제로 생각해주시고 답해주시곤 했다. 나는 기초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쌤들과의 만남이었고 쌤들의 이야기였다. 기초과정을 통해 내가 알고 있던 교육, 대안교육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다. 기초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서 어린이학교의 교사생활에 도움된 것도 많다. 또 심심할 뻔했던 나의 주말을 정말 만족스러운 주말로 만들어주었다.

나는 어린이학교에서도 교사였지만 기초과정을 하면서 더 큰 존중을 받았었고 더더욱 어른처럼 느껴졌었다. 정말 너무 많이 감사하다. 만약 기초과정을 또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 아직 심화과정은 무리이니까. 기초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료한 지금도 주말이 다가올 때면 기초과정을 기다리게 된다. 너무나도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요즘도 함께 여행을 한다. 이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한다.

IV. 부록

IV-1. 수업평가서

마음알기 평가 설문지

교과목 : 마음알기

평가항목	만족도					하고 싶은 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수업 내용과 수준은 적절했나	4	9	6	1		수준은 적절했어요.
2. 교사의 수업방법이 적절했나	3	9	5	3		숙제가 많지만 괜찮았어요.
3. 교사의 열의와 수업진행은 어떠했나	5	7	7	1		그럭저럭
4. 수업이 본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나	7	7	5	1		많이 됐어요.
5.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졌나	3	6	6	4	1	모르겠어요.
6. 나는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나	2	5	7	4	2	최송.

※ 수업을 통한 나의 변화가 있다면?

→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존중하게 되었어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좌우명이 생겼어요.

※ 마음알기를 통해 배운 점

→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미덕을 배우게 되었다. 비전을 알게 되었어요.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음을 배웠어요.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꿈에 대해 배웠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

→ 재미있었다. 명상 한 것 좋았어요. 꽤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 쌤이 안 무서워서 좋았어요. 소란스러워서 좋았어요. 그림 그리는 것 좋았어요. 쌤이 코코아준거 좋았어요. 성격유형검사한 것 좋았어요.

※ 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

→ 명상 별로 안한 것. 학생들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계곡에 놀러가지 않은 것. 현준쌤이 수업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숙제가 많아요. 다양한 수업이 부족. 수업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워요.

※ 다음 학기 이 수업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 명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현준쌤처럼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안 심심하게 해주세요. 폭력 쓰지 말기. 놀아요. 코코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공동체놀이 평가 설문지

교과목 : 공동체놀이

평가항목	만족도					하고 싶은 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수업의 놀이와 활동은 재미있었나	3	10	6	1		힘든 것도 있었어요.
2. 교사의 수업방법이 적절했나		8	11	1		열심히 하셨어요.
3. 교사의 열의와 수업진행은 어떠했나	5	8	7			꽤 잘하셨어요.
4. 수업이 본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나	1	6	10	3		도움 됐어요.
5.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졌나		6	12	2		보통이에요.
6. 나는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나	1	6	9	4		그럴 때도 있었어요.

※ 공동체놀이수업 때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흙공만들기, 야구, 피구, 당당사, 축구, 퍼즐, 마라톤, 짝 축구, 그림 만들기, 이어달리기, 물풍선놀이 등 많은 활동을 했어요.

※ 이 수업을 통해 배운 점

→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를 배웠어요. 운동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재미있었던 활동)

→ EM흙공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놀았던 것 재밌었어요. 물풍선 놀이 재미있었어요.

※ 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

→ 계곡에 자주 놀러가지 않은 것. 축구 많이 안했던 것. 달리기 많이 안했던 것. 재미있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쳐서 아팠던 것.

※ 다음 학기 이 수업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 계곡 많이 놀러가요. 축구, 실내게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떠들 때 혼내주세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재밌었는데 쌤이 가신다니 아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IV-2. 주간별로 본 어린이학교 일정

월	주	1학기 일정
3	1주차	교사연수주간
	2주차	제주 올레길 체험학습주간
	3주차	오리엔테이션 주간
	4주차	개강주간
4	5주차	간디 대학원 어린이학교 탐방주간
	6주차	교과목 외 교육주간
	7주차	성교육주간
	8주차	지리산도보주간
	9주차	가정 학습
5	10주차	중간평가주간
	11주차	나들이, 건강검진주간
	12주차	6학년 중학교 체험주간
	13주차	가정 학습
6	14주차	학교폭력예방주간
	15주차	존댓말 쓰기 주간
	16주차	교과발표회 준비주간
	17주차	수업 중간주간
7	18주차	학기말 면담주간
	19주차	교사연수주간
	20주차	계절 학교주간

IV-3. 기초과정 신청 지원서

간디 대안교육 기초과정 신청 소개서

신청자 - 김현준

우연히 간디대학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제천간디학교에 재학 중이고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학교는 인턴십 이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사회를 경험하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이번 인턴과정을 간디 어린이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대안교육 그리고 간디학교를 알게 되었고, 운 좋게도 제천간디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사립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기 전 얻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보내며 해야만 하는 일반교과들을 공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께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대안학교에 대해 알아보셨고 그리 멀지 않은 제천간디학교에 편입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낯설고 아직은 모르는 학교 간디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부터는 관심이 생겼고 고민 끝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입합격 소식을 듣고 간디학교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편입을 해서인지 아이들과 친해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모든 고민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2학년을 지내면서는 욕심 때문에 감

당하기 힘든 수업을 신청했었고 3학년의 논문과정에서는 영어교육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평소 초등교육에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디학교에서 외국어와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가까운 초등학교 아이들과 영어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학년 때는 필리핀 과정 대표를 맡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5학년 1학기에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게 되었고 가족을 도와 일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2학기에 다시 복학을 해서 인턴십 준비를 하고 얼마 전 간디 어린이학교에서 여러 쌤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어린이학교를 이끌어갈 인턴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간디 학교 쌤의 추천으로 알게 된 어린이학교, 무작정 해외에 관심 있던 저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곳이었습니다. 교사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 입교하고 쌤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간디대학원과 대안교육 기초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며 항상 대안학교 교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쌤들을 보며 대안학교 교사를 꿈꾸기도 했지만 아직은 공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학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다보니 공교육 교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대안학교 교사가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번 인턴과정과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 대안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바꾸고 좀 더 마음을 열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장점들을 가지고 배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금산에서 기초과정을 수강하면서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제가 간디학교에서 배운 것과 느낀 것, 제천간디학교의 삶도 나누고 소통하고 싶고, 아직 부족한 대안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폭 넓게 이해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대안학교들을 탐방하고 그 곳의 문화와 모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학교 인턴교사 과정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기초과정을 수강하려면 고려할 점이 많았겠지만 신청에 있으면서 주말계획을 고려하던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어린 제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나누기 힘들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IV-4. 기초과정 분들과 인터뷰

* 간디대안교육센터 기초과정분들과의 인터뷰

Q. 기초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온라인 강좌로 대안교육입문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고 아이들과 교육쪽에 관심있어 이것저것 배우던 차에 우연하게 간디대안교육센터의 기초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온라인 강좌보다는 면대면 방식이 나에게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격주로 있는 기초과정에 접수하게 된 것이다. 또, 온라인 강좌시 학교탐방으로 제천간디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싶었다.

Q.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혹은 어떤 생각으로 기초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위의 이야기 한 것처럼 제천간디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다. 대안교육을 접하기 전에는 문제아, 불량아로 시작된 학교라는 인식만 가졌는데, 그 후에 걸핍기 식으로 접한 대안교육은 귀족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공교육 말고도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부모가 많다지만, 나와같은 서민층에서는 대안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

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에 대한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도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교사도 아니고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과 강사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Q. 기초과정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모든 강의가 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양희창 쌤 강의와 학교탐방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Q. 그 이유는?

양희창 쌤의 강의는 교사대학원 기초과정이라는 우리의 기본취지와 맞는 부분을 강연해주셔서 좋았고 무엇보다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던 ‘교사’에 대한 통념을 좀 깨뜨려 주었던 것 같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 조연자로서 나 역시도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사 역시도 성장하고 성장해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 강의였다. 또 학교 탐방이 좋은 것은 그야말로 강의로만 듣던 현장을 직접 온 몸으로 분위기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산청간디를 갔는데 오랜만에 빈 쌤을 부르며 뛰어오던 아이들의 친구 같은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Q. 간디학교 재학생과 함께 수강하면서 느낀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은?

대안교육을 접한 사람으로서 그 안의 모습을 질문했을 때 서슴없이 이야기 해주고 더 세밀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재학생 한 사람을 두고 모두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자유로움과 개성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간디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과 배움이 된 것 같다.

다만, 좋지 않은 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동등한 기초과정 입장에서만 대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나도 모르게 어른의 가치관이 종종 강요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간디학교 재학생들에게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음주가 많았다는 사실이 조금 미안해진다.

Q. 기초과정을 통해 얻은 것 또는 배운 것은?

기초과정을 통해 나에게 아이들과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힘을 얻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일상에 따라 가기만 했었는데 그 마음을 놓고 아이들과 함께 할 일을 찾고 있다.

간디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앞으로 만나게 될 거란 나의 아이들과 내 주위의 아이들에게 세상은 좋은 곳이고 사는 건 즐거운 일이야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안에 배움이 있다는 것을 얻고 배웠다.

Q. 기초과정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재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기초과정을 듣는 재학생이 아니라 재학생들과 일부 운동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숨 쉬는 시간이 있다면 딱딱하지 않게 그 안에 서로에게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모듈별로 활동을 하다보니 같은 동기라고 해도 가깝게 다가가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다. 모듈 끼리만이 아니라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Q. 기초과정을 끝내고 아쉬웠던 것은?

다른 모둠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2주에 한 번 보던 얼굴들을 다시 보지 못한 서운함에 연락이라도 하고 싶지만 맘처럼 되지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 그리고 기초과정이 진행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함께 대안교육에 대해, 간디학교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역시 마련된다 하더라도 참여할 인원이 적어짐이 기초과정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Q.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당신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본인이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나이에 맞는 행동과 웃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거기에 당신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에너지를 뽐어내는 힘을 지녔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대학은 가야하나,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찌해야 하나, 당신의 고민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고민을 고민으로서만 끝내고 스트레스를 낳으면 안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하구요. 당신이 선택을 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느낄 정도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땀 잠시 쉬어가도 좋고,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분들도 많을터이니 우리 같이 힘내요~

아...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지식 면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세요! 주입식 교육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주입식이든 누구의 도움을 받던 간에 채워가는 것이 당신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고 봅니다.

IV-5. 기초과정 수료 작품

잊지 못할 ‘현준 쌤’ 그리고 ‘막내 쌤’

2011년 상반기, 나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연히 어린이학교 교사를 체험하게 되고 간디대안교육센터를 알게 되고 기초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나는 한 학기동안 학생으로, 교사로, 기초과정의 수강생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제 교사의 삶에 적응되어 가는데 어린이학교도, 기초과정도 마무리하고 학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금 이 시점이 마냥 아쉽고 후회된다.

처음 나의 수료 작품 주제는 ‘내가 만들어보는 대안학교!’였다.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모두를 경험해본 나는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장점만을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었다.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했다. 한참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교사인 내가 하기에는 벅찬 계획이었다.

그 뒤 고민하다 결정한 주제는 ‘교사체험을 통한 나의 발전, 변화’였다. 나는 교사로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아이들, 어린이학교 쌤들, 기초과정 쌤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 행복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내적으로 발전했고, 성숙해졌고, 더 커졌다.

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을까?

- 교사체험을 통한 나의 발전, 변화

나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도 대안교육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대안’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러면서도 나의 관심사는 교육이었고 내 가슴속에는 교사라는 꿈을 간직했었다. 마냥 어리고 노는 것 좋아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철

없는 아이가 운 좋게 교사체험을 하게 되었다. 장소는 간디 어린이학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린이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 나는 아직 학생다웠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과정부터 가르침과 배움의 시작이었다. 나는 ‘현준쌤’이라는 호칭이 낯설기만 했다. 평소 나는 낮을 가리는 편이라 붙임성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에게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쌤들과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교사라는 책임감 때문에 나는 교사다워 보이려고 교사인척을 하려 노력했다. 역시 옛된 얼굴과 학생다워 보이는 모습은 감출 수 없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교사라고 생각했다.

교사답게 행동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바라봐주어야 하며 행동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잘하지 못해 힘들었다. 여러 아이들에게 같은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나는 관계와 교사의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대안학교 교사는 나보다 학생이 먼저였다. 아이들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를 반복하며 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 때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나는 깨달았다. 바로 나 자신이다. 이사람 저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힘든 부분이었지만 교사답게 노력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많이 고민했었다. 수업준비를 하고 수업진행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며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 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다.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게 되었고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의 열정과 의지에 내가 더 자극을 받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그 아이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아이를 사랑해주며 아이의 모습을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같다. 아마 지금도 잘 모를 테지만 가르침 속에는 더 큰 배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나는 어린이학교와 더불어 기초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다.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이기도 했고 나의 교사체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간 기초과정에서 나는 너무나도 큰 행복을 얻었다. 기초과정에서의 강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해주었고 기초과정 쌤들에게는 소중한 인생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교사체험을 하면서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했던 나에게 쌤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은 나의 교사의 삶에 활력소가 되었고 미래를 꿈꾸게 했다. 기초과정에서의 만남은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나는 학교와 기초과정을 오가며 작은 사회를 경험하며 마냥 신기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힘들기도 했다. 나는 작은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다. 성인이 되려면,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안학교 교사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대안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교육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행복에 대해 많이 고민할 수 있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부[富]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조금은 정리되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었다.

나는 한 학기동안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과 쌤들 모두에게 존중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준쌤’과 ‘막내쌤’은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어리고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

지만 덕분에 경험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

대안학교 교사로 지내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을 느껴왔다. 글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견디기 힘든 어려움 사이에서 나의 발전이 있었다. 내가 조금 더 어른스러워 진다는 것, 더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다.

내가 대안학교 학생일 때는 대안학교 교사를 원하지 않았다. 일반학교 교사를 하며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대안학교 교사가 되어봄으로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사라는 직업을 더 조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과연 교사가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고민하는 중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적어도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불행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비록 이 분야에 재능이 없고 소질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 할 것이다.

어린이학교에 오기 전 나에게 부족한 것은 실천의지와 배우려는 노력이었다. 나는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했다. 교사이기 때문에 힘들고 하기 싫은 일도 배움, 가르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교사체험을 하며 힘든 과정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이 말은 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No pain, No gain'

교사의 겉모습에 반해 지금까지 교사만을 바라본 나에게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던 이번계기는 나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인턴교사였지만 나중에 존경받는 현준쌤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나는 앞으로 나의 중심을 찾고 나의 행복을 찾아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즐길 것이다. 항상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작심삼일습관을 버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준쌤의 모습이 기대된다.

내가 이번에 하지 못했던 '대안학교 만들어보기'는 나중에라도 꼭 계획해볼 것이다. 내가 원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학교의 모토는 여행이다. 나는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배운다고 생각한다. 여행과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나는 혼자 지리산종주를 다녀왔다. 배낭하나매고 새벽부터 어린이학교에서 지리산으로 향했다. 혼자면 혼자일수록 용기가 없던 나에게 이번 도전은 큰 의미가 있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찾아간 지리산은 내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내가 그곳에서 배운 만남에 대한 감사함, 나눔에 대한 감사함은 앞으로 항상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번 경험도 어린이학교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내가 행복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은 큰 발전이 아닐까?

나의 발전과 성장을 도와준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기간을 되돌아보며..

ただいまーっ!!!
ギルちゃんの
インターシッヅ!

다녀왔습니닷!!!
길짱의 인턴십!

いつ?

2011年03月02日 ~ 07月07日

どこ?

인권 운동 사랑방
KINOKUNI 어린이 대안학교

何で?

o▽o

왜 갔을까요?
궁금하다면 내용을 읽어 보세요 :)

誰が?

누구긴 누구야!
최강 매력 한길이가!

목차

I 시작하기 전에

- 동기 및 목적
- 활동 단체, 기간
- 단체 소개

II나의 인턴, 120일

■인권 운동 사랑방

- 활동 내용
- 느낀 것과 남은 것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학교

- 준비 과정
- 하루 일정
- 활동 내용
- 돌아와서
- 간디와 키노쿠니의 비교
- 간디에게 제안
- 인터뷰

III 정리하면서

- 내게 다가오는 120일의 가치
- 인턴을 하며 어려웠던 점
- 아쉬웠던 점
- 결산
- Thanks to☺

첨부

- 인터뷰 질문
- 키노쿠니 관련 작성 및 파일등

I 시작하기 전에

- 동기 및 목적

A. 인권 운동 사랑방

사실 내가 처음 지원한 곳은 인권영화제였다. 다 같이 기획·홍보하고 현지 말로는 발로 뛰는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며 OT에 갔다. 그런데 3월에는 아직 본격적인 영화제 활동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인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랑방 활동을 추천해주셨다. 그리고 일단 사랑방 간부이신 명숙씨와 얘기해보고 며칠 뒤 바로 찾아뵙기로 했다. 그리고는 뒤에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권 팀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와 대략적인 활동 소개를 듣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사실 난 활동 내용보다는 '전혀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1차 인턴을 찾은 것이니 그다지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 인턴 활동은 바로 당일부터 시작되었다.

B. 키노쿠니 학교

인턴을 준비하던 도중이다. 내가 졸업한 무지개 학교에서 만약 내가 원한다면 키노쿠니와 연결해줄 수 있다면서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었다. 특별히 하려고 하던 것도 없고 해외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때였다. 그래서 곧바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교장인 호리씨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인턴십을 비교적 일찍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어와 일본 문화, 외국이라는 매력,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이니만큼 '일단 가면 뭐든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다. 또 여러모로 유용한 언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좋았다. 더군다나 혼자 가는 것이니 만큼 책임감 혹은 좀 더 스스로의 한계를 보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던 것 같다.

인턴을 준비하면서 멘토 쌤에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리고 '이곳이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했다. 인턴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진로와 연결되는 느낌이 많으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혹은 진로에 관련된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많이 고민했었다. 하지만 특별히 꼭 짚어서 하고 싶은 것은 못 찾았고 학생 혹은 미성년자로서 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지 싶다. 하지만 졸업생 인턴십 자료집을 읽으며 자신이 그 곳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꼭 진로에 관계되거나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글을 보고는 일단 가보기로 했다.

- 활동 단체, 기간

1차 : 인권 운동 사랑방-자유권-

활동 기간 : 2011년 03월 02일 ~ 30일

2차 : 일본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학교

활동 기간 : 2011년 04월 09일 ~ 07월 07일

- 단체 소개

인권 운동 사랑방

주소: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연락처: 02-365-5363

정보: 1993년 사회운동을 시작해 국내 최초 인권관련 팩스 신문을 창간. 96년 저항하는 스크린, 인권영화제를 시작함. 현재 충정로 역 근처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자유권(경찰 등 공권력 감시 대응 등), 사회권(거주권 등), 복인권팀 등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대표나 간부를 따로 두지 않고 상임활동가(매일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활동비가 나온다. 조직과 활동을 책임짐), 돈옴활동가(직장인, 학생 등 활동들에 참여. 준회원 정도), 자원활동가로 나뉘어져 있다. 매주 인권오름 인터넷 기사를 올리고 있고 매달 후원인들에게 보내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인권영화제,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키노쿠니 학교

주소: 日本 和歌山縣 橋本市 彦谷51 일본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히코다니 51번지

연락처: 키노쿠니 0736-33-3370

정보: 1992년 초에 현 교장 호리 신이치로가 일본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히코다니의 51번지에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학원 소학교]라는 이름의 초등학교를 만들어 시작. 2년 후인 94년에는 중학교도 총 95명으로 개교했고 기숙사형이다.

기본적으로 서머힐의 교육철학을 본떠 만들었고 주 5일제이다(소수를 제외하고 매주 집에 돌아간다). 각 교육과정은 모두 분리되고 특히 고등과정은 전수학교라는 개념으로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프로젝트형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규칙 등은 아이들이 회의로 정하고, 선생님이란 호칭대신 어른 혹은 스테프라는 개념으로 부른다. 지역교류가 활발하고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1998년에는 키노쿠니 중학교 옆에 고등전수학교와 후쿠이현 카츠야마 시에 있는 카츠야마 어린이 마을 초등학교를 열었다.

카츠야마(지명) 초중학교 과정이 있고 스코틀랜드 킬크하티니 학교 등이 자매학교로 있다.

II 나의 인턴, 120일

■인권 운동 사랑방

- 활동 내용

- 11시 출근 ~ 6시 퇴근
- 사무실에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자료 정리, 체크 등
- 토론회 및 강의 참여 및 강의 스텝으로 활동(준비)
- 기자회견 사진 찍기
- 기사 찾아 유엔 보고서에 정리
- 일본 형 집행 법률 관련 조사
- 학술토론회 웹자보 만들기
- 사람사랑 소식지 기사 작성

- 느낀 것과 남은 것

시작하기 전에, 사실 내 인턴의 메인은 키노쿠니다. 1달 동안의 사랑방 활동을 마친 후 키노쿠니를 다녀왔다. 그 동안 1차 인턴십 때의 기억과 배우고 느꼈던 것이 많이 잊혀져서

아쉽다. 그래도 키노쿠니를 가기 전 그 점을 걱정한 상현쌤이 제안한대로 1차 인턴십이 끝나고 해두었던 자료에 의지해서 적어본다.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내가 싫거나 어려워하는 것도 하는 점이랄까. 사랑방에서 1/3정도 인턴을 할 때였다. 상현쌤이 행사 스태프 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면서 제안을 해왔다. 바쁘고 발로 뷔다고 해서 끝렸었는데 그래도 이걸 내가 시작한 인턴이니 끝까지 하는 것이 내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거절했다. 매번 이리저리 튀는 나에게서는 꼬집어서 말하지는 못해도 필요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고,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나중에 도움이 될 정리 작업들도 배웠고 여러 인권 문제들도 알게 되었다. (특히 두리반의 강제철거 문제 등) 웹자보를 만들면서 좀 더 기술을 익혀서 더 해보고 싶었고 내 짧은 일어 실력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다. 특히 인권 문제들은, 사실 기사나 책 등으로 접하던 것은 그냥 ‘이렇구나’ 싶었던 느낌 이었는데 인턴 중에 기자회견 등을 가면서 확실히 이런 일들은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느낌이 반감되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어려워하던 ‘사회인’을 대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다. 나를 알고, 그에 맞춰서 대해주는 간디인과는 달라 내내 고민하던 부분이었으니 말이다. 이걸 아마 사회로 나간 대안학교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겪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마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지.

돌아가서 이것저것 정말 서툰데 그다지 큰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고맙다고 말해주셔서 고마웠다.

■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학교木の國子供村學院小學校

- 준비 과정

- 2010년 겨울부터 무지개 학교를 통해 인턴 준비
- (기숙사에서)전화 일본어로 일본어 공부
- 호리상과 메일로 전체적인 일정 이야기
- 담당 아코짱과 세부적인 일정 조절
- (지진 문제로) 상현쌤과 현지 상황 알아보기
- 자기소개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보내기
- 무지개학교 찾아가서 조언 듣기
- 인턴십 과정 및 학교소개 영문 버전 받아서 보내기
- 키노쿠니의 역사, 교육과정, 교육철학 등 학교 정보, 일본 문화 및 매너, 일본어, 항공or교통 등 사전 공부
- [이모, 삼촌을 찾아요]편지 제작 및 발송
- 왕복 비행기 티켓팅
- 엔화 환전

가기 전 읽은 책

1. 교육과 자유가 만났다, 배움이 커졌다. 호리 신이치로 지음. 민들레 출판사
키노쿠니의 교육을 생활에 비교하며 풀어나간 글이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듯 하고 굉장히 잘 읽히던 책이다.

2.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호리 신이치로 지음. 민들레 출판사.

짧게 실린 키노쿠니 아이들의 사진과 글들이 재미있던 책이다. [호리상의 책상 위는 쓰레

가장 같다. 그러니 호리상 집도 분명 쓰레기장 같을 거야.]라는 글을 보고는 계속 웃어댔던 기억이 있다. 키노쿠니의 생활과 교육이 읽기 편하게 잘 나와 있다. 다만 조금 예전 책이라 그다지 많은 책을 못 읽었다면 위의 책을 읽기를 권한다.

3. 행복한 학교 서머힐. 김은산 지음. 양서원 출판사.

학교에 서머힐에 관한 단 한 권의 책이었다. 그리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책이다. 서머힐과 니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만 대안교육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더 알기 쉬운 책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4.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 [우리나라] 이원복 지음. 김영사 출판사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가기 위해 읽은 책이다. 시간이 얼마 없어 만화로 된 것을 읽었다. 이 책의 시리즈의 특징이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너무 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본에 짧은 여행 이외의 목적으로 가는 분은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외국에 갈 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기본!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다.

5. close up osaka. 유재우, 손미경 지음. 에디터 출판사 (간사이 가이드북)

골드 위크 때 사용하려고 한국에서 구입한 가이드북. yes24에서 판매수가 높아 구입했다. 그런데 막상 쇼핑 장소에 대한 정보만 가득했다. 나는 쇼핑 가이드북 보다는 골목골목 숨겨진 장소나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가이드북을 들고 하는 여행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쇼핑과 관광을 중심으로 일본에 간다면 더없이 좋은 책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른 책을 알아보시라.

-느낀점을 적은 노트를 찾지 못해 불확실한 기억에 의지해 적었다. 키노쿠니의 기본적인 정보와 이야기가 나온 책들을 읽고, 학교에 단 한 권 소장 중이던 서머힐 관련 책을 읽었다. 일본 역사를 알고 현재의 일본인의 특징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역사 공부를 미약하게나마 하고 갔다. 키노쿠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원한다면 가장 위의 두 권을 추천한다.

- 키노쿠니에 가기 전 다짐

- 무엇이든 새롭게, 열심히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을 중요시 하자
- 100번 실패를 해도 내 성장을 위한 거름으로 만들자
- 많은 사람들과 넓고 깊은 얘기를 나누어 보고 더 열린 사고가 가능하도록.
- 한자를 직시하자!
- 그 곳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경험하려 하자
- 내 생각과 주장을 최대한 펼치려 노력

- 하루 일정

07:40 ~	기상, 세면
08:00 ~ 08:40	아침 식사, 준비해서 출발
09:00 ~ 12:40	오전 수업(중간 10분 티타임)
12:40 ~ 13:40	점심 식사
13:40 ~ 16:40	오후 수업(이후 자유 시간)
18:30 ~	저녁 식사. 자유 시간
23:00 ~	취침 시간, 소등

*주말

(금) 19:30 ~	식사 메뉴 등을 정하는 미팅(초중고 모두)
(토) 9:30 ~	외출 장소, 시간을 정하는 미팅

금요일 저녁 ~ 토·일요일

주말에는 집이 먼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 돌아간다. 그래서 주말에는 집이 먼 초중고 아이들이 남아 생활하게 된다. 식사 준비·육조 당번·개 산책 당번 등을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정한다. 토요일은 다같이 근처로 외출을 간다. 보통은 대형 쇼핑몰을 가는데 아침 9:30분에는 모두가 모여 정한다. 장소와 출발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 학교로 내려가서 버스를 탄다. 보통 10시 반쯤 출발해서 4~5시에 돌아온다.

-일요일 : 개별 시간

-월요일, 수요일 전체와 목요일 오전은 초, 중학교 프로젝트에 스텝으로써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기숙사 생활 포함)은 고등부에서 활동했다.

- 關西kansai 여행

5월 1일~8일은 일본의 골든위크golden week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평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일본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약 1주일 동안 학생, 어른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어딘가로 가야 했다. 다행히 아빠의 지인을 통해 고베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학교의 특징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었던지라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간사이를 여행하러 다녔다. 여행은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의 유명지를 다녀왔다. 그리고 사전에 약속을 잡아 애들과 오사카의 유명지를 다녀왔다. 길치에 지도도 못보고, 한자도 못 읽는 내게 혼자 하는 여행은 여러모로 굉장한 경험이었다. 어딘가를 가려면 묻고 물어야 했다. 무엇보다 어딘가를 갈 때마다 역사공부에 안일했던 것이 정말 아쉬웠다. 문화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식생활. 호스텔에서의 식사는 모두 자신이 알아서 먹어야 했다. 나는 요리를 해먹기 귀찮아서 빵이나 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사먹었다. 장을 본다는 생소하고 신선한 경험도 했다.

혼자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평소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걸으며 남들에게 비취지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며 힘들었지만 즐거운 1주일이었다.

- 활동 내용

그 곳에서 내가 3개월 동안 한 활동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 a. 초중학교 프로젝트 스태프로서 활동(아이들 행동 보조)
- b. 키노쿠니 고등학교 뉴스 글쓰기(+ 인터뷰)
- c. 어른, 아이들 인터뷰
- d.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 e. 고등부 수업 참여(돌아가면서, 프로젝트 등)
- f. 고등부 한국어 수업 스태프 활동 및 공부 돕기
- g. 기숙사, 학교 전체 미팅 참가

a. 초중학교 프로젝트 스태프로서 활동(아이들 행동 보조)

일주일 중 3일은 초중등 아이들 프로젝트(목공, 요리, 동식물 관찰 등)에 들어갔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고등부 한국어 수업에 들어가 스태프로써 아이들을 보조해줬다. 프로젝트가 있는 날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었다. 마음보다는 몸이 지치는 날이다. 내가 외국인이고 새로 온 어른이라서 그런지 굉장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관심이란 주로 장난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뒤에서 달려들기도 하고 이것 보라며 날 끌고 가기도 했다.

힘들었던 점은 목공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더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듣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직접 봐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종종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을 이끌어 가기도 했다. 1학년 아이들의 경우 서투르고 종종 엉망이 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알려주곤 했다. 보면서 나보다 애들이 더 낫네, 라는 생각을 했다.

수업 방식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거야”가 아닌,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을까?”라고 묻는다. 그럼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정말 그럴까?”라며 의문을 던져준다. 더 다양하고 많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지 어려운 기술이 없어도 못과 망치로 이것저것 푹푹딱딱 만들어 내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웬지 무언가 만들어보고 싶어지기도 했다.

나는 특별히 목공이나 요리에 경험이 없다. 아이들의 방법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어디부터 보조해야 할지도 몰라 난감했다. 결국 나중에는 어른에게 조언을 청했다. 그러자 자신도 그다지 하는 것 없고 불이나 칼을 쓸 때 신경 써주고 하면 된다고 하셨다. 사실 그다지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훨씬 수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중학교는 주 2회 하루 종일 활동했던 초등학교와는 달리 1회 오전뿐이었다. 그래서 그다지 많은 이야기나 활동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학기 초라서 ‘이번 학기는 무엇을 할까’에 대한 미팅이 끊이지를 않았다. 중간에 히코다니 탐방이라는 프로젝트도 2회 정도 들어갔는데 개별학습 시간이 너무 길었다. 여하튼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과는 많이 친해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들어간 프로젝트에 있는 SEKKI라는 어른과 더 이야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키노쿠니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키노쿠니에 어른으로 왔다. 내가 왜 다시 왔냐고 물으니 “나는 이 학교에서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 체천 간디학교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혹시 지금 재학생중에 오지는 않을까?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다.

사실 나는 목공이나 요리 같이 활동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도우면서 내가 싫어하고 학교에서도 늘 안하겠다고 뻔질대던 부분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분야에서의 즐거움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았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고 이것들을 배우면서 얻을 성취감이 기대되기도 하다.

b. 키노쿠니 고등학교 뉴스 글쓰기(+인터뷰)

키노쿠니에서 1달 반 정도를 보냈을 때이다. 어떤 중학생 아이가 불려서 가보니 수업에 들어와 달라고 한다. 알고 보니 짚신반(어른 없이 자신들이 수업을 정해서 하는 프로젝트)이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업에 들어가 간디, 무지개 학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날 부른 것. 무언가를 던져서 자신들이 내게 이야기와 정보를 얻어가야 하는데 내가 알아서 뭐든걸 말해 줄 것이라 생각했나보다. 그래서 ‘간디와 무지개는 전체적으로 어때?’라는 커다란 질문을 답해주느라 참 난감했었다. 사실 조금 기분도 나빴는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무작정 불려서 얘기를 해달라니. 인문학 캠프 때 주의해야지 싶었다.

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간디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키노쿠니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길면 12년, 짧아도 5~6년을 키노쿠니에서 살아온 아이들이니 굉장히 신선해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기 전에는 키노쿠니 주간지에 글을 실었다(굉장히 길게 썼는데 알고보니 짧은 글이 필요했다고 한다).

c. 어른, 아이들 인터뷰

나는 아이를 중심으로 고등부 어른까지 총 8명 정도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다른 생각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틀만 짜고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에게는 주로 키노쿠니의 철학(혹은 자유), 진로나 삶에 대한 생각 등을 물어봤다. 어른에게는 키노쿠니 혹은 대안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학교의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봤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인터뷰 하고 싶었는데 귀국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하지만 아이, 어른들과 이런저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또 키노쿠니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가 키노쿠니 어른으로 온 유리페의 인터뷰 기록을 잊어버려 신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두리몽실하지만 나름의 자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였다. 학교 특성상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자라 와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자유에 대해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여러 문제에서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만났다. 가끔은 내 생각이나 가치관과 너무 달라서 인터뷰를 하면서 난감하기도 했다. 아이들보다는 어른과 이야기할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다. 조금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생각할 거리를 만드는. 키노쿠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대안학교의 모습, 문제점 등을 생각할 수 있었다. 사실 10년 이상 학교에 있으면 생각이 굳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또 굉장히 부러웠다. 이렇게 좋은 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역시 간디도 어서 젊은 썸들을 많이 많이 들여와야 한다. :)

d.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키노쿠니는 초중고 기숙사가 따로 있다. 특히 내가 지낸 고등부 기숙사는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복도에서 가장 구석진 방이다. 알고 보니 작년 키노쿠니에 왔던 무지개학교의

쌤도 이 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방이 다른 방들보다 넓고 창도 많아서 고른 방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넓은 이유가 옷장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침대의 머리맡과 발 밑에 옷을 쌓아놓고 지냈다. 가구도 침대와 히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짐들은 창틀에 늘어놓거나 트렁크에 쭈셔 박아두며 살았다.

첫 한 달은 방에서만 지냈다. 아직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하지도 않았고 매일 지쳐서 방에서 계속 쉬었다. 생각해보니 몇몇 아이들이 식당에서 같이 놀자고 했는데 ‘오늘만, 오늘만 쉬자’ 하다가 한 달이 흘러버렸다. 마지막에는 1분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참 아깝다.

고등 기숙사는 여자·남자 기숙사, 본관으로 나뉜다. 식사나 샤워 등은 본관에서 한다. 본관은 1층 남자, 2층 여자가 쓰는데 키노쿠니는 절대 이성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규칙이다. 보통 5시쯤 기숙사로 올라와서(학교에서 기숙사까지는 15분 정도 걸린다) 조금 쉬고 6시 반 식사시간이 되면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는 11시 취침 전까지 식당으로 사전과 노트북, 노트를 들고 내려간다. 일지를 쓰고, 인터뷰도 하고 애들에게 물어보며 새로운 무언가를 공부한다. 꼭 생활에 쓰는 표현 외에도 개그, 속담 등을 배우기도 하고 일본의 게임도 배워서 한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문화를 비교하거나 ‘왜 이런 걸까?’ 라며 상상하는 것도 즐겁다.

또 고등부는 아침·저녁으로 조를 나눠서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한다. 나는 아침 조에 들어가서 요리를 했다. 식재료는 전 주에 정해진 돈에 맞춰서 메뉴와 재료의 양을 계산한다. 그램과 가격을 계산해두면 다음 날 사감이 주문하는 식이다. 3~4명씩 8개의 조가 있는데 약 2주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준비를 한다. 매주 1~2회는 식사준비를 한 것 같다.

e. 고등부 수업 참여(돌아가면서, 프로젝트 등)

주 2~3일은 초중등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나머지 2~3일은 고등부 수업에 참여했다. 한 수업을 진득히 듣는 것이 아니라 몇몇 수업 외에는 계속 수업을 바꿔 들었다. 주로 철학, 체육, 집짓기 등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참가했다. 마지막 한 달에는 고등부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다. 고등부 프로젝트는 주1회 3~4개의 프로젝트 중 선택해서 하는 수업이다. 난 그중에서 얘기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프로니치 프로젝트,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갔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인권 프로젝트 때 내가 한국의 인권 문제나 현황을 준비해서 1시간 반 가량 이야기했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군대, 사이버월드, 성성 등으로 키워드를 나누어 이야기했다. 또 프로니치 프로젝트에서 범죄자를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계획을 짜서 바로 다음 주 프로젝트 시간에 점심 비를 받아서 다 같이 전철을 타고 갔었다. 생소한 경험이고 사실 볼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던 점이라 기억에 남는다. 비록 법률 언어가 어려워서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 학교도 수업에서 이런 현장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수업의 전체적인 느낌은 아이들이 중심인 느낌이었다. 키노쿠니 학교라는 점 때문에 더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식에 중간중간 쌤들이 생각할 것을 던지거나 이야기 방향을 제시하는 느낌이다. 수업의 참여도는 우리 학교와 비슷했다. 다만 키노쿠니의 시간표는 중간중간 쉬는 타임을 잘 지키는 편이라 비교적 덜 지쳐서 참여도가 높은 것 같다. 또 키노쿠니는 초중고등부 모두 티타임tea time이라는 시간이 있다. 오전 1교시가 끝나고 10분동안 티타임을 가진다. 이 때 쿠키 한 조각, 작은 젤리 하나 등 간단한 간식을 모두 먹고는 한다.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다음 수업을 더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었다. 놀라웠던 것은 그런 큰 효과를 정말 작은 쿠키 한 조각으로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간디에서도 시도하려 했지만 다과를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다.

f. 고등부 한국어 수업 스태프 활동 및 공부 돕기

매주 금요일 오전은 여러 언어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불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수업 중 나는 한국어 수업에 들어갔다. 한국에서 5년 정도 대학을 다닌 초등부의 모코짱이 진행하는 수업이다. 수요일 초등 요리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다. 수업은 한국어 혹은 한국문화에 관한 수업으로 진행한다. 가나다라마바사 등의 적는 법과 발음을 알려주고 그것만을 이용해서 단어를 찾는다. 인상적인 수업 방식은 트럼프 게임을 하며 숫자를 익힐 때이다. 카드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간디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머리도 굳었나? 빨리 익힐 수 있고 재미도 있는 수업 방식이었다. 나는 너무 일본어만 써대서 계속 ‘일’이 아닌 ‘이치(일)’이라고 해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국 음식도 해먹었는데 김치볶음밥, 비빔&물냉면, 떡볶이, 파전 등을 해먹었다. 특별히 맛은 없었다. 여름이라서 덥다고 팔빙수도 해먹었다. 난 이때까지 팔빙수가 한국 음식인 줄 몰랐다. 일본에서는 팔 대신 딸기 시럽 등을 넣어서 먹는다고 한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 혹은 한류에 관심이 있는(노래나 드라마 등) 아이들이었다. 몇몇은 나와 얘기하면서 ‘나’ ‘엄마’ ‘언니, 오빠’ 등은 일어에 섞어서 얘기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대신 3학년의 카나미와 리사라는 한국과 한국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카나미는 1달 동안 금산 간디학교를 가기로 해서 회화를 같이 연습해주었다. 리사는 한국어 시험을 2~3차례 치렀는데 밤에 식당에서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와 비교해주며 공부를 도와줬다. 내가 드라마, 영화를 많이 봐와서 한국어와 비교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다. 지금 일본은 카라, 장근석 등 한류가 대세라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 모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는 것을 보며 참 고마웠다.

g. 기숙사, 학교 전체 미팅 참가

키노쿠니는 크고 작은 미팅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전체가 참가하는 것은 기숙사 미팅, 고등부 전체 미팅hoom room이 있다. 학교 미팅은 매주 하지만 기숙사는 누군가가 다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얘기한다. 의제가 없으면 미팅이 없을 수도 있다. 전체 회의는 기숙사·학교 주1회인데 학교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돌아가며 서기와 진행자를 맡는다. 기숙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돌아가며 진행을 한다. 보통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0분 안팎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다지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작년 졸업생들은 거의 싸움이 될 정도로 의견이 강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니 미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미팅들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내용은 주로 생활의 문제(쓰레기 처리 등) 혹은 이벤트 준비 위원회 모집 등이 주를 이룬다. 기숙사에서 주로 청소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가끔 놀러가자며 의견을 묻기도 한다. 원래 마지막 학교 미팅을 할 때 내가 보고서 비슷한 느낀 점 등을 말하려 했는데 급작스럽게 회의가 취소되어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다.

- 돌아와서

무비자 기간으로 인해 90일을 딱 맞춰서 다녀온 키노쿠니 학교. 처음 갔을 때 공항에서 멘토인 아코짱과 모코짱을 만나 더듬더듬 얘기하고, 아이들과 친해질 것을 걱정하던 것이 불과 몇 주 전 같았다. 매주 반복되던 일주일이지만 매일 새로웠던 90일이기도 했다. ‘일본은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문화를 걱정하며 공부하고, 키노쿠니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리던 이 인턴십. 돌아가고 싶어서 힘들었던 적이 단 1분도 없을 정도로 소중한 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으로 내게 남았다.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90일

참 행복했던 시간 이었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을 들었다. 밥엔 식당에서 일지를 쓰고, 학교에서는 새로운 일본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도 알려줬던 기억.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로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건 모두 날 진심으로 받아 들여 주었던 키노쿠니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3개월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생각도 못한 모두의 마음과 성의가 담긴 인사와 편지를 받았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울컥 눈물이 나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이들에게 준 사랑만큼 다시 받았구나, ‘그냥 머물다 가는 한국인A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참 기뻐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과 있으면서 지칠 때도 많았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꿈지럭대며 귀찮아서 피병도 부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줄때면 속상하기도 하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언어의 문제로 전하지 못하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자서 속으로 앓기도 했다. 소수의 아이들은 한국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기도 해서 그다지 듣기 좋지 않은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참 속상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의 소수만 보고 나라를 단정 짓는 것에 대해 억울하기도 했다(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성향은 한국이 더 심한 것 같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에도 ‘어차피 곧 헤어질 사람들인데 더 친해져봐야 나중에 나만 힘들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기 전에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이 정말 가슴에 느껴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한다. 간디학교를 떠나 즐거웠지만 여러 문화 차이로 힘들어했는데 학교 밖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었다. 그리고 그만큼 소중했기에 아쉬움도 큰 이별 이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있어서 함께한 시간이 더 빛나는 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사했다.

行ってきます!(다녀오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의 키노쿠니 사람들

키노쿠니란 이름은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학교이다. 니일의 서머힐 교육철학을 본따 만든 학교. 올해 20주년 행사를 하는 이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키노쿠니는 어떤 학교일까? 키노쿠니의 교장인 호리상이 쓴 키노쿠니 관련 책 중 [자유와 교육이 만났다, 배움이 커졌다]라는 책이 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키노쿠니는 기본적으로 자유에 중심을 둔 학교이다. 자유만큼 애매하고 난해한 것이 있을까? 자유의 반대는 무엇일까? 인터뷰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 “잘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것만이 아닌, 주변의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어려운 자유를 교육에 녹아들게 해서 학교를 세운 호리상은 참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자 싶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3달 동안 키노쿠니의 졸업생을 몇 명 만나 볼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졸업생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자신만의 색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멋진 선배가 되어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싶다고나 할까? 키노쿠니 학교에도 졸업하고 공부를 한 뒤 돌아와서 어른으로 있는 사람도 3명 정도 있었다. 왜 왔냐고 물으니 내가 이 곳에서 행복했던 것들을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어서 라고 한다. 키노쿠니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활동적인 학교로 간주될 수 있다. 말 그대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수업·아이들이었다. 내 주위의 아이들은

자신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며 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키노쿠니의 어른, 아이들의 그런-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분위기에 나도 오히려 낯이 익은 것 같다. 하지만 인터뷰 중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아이에게 그런 적극성 등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에게 자신의 욕심을 기대하게 된다면 내색하려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대상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는 시점부터 좋은 교육자, 혹은 부모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자신의 욕심을 자녀가 대신 충족시키도록 강요하는 부모가 많다. 심지어 대안학교의 학부모 중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 분이 계시다. 꼭 공부나 입시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키노쿠니의 초중고 모든 어른들과 많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 사실 중학교 등은 많이 못 만나서 그런지 조금 가웃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몇몇 어른의 교육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얘기한 고등부 어른들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아이의 위가 아니라 옆에서 이끌어주고 제안해주는 역할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있었다.

달팽이처럼 살아가기

창의성이나 ‘다름’을 중요시 한다는 시대. 매일 경쟁하며 쌓여가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하는 자살률. 혹은 내면의 무언가가 결핍된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인 이 시대. 이럴 때야말로 개성과 자유, 관계 등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대안교육이 더 뜻을 꾀워야 한다. 더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내서 여러 곳에 알려야 한다. 작은 희망이란 느낌일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간디도 포함해서(점점 나아지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안학교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도 있는 사람도 많고 신입생 지원자도 점점 많이 줄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의 뿌리를 찾자는 정명 @^#\$(후에 수정) 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도 그 자료집을 읽으며 정말 대안교육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두에게 읽어 보기를 권한다.

앞으로 나는 좀 더 내가 가진 무언가를 주고받는 기쁨을 느끼고 싶다.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길과는 다른 삶·진로의 길을 걷고 싶다. 소수가 걷는 길이니만큼 롤모델도 찾기 힘들다. 오히려 내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길이고, 분명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진로의 방향이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겠고 또 막연하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내게 커서 뭐하고 먹고 살거냐고 묻지좀 말아줬으면 한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고 뭘 해봤다고 벌써 그런걸 정하나. 그만둬라. 난 여유 있고 천천히 생각할거다.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여유롭게. 꼭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아야 하나? 사람의 가치관과 욕심의 기준이야 다 다르지만 요즘은 좀 과한 느낌이다. 꼭 돈이 되지 않아도 해외로 나가고 싶은 점과 내 것을 나누고 싶다는 점을 결합시켜서 해외 봉사를 할 수도 있다. JTS에서 청소년끼리 모여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말도 있으니 그곳에 참가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다. 내가 즐길 수 있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되는 거다. 돈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참 많은 길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걸 찾아 나가야겠지.

- 간디와 키노쿠니의 비교

	간디	키노쿠니
교육	-중, 고등 과정 -예술 등의 교과과정 다양 -여름방학 1달, 겨울방학 2달, 가정 학습	-유치원, 초, 중, 고등 과정 -지식, 활동적 교과과정 다양 - <u>찾은 외부로 나가는 수업</u> -비디오, 교재, 프린트물 활성화 -여름방학 2달, 겨울 방학1달, 봄방학2~3주, 골드위크 방학(아르바이트).
해외 교육	-무빙스쿨, 필리핀, 인턴십	-해외연수
회의	-길고 굵은(?) 회의 -회장, 학생회 등 구성 -도난 등 여러 위원회 활성화 <u>-여러가지 이벤트 활성화</u> <u>-체계적인 학생회 구성</u>	- <u>짧고 많은 미팅</u> -회의를 더 잘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돌아가며 <u>진행 및 서기</u> -(기숙사)의제를 화이트보드에 먼저 공유 -(기숙사)알림 혹은 의제가 있는 아이가 화이트보드를 통해 미팅 알림(의제 없을 시에는 미팅 없음) -(학교) <u>그다지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음.</u>
생활 환경	-중고 통합적 생활 -위계질서 -비교적 도서관 활성화 및 책 다양	-교육, 생활과정 공간 등 분리 -초, 중, 고등 학교, 기숙사 건물 분리 -부족한 도서
축제	-대동제, 가을축제, 기말 잔치 2회	-봄축제, 운동회, 영화제, 타나바타 등
식사	-자율 설거지 -학생 식사 정리 -유기농 재료 -김장 -농사해서 직접 먹기	-학생이 식사, 야식 준비 및 정리 -주말 자체적으로 <u>식사준비</u> -과자를 개인적으로 먹어서는 안됨
청소	-매일 아침 청소 -청소 확인	-주 1회(기숙사 포함 2회) -특별히 검사 없음.
시간표	- <u>(기본적으로는)자신이 설계하는.</u> -(고등 과정) 진로찾기, 필리핀, 인턴십에 중심	-틀 내에서 수업을 선택 및 학년별 필수 수업 -(고3과정) 졸업 후 대학 혹은 진로를 준비할 시간을 위해 널널한 시간표 -꽤나 빨리 끝나는 일정 -금요일 3시에 끝나고 월요일 11시 시작.

학교 철학	-사랑과 자발성, 공동체와 환경 등 -간디 학교에 다니지만 정작 간디란 인물에 대해 모름.	-자유, 자발성 등 -니일에 대한 공부 -니일이 만든 서머힐에 대해 방문 및 이야기
개별 활동	-동아리 및 공통 관심사를 가진 소모임 활성화 -개별적으로 검정고시 등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많음 -공통된 관심사 등이 있다면 2~3, 많으면 4~5명 같이. -국가 영어 시험 등
그 외	-CMS 간디인 발행 -저녁 간식 -시골에 위치 -개인 간식 허용 -현금소지 불가능 -핸드폰 및 노트북사용 금지 -환경, 생태계 중요	-오전, 오후 간식 -졸업생 선생님이 많음 -산 꼭대기에 위치 -매 주 '키노쿠니 this week(end)' 발행 -과자 등 개인 간식 금지 -현금소지 가능 -핸드폰 및 노트북 사용 가능 -지역공동체 활발 -그다지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음(음식물, 일회용 쓰레기 등)

- '간디'와'니일'의 철학이라는 바탕의 차이

- 간디에게 제안

■짧은 회의를 늘리자

가족, 기숙사 회의만으로는 전체가 회의를 해서 정한다는'자율'혹은'회의'라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개인개인의 참여가 낮으니 지루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되어 버린다. 주제 혹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멘토, 동아리, 수업 등 작은 단위로 하는 회의 늘리기. 그리고 돌아가며 진행과 서기를 하며 전체적인'진행'의 경험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 자신들이 얘기하고 동의해서 정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회의에서 어떤 의견, 말이 나와도 들어주는(정정하는 것은 그 뒤) 회의.

그리고 정정하는 것은 회장, 선생이 아닌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회의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순서를 지켜 말하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의외로 빨리 결론에 도착한다고 생각함. 썰렁고 알먹고.

■음식, 목공 등의 수업을 활성화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만'삶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는 수업 치고는 생활에 녹아있지도 않을뿐더러 기간, 내용의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목공 수업은 이전 푹푹딱딱과 합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작품 하나를 만들고 끝내기보단,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보되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에 [~회 이상 참여] 란 식으로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더 많은 활동, 휴식 공간 확보

학교의 빈 교실, 학교의 카페, 벤치 외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학생 교사가 있을 곳이 부족하다.(보다 조용하고 무언가에 진득히 집중할 수 있는) 힘든 점이 많겠지만 조금 더 책을 쌓아놓고 맘편히 있을 수 있거나 노래를 고래고래 지를 수 있고 둘이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와 연결) 다양한 외부의 교육공간 활용

더 많은 야외 수업과 현장활동. 재판, 집회, 관련 행사 등을 수업에 넣을 수 있었으면 한다. 오후 수업 과제를 내서 해오는 등의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학생들이 잘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안한다.

■‘아군’이라 느낄 수 있는 쌤

10대의 입장에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든든한 아군이라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쌤을 원한다. 그래서 젊은 쌤들이 최근 대세를 타는 것일 지도 모른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쌤들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든든한 아군으로 느낄 수 있는 쌤은 소수이니 제안해본다.

그리고 이 제안은 학생들에게도 제안. 아이들도 쌤의 입장으로써의 한계 등을 입장바꿔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에게만 바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자.

■우리가 먹을 식사는 우리가 해보자!

식사 준비를 학생이 준비해서 먹어보자. 평일에는 무리수일 것이라 생각하고 주말에 신청을 받거나 기숙사 인원을 체크해서 식사 준비 및 정리당번을 정하거나 주말 식사당번을 늘려서 실행 가능할 듯. 요리를 보다 더 생활화 시킬 수 있다. 주방 관리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회 등을 정하던가 하는 방안제시.

■학교의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부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주간 신문

혹은 격주도 좋음. 최소한의 가격으로 구독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기.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없고 성장하는 과정을 알 수 없으니 트러블 증가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단 한 장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작고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10분의 tea time의 여유

오전 혹은 오후 수업이 끝나고 1~2차례의 10분 티타임. 수업을 끝내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며 10분동안 이야기를 하며 숨돌리는 시간. 거창한 다과가 필요하지 않고 작은 쿠키 한 조각, 100원짜리 젤리 하나라도 먹으며 쉬고 다음 수업을 준비(어른아이 구분 없음).

짧고 작은 것이지만 과자 등의 도난이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함. 당번 혹은 수업별로 사람을 정해 인원체크해서 식당에서 가지고 오거나 이름을 체크.

■[You know gandhi?]

간디 학교임에도 실제로 간디란 인물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5학년 인턴십 준비 등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 학기를 하고, 나머지 한 학기를 졸업 전 간디를 알기 위해 ‘간디를 알기’란 테마로 인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청, 금산, 제천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함.

■학생의 의견이 120% 반영되는 학교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요,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어른은 아이의 옆에서 ‘이끌어주는’ 어드바이저 adviser. 양쪽 의논해서 정하고, 학생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사실 이 제안은 특별히 간디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간디만을 향한 제안도 아니다. 어떤 대안학교라도 대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면 꼭 0번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

- 인터뷰

- 대상자 : 학생 5명, 어른 3명

- 형식 : 구성해둔 기본 질문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사람에 따라 바뀌가며 20~60분가량 진행되었다. (기본 설문지 내용은 아래 첨부 참조)

- 인터뷰 기준 : 비교적 키노쿠니의 교육에 대해 혹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아이와 되도록 키노쿠니에서 오랫동안 계신 어른을 인터뷰했다.

사람별로 인터뷰의 질문이 달라 “1번 질문의 대답은 ~”라는 형식이 나올 수 없어 대략적인 내용만 쪽 나열하여 정리했다.

- 요약 :

아이 : 대다수가 꽤 오랜 시간(최소 2~3년, 최대 12년) 키노쿠니를 다니고 있음 ▲도중에 다른 학교로도 가려고 했지만 시험 등으로 인해 키노쿠니로 계속 진학 ▲부모가 키노쿠니의 어른이거나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됨 ▲키노쿠니 교육의 핵심은 역시 자유라고 생각함 ▲자유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선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것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 ▲키노쿠니와 공립학교의 다른 점은 학생들이 미팅을 통해 주도하고 정하는 점 ▲어른들이 아이의 시선으로 사고할 수 있고 대하기 편한 점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 ▲키노쿠니의 장점은 수업이 굉장히 즐겁고 ▲고등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시각과 주위를 생각할 수 있게 됨 ▲작년과 달리 미팅에서 의견을 많이 표하지 않는 것이 아쉬움 ▲단점은, 최근 초등학교는 어른이 정한 틀 안에서의 아이들의 자율이 인정되고 ▲특히 중학교는 최근 어른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 ▲또 키노쿠니의 철학만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키노쿠니의 어른이지만 실제로 자유라던가 하는 것에 생각하지 않는 어른도 많다고 생각 ▲졸업 후에는 대학을 고민하는 아이가 많음 ▲각자 관심있는 것을 배우려 함 ▲올해 해외로 유학을 가는 아이는 현재 영어 등 준비 중 ▲대학보다 더 크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는 점에는 아직 막연한 느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싶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도 있음 ▲부모 혹은 친구와 진로 등의 비교적 무거운 주제로는 이야기하는 부분만 함 ▲친구와는 의견차이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하는 사람과만 이야기 ▲(+ 서머힐 이야기)

어른 : 키노쿠니가 시작할 때 호리상 혹은 지인을 통해 와서 일하게 됨 ▲특별히 대안교육 등에 관심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전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학교라서 문제아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 오는 학교였음 ▲키노쿠니는 키노쿠니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모든 아이에게 키노쿠니가 맞을 수는 없음 ▲자신의 일은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일 ▲키노쿠니의 아이들은 하고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 ▲1년 중 가장 뿌듯한 날은 졸업식날 ▲모두 이런저런 트러블도 있었지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걱정되거나 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음 ▲장점은 키노쿠니는 뭐든지 창조할 수 있는 점이 좋

고 ▲ 아이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그것을 받혀주는 환경과 시간표 ▲ 모두가 웃을 수 있고 살아가는 힘이 강한 점 ▲ 키노쿠니의 어른의 의미는 이끌어주는 사람 ▲ 아이의 위에 있지 않고 옆에서 존재하는 ▲ 아이들이 졸업하고서는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음 ▲ 졸업생은 학교에 굉장히 자주 오는 편 ▲ 히사시(어른 이름)가 차를 끌고 역까지 마중을 가기도 함 ▲ 특히 축제때에는 부모, 졸업생 등이 많이 와서 붐빔 ▲ 자유란 균형을 잘 유지하며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 생각 ▲ 졸업생에게 들은 말 중 가장 기뻐던 것은 키노쿠니의 어른들은 자신의 수업에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말해준 것 ▲ 키노쿠니의 급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같지만 가족 등에 따라 다름 ▲ 키노쿠니는 형식적으로는 나라에서 세운 나라 ▲ 호리상이 키노쿠니를 만들 때 ‘이것만은!’ 이라고 한 것이 나라에서의 인정 ▲ 일본 학교 리스트를 보면 키노쿠니가 있음 ▲ 소액이지만 지원금 있음 ▲

III 결론

- 내게 다가오는 120일의 가치

이 인턴십은 내게 어떤 가치,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한 달 내내 가엾은 상현쌤을 붙잡고 상담도 하고 고민해봤다. 그러다가 네이버 사전의 의미의 의미를 검색해보니,

의미意味

- 1 .말이나 글의 뜻.
- 2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 3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 고민의 방향을 돌려 내가 120일이라는 인턴을 통해 과연 어떤 가치를 배웠을까 생각해봤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했던 고민의 답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다.

공동체적인, 더불어 나누는 삶

그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의 기쁨과 보람

키노쿠니에 가서 나도 모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온 것 같다. 또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난 ‘나라는 개인을 우선시로 두고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었던지라 더 큰 변화로 다가온다.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로 인해 기뻐하고 고마워해줄 때의 기분.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고 잘되었다는 순수한(?) 마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받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며 나만이 아닌 주변과 ‘같이’ 살아가는 것.

위에서 공동체, 더불어 나누는 삶이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5년 동안 이해도 못하겠는데 “사랑·공동체·자발성 최고” 라고 외치는 듯한 학교에서만 살았다. ‘그놈의 지겨운 공동체’ 이라는 느낌이랄까. 내게 공동체란 진부한 이상론이자 귀찮은 것이었다. 어렵고 먼지 쌓인 책에서나 나올 법한 개념. 키노쿠니에 갔던 것도 꼭 집어서 ‘이런 것을 얻자!’ 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흥미 혹은 외국이라는 매력으로 인해 갔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다. 이전에 봉사를 하기 싫다고 칭얼댔 때 양쌤 하신 말씀이다.

“사실 봉사를 하면서 얻는 것이 더 많은데 내가 내 것을 계속 주기만 한다고 생각해서 다들 싫어하는거야. 사실 얻는게 더 많아서 하는건데.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죄다 욕심쟁이야 (웃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봉사의 본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싶다. 봉사도 아직은 망설임이 있지만 시도해 보고 싶다.

내가 왜 이런 것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학교에서의 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인 것 같다. 부끄럽지만, 누군가가 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필요로 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무언가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고 나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인턴이다. 이것만으로도 내 인턴의 가치 혹은 의미는 차고 넘치다 못해 터질 지경이다.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여유 있게 나누고 사는 삶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나 혼자 하려는 공동체 혹은 더불어 사는 삶은 힘들다. 학교에서의 공동체는 아직 크게 와닿지 않는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걸까? 하지만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유지되기 힘들다. 또 그건 공동체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며 너 좋고 나 좋은 삶의 방식이 좋았을 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이 생각을 계속 관찰시켜 나갈 수 있을까 싶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조금씩 이 생각을 정리해야겠지. 이번 인턴으로 인해 새로운 사고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을까?

많은 것을 내면에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자유의 의미와 현실에의 적용, 사람 혹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기회였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다. 또 내가 타인에게 느꼈던 고마움(도움)을 다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알았다. 헤어짐을 미리 두려워하며 정을 안 주려고 하던 나를 개선했고, 친구 이상의 관계에서는 ‘언젠가 내게 실망하며 떠나갈 것’이라며 관계를 맺지 못하던 점도 변할 수 있었다. 열정적인 아이들을 보며 나도 그 열정이 옹아버려서 자발성? 자기 학습능력?도 정말 쥐꼬리만큼 성장한 것 같기도 하다. 아직 잘 모르겠는 점도 많고 의문도 많이 든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점점 변화가겠지.

이 인턴ships을 하면서, 나는 한층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해본다.

— 인턴을 하며 어려웠던 점

1차 인턴 시에는 내가 간디를 대표하고, 작은 것에도 나라는 사람이 평가된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사실 이 점은 일본에서도 같았지만, 또 사회인을 이전과 다른 입장에서 접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긴장과 고민이 있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졸업하면 싫어도 만나면서 차츰 익혀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키노쿠니에서는 처음 초등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디까지 도와주고 지켜봐야 하는 지에 대해 굉장히 난감했었다. 너무 도와주거나 손을 대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와주기도 애매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멀뚱히 서있기만 할 수도 없어서 첫 한 달은 그렇게 고민하며 보냈었다.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주의하고 생각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지쳤었다.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되려나?’하며 둘러서 말하기도 했다. 또 ‘남들이 보는 나’를 굉장히 의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자’라며 상상도 해보고... 또 이걸 일종의 해프닝이기도 한데 3개월 동안 일본어만 쓰다 보니 보고서를 쓸 때 생각도 못한 문제가 생겼다. 사실 난 모르겠는데 애들이 문법이 이상하다고 한다. 일어를 공부한 현지는 문법이 일본식이라고 한다. 밥소사. 모국어가 이상해지다니. 일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죽도 밥도 안 된 기분이다.

키노쿠니를 가기 한 달 전쯤,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방사능 유출로 인해 계획이 통째로 날아갈 뻔 했다.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계속 준비도 하던 것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인턴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촉

박했다. 그래서 쌤과 계속 상담도 하고 키노쿠니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굉장히 힘들었다. 우선 다른 곳을 알아보면서 갈 수 있을 상황인지 알아보다가 키노쿠니 측에서 괜찮다고 해서 결국 준비한대로 밀고 가기로 했다. 이 때 현숙쌤이 힘들어하던 나를 위해 [한길아 힘내라, 힘든 일은 언제고 오기 마련인데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도 인턴의 의미이기도 하니]라고 보내준 문자가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었다.

- 아쉬웠던 점

내 인턴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기간 상으로만 보면 1달과 3달, 총 4달인데 7월 초까지는 늦어도 끝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키노쿠니의 일정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일정은 차이가 있어도 1차 인턴은 스스로에게도 많이 묻히는 경향도 있거니와 120% 몰입을 할 수 없던 것 같았다.

또 포괄적으로 사회 경험의 의미도 있는 교육과정으로써의 인턴십으로 봤을 때 또 그런 쪽은 미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 최선이였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일 때 해봤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무비자 기간을 맞추느라 마지막 아이들 이랑 다같이 헤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다. 사실 가능하다면 정말 1년 정도 가서 더 큰 역할과 책임, 비중도 맡고 아이들과 더 있고 싶었지만^^.

또 수업에서 스텝으로써 아이들과 함께할 때 내 경험과 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더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고 싶었지만 지식도 부족했고 일본어도 많이 부족해서 바디랭귀지를 섞어 소통하면서 조금의 답답함도 있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뽀뽀하게 스텝으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

- 예산 및 결산

계획서 예산(키노쿠니)

내용	예산	비고
비행기	4~500,000원	상황에 따라 배로 변경 가능.
교통비	20,000¥	환율을 알 수 없음.
식비	-	
기숙사비	15,000¥	
기타 준비물 비용	550,000	노트북, 일본 문화, 언어 관련 서적
합계	1,020,000	엔화 미포함

1차 인턴십 결산

내용	예산	결산	비고
교통비	50,000원	45,000원	지하철, 버스
식비	-	20,000원	빵, 간식 등
기타	-	-	
합계		65,000원	

2차 인턴십 결산

내용	예산	결산	비고
비행기 티켓	5~600,000	500,000원	
개인 생활비	???	???	
기숙사 생활비	15,000 yen	12,000 yen	
골드 워크	예산 없음 (측정 불가능)	20,000 yen	영수증을 계속 체크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음
기타	-	6,700yen	중간 병원비

- Thanks to☺

(목차를 만들다가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고마움을 전할 목차를 만들었다)

먼저 일본을 갈 수 있게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튼튼하게 받혀준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무지개 학교의 까마귀와 미나리♥♥

사랑방을 알려주고 얘기해준 꼬소와 원숭이♥

징징대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맛난 것도 사줬던 같은 유부남 상현멘토와 응원의 문자를 보내준 현숙멘토♥

이런저런 상담도 해주고 힘들 때 힘을 나눠주던 사랑하는 맥병♥♥

메일 늦지 않고 꼬박꼬박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키노쿠니의 호리상과 아코짱♥

1주일 동안 머물 곳과 여행지 등등을 꼼꼼히 알려주시던 순용 아저씨♥

미숙하기 짝이 없고 이것저것 스스로도 어색하던 걸 받아준 자유권의 멘토 은아씨♥

오사카 성에서 국제전화로(엄마한테 죽었다) 전화했을 때 일본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 그 뒤로도 계속 역사 공부를 도와주시는 정fwan쌤♥

갑자기 들이닥쳐서 보고서 상담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얘기해준 윤하쌤♥

느닷없이 찾아가서 “쌤 나 어떻게요~”라고 해도 웃어주시던 간디쌤들♥

[이모, 삼촌을 찾아요] 편지를 통해 도움을 주시고 블로그의 댓글로 힘을 주신 분들과 보살님♥

지진이 나서 문자로 아직 안 갔냐고, 다행이라고 걱정해주던 사람들 모두♥

더듬거리고 느린 언어를 상관하지 않고 말을 걸어주고 날 사랑해준 키노쿠니의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힘들어 하기만 했을 수도 있는 시간과 나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나 자신에게 특별히 하트 3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덕분에 120일 동안 후회 없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무사귀국 했습니다♥

■ 첨부

- 인터뷰 설문지(기본)

인터뷰 기본 질문(학생용)

1. 어떻게 키노쿠니에 오게 되었나
2. 키노쿠니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아무래도 공교육과는 다르기도 하고 나라에서 인정도 못 받고)
3.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 예정? 간다면 무엇을 위해? 안 간다면 왜? 뭘 하려고?
4. 대학 진학보다 더 넓게 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삶을 살고 싶은가?
5. 자신이 생각하는 키노쿠니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6. 부모님이나 친구들과는 진로나 비교적 무거운 주제로 잘 얘기하는 편?
(Yes. 그에 대한 장단점. No. 왜??(특히 부모에 집중)
7.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싶나(ex. 직업, 공부, 삶 등)

- 가장 좋아하는 말은?
- (사람에 대해) 싫어하는 것은?
- 어떤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 생각해?

(어른용)

1. 언제부터 키노쿠니에서?
2. 어찌다가 여기에서 어른으로써?
3. 자신의 교육철학은?
4. 키노쿠니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
5. 간디의 교육 중심은 간디의 사상(친환경, 비폭력, 공동체, 자발성 등). 키노쿠니의 교육의 핵심, 내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자신이 생각하는 키노쿠니의 장단점은?

7. 졸업하고 각자 어떻게 살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8. 졸업생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 키노쿠니 관련 작성 및 파일등
- 키노쿠니 자기소개서

魅力的な女性の魅力的な自己紹介

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私はいつも幸せくて 楽したいなオハングルです。私は17年前の1994年冬、韓国のソウルえ生まれました。 家族は私より4年 4歳幼いな 妹さんがいて、母と三つで住んでいます。 パパは癌に死んだんですが私を信じようと思って自由をくださる良いご両親も置きました。はじめから母と父が民主的で良い大学あるいは職場よりは人の人格的素養、生きている知識などに価値観を置いて自然にそんな影響を受けながら育ちました。

周りの人たちと 違うという理由で符籍応我で烙印を押されてプリスクールに行って数学, 科学代わりヒューマンリレーションズと自立, 自ら生きて行き方を学びました。

私は一般幼稚園を通うながら1年早く小学校に入りましたが、子たちと一生に似合うことができなく、いろいろ (授業とか) 帰農するパパと田舎に行きました。でもずっと 似合うことができなく4学年まで毎年ほかの学校に 移し回りました。母は 苦しがる私をためにいろいろ調べながらほかの父母たちとギョングドえ {虹学校} を建てるようになったし私は全校生 7人で始めたその学校の初学生になって 2006年に 1期で卒業しました。

心を閉めてじっといようとしていた私を卒業の時まで待ってくれた虹学校

普遍的な公教育学校とは距離が遠いこの学校を通いながら数学,科学,社会等よりは自ら計画して準備する方法,自転車だけで旅行をしながら人々に会って自らご飯を作って食べることなどを経験しました。私が野菜を作ってキムチを漬けるシチリ山も絨走しました。思春期によって心も入道ぎゅっと閉めてよほど焦らした私をあきらめないでしつこくしてしつこくおこなってくださった先生たちの徳で虹を通いながら経験して感じたものなどは後に私をもっと堅固に生きて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時間だった思います。

虹学校を卒業して同期の友達は皆その年にご両親たちが作った [いっしょに行く道学校]に進学したし私は知人を通じて分かるようになった [GANDHI SCHOOL]という中古等統合過程の寄宿死刑代案学校に入って行って 2006年,学校卒業と同時に 24人の同期たちと 06学番と言う(のは)名前で入学して現在在学しています。

私の 10代を充実に満たして入れてくれて根本と良い肥になってくれたGANDHI学校ガンジーに入学して中学校1~2年生の時には学校に適應して人々と親しくなって、寮生活を通じていろいろ 生きて行きながらあれこれぶつかって泣いたり笑ったりヒューマンリレーションズに対して学び始めました。3年生の時には高等過程進級条件中の一つの自分が願う主題で論文を作成して発表して評価 受けます。私は当時ママとトラブルの原因中の一つのインターネット中毒に対する問題点と方策に対してそれなりに熱心に使ったしあれほどの補償を受けました。

4年生、高等過程に進級するようになれば自分の未来としたいことをゆっくり悩み始めて一学期間平和プロジェクトを準備して勉強しながらいろいろ勉強して 2学期に約 2月暗いピリピンネグロスNegros 島とミンダナオMindanao, カミグインなどで英語勉強といっしょに他の国の文化、生の方式を見て世の中を見る視野を広げて平和と自分の生の方向に対して思いながら帰って来て報告書を書いて最後に整理して発表します。5年生-高2過程-からは高3 の時の教育課程であるインターンシップ-約 4ヶ月の間自分がして見たいとか進路に係わる団体あるいは人を捜して学んで体験して来る過程-を準備して自分の未来を悩んでそれなりの答を捜そうと努力する時間です。私はガンジー学校で住みながらさまざまな活動をしたんですが敢えてここに少なくはないです。 そんなよりは私が内面的にどんな素養と美德を積んでどんな価値観が私に席を取ったのかがもっと重要だと思うから。

私はこんな人です。

私は5年間の寮生活を通じてヒューマンリレーションズに対する経験と まだ感情調節をしにくい場合も多いが-先日比べて一生懸命内面的に発展しているし性格を書くとか本読むことを好きです。(‘本’にはマンガ本も含まれています.^.^) 外国の言語、文化を分かって行くことをすごく好きで変化が好きです。あまり興味がないことに対しては‘べつにしたくない’を赤裸裸に見せてくれたりするが興味が生じてしようとするのはすごい集中力と推進力があります。しかしそれをしながらまた他の興味に行ってしまうとか興味が冷えてしまったりかしながら終わりが良くない時もあるが普通自分が願う位の、あるいは自ら満足する位の成果をおさめた後そのように整理したりします。理性的だよりは感性的で論理的に言うどころか言う時声が泣いてしまうことのように震えて私の主張を言うこと苦しがります。しかしずっと直そうとたくさん試みているしとても遠い未来よりは現在を楽しもうと思います。私にいて幸せ、楽しみと言うのは現在におくいないと価値があって本当に幸せなことだと思うから。失敗することを否定的に思わないしいつも生に余裕を持つと思って肯定的に思考するのが習慣になっていて社交性が良いです。人とよく話し合っていていつも明るくてフレームにめりこんだ思考をしないたいです。 アイディアもあると思います。周辺では分もよく書くと言って、自らもかなり書き物をするを楽しんでいます。また私がしたいものなどを書いておいた‘夢のリスト’を小さなことから一つ一つゆっくり成しているしインターネットを中毒敵に楽しんでいます；。その外にもカフェー、旅行、写真を撮るとか撮れること、甘いものが好きで私の私生活あるいはプライドに手をつけることを嫌やがります。整理することは好きです。お金管理がよくします。

あなたを言ってあげる価値観は何でしょうか？

私に一番優先視される価値観は楽しさと健康、新しさです。

学校を卒業して最後の教育過程であるインターンシップ(高3の時自分の進路を捜して団体、人を渉外して最小4月の間学校を出て社会を学んで来る期間)を準備しながら生命に対するプロゼット授業をする時が浮び上がりますね。授業を聞く友達が生命と係った主題を思って授業を準備していっしょに話す授業だったがその人の持って来た主題は ‘自分が一番重要視する価値観と美德は何か’でした。例示には大きくヒューマンリレーションズ、お金、愛、名誉、自由、道徳、内面的(あるいは外面的) 美しさ、健康、新しさ、挑戦、成功などがあったが私は楽しみ、健康、新しさを1-3順位で書いて見ました。(実は人はそのように何単語で定義しにくいとくでさん複雑ですがとにかく)1位を‘楽しみ’にした理由は前に書いたように深く連関されています。も

し私が一流多国籍企業の高い年俵に皆羨ましがる‘一席’占めるとか大学路で小さなカフェをしながら暮すようになってと言ってもそこに私が本当にストレスを受けないで楽しんだら他人が見るには分からなくてもあの自らは満足するはずだから。 お金ですか?私は買いたいことも多くて行って見たい所も多くてお金を使うことも好きだがそれだからストレスを受けるとか健康をこわすよりはかえってある位だけ使いながら余裕のあるように生きて行こうと思います。私が本当自由だったら楽しいだろうし、 楽しければ常に肯定的で笑うことができるしすべてがなだらかに帰るはずだから。(自分が世を笑いながら眺めれば世の中も自分に笑ってくれるはずだという話がありますね)2位は‘健康’なのにこれは母が小さな有機農産物店をしながら“いくら窮しても食べ物だけは良いことを食べて”という言葉がたくさん聞いたり入ったしどうしても父が癌で苦勞することを見ながら健康の大事さに対して考えて見る時間をたくさん持ったから 2位にあげました。3位は‘新しさ’です。常に新しく挑戦して,99番(回)の失敗を土台で 1回成功して安住しないで常に新しいことを捜して変化しようとするということを現わすのです。もちろんこの外にも愛, 自由, 学問など多くの重要な価値があるけれども。

私の夢と同時に現在, 未来人夢のリスト

先立って短く言及したように、 私はノートに私がしたいことをいくらちょっとしたいことでも書き留めて一つ一つゆっくり成して行っています。 カラオケ点数 100点当たって見るあるいはどこそこに行くって見ること同じこまごましいことから始めて何々を勉強するとか私の能力に全世界に認定を受けるとかするスケールが大きいものなどまで何百犬が現在書かれていてゆっくり、 しかし倦まず弛まず減っています。実は私はひとつだけ邁進するよりはさまざまを広くすることが私の性格に迎えるようになって見たいものなどがあまりにも多くて常に周りの人々が“お前は何をしながら暮すの?” と問って来ればそのまま適当に笑いで越したりしました。旅行に行くの人, 写真作家, フィットニングモデル, 作家, 相談教師, カウンセラー, デザイナー, 小規模カフェ運営, ポーカル, ドラマー等々になりたいことも, したいこともあまりにも多くてゆっくり人生を楽しく暮しながらして見ようと思います。必ず一分野で最高になるというのではないから。人生をあんまり生きてみなかったしあれほどさまざまな活動あるいは経験が多くなくて断定して確実に‘私の夢は...’と言うことはできないがあと社会に出てまた多い経験を経験しながらもっと視野を広げて考えて見られたらと思います。

よく話す勉強に対してはお上手だと言わないです。

代わりにその間よりもっと本質的で根本的に貴いことを得たからです。

そんな勉強は中学校の時の検定考試のために無理やりに勉強したことが最後のだったし今はすべて忘れて現在小学生の内容も解く事ができないからです。それで私の学歴は中2時見た検定考試によって小学校卒業までです。しかし私にいてそれはあまり重要ではないですね。しかし私は代案小, 中, 高等学校を通いながらそんなものなどをどんなに勉強するかどうかを学んだしより得にくい知恵と経験, もっと実質的で重要な知識たちを持っているから私は今満足します。

自己紹介がとても長く感じられたらどうかたくて心配ですね。しかし最大限私がどんな環境で育ってどんなに成長してどんな価値観と考えを持っているかを説明しようとしたが見たら予想したより長くなりましたね。この紹介書で私を完全に分か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もっと肯定的な麵が多い首都, 否定的な麵が多いかも知れないですね。しかしどの位私と言う人間

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読んでくださっ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 今日も楽しく笑いながら送るのを...

－ 학교 추천서(필쌔 작성)

About a student : Oh, Han-gil

Educational background

She has been with alternative field since she was very young. She graduated from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Moojige(Rainbow) school. Her mother has deep understanding of alternative movement. In Korea, alternative schoolers are not taught to study all day long only for University. Han-gil is not so different from other alternative schoolers. She's not so much interested in subjects like math, English, science... Instead, she is eager to learn for her needs. For example, She's been studying Japanese for years by herself. She wants to visit Japan. Her Japanese reached at a high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she's been showing a motto that a real learning can be achieved when one is ready to learn.

School life

She **was** not so active at first. When she just entered this school, she didn't show much interest in school life. Sometimes she wasn't cooperative with other students. Teachers didn't push her but, just waited and kept supporting. As she became older, she seemed to get some energy for life. She found her aims in life, like visiting Japan. At the same time, she got a responsibility for a senior student. As a high grader, she is now doing group work-school cafeteria management. She took an important role to get ready for cafe. Buying materials for food, cooking, and many things.

The relationship among the students are not so easy. The problem of violence and bullying isn't as serious as public education. But, Gandhi school is a dormitory school and many unseen problems exist. Tension between girls can be one of them. Han-gil doesn't like to be involved in the matters of relationship, so she doesn't seem to be so eager to have deep relationship. But, she is very warm-hearted in fact. Recently, she made more than 15 photo albums for her friends. This is the last year they can spend together and she wanted to give special memory to her friends, so she's prepared for them almost for a year. All the students and teachers were deeply moved to that scene. Real Han-gil is not like what she looks. She is very warm.

She is a little bit shy and didn't like to show herself in public. That's why she never performed in the end-term school festival, but she stood for the first time on the stage recently. Though it was a group performance, Han-gil is changing.

Future

To many students who are attending alternative school, the future is very uncertain. Because of the short history of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the data

about what they are doing after graduation need to be gathered more. Furthermore, many of them don't depend on university education. It is natural that they are very nervous before graduation. Han-gil isn't like them. She says she'll never dig in to enter the university without aim. She believes she can find her value outside the university. I believe she has big possibility as far as she believes in herself.

This is written by her mentor Oh, Pil-sun

- 이모삼촌을 찾아요 편지 원문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 간디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중학교에 입학해 현재 6년째 제천 간디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한길입니다.

제천 간디학교는 중고등 통합 과정 기숙사형 학교로, 배움의 중심을 일반적인 공부보다는 인성, 관계, 행복 등을 중요시 하는데 제가 이번 2011년도 저희 학교의 마지막 졸업 과정 중 자신의 지난 과정을 정리하고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사회로 나아가 자신의 진로에 관해 더 넓게 생각해보고 올 수 있는 과정인 인턴십 과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해보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곳도 많지만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않아서인지 아직 한 가지만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 어떤 것을 가면 좋을까 하며 고민하다가 일본의 대안학교인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학원 소학교]와 연결이 되어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보내면서 외국의 대안교육이나 사회, 문화를 한국과 비교 해보기도 하고 그곳 제 또래 아이들은 어떤 가치관과 진로를 품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보고 듣고 싶습니다. 그 곳에서 한국의 문화 혹은 언어 등의 수업과 모임 등에 참여하며 저의 한계를 보고 제 작은 능력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저의 가치를 깨닫고 이어서 진로에 대한 한 가지의 길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언제나 즐겁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떼게 하는 인턴십

이 인턴십의 과정은 제가 졸업하고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할 것이고 제 가치를 찾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으로 대안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곳이 아닌,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자립하려 하고 홀로 서기 위해 걷는 첫 발걸음입니다.

보통 사회에 나가 자립한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주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아직 나이도, 경험도 없기에 아직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아직 미성숙한 만큼 더 많이 보고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외국에 나가있게 될 텐데 그 곳에서 저의 활동 내용을 나누고 저를 뒤에서 지지해주며 “괜찮아,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실 더 크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신 마음으로 더 열심히, 힘내서 공부하고 나중에 정말 자립하기 위한 기본을 다지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 주실 이모삼촌이 되어 주세요!

제가 아직 나이와 능력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이런 편지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사실 이 도움을 받고나면 앞으로 제가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에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처음부터 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함께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기에 저는 이러한 부담을 좀 더 행복하고 부담 없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많은 가족들에게 받은 도움처럼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퍼트리는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돈 뿐만이 아니라 저를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가족들을 많이 많이 만나서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다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이 학교의 마지막 과정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받은 도움은 앞으로 제가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신 분들은 이미 제 마음 속에선 가족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격려문자나 문의메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알찬 올해를 보내기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오한길

010-3339-1906

hancil223@hanmail.net

blog.naver.com/hangil223

씨티은행 160-17071-265 오한길

* 키노쿠니 학교는 1992년 초에 현 교장 호리 신이치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학원 소학교]라는 이름의 초등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서머힐summerhill이라는 영국의 세계적인 첫 대안학교의 교육철학을 본 따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형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두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규칙 등을 정합니다. 지역교류가 활발하고 나라에서 일정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꽤 활발한 학교입니다. 저는 4월 10일이 입학식이라 전 날 출국하여 7월 8일 방학과 동시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의 멘토를 맡아 주시고 키노쿠니 고등 영어 교사이신 아키코씨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또는 메일링을 통해 인턴십 기간에도 도움주신 가족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관찮으시면 관심과 도움을 주실 때 제가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함께 주세요.

- 키노쿠니 뉴스에 실기 위한 글

きのくにえ来て

半年前くらいから準備したきのくにからの90日。空港で一人でいっぱい緊張しながらあこちゃんともこちゃんに會って、センタでしゅうへいに會って、學校が始まる日には入るまでのんちゃんと「怖い」と言ったことが昨日見たいのに私は既にきのくにからの感想を書いている。ウアア～

きのくにえ来て感じたことの中で一番多かったのはすごく明るくて活動的なことじゃないかな。子どもたちがミチングで「やろう!!」としてパーティとか祝祭を準備すること、自分がしたいことに頑張ってる御陰でその回りの人たちも何かえ頑張れるところ。(それで私もすごくいろいろについて意欲的になれたかなw)そして多様な授業の種類(大人一人がぜんぜんちがう性格の授業をすることをしてビックリしてたw)と「先生」じゃなく「大人」とか「スタッフ」と呼ぶの意味、子どもたちの視線で考える大人たち。

子ども、大人たちをインタビューするときにはきのくにの教育とか自由について自分の考えを持っていろいろな悩みももっていると感じた。でも悩むのは辛いけど生きながら自分、回りのことに疑問符を持って思うのはすごく大切だと私は思う。

中學校は最近少し違うだとよく言ったけど私が見た高校は子どもと大人たちが両方の意見をを十分に尊重しながら自分がもらってる信頼の重さと価値をよく分かっていると感じれた。じつはこんなところもめっちゃうらやましいwまだ考えなかったら一回くらいはいいかもww)

インドのMahatma gandhiの哲學を一番大事にする私たちの學校とは施設から教育課程までいろいろ違うと思ったけど日本の文化ときのくにの教育と外国人の考え方と生き方を見る機會だった。それと世界的な學校だからかな～外国人で日本語も下手な私にもよく話しかけてくれた子どもたちにも遅かったけどいつもありがとう!!!

90日の短い時間だったけど大好きになっちゃったきのくにの人たち。この學生たちが卒業をして本当に幸せで自分の人生を生きてほしい。もっといろいろを見て、感じて経験しながら。自分が持っているいいことを分かって「あたりまえだろう?」とみんなが思うことの意味を考える人になったらすごいかなw いや、實は今も十分にえらいからこれ以上賢くなったら外國の会社にスカウトされるかもwww

流れない水は腐るはずだ。これからもきのくにもずっとつづきながらいろいろ変わると思うけどきのくにだけの色を忘れないでほしい。ちょっと年寄りっぽいなwww

最後で、ごこに來て絶対忘れない追憶ももらって家に歸って夏を楽しみにしながら私がもらったことをちゃんと思いを整理するけど自分も少しは進んだ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る。そしてそれを手伝ってくれていつもやさしくしてくれたきのくにのみんな!! 本当にありがとう!!また會えて「久しぶり～!」と言うまでにバイバイ!!!!

임강토 인턴 활동 보고서

◆ 목차

1. '쿵바야'

- 1) 언제부터 언제까지?
- 2) '쿵바야'는?
- 3) 왜 갔지???
- 4) 쿵바야 에서 뭘 했지?
 - 4-1. 들어가기 전에
 - 4-2. 썸베 교실
 - 4-3. 리듬얼롱
 - 4-4. 하이서울페스티벌
- 5) 쿵바야 에서 무얼 느끼고 얻었는가?
 - 5-1.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 5-2.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이야기
 - 5-3. '쿵바야' 활동을 통해 생각한 나의 미래와 느낀 점

2.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문.전.성.시 사업팀

- 1) 얼마나 했나?
- 2) 문전성시 사업단이란?
- 3) 왜 선택 했는가?
- 4) 문전성시 사업단 속에서 무얼 했지?
 - 4-1.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리 예술가
 - 4-2. 작은 도서관
 - 4-3. 길절이 방송국
 - 4-4. 그 외
- 5) 문전성시 사업단 속에서 무얼 느끼고 얻었나?
 - 5-1.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리 예술가 거리예술가
 - 5-2. 작은 도서관 '바람골'
 - 5-3. 길절이 방송국
 - 5-5. 그 외

1. 첫 번째 인턴 활동 단체 ‘쿵바야’

1)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1년 2월 14~ 5월 15일

2) ‘쿵바야’는?

아프리카 타악그룹 “쿵바야”는 아프리카 타악기의 리듬을 소재로 음악을 구성하여 연주하는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단이다. 단원들 모두 전문적인 타악지식과 연주력을 쌓은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과 미국에서 재즈드럼과 아프리카 타악기를 전공한 곽연근을 리더로 2003년부터 단국대 음악대학원과 한양대 음악대학의 타악기 전공생들과 함께 아프리카 타악기 음악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아프리카 연주단과 국악 및 다른 타악단체와의 교류와 연구, 연주 활동을 통해 활기 있고 음악적인 공연을 만들어 가며 여러 장르의 아프리카 리듬을 체계적이고 음악적인 리듬 교육프로그램을 실용화 하고 있다.

아프리카 타악기를 연주하는 아프리카 타악그룹 쿵바야의 연주는 매회 활기가 넘쳐 아프리카의 정열이 가득한 특색있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가족의 투박한 음색과 정리되지 않은 여러 벨소리 들과 휘슬소리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며서 조금씩 더해가는 리듬의 무게감은 듣은 이로 하여금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아프리카의 초원에 서있는 듯한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전문적이고 순수한 타악기 음악의 열정을 가지고 전문연주자들이 모인 아프리카 타악 그룹 쿵바야는 아프리카 타악 음악을 시작으로 세계의 여러리듬을 비교 분석하여 음악적으로 중요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은 물론, 음악적인 정신과 열정들을 담은 연주활동으로 세계로 퍼져 나아갈 세계의 모든 리듬이 용광로처럼 녹아든 우리의 혼과 열이 담긴 우리의 음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활동하는 전문 음악 그룹이다.

3) 왜 갔지?

난 인턴을 한다길래 꼭 내가 나중에 할 일이 뭔지 고민해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었다.

쿵바야의 대표이신 곽연근 선생님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최고의 드러머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 이셨다 그리고 예술을 하는데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정말 잘 아시고 실천 하시는 분이였다 라고 나는 저번 무빙스쿨에서 느꼈기 때문에 저번 한 달간 보다 훨씬 많이 활동을 할 것이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를 처음 보았을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찾던 것이다! 라는 신호가 왔다 운명적인 만남 이었던 것 같다

젼베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한다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걱정을 잊고 신나게 두드려 마음에 소리를 내주는 젼베에 빠져 버린 것 이다.

내가 관심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 곳에 공연이나 일정 그리고 선생님의 삶이 어떤지 주의 깊게 알아보고 나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도 해보고 결정을 조금이라도 내려 보고 싶었다.

4) ‘쿵바야’에서 뭘 했지?

4-1. 들어가기 전에

인턴십 전에 선생님과 만남으로 인턴십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이 이번에 공연도 많고 할 일도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막상 가보니 할 일이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목표가 쿵바야에서 공연을 하는 것 이었지만 그것도 내가 단원이 아닌 이상 불가능 했다.

4-2. 쥬베교실

쥬베교실은 평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 되는데 매일 다른 클래스의 수업을 한다. 입문 과정부터 해서 주니어 쥬베교실, 전문인 과정 까지 각자 다른 클래스의 수업이 있다. 그렇게 수업을 한다. 아프리카의 기본 리듬과 소리내는 방법을 배우고 연주한다.

쥬베 교실엔 직장인들도 계시고 국악전공 선생님 춤추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배우러 온다 난 정말 쥬베 수업을 들으면서 일에 지친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을 보니 정말 음악이란 대단 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다 나도 일을 하며 하는지라 보는 것만 아니라 몸으로 많이 느낀 것 같다.

쥬베교실은 꽤 오래 되어서 쥬베에 빠진 많은 분들이 몇 년에 걸려서 졸업도 하시고 쿵바야를 후원하시기도 하시고 공연 때 마다 찾아와 주시고 리듬얼롱 이라는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하셔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다. 2년 전에 무빙스쿨 때 보았던 분들을 그대로 보았다. 선생님이 노력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 같다 난 저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 있는지 생각 하게 되었다.

4-3. 리듬얼롱

리듬얼롱은 쥬베교실과는 좀 다른데 주1회 진행이 된다. 대부분 쥬베교실 에서 배우시는 분이나 쿵바야 단원, 그리고 쥬베교실 졸업생과 아프리카 타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오신다. 매주 다른 아프리카 연주곡을 쉽게 배워서 다 같이 즐겁게 연주를 한다.

4-4. 하이서울페스티벌

총 6일간 열리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은 세계 11개국 47개 단체의 150여회 초청공연을 포함해 총 300여회의 공연을 하는 아주 큰 축제이다.

쿵바야가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공연으로 참가한다고 했다 내가 맡은 일은 공연스텝 그리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내내 아프리카 타악기 전시 및 체험 부스를 안내하고 관리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페스티벌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했다. 부스에 전시할 악기들 이름표 그리고 악기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부스에 날라다 놓았다. 선생님은 이번기회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말도 많이 해보라고 하셨다. 5월5일 페스티벌이 시작이 되었다 아침에 내가 맡은 부스로 가서 천막 같은 걸 걸어 내고 악기들을 가지런히 나열해 놓고 준비를 마쳤다. 옆에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걸 어디에 쓰는지 이걸 무슨 악기인지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쥬베를 치면 기본적인 것만 조금씩 알려주었다 첫 날이 어린이 날 이라서 그런지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부스가 딱 차서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도망가는 것만 체제할 수 있었다. 그 날 외에는 사람들에게 악기 설명도 해주고 기본적으로 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사람들처럼 같이 연주를 하면서 놀았다. 평일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앉아 있

는데 거리 공연같은 걸 하길래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몰래 가서 봤다 정말 여러 가지 외국공연을 봤다.

그리고 축제동안 노리단에 공연이 있었는데 은정이랑 태영이형도 만났다. 나도 정말 신기했다. 간단한 인사를 하고 부스에 들어와서 같이 쥘베도 치다가 갔다. 그리고 마지막 2일은 콰바야의 공연이 있었는데 난 스태프로 참여했다. 친구들에게도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서 민성, 정수, 다빈, 철종 에게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장구, 모듬북 이랑 아프리카 타악 연주를 국악과 퓨전을 해서 하는 공연 이었다. 사실 의도는 엄청 좋았다 우리나라 국악과 아프리카의 타악을 접목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좋았는데 공연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나에게 크게 감동이나 그런 걸 주지는 못했다. 나는 콰바야의 아프리카스러운 그런 원초적인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다.

일정이 다 끝난 뒤 선생님이 수고 했다며 삼겹살도 먹고 이번 하이서울 에서는 새로운 외국의 공연도 많이 보고 페스티벌의 기분을 많이 느껴서 좋았다.

5) ‘콰바야’에서 인턴을 하며 무얼 느끼고 얻었는가?

5-1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콰바야 활동에선 꽤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콰바야 단원부터 해서 쥘베교실 사람들 알바에서 만난 사람들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서 인턴하는 친구들 까지 꽤나 다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라서 이 글을 쓴다.

콰바야 에서 만난 단원 분들은 아마도 이번 인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것 같다. 그 분들 중에서 내가 중3때 무빙스쿨을 할 때 같이 쥘베교실 수업을 들었던 분도 2명이나 계셨고 원래 단원으로 계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셨다. 쥘베교실 에서 같이 수업을 받았던 두 분은 그 때 많이 친해져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대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짜잘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셨다. 사실 그때 보기엔 나보다 못 쳤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단원이 되어 계셨다. 하하

그리고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연이 끝나고 뒷 풀이 에서도 나한테 대학 진로나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다. 그분들 하고는 나랑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젊은사람 끼리만 통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쥘베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들 처음 보는 분들이라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왜 왔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셨다. 사실 내가 그런 걸 제일 두려워 하고 말도 막 더듬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자기소개를 한 것 같다. 날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점점 친해지고 말도 많이 하게 되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에서는 내가 부스를 관리 하는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만났는데 그 중엔 필리핀에서 온 분도 계셔서 내가 필리핀에 갔었던 얘기도 하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얘기 해서 되게 반가웠다. 부스에 찾아오는 사람들 에게 처음엔 말을 걸고 쥘베를 가르쳐 드리는게 쉽지 않았는데 하다보니 말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알바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같은 나이 또래에 친구들도 있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져서 외로웠던 서울 생활에서 조금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인턴십을 하는 친구들이랑 주말에 가끔씩 만났다.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정수, 민성이 다빈이 그리고 주말마다 오던 의찬이랑 가끔씩 만나면서 서로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즐겁게 놀았다.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서울에서 인턴십은 훨씬 더 힘들어 졌을 것 같다.

이번 인턴십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엄

청 많다는 걸 느꼈고 내가 너무 마음을 닫고 살지는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되었고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낮을 가리는 성격의 경험치도 조금 상승 한 것 같아 너무 고맙고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5-2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이야기

쿵바야에 인턴을 하겠다고 부모님과 찾아 갔을 때 곽연근 선생님은 이곳에서 인턴을 하려면 반드시 네가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도 그리고 강습비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난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본적은 없지만 오로지 “쿵바야”에서 인턴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에게 고시원이라는 작은 방 한 칸을 구해 주시고 청주로 내려 가셨다.

그날부터 말로만 들었던 고시원 생활이 시작 되었고, 그리고 내 생활비와 선생님께 드릴 레슨비를 드리기에 알바자리를 찾으려고 ‘쿵바야’에서 연습이 끝나는 시간이면 방배동 여기저기를 다 다녔다.

그렇게 해서 사부사부를 하는 식당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 까지 시간당 4500원 을 받기로 하고 알바를 찾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다. 알바가 처음이라 적응도 되지 않고 긴장도 너무 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 무서운 매니저 누나도 있었고 이것저것 따지는 손님도 엄청 많았다. 그래도 내가 돈을 번다는게 뭔가 뿌듯한 맛이 있어서 열심히 했다.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일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월급을 처음 받았을때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이런 종이 같은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너무 분하고 많이 슬픈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돈에 치중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시원 생활은 생각 보다 힘들었다. 한 평도 안 되는 관속 같이 좁은 방, 낡은 침.대와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 외에는 창문도 없고, 실내 온도조절 장치도 없고 밤에 혼자 잠들고 아침에 눈을 떠도 시간을 보지 않으면 밤이면 낮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래서 가능하면 고시원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밤 열한시까지 이어지 알바 생활에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쿵바야” 연습실로 걸어가서 청소하고 연습하며 지냈다.

고시원에서는 사람들이 다 우울해 보이고 되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내가 살던 고시원은 약간 오래된 곳이라서 나이 많고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거의 우울증에 까지 걸린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사는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저 사람들도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렇게 돼서는 안되겠다고 너무나 크게 생각이 들어서 더욱 열심히 한 것 같다.

쿵바야 인턴생활에서의 힘들었던 식당 알바와 고시원 생활은 비록 짧은 3개월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직접 겪어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인생에서 나를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5-3 쿵바야 활동을 통해 생각한 나의 미래와 느낀 점

이번 쿵바야 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쿵바야에 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같이 배우던 입시생 친구를 보며 지금은 실력이 비슷하지만 나중에 저 친구가 대학을 가면 나보다 훨씬 잘하고 내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선생님도 항상 전공을 하려면 대학을 가야한다고 ‘나도 전공으로 해서 대학을 가야하나’ 내 머릿속에서 많은 혼란도 되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관두고 빨리 검정고시를 따서 입시준비를 해야 될 것만 같

은 생각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드림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면 그냥 보통 대학전공생 처럼 드림만 기계처럼 잘 치고 나중에 세션이나 하면서 연주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저렇게 살려고 간디학교에 온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그런 것 보단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내가 직접 창작하고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너무나 배고픈 생활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아직도 고민은 진행 중이다. 예전보다 더욱더 고민이 많이 생기고 결정한 것도 없지만 인턴십을 통해 더 많은 고민으로 나를 더 성장 시켜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인턴십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조차 안했을 테니 나름 많이 도움이 되었다.

2. 두 번째 인턴활동 단체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문.전.성.시 사업팀

1) 얼마나 했나?

인턴 활동 기간 2011년 5월20~ 8월20일

2) 문전성시 사업단이란?

문전성시는?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지원하는 ‘문.전.성.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 주관 단체인 기획단 ‘예드림’ 그리고 가경터미널 시장에 이주하여 여러 가지 예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술단체로는 극단 ‘전통연희단 마중물’ 시 노래모임 “민들레의 노래” 영화모임 “씨네 오딧세이” 국악실내악단 “라임” 청주놀이마당 “울림” 그리고 공공미술을 위한 여러 미술가들이 모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2010~2011년 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토요일 마다 시장 곳곳에서 거리공연을 펼치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리예술가’ 이주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토요 아트마켓’ 시장사람들이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겉절이 방송국’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3) 왜 선택 했는가?

쿵바야 에서 두 달 정도 인턴 활동을 하면서 서울 하이페스티벌 공연 축제에 참가하는 쿵바야 선생님 덕분에 전 세계에서 초청된 엄청난 공연들을 보게 되었고 한 예술 단체가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 사업인 문전성시를 알게 되었다. 공연을 위주로 하는 ‘쿵바야’ 보다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 들이 모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의 취지와도 잘 맞는 것 같은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문전성시 사업단을 선택하게 되었다.

4) 문전성시 사업단 속에서 무얼 했지?

4-1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리 예술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리 예술가는 2010년부터 이어서 2011년 11월 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가경터미널 시장 곳곳에서 거리 공연을 펼치는 프로젝트다.

한 달에 한번 거리공연 예술 팀 회의를 하는데 그 달에 할 거리 공연팀 선정 및 공연장소 그리고 시간을 결정한다.

그리고 공연 날에는 공연 팀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진 공연 장소 정리 및 청소 공연팀 별

베너 설치, 음향 설치와 텐트 치기 그리고 공연 팀이 필요한 것들 챙겨주기 (물, 의자, 보면 등) 공연 시작되면 관객이 되어 공연을 관람한다. 그리고 끝나면 뒷 정리.

4-2 작은 도서관 ‘바람골’

작은 도서관은 문전성시 사업단과 시장 주변의 시민들과의 소통 확장을 위한 공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터미널 시장 작은 도서관 개관이 6월19일에 이루어졌고 개관을 위한 공사 및 공공 미술팀을 도와 도서관 꾸미기 도와주었고 여기저기서 기부한 책들을 도서관 까지 날랐다. 개관한 이후로는 도서관 청소를 하고 도서관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관리 했다. 하지만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은 별로 오지 않음.

4-3 곁절이 방송국

가정터미널 시장 공식 방송국 곁절이 방송국은 시장 사람들의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시장통 방송국 이다. 한 달에 한번 시장 상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취재하여 극단 ‘마중물’ 에서 단막극으로 만들어 공개 방송 중에 공연을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 상점에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주일에 3번씩 진행이 되는데 시장에 유선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

내가 한일은 인터뷰를 하고 공개방송 때 장비 설치하는 일을 맡아서 했다.

4-4 마중물

극단 마중물은 가정터미널시장 안에 사무실이 있다. 부모님이 하시는 극단이기도 한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새로 올라온 극인 ‘뱅이던’에서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연

나는 공연에서 북을 연주하기로 했다. 너무 큰 역할을 맡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내 실력도 안됐기 때문에 북 연주만하기로 했다. 매일 나가서 아빠한테 북 장단을 강습을 받았다. 매일 저녁 마중물 연습에도 참여 하고 소품 만드는 일도 도와드렸다.

공연은 청주 박물관 공연장에서 했다.

5) 문전성시 사업단 속에서 인턴 활동을 하며 느낀점

5-1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리 예술가

첫 번째로 많은 예술가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거기다가 오토바이, 어떨 때에는 자동차 까지 지나가는 길에서 공연 을 하는 예술가들을 보며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연단 들은 자신들의 공연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이렇게 정신없는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면 저 사람들처럼 나의 공연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 보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연을 하던 많은 거리공연단 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기억 많이 남는다.

5-2 시장통 작은 도서관 “바람골” 도서관

시장과 도서관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했는데 도서관 담당을 맡은 김영범(시인)을 도와주며 조금씩 영범선생님이 어떤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지 알게 되었다. 김영범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꼭 책을 읽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와서 편하게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라고 하셨다.

바람골 도서관이 앞으로 김영범 선생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5-3 시장통 방송국 걸절이 방송국

내가 생각 했을 때 “걸절이 방송국”은 말도 안 되는 방송국이다.

방송국 이라고 그러면서 별 시설도 없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피디나 엄청난 크기의 카메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이크 몇 개와 음향 시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전부다.

방송국 프로그래머인 임오섭씨와 이성희씨가 엠씨를 맡아 진행하고 기술을 담당하는 분이 한분 계시다. 그런데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한다. 이유가 모두 생방송이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있을 재현이 들어가는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적당한 상점을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연극으로 구성할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아빠가 이삼일에 걸려서 대본을 만들면 “전통연희단 마중물” 사람들이 배역을 나누어 연습에 들어간다. 그렇게 준비해서 시장에서 생방송을 진행 하는날 2~30분 정도의 재현 공연을 한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해도 보는 사람은 그날 시장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많아야 서른명 정도가 방송을 듣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걸절이 방송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준비하고 방송하는게 내가 보기엔 신기할 뿐이다. 걸절이 방송국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었는지 8월 달 부터는 시장 주차장 한곳에 커다란 버스 앞부분을 잘라서 만든 방송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삼일 정도 한 시간씩 시장 내 유선을 통해 방송을 한다.

나는 생방송 중에 진행하는 시장사람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보며 연극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였다.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무대 위에서 실수 없이 공연하는 것도 그랬고 또 예술가들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예술의 방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5-4 마중물

이번 마중물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면서 같이 살고 매일 보는 부모님이지만 내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 소품을 만드는 것부터 아빠가 집에서 대본을 쓰는 모습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모습 알고보니 너무 멋있었다.

그리고 공연 때는 내가 북이나 친다고 생각해서 그냥 치면 되지 하고 생각했지만 장단도 내가 배우던 서양음악 박자와 좀 다른 맛도 있고 해서 힘들었다. 그리고 공연 때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틀리는 건 아닌지 생각보다 많이 떨렸다. 많이 긴장하고 내 마음이 풀려있지 않아서 인지 침착하게 공연을 잘 해낸 것 같다.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끼고 얻은 것은 관심있게 보지 않았던 부모님이 어떻게 일

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을 많이 했다.

공연이 끝나고 너무 피곤했는데 내가 집에 있을때는 부모님이 공연하시고 돌아오시면 힘들게 하신 것도 생각 안하고 짜증만 냈던 것이 너무 죄송했고 이제 부모님의 그런 기분들을 알게 되었으니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느꼈다.

시작이 반!

기간

2011/03/01~ 2011/08/17

(5/1~6/18 방학)

맥주병따개

신지수

목차

하나. 배우러 가기 전

두울. 배움터

- 첫 번째 배움터 [에코밥상]
- 두 번째 배움터 [성미산 공방]
- 세 번째 배움터 [성미산 작은나무 카페]
- 번외 배움터 [카페'연두', 미니샵, 되살림가게, 햇빛부엌카페, 비누두레]

세엣. 수업장소평가 및 수업평가

- 에코밥상
- 성미산 마을

네엣. Real 사회 배움터

- 비주류가 주류의 삶에 잠시 발만 스욱 [in 프렌차이즈 빵카페]

다섯. 배움 끝

- 자기평가
- 배움을 마치며...

여섯. 교과발표

- 내가 느낀 커피들의 향과 맛
- 수업사진

하나. 배우러 가기 전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드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TV에서 접하게 되었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때는 아직 어렸었기 때문에 세상엔 무수히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나? 푸드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 색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멋있다는 생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요리사를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내 꿈을 성급히 정해 버린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요리’니까 꿈을 그렇게 정해버렸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간디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내 꿈은 ‘요리사’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정 지어 버리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당연하게 요리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면서도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정해져버린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너는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부럽다고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꿈이 없었다면 좀 더 많은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논문, 무빙스쿨을 갈 때 등등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하는 수업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동안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평가평가 하고 명하니 있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계획서 발표하는 날 이고, 그럼 나는 급히 어딘가를 섭외해서 내가 원했던 것을 하게 된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아깝다며 후회를 하고 이미 늦었지만 시간을 되돌리면 정말 열심히 준비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것을... 그래도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든 요리와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쫓아서 했지만 나 혼자서 내 꿈에 한 발짝 다가 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빙스쿨에서는 계속 요리와 전혀 다른 곳으로 수업을 하러 나갔다.

이번 인턴십을 준비하면서도 요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까 생각하던 중 문득 나는 나중에 정말로 요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던 중 이렇게 오랫동안 요리사를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요리가 아닌 다른 길에 들어설 때 내가 요리와 다른 ‘그’일을 직업으로 삼고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할 것 같기도 했다.(다른 사람이 보면 꿈은 변하는데...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 있게 내 꿈은 요리사! 라고 말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또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할 때 재미를 느끼거나 하면서 즐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 중 내 직업으로 삼고 재미있게 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요리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수업, 프로젝트들 때문에 3학년 때 ‘퓨전요리’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했던 요리를 마지막으로 딱히 요리를 할 시간도 없고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요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인턴십을 할 때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오랫동안 해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싶기도 해서 인턴십은 내 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요리와 관련된 곳으로 가려고 했다.

두울. 배움터

첫 번째 배움터[에코밥상]

수업기간	3/1 ~ 5/1	요일	월~금
------	-----------	----	-----

하루 시간표

시간	내용
8:50	출근
9:00 ~ 10:15	오전영업준비
10:20 ~ 10:40	아침식사
10:50 ~ 14:30	영업준비 및 시작
14:30 ~ 15:00	오전영업정리
15:00 ~ 16:00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16:00 ~ 17:30	오후영업준비
17:30 ~ 22:00	오후 영업[주문은 20:00까지]

한국에 웰빙바람이 불고 그에 맞춰 친환경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고 많은 친환경 음식점 중 어느 곳을 갈까 이 곳 저 곳 찾아보던 중 한 학부모님께서 에코밥상을 추천해주셨다. 전에 가보았던 조금 허름한 친환경 음식점이 아닌 레스토랑형 음식점에다가 메뉴도 여러 가지이고 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친환경음식을 배우러 오신다고 하셔서 해서 에코밥상을 인턴십 장소로 결정했다. 에코밥상을 추천받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밥도 먹어보고 대표님과 짧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젊은 친구가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고 흔쾌히 인턴십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준비는 막힘없이 진행 되었던 것 같다.

인턴십 3일 정도는 요리 나가는 것 보면서 메뉴를 익히고 각 조리 도구들의 위치와 음식 종류에 따른 그릇 셋팅 방법 등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그 곳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출근한지 3~4일쯤 되면 칼을 잡을 줄 알았는데 대표님이 한 달 되기 전까지는 칼을 주지 말라고 하셔서 의아해 했었다. 아직 진짜 음식점 주방에서 일해본 적도 없거니와 드라마에서 너무 미화된 주방의 모습만 봐왔고 주방에서 일하기만 하면 다 칼질하고 불앞에서 후라이팬 돌리고 있을 줄 알았었다. 아마도 그 때는 오랜만에 요리를 한다는 설렘과 새로운 요리를 배운다는 것에 신나있어서 실제 주방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5일째 나가는 날 비빔밥에 들어가는 불린 표고버섯을 썰어야하는데 빨리 끝내야 해서 나도 같이 표고버섯을 썰게 되었는데 썰는 것도 단순노동이라서 반쯤 잘 썰다가 잠깐 다른 생각하는 사이 내 뒤로 지나가시는 분이 살짝 쳤는데 그 잠깐 사이에 손가락을 크게 베인 것이다. 오래 일하시던 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뒤에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나는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선 파악을 못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칼을 안 잡고 있던 것이었는데 잠시 잡았던 사이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손가락을 다치고 나서는 칼 쓰는 것보다는 감자 껍질 까기, 미역줄기 다듬기, 양파까기 등 칼을 쓰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것들을 주로 했던 것 같다.

오전에 아침 먹기 전 시간에는 전날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으면 주방에서 도시락에 들어갈 음식을 만들어 주면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싸는 일을 하신다. 배달은 대표님이 직접가시거나 손님이 가지러 오시고 일회용 도시락통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 와야 한다.

점점 적응이 되면서부터 유정란찜, 미역국, 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그냥 대충 해서 먹는 것과는 달리 모양도 신경써야하고 밑 부분이 타면 안 되고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많다. 또 손님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 할까봐 불앞에서만 딱 붙어있는데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가 아닌 업장용으로 불구멍이 약8개 정도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모두 다 켜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순쯤이었는데도 땀이 많이 났는데 여름에는 더 고역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담당하던 메뉴가 주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은 시간에 전을 부쳐주시면 그릇에 담아서 나르는 것을 했는데 전은 당근전, 파래전, 김치전, 해물전 등이 있었고 에피타이저 식으로 1인당 2개씩 나가는 것이라서 손님이 많이 몰려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했다.

이렇게 번개 같이 빠른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에 있을 저녁시간을 잠깐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는 그 때 '생육수'라고 끓이지 않고 우려내는 육수를 준비한다. 다른 분들은 생선을 손질하거나 비빔밥에 쓰이는 야채들을 손질하시다가 한 시간정도 휴식시간 후 다시 영업 준비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간 쉬는 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생협에서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 간식거리를 사다 먹거나 좋은 재료가 생겼는데 손님용으로 내보내기에는 재료가 부족한 것들로 요리를 해먹었다.

두 번째 배움터 [성미산 작은나무 카페]

수업기간	6/27 ~ 8/17	요일	월~수, 금
------	-------------	----	--------

수업기간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6/27	28	29	30	7/1
첫출근, 풀방구리, 미니샵에 납품할 초포장	달걀초에 심지끼우기	초 포장, 뜨개 인형 만들기 시작!		뜨개인형 만들기
4	5	6	7	8
뜨개인형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밀랍초만들기		밀랍공방 오픈식
11	12	13	14	15
컵초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밀랍초 만들기
18	19	20	21	22
뜨개인형 만들기, 밀랍초로 밀랍초 꾸미기	뜨개인형 만들기	제주	피스	보트
25	26	27	28	29
뜨개인형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밀랍초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밀랍초로 밀랍초 꾸미기
8/1	2	3	4	5
꿀벌인형가죽 완성	큰 사람인형 만들기	뜨개인형, 망원시장에 포장지 사러 갔다옴		흰양모펠트로 꿀벌 날개 만들기
8	9	10	11	12
브로치 만들 물펠트 만들어 놓았음	작은 공만들고 펠트 팔찌 만들준비		알라딘과 동대문!	펠트로 고양이 만들기
15	16	17		
펠트로 구름 만들기	물펠트로 장미꽃 브로치 만들기	점심먹고 수업 끝!		

성미산 공방은 작은나무카페에서 인턴십을 시작한 후에 찾은 곳이었다. 원래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뜨개인형, 펠트등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파는 곳이고 주상품은 별집에서 나오는 밀랍으로 만드는 밀랍초를 만드는 공방이라고 해서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총 4분 중 한분이 장애가 있으셨고 계속 공방에 계시는 한분, 나머지 두분은 이 공방 말고도 다른 곳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따로 하시는 일이 있어서 공방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시고 나오셨을 때도 4시간정도 있다가 가시는 형식으로 일하고 계셨다.

주로 하는 일은 밀랍초 만들기, 뜨개인형 만들기, 양모펠트로 공예품 만들기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같이 했었다. 밀랍초 만들기는 따로 예술품처럼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랍을 녹이고 불순물 걸러내고 틀에 부어주고 나중에 꺼내서 심지를 끼우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따로 배우지 않았고 밀랍초는 가끔씩만 만들어 봤던 것 같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서 재미로 손으로 구기면서 만들 수 있게 얇게 만들어 놓은 밀랍초로 다른 밀랍초를 꾸미는 작업도 해봤다. 여름에는 밀랍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런 공예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 달 정도는 뜨개인형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한, 두 개만 만들고 다른 것 해봐야지 하다가 재미있어서 계속하다 보니 9개 정도 만들어 놓고 온 것 같다. 원래 인형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처음 만들었던 것과 지금 만든 것을 비교해 보면서 더 잘 만들고 싶기도 했고 내 성격이 워낙 급해서 하다보니까 2시간 만에 만들기도 하고 길어봤자 이틀 안에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재밌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생긴 공동주택 2층에 새로 방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7월 8일에 바로 옆에 있던 비누두레와 같이 공방 오픈식을 했다. 밀랍초 세일, 밀랍초 만들기 체험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떡, 음료같은 간식거리들을 셋팅하는 것과 오픈식 사진 찍는 것을 도와드렸다.

보름정도 남았을 때 양모 펠트를 시작했는데 처음 펠트 공예품들을 봤을 때 예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서 이런 작은 물건을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직접 해보니까 들어가는 정성에 비하면 싸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공예품에 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예품을 사고파는 것이 많이 대중화 되어있지는 않아서 공예품의 가격을 보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 되어있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공예품들은 싼 편이라고 한다.

물펠트로 브로치 만들 펠트 천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찔러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펠팅을 했었다. 물펠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양모를 얇게 배색을 해 놓고 비눗물을 바르면서 손으로 계속 문질러 주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펠트화 되어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고(킵받침, 브로치, 모자 등), 바늘로 찌르는 펠트는 기다란 양모펠트 전용 바늘로 얇게 펼쳐 놓은 양모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다음 계속 찔러서 펠트화 시키는 것인데 펠트전용 바늘 끝에 홈 같은 것이 있어서 계속 찌르다 보면 양모끼리 서로 엉켜서 양모가 단단해지는 이 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든 것이 가능하다.(동물, 열쇠고리 등)

세 번째 배움터 [작은나무카페]

수업기간	6/18 ~ 8/17	요일	월~수, 금
------	-------------	----	--------

수업기간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6/20	21	22	23	24
성미산마을탐방 핸드드립 맛보기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라벨읽기	물줄기연습 에스프레소추출 아이스크림제작		물줄기연습 스팀밀크만들기 상현쌤 방문
27	28	29	30	7/1
물줄기연습 원두공부 에가체프 드립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공부, 드립	..	미니샵카페 일일체험	..
4	5	6	7	8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공부, 드립	비누두레 일일체험	8시까지 근무
11	12	13	14	15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공부, 드립	되살림가게 일일체험	.. 아이스크림제작
18	19	20	21	22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공부, 드립	..	제주	피스	보트
25	26	27	28	29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공부, 드립
8/1	2	3	4	5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공부, 드립 혼자근무
8	9	10	11	12
커피 시험 물줄기연습 메뉴만들기 원두공부, 드립	혼자근무
15	16	17		
메뉴만들기 핸드드립	..	저녁먹고 수업끝!		

카페는 학교에서 카페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5학년 무빙스쿨 때 누리마을카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공사가 아직 덜 되어서 무빙스쿨 기간 동안 계속 카페공사만 하다가 끝난 것이 아쉽기도 했고, 커피에 알게 관심은 있었는데 딱히 배울 기회가 없어서 미루고 있다가 작년 2010년 겨울 방학 때 누리마을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간디학교 졸업생인 민주오빠에게 5일정도 속성으로 배우면서 인턴십기간의 반은 '누리마을카페'같은 마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았다.

다른 이유는 이곳은 우리학교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흥미가 있었던 것도 있고 비슷하긴 하지만 마을과 학교의 관계는 매우 다른 곳이라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보고 싶어서 인턴십으로 정했다.

이곳은 원래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아토피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조그맣게 아이스크림을 냈다가 2년 전에 작은나무카페로 바뀐 것이다. 어린이들이 사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가가 올랐어도 아이스크림 값은 올리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작

은나무를 살려보려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사장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자자들이 다 사장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마을주민, 마을 밖 사람들, 용돈을 모아서 출자금을 낸 어린이들까지 약 100명이 넘는 사장님이 계신다. 이렇게 마을주민 뿐 아니라 모든 출자자들을 사장님이라 칭함으로써 많은 마을사람들이 작은나무카페에 관심과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서 작은나무카페의 이번 달 수입이 좋지 않다고 하면 다음 달은 마을손님들이 더 자주 오는 식으로 마을 분들의 책임감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있다.

첫날에는 같이 Bar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고 인턴 두 번째 날부터 Bar에서 같이 일했다. 첫 번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커피 나가는 종류마다 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컵 종류를 외우고, 핸드드립커피 내리기 전에 하는 물줄기 연습만 계속 했다. 그리고 작은나무카페에서 나가는 메뉴를 하나씩 만들어보면서 연습하는 일을 하고 중간중간 안 바쁘면 미소의 지도아래 간단한 아메리카노 정도는 메뉴로 내보내곤 했었다.

7월 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카페업무와 드립 공부를 시작 했는데 손님이 많이 없을 때는 드립커피를 내리고 손님이 오시면 메뉴를 내는 식으로 인턴을 진행했다. 처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할 때는 과일향, 꽃향기나 달콤한 맛은 못 느끼겠고 그냥 쓰다는 맛밖에 안 났었다. 그래도 계속 드립커피를 내리고 마셔보니까 커피에서 나는 향기, 달콤한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커피를 배우면서 얻었던 것들 중 그것이 가장 최고의 수확인 것 같다.

8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는 미소가 경제교육을 받으러 가야해서 오후에는 혼자 bar운영을 했는데 시제도 맞춰보고 혼자 있으면서 그 동안 못했던 커피 공부 등을 하면서 알차게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메뉴 나가는 것이 미숙해서 실수를 했지만 일반 카페가 아니라 마을 카페라서 그런지 마을 분들이 실수하셔도 너그럽게 넘어가주시고 웃어주셨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유기농 아이스크림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이스크림을 새로 만든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수박, 참외, 미숫가루, 초코, 사과, 복숭아, 자두 등 주로 제철과일을 사용하고 우유와 시럽을 제외한 다른 첨가물은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 수박이나 참외 아이스크림은 씨를 다 발라내고 수박을 얇게 잘라서 간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력에 비해 한 그루(이 곳은 한 스쿱을 한 그루라고 부른다.)에 2,000원이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요즘에도 우유 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가격을 올려야 하긴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주손님은 어린이 손님이라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스크림과 미니샵 쿠키를 먹으러 어린이 손님들이 많이 와서 실내는 금연이고 실외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테라스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공연, 알림이 있으면 카페 벽면에 붙어있는 알림판을 사용 할 수 있게 해놓았고 bar옆에 “플방구리”라고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만들어 파는 shop in shop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매달 금요일마다 캔들 나이트를 진행하는데 Bar에 있는 불 빼고 객석에 있는 모든 불은 소등하고 성미산 공방에서 만들어진 밀랍초로 불을 밝힌다. 매 달 다른데 손님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는 캔들 나이트에 대한 의미를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캔들 나이트를 하는 데에 의미를 두긴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꿀벌들이 사라져가서 많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비싼 밀랍초를 켜고 있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번외 배움터 [카페‘연두’, 미니샵, 되살림가게, 햇빛부엌카페, 비누두레]

- 목요일은 마을 일일체험을 하는 날로 정했는데 그 때 체험했던 곳들이다.

카페 ‘연두’

-삼청동에 위치한 성미산 학교의 초등부 선생님이자 전 작은나무카페 운영위원장인 연두가 운영하는 카페이다. 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체인점도 있다. 지금 현 작은나무카페 매니저님인 미소도 이곳에서 드립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원래 인턴십 진행 중에 방문해서 신(?)들의 드립커피를 먹어보면서 내가 드립 내린 것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인턴십이 끝난 다음 날 미소와 따로 방문 했다. 가자마자 방금 내린 커피를 주시고 운이 좋았던지 금방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 주셨는데 내가 내린 드립커피와는 확연하게 월등한 맛을 내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내린 커피만 먹어보면서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뿌듯해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턴십 중간에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셔봤다면 내가 좀 더 발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연두에서 커피를 배워보고 싶다.

미니샵

-성미산 학교 안에 있는 카페 이다. 이곳도 사회적 기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과 같이 운영되는 곳이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서 쿠키를 만든다. 학교 내에 있는 카페라서 그런지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카페 메뉴는 모두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수요일에는 카페 안에서는 영어만 써야 한다. 경제 교육을 위해서 1학년부터 3학년은 매달 지급되는 쿠폰으로만 음료, 쿠키를 사먹을 수 있고 4학년부터는 각자 저금된 용돈으로 사먹을 수 있게 해놓았다. 미니샵에서는 일반 손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설거지 등 간단한 것만 하고 계속 학교 구경을 했던 것 같다.

되살림 가게

-작은나무카페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가게 같이 손님들이 기부한 옷, 신발, 장난감, 기계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고 계속 정리만 했던 것 같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대신 ‘두루’라는 대안화폐를 받는데 두루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비누두레

-오전에 인턴십을 했던 성미산 공방 바로 옆에 위치한 천연 비누를 만드는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바람도 작은나무카페 실무자라서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서 편하게 일했던 것 같다. 하필 갔을 때가 바람이 많이 바빴을 때이기도 했고 비누를 다 만들었다고 하셔서 비누 모서리를 다듬는 간단한 일만 했다. 비누두레는 천연비누를 소개하는 책에 나오기도 했고 생협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비누를 만들고 천연 화장품 종류들은 학교에 있는 비누공장과 비슷했지만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고 비누두레만의 로고도 있어서 판매용으로 적합 했다.

햇빛부엌카페

-성미산 학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또 다른 마을 카페인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작고 정말 자주 오는 손님들만 오는 집 같은 아늑한 카페이다. 전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커피를 만드는 곳이라서 주로 드립커피를 만들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손으로 직접 압력을 가해서 내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쿠키를 같이 만들고 천에 커피를 내리는 용드립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 그 때는 아직 드립을 배우고 있던 단계여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여러 가지 커피 내리는 기구들을 많이 이용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세엣. 수업장소평가 및 수업평가

- 에코밥상

현대 사회의 직장인들과 특히 서울의 직장인들은 시간에 쫓기듯 일을 하고 있어서 점심시간이 많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 못지않은 속도로 빨리 나오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6000원짜리 백반집에서 간단하게 식사 해결을 하거나 몸살림 음식을 먹고 싶어도 회사가 몰려있는 지역 근처에 친환경 음식점이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충 챙겨 먹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에코밥상은 가게의 위치에서나 음식이 나오는 속도 면에서나 친환경음식을 먹고 싶은 바쁜 직장인들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음식점인 것 같다. 전날이나 그날아침에 예약을 하고 회사에서 특별한 날에 부서 단체로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메뉴에는 너무 어른들만 즐겨먹을 수 있는 음식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거나 쿠폰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예약을 하고 와서 먹는 특별한 식당이 아닌 가족들끼리 외식할 때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친환경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사람들의 친환경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일깨워 줄 수 있는 밥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딸같이 대해주시고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고 퇴근하기 전에 밥은 꼭 챙겨주시고 쉬는 시간에는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편하고 즐겁게 일했던 것 같다. 육수 끓이는 방법, 야채 버리는 곳 없이 모두 활용하는 방법 등 실용적인 것들을 배웠지만 직접적으로 계속 해 볼 수가 없었고 학교에서 배운 친환경요리 재료에 대해 배운 것 이외에 따로 배웠다고 느껴질 만한 것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 중 원래 친환경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도 계시긴 했는데 대부분 일하면서 친환경음식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이기 때문에 새롭고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서 대표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갔던 기간이 대표님이 바쁘신 기간이라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눠 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다.

- 작은나무카페

작은나무 카페는 마을 소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오는 90%의 거의 모든 손님들과 실무자들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그래서 카페 안은 분위기는 매우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건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바로 실무자에게 말할 수 있고 실무자들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매니저에게 건의하고 매니저는 운영위원회에 안건, 건의로 내서 실행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카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애정도가 깊다. 카페도 손님들의 기대에 맞춰 커피도 가장 좋은 질의 원두를 공급받아서 커피를 내리고 있고 착한 재료로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비교적 싼 값에 팔고 있지만 커피 종류뿐 아니라 간단하게 먹거나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원재료 값이 비싸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요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카페가 아니라서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

문에 마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작은나무 옆에 있는 생협처럼 등록되어 있거나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 외의 손님들이 많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익을 내서 마을손님 또는 마을 밖 손님들에게 보다 좋은 질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공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성미산 마을

간디학교와 마을의 관계는 적대적인 반면에 성미산 학교와 성미산 마을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이다. 전교생이 학교 근처에 살거나 통학 할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 소통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중 대부분이 성미산마을에 살고 있는 것과 시골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 대안학교라는 옛날 어르신들에게는 소위 날라리들만 간다고 알려진 낯선 학교가 들어와서 조용하던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 원래 학생들의 집은 대부분 서울, 경기권이고 덕산에서 살다가 간디학교에 오는 경우가 없는 것이 등 살고 있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나열해놓고 하나씩 비교해 보면 서로의 마을관계가 상반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봐왔던 성미산 마을의 좋은 모습 중 하나인 성미산 마을에서 주민들과 학교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 가장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히치 하이킹,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것 등 간디학교 학생들이 잘못된 점도 있다.

그리고 덕산에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분들은 농번기 때 농사일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마을에 불이익이 가게 한 일이나 특별히 큰 잘못을 한 일은 없었는데 우리학교가 계속 대화를 시도 하고 있는데도 마을에서는 이야기도 해보지 않고 간디학교에 무조건적인 불신을 주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미산 마을과는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이렇다 할만한 해결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런 고민은 썬들만 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마을에 살고 있는 간디학교 학부모님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네엣. Real 사회 배움터

- 비주류가 주류의 삶에 잠시 발만 스윌[in 프렌차이즈 빵카페]

나는 인턴십을 진행하기 훨씬 전인 12월 2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예전부터 인턴십을 할 때 필요한 용돈은 혼자 힘으로 벌어서 해결하고 싶기도 했고 예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들은 단기고 하루, 길면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밖에 있으면서 길게 일해보고 싶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그 때부터 입교 전 주인 8월 14일까지 했으니까 약 8개월 정도를 했던 것이다. 반년이 훌쩍 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비주류의 사람들과(지금은 대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이니까 이렇게 표현 하려고 한다.)그냥 평범한 삶을 원하고 지금의 편안한 문명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하는 주류의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인턴십을 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그 동안 간디학교에서 나갔던 사회 경험들은 우리와 비슷한 대안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일터로 체험을 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잘 생활하고, 잘 배우다 와서 진짜 사회의 모습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왔고 희망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 졸업하면 어쩔 수 없이 딱딱하려 하는 진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좁은 회사 안에서도 '00부장님 라인을 타야지 빨리 진급 된다, 00과장님은

별로 힘이 없어서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 라든지 앞에서는 굽신굽신(여기서 굽신굽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굽신굽신이다.) 칭찬릴레이를 펼치면서 뒤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를 한다든지...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와서 진짜 맞아야 할 사회의 모습은 이런 모순적이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곳이라니’ 하는 절망적인 마음도 들었고 우리학교는 너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들만 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물론 정치적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반 사회의 문제점들을 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나중에 진짜 사회에 나가게 될 친구들, 후배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너무 잘 적응해서 간디학교에서 배운 사상이나 생각들을 다 버리면 어찌지? 하는 오지랖 넓은 고민들도 같이 했던 것 같다.

자잘한 아르바이트들을 했었고 일반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터라 말이 안통하고, 나와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것에 대해서 짜증은 났지만 그렇게 새로운 충격은 아니었고 원래 여기저기 잘 동화되고 그 것에 별 위화감 없이 끼어드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의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오랜 시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차피 길게 일할 생각이었으니까 명칭한 말을 해서 내가 짜증이 나도 맞서지 말고 참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니까 미리 공부를 하는 셈치자, 이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 왔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왕 경험하는 김에 일반학교 학생인척 해보자’ 하며 자신을 달래며 시작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그 곳의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내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것에 맞춰주려고 했던 것 같다. 아니면 나도 그들의 ‘라인’에 끼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애, 특이한 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 중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툭툭 내뱉었는데 그 때마다 사람들은 ‘넌 참 특이한 것 같아.’라고 말했다.(아직까지 내가 한 말들 중에서 어디가 특이한 말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그리고 작은나무 카페와 빵카페에서의 쉬는 시간이나 손님 없는 시간에 나눴던 얘기들도 확연히 다른 내용이다. 저쪽에서는 정치, 사회의 문제점 등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연예인, 옷, 화장품 등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들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도 있고 계속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연예인, 가십기사들 같은 덜 생산적인 것들만 보다보니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들었는지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제일 눈에 띄던 기사는 00국회의원 로비의혹. 이런 류의 기사였는데 이제는 00,00 핑크빛 열애 이런 시덥잖은 기사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 학교에 들어와서 나도 다시 비주류의 삶에 뛰어들었으니 금방 고쳐지겠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만났던 손님들은 정말로 자기가 ‘왕’인냥 행동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네 잘못이야! 하면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

“언니 나 라떼 진짜 좋아해~ 라떼먹자~”

“그래? 그럼 그거 먹자. 저기요, 카페라떼 한잔 주세요.”

“네. 라떼 한잔 맞으세요?”

“아 네~ 어머 개가 그랬는데 어찌고저찌고!#%&^#\$%”

하고 라떼를 주문
“난 카라멜마키야또 시켰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장난해요???”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심지어 반 이상 먹어놓고 가져와서 바꿔 달라고 한다.

"영수증 드릴까요?"

“됐어요.”

내말은 듣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대답해놓고 나가다가 다시 와서는

“아니 왜 영수증 안줘요? 이런건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시 뽑아드릴게요.”

이 정도는 약과인 ‘진상’들이다. 내가 일하던 곳은 서울의 커다란 랜드마크 안에 있는 빵집이라서 옆에 있는 커다란 호텔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렸다. 수행원을 끌고 와서 뒷집 지고 턱으로 이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하며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빵을 사가는 ‘나는 서민체험을 하러 왔다. 하지만 내가 직접 손을 쓰지 않는 것은 몰래 왔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의 직위에 대해서 알아채고 알아서 굶신거렸으면 좋겠다.’ 하는 회장님, 고위공직자같은 손님들도 많았고, 대기업 사원임을 증명하는 회사 로고가 크게 박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오는 여자들이(도대체 퇴근시간인데 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던 건지...)도도한 척, 아는 척 하며 ‘넌 여기서 일하니까 무시당해도 돼.’라는 같잖은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던진 다던가, 반말을 쓴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열 받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오는 ‘진상’들에 대해서 적어봤다.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그 사람들이 알바생들에게 하는 말투나 행동에 따라서 자기에게 오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 질 텐데 그것들을 모르는 것 같았다.

프렌차이즈 빵카페 같은 곳은 필수 접대 멘트가 꽤 많다. 포장여부, 포인트 적립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찮거나 바쁜지 대충 ‘아니요, 됐어요.’ 하고 넘기고서 나중에 와서 자기가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많을 때는 대략 2~300명 정도의 손님들을 혼자서 똑같은 목소리 톤, 똑같은 접대멘트를 날리며 비위 맞춰주고 있는 알바생들 보다 접대 멘트 한번 듣는 것이 더 귀찮고 힘들까? 내 말 무시하고 나가 놓고 다시 와서 따지면서 화를 낼 때, 정말 그럴 때는 CCTV라도 돌려서 나는 분명히 말했지만 당신이 무시하고 간거예요! 하고 화를 내고 싶지만 나는 “알바생”이니까 사과를 한다. 알바생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으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알바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인사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다섯. 배움 끝

- 자기평가

내가 원하던 것들에서 인턴십을 마쳤다는 뿌듯함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다는 아쉬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았다는 기쁨이 겹쳐진다. 가기 전에도 딱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을 얻어오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인턴십 기간에도 긴장을 하기보다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항상 나의 넓은 것 같지만 좁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에코밥상도 그렇지만 성미산 마을에서 많은 인연들을 만난 것 같아서 좋았다. 그 곳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참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공방에서 일 할 때 잠깐 놀러온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그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나에게 있으면 그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하면서 2달을 지내 보니 사람 사귀는 재미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얻은 것도 많았고 내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대해 무관심한 성격을 조금이나마 고친 것 같다.

그리고 성미산으로 인턴십을 정할 때 2차 인턴십이라서 작년 준비기간과 팀이 길기도 했고 1차 인턴십을 정할 때 쉽게 이야기가 오가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어서 2차 때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자신감과 아르바이트 때문에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었다. 그 때 하필 핸드폰 번호까지 바뀌어서 서로 연락이 거의 안 되어서 인턴십을 성미산에서 안할 것 같다는 오해를 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직접 작은나무에 찾아가서 매니저인 미소와 면담 후 확실히 날짜를 정하고 세부 프로그램도 정하고 인턴십을 시작 할 수 있었다. 원래 성격이 게으르고 ‘한량’같은 성격이라서 항상 미루고 미루다 ‘내일하면 되지, 좀 있다 할거야.’ 하고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오면 다음에는 꼭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이번에는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니까 미루지 말고 제때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건만 또 이런 일이 반복 되어서 나 자신에 실망을 하고 자책을 했다. 그 실망과 자책은 지금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19년간 이어져 온 나의 성격이 한순간 쉽게 없어질 수는 없어서 아직도 고생을 조금 하고 있다. 내 성격 때문에 엄마가 항상 ‘앞뒤 잘 살피고 덜렁거리지 말고 네 일 미루지 말고’라는 말로 전화를 끊으셨는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엄마의 말씀이 좀 더 세뇌되고 나 자신도 노력해서 쫓기듯 일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뒤도 돌아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또 이번에는 에코밥상에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논문을 쓸 때 나중에 인턴십 보고서나 졸업논문을 쓸 때는 나의 음식철학을 쓰겠다는 다짐대로 미루고 미뤄왔던 나의 음식철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시키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실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에코밥상에 오가는 손님들과 요리하는 방법, 재료 다루는 방법 등을 통해서 혼자 생각하고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하고 한가로운 일터가 아닌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일터였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요리사가 되면 이렇게 살아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인턴십 했던 곳에서 만났던 호텔조리과에 다니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현실적인 말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랐지만 나의 멀지만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추상적으로나마 상상해보다는 와중에도 깨끗하게 다려진 흰 조리복을 입고 후라이팬 돌리고, 칼질을 멋있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나도 아직은 어린 청소년인가 보다. 그래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열심히 상상하며 꿈꾸고 노력하면 지금 내가 하는 상상대로 어른이 되지 않을까?

— 배움을 마치며...

여러가지 수모(?)들을 겪으면서 번 돈은 아끼고 싶어지고 쓸 때 손이 벌벌 떨린다던데 나는 뭔가 주고 싶고 사주고 싶어서 부모님, 할머니께 일정한 돈을 보내드렸고 가끔 친구,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면서 그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었던 것들을 갚는 기분

이어서 언젠가 이것들을 갚아야 하는데... 하는 고민들이 사라졌다. 원래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니까 하는 '신지수'같은 마인드로 사고 싶었던 노트북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만큼의 옷을 한 번에 사보기도 하고 돈을 쓰면서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턴십 기간 내내 부모님에게서 타서 쓴 돈은 휴대폰 요금, 생활비, 교통비, 중간에 갔던 제주 피스보트 캠프 참가비용 등을 포함해서 정말로 0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다짐했던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인턴십하기'는 성공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다. 1차 인턴십때는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같이 진행해서 아침 7시 50분쯤 집을 나와서 인턴 후 알바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새벽 12시, 늦으면 1시 정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도 5시간 정도 밖에 못자면서 2달을 버텨낸 것이다!! 1차 인턴 끝난 후 방학 때는 시간을 더 늘려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약 8개월 내내 쉼 적이 거의 없이 빡빡한 일정을 견뎌낸 내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다. 지금 내가 했던 인턴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은 나중에 더 어른이 되어서 이야기 할 때 재밌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모험담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뭔가를 시켜주기만 기다리다가 일을 못하는 애로 찍혀서 잘리곤 했는데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뭔가를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서 뭐든지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서 이것저것 시키지도 않은 것들 하고 있으면 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농사수업을 받고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으니 뛰어다니면서 놀았기 때문에 체력이 좋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주류 사회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일을 잘 할 수 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판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중에 후회 하지 않게 지금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중2병에 걸렸을 때는 제발 학교 밖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면서 6학년이 되면 해방이니까 괜찮아!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거야!! 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인턴십을 나간지 정확히 2달 만에 쌤들, 학교, 특히 학교 밥이 매우 그리웠다. 에코밥상에서 일할 때는 식당이라서 밥을 잘 챙겨먹고 다닐 수 있었는데 공방, 카페에서 일할 때는 따로 전용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식사시간이 되면 백반, 중국집 등에서 시켜먹고 주로 컵라면을 많이 먹었는데 그 때마다 학교에서 반찬투정을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다시 가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 있었던 간디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먹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으니까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처음에만 좋다 처음에만. 일주일정도 지나면 조미료 맛이 역하고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은데 시켜먹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고역이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것에 대한 확신이 안설 때 학교에 있었으면 쌤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 밖에 있으니까 혼자서 결정해야하고 잘 못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짊어져야 하니까 끔끔대며 이것저것 해결책을 찾다가 문득 간디학교의 위대한 쌤들을 그리워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회부연 매연, 곳곳의 가게에서 밝혀진 아주 밝은 간판들의 불빛, 여기저기 새워져 있는 가로등들에 가려져서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하늘을 보면 가끔은 쏟아질 듯한 별들이 그리웠고, 밤에 들리는 시끄러운 폭주족 소리가 아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싫어했던 여치, 귀뚜라미 소리가 그리웠다. 항상 매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밤에는 무슨 필리핀에 있는 듯 열대야 때문에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입교하는 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땀 뚫리는 공기, 선선한 날씨를 느끼며 드디어 다시 돌아 왔구나 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그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날려버릴 수 있었다.

이제 돌아오는 12월에 졸업식을 하면 간디인들에게겐 겨울방학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간디

인을 벗어나고 사회인이라는 새로운 것을 마주하게 된다. 기대되고도 무섭고, 두려운, 막막한 20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에 나갔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지칠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항상 여기일 것이고 항상 여기였으면 좋겠다.

여섯. 교과발표

- 내가 내린 커피 맛과 특징

카페에 있으면서 커피공부와 드립을 하고 먹어보면서 각 커피에 대한 느낀점을 쓴 것이다.

● El savdor SHG "Everst"

따뜻할 때도 신 맛이 강한 편인데 차갑게 식으면 신맛이 더 뚜렷해져서 먹기 좀 힘들다. 신맛은 기분 나쁜 신맛이 아니라 화려한(?) 신맛인데 나는 신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즐겨먹지는 않았다. 달콤함 맛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드립커피에 익숙하지 않아서 달콤한 맛의 살바도르는 먹어보지 못한 것 같고 뒷맛이 강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사라졌다가 은은하게 남는다. 구운 고구마향이 난다.

● Guatemali bella "Carmona Antigua"

화산지대에서 재배한 커피라서 진하고 맛이 많이 난다. 향은 스모키한 향이 나고 바디는 묵직해서 좀 더 연하게 내려서 먹는게 더 좋았던 것 같다.

● Brazil Fazenda Aurea"

뚜렷한 커피 맛이 없다. 드립커피를 처음 먹는 사람들은 부담없이 먹기 좋은 맛

● Costaria Org "La Amistad"

나라에서 좋은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로부스타종의 커피재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이라서 품질이 좋은 커피를 생산해낸다. 향이 좋은 편이고 내릴 때마다 항상 달랐는데 조금 연하게 내려서 약한 신맛을 느끼면서 먹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 Sumatra G-1 Mandheling

바디감이 묵직하고 드립을 잘하면 끝 맛이 달달하지만 잘못하면 쓴 맛 밖에 안 나는 커피가 된다. 이 커피도 뒷맛이 깔끔해서 좋다.

● Ethiopia FT org Yirgacheffe "Koke"

예가체프 커피는 향만 맡아도 무슨 커피인지 알 정도로 향긋하고 시큼한 향을 가지고 있고 시큼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다.

● Papua new guinea Arona

꽃향기, 과일향 등 향긋한 향이 나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난다. 파푸아뉴기니 커피는 많이 먹어도 속이 편안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커피이다.

● Tanzania AAA

바디감이 묵직하고 입안에 여운이 길게 남는 커피이다. 쓴맛이 신맛을 삼킨 맛(?)이다.

- 사진

◎에코밥상



아침은 주로 채식 위주로 먹었다.▼



도시락 싸는 모습▲

◎성미산 공방



◀뜨개인형



▶뜨개 꿀벌 인형▼

◎작은나무 카페



작은나무 활동 사진



개미, 벼짱이 탈을 쓰다.

네팔 아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행 (02.28~06.06)

채우기 (07.25~08.05)

문혜린

<순서>

** 머리글

<그때 그리고 지금>

一. 시 작

1. 재미처럼 준비하기!
2. 네팔 그리고 어린이들
3. 네팔 그리고 고아원, 이유가 뭐야?
4. 새빛 홈 (NEW LIGHT HOME)은?

二. 움 직 임 (때로는 재미처럼 때로는 베짖이처럼)

1. New Light Home
2. 어린이 노동자 방문
3.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 '포카라(Pokhara)'

三. 깨 달 음 (느낌)

1. 새빛 홈 (New Light Home)
2. 어린이 노동자들과의 만남
3. 어이! 베짖이 탈을 써본 느낌이 어때?
4. 지금은 학교다.

四. 마 무 리

1. 결산
2. 첨부
 - 1) 고민 글
 - 2) 보고서 보다 더 자세한 기록 = 일지
 - 3) 100일 일정표
 - 4) 가기 전 다짐
 - 5) 선교사님 인터뷰

五. 채 우 기

1. 어디를 갔나?
2. 무엇을 했나?
3. 어땠나?

<그때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 동물 소리가 가득한 네팔에서 떠나는 날. 착잡한 마음을 가다듬고 공항으로 들어섰다. 모두와 헤어진다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버린 그 때 그 상황이 더 슬펐다. 나는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서 한국에 발을 내딛었다.

12시가 다 된 시각 나는 공항에 도착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선물과, 짐들이 가득 담긴 가방 4개를 힘겹게 매고서 버스에 탑승했다. 마음이 놓이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눈물이 흘렀다. 억울함 때문일까? 그리움 때문일까? 도착시간 4시간을 남겨둔 채 한없이 약해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대구에 도착해 있었다. 그 새벽 나를 마중 나온 아빠를 보니 또 다시 울컥하는 나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잘 잤다 왔어!’ 하고 웃어보였다. 집에 도착해서도 울컥대는 마음을 눌러 놓은 채 밝은 목소리로 선물을 주며 생색내고, 자고 있는 동생까지 깨워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아침이 지났다.

내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지나간 일에 힘들어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내게서 변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네팔에서 돌아온 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버렸다. 처음 그 혼란스러운 기분에 얽매여 인턴십과 관련된 그 어떤 활동도 정리하지 못했다. 핑계를 대보자면 이런 저런 일들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미친 듯이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 어떤 생각이 번뜩이며 머리를 스쳐갔다. 지나간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들은 잘못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내가 어리다고 생각할까봐,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솔직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시작과, 끝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능력과,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 조금씩 변하려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좀 더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넓게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끔은 내 속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지름길이 아닐까?



어느새 학교에 와서 노트북을 붙잡고 보고서를 쓰고 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떻게 써!’ 하고 말하던 때는 이미 흘러 간지 오래. 발표에 압박을 이겨내며 그나마 남아 있던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 18년을 살며 생겨버린 버릇 때문에 보고서가 너무 재미없게 써진다. 5번을 읽으면 5번을 수정하고, 10번을 읽으면 10번 수정할 기세다. 내 생애 최고로 솔직한 글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꼬집어냈다. 사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도 콩알만큼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간디학교 6년에 마지막 프로젝트를 새로운 길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딸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그러니깐 아까워하지 말라고 ^^

“여러분, 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직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점점 나는 변해갈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갈 것이다.

*짧은 소개

일시 : 二〇一一年 二월 二十八일 ~ 六월 六일 까지

장소 : 네팔, 고아원

활동 : 고아원에서 함께 살기, 어린이 노동자 방문, 인터뷰, 여행

一. 시 작

1. 개미처럼 준비하기!

인턴십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겨울방학을 맞이했다. 학교에서 발표는 그럴 듯하게 해냈지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딱딱 맞춰서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나에게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다.

12월, 컴퓨터와 가장 친했던 시기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컴퓨터만 붙들고 있었다. 하루에 네팔 단체 담당자 분과 다섯 통이 넘는 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봤던 홈페이지를 수십 번씩 보며 자료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매진한 결과 방학한 지 일주일 째 되는 날 단체 담당자에게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다른 단체에게도 답장이 왔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설명, 내가 그곳에서 하고 싶은 일, 일정 등에 대해 몇 차례 메일을 더 주고받았고 담당자들에게 'OK' 대답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여유롭지만 너무 처지지 않는 리듬을 유지하며 네팔 아이들을 볼 준비를 해 나갔다.

1월, 인턴십 장소는 정해졌다. 하루에 다섯 통 이상 씩 주고받았던 메일 수는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단체가 정해진 상태라 마음이 편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활동들을 생각하고 준비해나갔다. 또 아이들, 담당자 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하루 6시간 이상 씩 영어를 붙잡고 살았다. 일주일에 3일 2시간 영어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영어패턴, 회화, 동화 등 6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 공부 계획 세우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책 한 권 한 권 마다 일정표를 짜고, 그것대로 공부하는 것.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 그 때는 격하게 나를 쫓아가며 공부할 만큼 인턴십이 중요했었던 거겠지?

인턴십 준비가 80% 마무리 되었을 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미 끝났으니깐 하는 말인데 여행을 인턴십보다 더 기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인턴십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네팔 여행은 마음 가는대로 가자!' 하는 생각으로, '인도 여행은 뽀뽀하고, 긴장감 있는 여행으로 만들자!' 하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리고 최대한 짐을 줄여 출국하고 싶은 마음에 인도 가이드북을 만들기도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도 가이드북을 빌리고, 인터넷에서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었다.

2월, 중순까지 인턴십 준비는 물 흐르듯 순조롭게 준비되었다. 2월 말. 나만의 인도 가이드북도 완성이 되었고, 네팔에 갈 준비도 다 끝낸 상태였다. 95% 완성된 계획이었다. 그런데 출국하기 1~2주 전에 연락했던 단체에 못 가게 되었다. 한 곳은 두 달 생활에 너무 많은 돈이 필요 했고, 다른 한 곳은 처음 이야기 들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돈 문제로 걸렸던 단체는 조율을 시도 해봤지만 실패했다.

'실패하면 나머지 단체에 가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나머지 단체마저 갈 수 없게 되어버려서 그 순간에는 정말 때려 치고 싶었다. 뒤늦게 알려준 것에 대한 원망, 4개월 넘게 준비해 온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슬픔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짝 차 있었지만 출국까지는 일주일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야 말로 패닉 상태. 처음 인턴십을 준비할 때부터 '혼자서 단체를 알아보고, 연락해야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

였었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목표, 내가 준비했던 것, 일의 순서를 다 잊게 만들었다. 결국 김현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새로운 단체와 연결 되었고 그곳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곳이 'New Light Home (새빛 홈)' 이라는 작은 고아원이다. 남아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엔 '새빛 홈'과 연결해주신 분을 만나 뵙고 '새빛 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선교사님과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태도에 대한 이야기 등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출국 3일 전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았고 당장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나를 어찌나 이상하게 만들던지, 마음의 준비는커녕 선교사님께 나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차근차근 마무리도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활동 준비조차 거의 못한 채 낯선 नेपाल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

2. नेपाल 그리고 어린이들

<공식적인 자료>

어린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 이유는 가난과 가정폭력 때문이다. नेपाल 전역에서 불법적인 어린이 노동이 목인되는데, 이를 아이와 그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여기는 탓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혹은 가족들한테 밀려 거리로 나서는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이 불쌍해 돈을 쥐어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은 어찌면 아이들이 길거리를 떠나지 못하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여행자들이 이들을 돕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नेपाल에는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많다. 하지만, 음식, 돈, 선물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저 길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여자 아이들은 더 나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여자아이에 대한 인신매매는 가난에 찌든 नेपाल 시골지역의 주요 문제다. 10,000~15,000명의 여자아이들이 매년 노예로 팔려 가정부나 공장 노동자, 심지어 매춘부로 착취당하고 있었다. 달랄(dalal)이라 불리는 중개인들은 नेपाल 여성을 약 US\$2500에 인도 뭍바이의 빈민굴에 팔아넘긴다. 10만 명 이상의 नेपाल 여성들이 인도 빈민굴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개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이며 절반이 에이즈 양성 보균자인 것으로 보인다. 에이즈 증상이 심해 일할 수 없게 된 일부 여성들이 नेपाल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이 여성들과 이들이 낳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Nepalese Youth Opportunity Programme 에서 가난한 नेपाल 가정의 딸을 팔지 않도록 하는 기발한 방안을 생각해냈다. 여자아이 1명당 새끼 돼지와 가정용 등유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또한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연간 US\$100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2500명의 여자아이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아냈다.

- Lonely Planet <nepal> 中

<비공식적인 자료>

비공식적인 자료란 नेपाल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을 저의 시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카트만두의 길거리에서 종이를 들고 구걸을 하는 아이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들이대며 파는 아이들, 부모에게 버려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먹여 주고 재워 준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받더라도 아주 조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10대 아이들이다.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은 안타까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네팔에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노동자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육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아주 많다. 네팔 자체 단체도 많지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단체 또한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는 단체가 거의 없다고 한다. 책의 정보와 같이 내가 보았던 단체 역시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다. 또 아이들을 위한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가난과 버려짐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 모두를 돌볼 수 없는 것,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네팔의 현실인 듯하다.

3. 네팔 그리고 고아원, 이유가 뭐야?

<외국, 네팔>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외국에서 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고민을 하고 장소를 찾아왔다. 왜 그랬나? 이유는 간단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를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힘들뿐더러 나보다는 일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았다. 또 한국은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 언제든 피하고, 숨길 수 있는 곳,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쉬운 곳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고 싶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등 넓게 관심을 가져보고 싶었다.

네팔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장소 결정이 늦어져 불안했던 시기에 ‘희망을 여행하라’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 나라가 가진 문화, 멋진 풍경,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네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그리고 나라를 결정하는데 2가지 기준이 있었다. 첫 번째, 인턴십 장소로 선택받지 못한 나라로 가고 싶었다. 인턴십을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괜한 심리가 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싶고, 새로운 곳에 가보고 싶은 그런 심리 말이다.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네팔’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2가지 기준에 적합했고, 그 외에도 나를 끌리게 했던 나라다. 그래서 나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다.

<고아원>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고, 행복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원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체에 가곤 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아이들을 돌본다는 생각,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끌리더라도 무시하고 다른 곳을 선택했던 것 같다. 또 내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적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사실 처음 인턴십 장소를 결정할 때도 버릇처럼 원하는 곳보다는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고, 목적에 맞춰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맞춰 목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활동 잘 하고 와서 후회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곳,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4. NEW LIGHT HOME (새빛 홈) 은?

3개월 조금 넘게 ‘새빛 홈’에서 생활을 했다. 어떤 곳을 판단해서 그 곳이 어떤 곳인지를 쓴다는 것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 선교사님의 메일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New Light Home(새빛 홈)은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 위치해 있다. 카트만두 거리 중에서도 많은 고아원이 자리 잡고 있는 파탄 쪽 Ring Rd(링 로드)에 있다.

‘새빛 홈’은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께서 만든 공간이다. 이곳에는 6명의 여자 아이들과, 6명의 남자 아이들이 살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다.

처음 선교사님 부부께서 ‘새빛 홈’을 만들 때 가졌던 소망은 네팔에 있는 많은 종족 가운데 한 종족에 1-2명의 고아들을 입양하여 잘 길러내서 자신의 종족을 섬기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종족을 위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더라도 네팔의 사회에 잘 진입하여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을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함께 하는 일이 어려움에도 남·여를 함께 하여 고아원에서부터 가정과 자녀들 간의 의미를 가르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새빛 홈’의 앞으로 계획은 좀 더 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가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사는 것이다. 넓은 대지를 구입할 수 있다면 그곳에 복지센터를 지어 아이들과 함께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위의 글은 선교사님의 말을 조금 수정해 옮겨 적은 것이다. ‘새빛 홈’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을 더 기록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이유는 밑에 기록할 주관적인 내 글을 읽고 오해나, 편견 같은 것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며 적은 것이다.

선교사님 부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린다. 그 모습에서부터 그 분들이 말씀하셨던 소망, 목표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그 분들은 단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신다. 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또 훗날 그 아이들이 커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신다.

이곳은 아주 작은 곳이다. 공동체 마을 같은 공간이 아닌 가정집 같은 공간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고아원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특별히 내가 한 가지를 맡아 담당하거나,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곳은 특별히 누군가가 필요한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불안했다. 주어진 일이라도 있었더라면 나의 ‘무쓸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내 편견일 뿐이었다. 이곳은 내가 배우고 느끼고 나를 알아가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네팔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는 것 하나 하나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한국인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멋진 경험이었다. 공동체, 알려져 있는 단체에 갔었더라면 느낄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새빛 홈’에 대해서보다는 그들을 통해 느꼈던 것들을 더 많이 기록했다. ‘새빛 홈’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려다 보니 이런 글이 나오게 되었다. 느낌 중심적인 글이지만 ‘새빛 홈’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김재구 선교사님-

二. 움 직 임 (때로는 개미처럼 때로는 베짖이처럼)

네팔에서 아침은 6:00 Devotion(예배)로 시작된다. 그 이후 일정은 뒤죽박죽이다. 보고서에 적기 위해 정리해봤지만 틀이 안 나온다.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프로그램들을 계획해 봤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일도 없었다. 한국에서와의 생활과는 다르게 엄청난 양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때문에 처음 3주간은 너무 힘들었다.

시간은 제멋대로 흘러가버려 정신을 다 잡고 보니 어느새 3주가 지나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 한숨 쉬기도 했고, 많은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그것들을 함께 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문혜린이다. 욕심을 버리고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1. New Light Home

힘들었다. 주어진 많은 양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인턴십이라는 이름하에 양심상 개인적인 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심지어 아이들과 놀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숙제도 해야 하고, 시험기간 때는 시험공부를 해야 했으니깐. 그래서 아이들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각종 놀이를 했다. 종이접기, 빙고, 숨바꼭질, 전통놀이, 공기, 춤추기, 보드게임, 기타 치며 놀기 등 자투리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 사실 너무 자주해서 지루하기도 했고, 시도 때도 없이 방에 쳐들어와 게임하자는 아이들의 말에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하는 유치한 게임 덕분에 웃기도 참 많이 웃었다. 이런 사소한 놀이 때문에 웃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이곳에서 제일 큰 수확은 사소한 것의 중요함, 행복함,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짜잘하지만 '새빛 홈'에서 했던 활동들 중 기억에 남고 그나마 꾸준히 했다고 생각 되는 활동 몇 가지를 간추려 적어본다.

1) Devotion (예배)

하루 2번 아침, 저녁에 Devotion을 한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알림 할 것들이 있으면 알림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낸다.

처음부터 참여했던 건 아니다. 참여하려고 내려가면 모임이 시작되는 바람에 계단에 서서 엿듣다가 올라가기도 수십 번, 제일 먼저 일어나도 쭈뼛쭈뼛하다가 못간 적이 많다. 이게 다 소심함 때문일까?

결국 내가 쓴 비장의 카드는 애들한테 부탁하는 것! 부탁해서 Devotion 시작할 때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꾸준히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를 했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심지어 네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속에서 혼자만 동 떨어진 느낌이었다. 모임에는 참여했지만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사람은 환경에 너무 쉽게 적응했다는 것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익숙해졌다. 멍하게 앉아 있던 내가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항상 교회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기도하는 게 부질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꾸준히 Devotion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이 기도하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거나, 변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들을 보니 팬스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 역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

를 하게 되었다. 항상 누군가의 진심을 멀리했었는데 아이들 덕분에 상대방의 진심을 짓밟는 짓을 그만 둘 수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2) 현지교회와 한인교회 다니기

현지교회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달랐다. 맞춰진 시간에 시작해서 맞춰진 시간에 끝나고, 점심밥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는 일반적인 한국교회와는 달랐다.

예배는 항상 정해진 시간 보다 늦게 시작했다. 네팔 교회의 어수서한 느낌은 네팔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 했다. 어수선하게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음향담당은 실수연발, 예배 중에 자는 사람들, 떠드는 아이들 언제나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는 시작되었다. 심지어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1시간을 훌쩍 넘겼다. 네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어색했다. 도저히 나의 버릇? 성격상 그 상황을 버텨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네팔어로 된 설교, 찬송을 들으며 2~3시간 앉아 있으니 허리는 더 쭈셔오는 것 같고, 괜히 더 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지경에 다 달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다녀볼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처음 한인교회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배 중 일어서서 노래하는 사람, 소리 내며 기도 하는 사람, 박수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등 생소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그 생소한 모습들을 보고서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다. 처음엔 참 당황스러웠는데 이것도 금방 익숙해져버린 것 같다. 점점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생전 처음 누군가를 위해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다. 그렇게 변화가는 나를 보고서 익숙함인지,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생소하다 표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 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며 마음을 조율해나갔다.

3) 청소 및 저녁식사 준비 돕기

‘새빛 홈’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꾸준히 했고, 가장 뿌듯한 기분으로 했던 일이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혼자서 청소, 요리를 담당 하시는 분을 돕기 위해서였다. 하는 일도 없는 내가 받아먹으려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내 방이 있는 3층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건물 청소를 하게 되고, 식당 청소를 하게 되었다. 점점 청소 구역이 늘어갔다. 사실 청소 구역이 늘어나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청소하면서 아침부터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싹 다 잊게 되고, 그것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4) 취미활동

거듭 말하지만 주어진 일은 없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사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활동은 ‘책 읽기’였다. 노는 것 같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책을 많이 붙들고 있기도 했다. 읽었던 많은 책들 중 기억에 남는 책은 선교사님께서 주신 원판 ‘레미제라블’ 이다. 너무 정리되지 않고 등장인물의 과거, 현재, 미

래, 성격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책이었다. 총 3권에 1500쪽이 넘는 책이었지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읽었던 책이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변화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책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활동은 ‘기타 치기’였다. 짧은 여행을 다녀올 때 기타를 하나 장만해서 돌아왔었다. 전에는 아이들 눈치 보느라 ‘새빛 홈’ 기타를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내 기타가 생긴 후부터는 자주 만지게 되었다. 시간이 남을 때면 방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작곡, 작사를 하면서 지냈다. 상대방에게 털어 놓는 것보다는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습관이 있는 나는 네팔에서도 그렇게 나 자신을 조절했던 것 같다.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어렵지 않게 흘러보낼 수 있었다.

5) 한국어 수업

딱 1번 진행해봤다. 성경 페이지를 내가 먼저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 읽는 방식이었다. 처음 하는 진행이었지만 아이들이 지켜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내 감은 100% 들어맞았다.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신나게 진행할 수는 없을까?’ 고민해봤지만 특별하게 떠오르는 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2달 후, 예기치 않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또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이틀 꼬박 뇌를 괴롭혀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발 하지 말자, 놀자’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틀 동안 뇌를 괴롭힌 결과가 이렇다니. 아이들의 반응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다음 기회를 기대하며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내 인턴에는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지,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렸다. 없던 통증이 갑자기 생겨버리는 바람에 며칠 꼬박 뇌를 괴롭혀 짜낸 수업을 못한 채 귀국하게 되었다. 수업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수업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6) 한국 요리 하기

‘새빛 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밥’이다. 네팔에서 딱 한 번 먹어봤단다. 내가 그곳에 간 날부터 김밥을 만들어먹기 전 날까지 아이들은 ‘김밥 먹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 네팔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아이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한 아이의 생일 날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재료를 구입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방에 해결 할 수 있었다. 재료를 준비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료를 찾을 수 없던가, 비싸다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다. 하지만 결국 그런 재료들 다 빼고 몇 프로 부족한 김밥을 만들기로 합의를 봤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취향대로 김밥을 만들었다. 크기가 작은 김밥, 큰 김밥, 속이 짝 찬 김밥, 빈 김밥이 접시 위로 차곡차곡 쌓였다. 7~8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김밥을 만드니 김밥 만들기는 순식간에 끝이 났다. 모두들 자신의 몫을 챙겨 열심히 먹어냈다. 사실 빠진 재료가 많아 맛은 별로였었다. 그런데 웬지 모를 뿌듯함에 빠져 나 역시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이 외에도 라면, 전, 계란말이 등 많은 음식들을 해먹었고 그 때마다 아이들은 ‘Good!, 미토 처!’¹⁾ 하며 즐거워했다.

1) ‘미토 처!’ 라는 말은 네팔어로 ‘맛있다.’ 라는 뜻을 의미한다.

7) 놀러 가기 (친구 집, 근처 유명장소)

아이들과 이 곳 저 곳 참 많이 돌아다녔다.

하루는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을 따라 길을 나섰다. 한참을 걸었다. 길을 안다던 아이는 2시간이 지나서야 길을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단체로 길을 잃은 것이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느끼는 고통은 2배가 되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길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결국 목적지에는 가지 못했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이 반나절 동안 걷기만하다 ‘새빛 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지친 몸을 씻기고 지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때 나 혼자 급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목적지에 못 갔어도 길을 걸으며 새로운 곳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 때는 나아가는 것,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나 보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를 가지는 법을 잊고서...

길을 잃고서 헤맸던 날과 다르게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날도 있었다.

하루는 아이들 친구 집에 놀러 갔었다. 사실 그 날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있었다. 한국 영화, 드라마 CD를 빌리는 것이 아이들의 미션이었다. 내가 이것을 미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른들 모르게 빌려와야했기 때문이다. 음. 결과부터 이야기 하자면 미션은 성공적이었다. 어떻게 성공했나? 아이들은 CD를 몰래 빌리기 위해 친구 집에 한참 앉아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반나절이라는 시간 동안 모르는 사람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색함, 민망함을 견뎌내야 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빼질 흐를 것 같다. 근데 그 순간에 민망함을 느끼면서도 참 신나게 웃어재졌던 것 같다. 아이들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속닥거리며 이야기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결과, CD 하나를 빌려서 나올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CD를 어떻게 숨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결국 아이들은 CD를 내 주머니에 숨기고, 걸다가 왔다고 하기로 했다. 참 어색한 아이들이었지만 이 귀여운 거짓말은 먹혔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대가로 우리는 점심을 2끼나 먹어야 했다. 모두들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눈빛을 교환하며 밥을 먹어치웠다. 이렇게 우리의 미션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8) 5/5 어린이 날 기념 파티

네팔과 한국의 어린이 날 날짜는 다르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매년 선교사님께서 어린이날을 챙겨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건강 사정으로 인해 어린이날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은근히 섭섭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라도 챙겨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정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과자 파티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5.5 / 저녁을 먹고 다함께 1층에 모일 때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다들 들떠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같이 먹으면서 놀자고 제안 했지만 싫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아이들이었다. 결국 남자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과자를 먹으며 영화를 보기로 했고, 여자 아이들은 3층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둘러 앉아 파티를 즐기며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친해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그 때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섭섭했었다. 내가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다. ‘고맙다’ 말하는 아이들에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린이날 파티는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9) 영화

아이들은 게임, 드라마 등 전자기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했다. 아이들에게 전자기기를 보이는 것이 미안해서 숨겨두고 있었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매일 내 방에 쳐들어와 게임을 하고, 물건을 만지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이었다. 이 정도로 아이들은 전자기기를 좋아했고 항상 옆에 두고 살았다. 그 중에 영화. 영화를 사랑했다. 그 아이들의 영화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crazy about movies 라고 하면 되려나?

네पाल에 오기 전, 혹시나 아이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까봐 애니메이션, 한국 영화, 판타지 등 영화를 다운받아 갔었다. 역시나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100일 있는 동안 40편이 넘는 영화를 보여줘야 했다. 아이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근처 가게에서 CD를 빌려보기도 했다.

초반엔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해서 아이들이 원할 때 영화를 보여줬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영화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적당히 보여줘야겠구나 생각하고 조절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다. 물론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도움 되는 일도 많았다. 일본, 한국영화를 보면서 해석을 해준다던가, OST를 따라 부르고, 번역해준다던가. 재밌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생겨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나는 더 다양한 놀이를 하고, 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말이다. 기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가기를 바랬는데 그런 나에게 몇몇 아이들은 섭섭한 말을 내뱉기도 했다.

영화 때문에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은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기도 민망할 정도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영화로 인해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으니깐. 지금은 어이없는 추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2. 어린이 노동자 방문

네पाल인 언니와 함께 어린이 노동자라 불리 우는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다. 어린이 노동자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집에 살면서 일을 하는 10대 또는 더 어린 아이들을 말한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형제가 있어도 떨어져 살아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었다.

1) 당일 = 카트만두 시내와 근처 도시 아이들 만나기



<카트만두 시내 어린이들>

10대 아이들을 만났다. 하루에 2~3곳 정도 다녔다. 아이들과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 아이들과 만나더라도 단 5분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없었다. 주인 눈치를 보며 우리와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스케줄이었다. 오전에 잠깐 학교를 다녀온 후에 남은 시간은 내도록 일을 해야 된단다. 방과 후 친구와 놀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앉아 네पाल인 언니에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였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다. 너무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심적으로 너무

복잡하기도 했고 그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웠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인데 나와는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또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될까 조심스러웠고, ‘동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난 후 나의 고민, 행동들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좀 더 편안하게 그들을 마주했다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 소풍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 아이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 했다던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5~6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다. 이 날 소풍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이 가는 소풍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미리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열심히 움직였다. 평소에 놀 기회가 없는 아이들, 더운 날씨에 정말 뽕뽕하게 놀았다. 짜여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건지 처음 알았다. 원래 게임, 놀이 같은 것에는 썬병이라 걱정도 많이 했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생기겠냐.’ 하는 생각에 나 역시 정신 놓고 뽕뽕하게 놀았다.

3) 모란 (4/19~4/22)



<모란에서 소풍 때>



<모란 마을>

이동 시간만 12~14시간이 걸리는 인도 근처 지역 ‘모란’에 다녀왔다. 무지하게 더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편하게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트만두 시내 어린이 노동자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었다. 제대로 된 옷, 신발 하나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모두 너무 열악한 환경에 내던져져 있었다. 구박을 받는 아이, 부모 없이 자기만한 동생 2명을 키우는 아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무게 보다 더 무거운 돌들을 이고 나르는 아이. 마음도, 머리도 그저 멍할 뿐이었다. 아이들을 보고 마냥 웃음 짓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 나를 처음 봤을 때 보여준 밝은 웃음과는 반대로 4~6세 아이의 몸으로 버텨내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미친 듯이 혼자 고민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것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기로 했다. 감정을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즐겁게 놀기로 말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2번의 소풍을 가게 되었다. 첫 번째 소풍은 아주 큰 소풍이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어른 몇 분과 한 대의 봉고차를 타고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놀기 시작했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들끼리 춤추고, 노래하고, 뛰어놀고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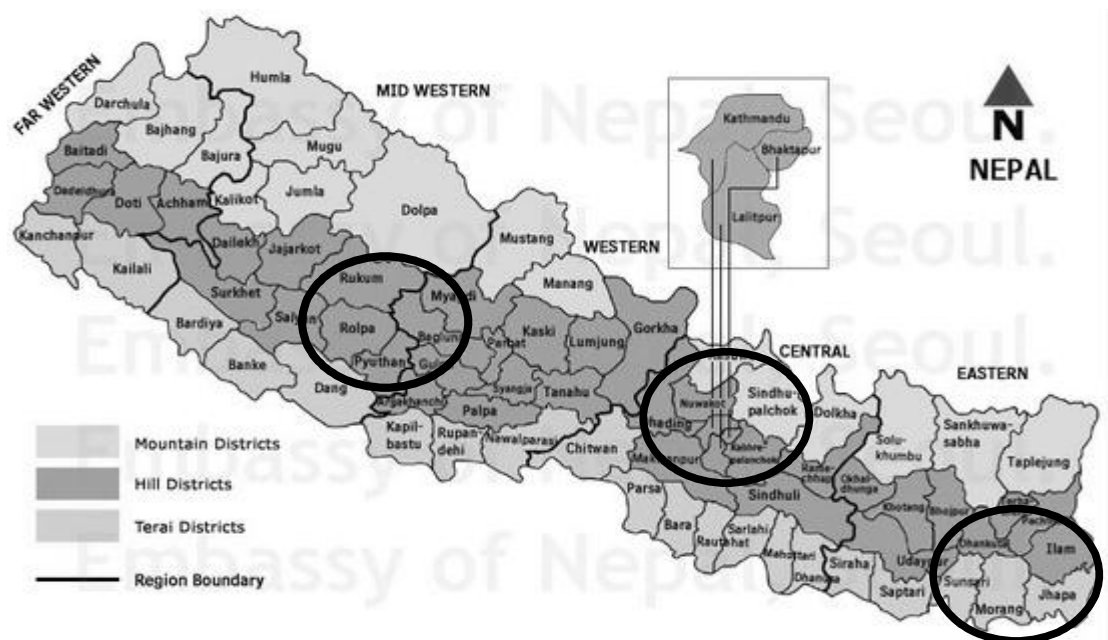
두 번째 소풍은 작은 소풍이었다. 노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집에서 도구들을 챙겨가 숲 속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평평하고 불을 지필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नेपाल의 음식 중 하나인 ‘로티(빵)’를 만들기 시작했다. 요리에는 조금 어설픈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운 날씨 땀을 뻘뻘 흘리며 반죽을 도와야 했지만 행복했다. 하루하루 고민 속에 살아가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상황만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자랑스러웠다.

어쨌든 우리는 장작 4시간 동안 불 앞에서 꼼지락 거렸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로티’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아이들 왈 ‘이거 양이 너무 적어! 더 만들자!’ 그 순간 나와 नेपाल인 언니의 얼굴은 죽을상으로 변했고 결국 또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도 지쳤는지 다들 물러나버렸다. 결국 2번째 ‘로티’ 만들기 시작과 끝은 내가 마무리해야 했다.

4) 모란을 제외한 नेपाल 동·서부 지역 4.22~25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참 험한 여정이었다. ‘모란’에서 4일을 지낸 후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다. 3일 동안 가까운 도시 3곳을 방문했다. 가깝다는 말에 짧은 이동시간을 기대했건만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번에도 나는 12~14시간동안 버스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로컬버스에 힘은 대단했다. 타는 것만으로도 사람 혼을 빼놓는 로컬버스였다.

나와 नेपाल인 언니는 초췌한 물골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방문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것.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곧장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동 시간에 지쳐 깊은 대화나, 특별한 기분을 느끼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실 내 몸이 버텨낼까 걱정이었는데 용케도 버텨내주었다.



<네팔 지도> 왼쪽부터 1,3 → 어린이 노동자 / 2 → 새빛 흙

3.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 ‘포카라(Pokhara)’

인턴십 기간 중 7박 8일간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포카라’는 트레킹, 히말라야 등산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 ‘포카라’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레이크사이드라는 거리가 있다.

처음 3일간은 가이드북에 적혀 있는 관광지를 찾아다녔다. 너무 재미없었다.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다닌 듯 했다. 지도를 보면서 맛 집을 찾아다니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건 내 체질이 아닌 듯 했다. 아무 노력도 없이 남들이 캐놓은 것을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암생이가 된 듯 했다. 뭔가 새로운 재미가 필요했다. 결국 혼자 이리 저리 싸돌아가는 것에 빨리 지쳐버렸다. 더 외로워졌고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일찍 ‘새빛 홈’에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마지막 여유를 즐기기 위해 거금을 낸 후 보트를 타고 페와 딸²⁾을 휘저으며 다녔다. ‘아~ 좋다’ 하며 페와 딸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인사하고 계시는 한국인 한 분을 보았다. 어떨 곁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보트에서 내려 가까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 분이 오시더니 다시 한 번 말을 걸어주셨다. 덕분에 마지막 날이 될 뻔 했던 그 날은 행복한 여행의 시작이 되었다.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건지 몰랐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에 안심하고 편안해졌던 것 같다. 그리고 각자 이야기를 하다가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고민하던 기타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분과 나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그 때 느꼈던 신남, 행복함, 들뜸 이런 감정들을 언제 또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노래 하나로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 나는 그 분과 헤어지고 나서도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진정한 베퍼가 될 수 있었다. 4일 내도록 음악과 함께였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길거리 상점 앞에 앉아서, 초대 받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넓은 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었다. 난 너무 행복했다.



<기타 치며 바라본 페와 딸>



<운이 좋아 볼 수 있었던 히말라야>

2) 페와 딸은 페와 호, 페와 호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포카라 남쪽 계곡에 위치해 있고,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다.

三. 깨 달 음 (느낌)

1. New Light Home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배움’ 이 말을 생각하며 새빛 홈 생활을 위로했다. 사실 아직까지도 함께 활동한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나에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생활이다.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실수>

4~5개월 간 준비했던 인턴십 계획이 1분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단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한다는 단체 결국 급하게 새로운 인턴십 장소를 알아보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도움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연락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더 아쉬웠다. 왜 진작 이야기 해주지 않았던 걸까? 하며 원망도 했지만 그 짧은 시간, 힘들어할 시간조차 낼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김현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새빛 홈’ 이라는 작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남은 일주일 동안 단체 담당자 분들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계획을 짜고 짐을 싸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실수 때문에 선교사님과 오해가 생겼다.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섞이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듯 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그 때 선교사님과 있었던 작은 오해 때문에 나는 더 좌절하게 되었다. 사실 아직까지도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라면 선교사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을 것 같고, 아이들과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어린이 노동자들과의 만남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씁쓸한 웃음이 지어진다. 맨발에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 감정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혼란스러웠다. 어째서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이들을 위한 많은 단체, 후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건지 등 상황에 대한 억지스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닌지, 동정의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을지 걱정스러웠다.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될까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선을 긋게 될 것 같다는 것을. 또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즐거운 기분으로 그 상황을 즐기는 게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네팔 동서부를 돌아다녔던 7박 8일. 그 기간 동안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그냥 땡깡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 내 안의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함께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 이외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팔에서 활동 중 가장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3. 어이! 배짱이 탈을 써본 느낌이 어때?

이 인턴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작.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급하게 돌아오게 되어 혼란스러웠던 마무리. 첫 시작과 마무리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활동이지만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다.

<네팔에서의 100일 간의 생활은 아주 큰 점으로 남았다>

바쁜 일상, 많은 양의 일들에 치여 살아왔던 내게 ‘새빛 홈’ 이란 곳은 너무 어려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뿐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내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에 일정에 맞추고, 환경에 맞추다보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배움’ 이라는 말도 힘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과 행복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내 감정, 성격을 무시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했던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변할 수 있었다. 나는 단단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멋있고 뚜렷한 결과물이 남은 활동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다.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할지, 발표해야 할지 머리터지도록 고민했다. 하지만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솔직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인턴십에 만족한다. 멋있고 뚜렷한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소홀했던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틀에 갇혀 있던 내가 스스로 빠져 나와 자유로워졌다.

이제 천천히 함께 살아가야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테야!!!!

四. 마무리

1. 결산

	쓴 돈		내용	분류별 합계
	현지) 네팔 인턴 생활비 (네팔 환율 RS1 = 16원)			
비자	100\$ + RS2500	37.500	3개월 비자 + 15일 연장	150.000
봉사비	150\$ + RS6500	266.250	고아원 기부? 작은 성의	266.250
활동비	80\$ + RS15036	97.520 + 240.576	병원비, 생활용품, 이동비 어린이 노동자 (6박7일) = 80\$ 어린이 날 파티비, 선물비 현금, 인터넷 사용 등	338.096
여행비	RS1918	30.688	카트만두	101.328
	RS 4415	70.640	포카라 (7박8일)	
기타	RS3800	60.800	인도 비자 (날렸어)	60.800
합계	330\$ + RS34169	803.974		803.974

	쓴 돈		내용	분류별 합계
	국내) 네팔 인턴 준비 비용			
이동비	1.706.300		대한항공 왕복 비행기	1.777.900
	27.300		공항리무진 (대구 → 공항)	
	44.300		택시, 리무진, 버스 (공항 → 대구)	
선물	53.000		라면, 목걸이, 필기도구 등등	53.000
준비 비용	173.000		배낭, 비상약, 기타 생활 용품.	173.000
합계	2.003.900			2.003.900

2. 첨부

1) 고민 글 <3.14 > 네팔 활동 中 인턴십은 무엇일까?>

<1>

나는 많이 부족하다.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주는 것 받는 것 모두 부담스러워 하고 싫어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지치기 시작했다. 혼자서 어딘가에 갇혀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일만 하는 로봇이 된 듯 했다. 오는 사랑을 걷어차는 것도,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에도 지쳐버렸다. 그래서 난 변해보고 싶었다. 그런 나에게 필요한 건 '여유'였다. 그리고 넓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왔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럼 왜 떠나야 했을까? 내가 한국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곳에 있으면 익숙한 환경에, 주변 사람들, 상황 때문에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이곳은 원한다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안정적인 곳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곳에서는 깨닫기 힘들 것 같았다. '익숙함'이라는 강적을 깨부수는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조금 더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싶었다. 익숙함과 이별하고,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다른 곳에서 생활하며 숨김없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또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깨닫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2>

진로 찾기 수업 때 발표했던 계획서를 읽어봤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 때는 인턴십을 하기 전이었으니깐 별 다른 고민 없이 착착 적어냈던 것 같다. 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확신이 서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는데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활동인지도 모르겠다. 2주라는 시간이 지났다. 3주 째 접어들고 있다. 나는 과역 이곳에서 무엇을 했나? 부끄러워하고, 고민을 하고, 노는 것 밖에 더 했나? 지금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고민이 된다. 뚜렷하게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걸까? 그래서 나를 더 쪼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인턴십은 어떤 의미일까? 인턴십은 무엇일까? 미래를 위한 준비일까?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일까?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고 싶다.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이 곳. 이 공간을 넓혀가고 배움을 얼마나 얻어 가느냐는 나의 몫이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과 마주하기를 겁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인턴십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

- : 여유, 사랑하기, 자발적인 모습, 인정하기, 또 다른 익숙함, 혼자 익숙해지기
- 부족함 깨닫기

나는 나를 위해 이곳에 왔다. 누군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함께 해야 한다. 함께 어울려야 한다.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인턴십은 내게 어떤 작용을 할까?

2) 가기 전 다짐

- 뭐든지 아껴 쓰자.
- 음식을 남기지 말자.
-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 활동할 때 즐겁게 하자.
-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자.
- 많은 사람들과 대화 하자.
- 일지를 꾸준히 쓰자.

- 깨끗한 여행 하자.
-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숙소, 식당, 버스를 이용하자.

- 나태와 여유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말자.
- 힘든 순간 좌절하는 대신 인정하고 깨기 위해 노력하자.
- 즐거운 순간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자.
-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3) 100일 일정표

월	기간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27-5	1		2/28 출국 생활 시작					
	6-12	2	약혼식	어린이 노동자		어린이 노동자	결혼식 준비		결혼식 준비 패션쇼
	13-19	3	결혼식						홀리 축제
	20-26	4				사비나 집 방문	라면 파티	Bhaishipati 놀러가기.	
	27-2	5		애들 졸업식		3/30 포카라			
4	3-9	6				여행 끝		지원 아동 소풍.	
	10-16	7		어린이 노동자	생일 파티 김밥 요리		네팔 새해 소풍	어린이 노동자	
	17-23	8		어린이 노동자	노동자	가정	방문	하는	날
	24-30	9	어린이	노동자			어린이 노동자		
5	1-7	10					어린이날 파티		
	8-14	11						친구 집 방문	물 때 빼기
	15-21	12						모모 만들기	
	22-28	13			아픔	아픔			
6-8	29-4	14							
	5-11	15		6.6 입국					
	7.24-30	16		자	원	봉	사	능	
	31-8.6	17		력	개	발	원	!	

4) 보고서 보다 더 자세한 기록 = 일기

네팔에서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일기를 발췌한 글이다.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이 글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28) 첫 만남

8~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니 네팔에 떨어뜨려 준다. 실감이 안 난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리무진을 타고 있었고, 엄마 아빠와 밥을 먹고 있었다. 지금은 혼자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

네팔 사람들의 생김새, 언어, 시끄러운 소리, 거리의 동물들, 작은 가게들, 날 쳐보다 보는 사람들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새롭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

도착했다. 사실 조금 고민이다.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잘 놀면

된다고 했는데 어색함을 껌 만한 거리고 없고, 노는 것 외에도 뭔가를 같이 하고 싶고, 다른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온다. 예상했던 상황과 많이 달라서 혼란스럽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진정되지 않는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주려고 한다.

3.1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느껴진다. 다르다는 사실이. 시차, 음식, 환경, 사람들, 방 안에 들이닥친 쥐 한 마리. 두렵지 않다. ‘시간이 다 해결 해줄 거야’

한국에서는 주어진 일들이나,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했었고,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고, 시간이 많아서 고민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네팔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정 반대다.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런 게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만 한 가득이다. 이 아이들은 내가 없어도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했을 테니깐

한국에서의 바쁜 생활 습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곳에서의 평화로움, 여유로움을 즐기지 못하고 고민에 쌓여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3.2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누군가를 위한 봉사나, 나눔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급하게 무언가를 해왔었는데 완성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항상 마음의 준비, 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즐길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일 텐데.

3.3

다른 곳에서의 생활이 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혹은 잘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다. 가장 중요한 나는 버려둔 채 머리만 채워가고 있었던 것 같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내 자신을 너무 혹사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또 나도 모르게 나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너무 컸던 것 같다. 나 자신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던 것 같다. 이곳에서도 그렇다. 무언가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를 이뤄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놓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조금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있고 싶다. 욕심과, 기대는 버리고 진짜를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3.7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포기하려고 한다. 대신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라는 다짐을 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다. 인턴십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봉사, 또는 활동, 또는 나눔이 아니라는 것이다. 봉사라면 봉사, 나눔이라면 나눔, 활동이라면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인턴십이라 생각한다. 또 ‘그들을 위해서’ 가 아닌 ‘그들과 함께’ 하며 새로이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

보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그들로 인해 내가 변화하고, 그들 덕분에 더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인턴십의 뜻인 것 같다.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긴장하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3.8

레미제라블' 선교사님이 주신 책인데 원본이다. 장발장 이야기 말이다. 아오. 글씨도 작고 심지어 세로로 쓰여 있고 한자로 쓰인 것도 있다. 3권짜리 책이다. 아직 50페이지도 못 읽었지만 재밌을 것 같다. 항상 중요 부분 정리된 책을 주로 읽었는데 이런 책 어색하다.

3.9

너무 힘들 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려고 한다. '이것보다 안 좋은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잖아.'

3.10

어제 아이들이 사진 찍으며 놀다가 내 방 커튼 문을 부숴버렸다. 어제는 방이 아니라 학교 복도나, 길거리 같은 데서 자는 느낌이 들었다. 길거리에 설치해놓은 텐트에서 자는 것 보다 못한 느낌이었다. 반나절 정도였지만 정말 불편했다. 잠깐이었지만 커튼 문 없는 생활로 인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가고 난 후, 커튼 문을 고치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커튼이 곧 마음의 평화!

3.11

책으로 부터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조금 더 나아가 스스로를 바라 봐야할 때인 것 같다. 책을 읽으며 여유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좋다.

신경이 곤두서있다. 평소에는 아이들 소리 지르는 소리, 뛰어 다니는 소리 다 괜찮았는데 오늘은 인상이 찌그러지고, 기분이 안 좋다. 심지어 짜증도 나고, 듣기 힘들다. 왜 그럴까 갑자기

3.12

문득 필리핀 생활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필리핀 여행 보고서를 읽어봤다. 한숨이 나왔다. 저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 하고 말이다. 솔직하지 못한 글은 언제 읽어도 재미없고, 따분하고, 깨달음이 없다. 이때까지 내가 썼던 글들이 그랬다. 지난 5년 동안 글에게 솔직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솔직해지는 방법을 모르겠다.

보고서나 논문 또는 누군가에게 보여야 할 글이라면 딱딱하게 글을 썼던 것 같다. 그 때의 내 고민들, 생각들을 모조리 다 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느꼈을 법한 느낌들로 글을 가득 채웠다.

나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부족한 나를 채우고, 틀에 맞춰놓은 나를 빼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3.14

일주일 째 물이 안 나온다. 너무 불편하다. 퍼다 놓은 물을 쓸 때마다 눈치 보이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빨래는 쌓여만 간다.

인턴십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것, 얻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3.16

사람이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고, 깊게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다. 지금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3.21

아.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한 고아원에서 살고 있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한다. 이때까지 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배운다는 것, 의미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 아니 사소한 일상들로는 배울 수 있는 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다 놓고 이곳에서의 생활에만 집중하며 살아보려고 한다. 잘 할 수 있을 거야.

3.22

어떤 것이든 간에 함께 한다는 것은 내 기분을 참 좋게 만든다.

3.23) 뽕빠지게 놀았던 날.

행복함은 아주 가까이 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느끼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감사한 하루였다.

3.25

내 공간이 없는 생활 역시 조금 힘들다. 복도에 커튼 문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들락날락거리는 곳, 방이 아닌 것 같다.

3.27

이곳에 와서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서 알게 되었다.

부모님께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그만큼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잘 모르겠다. 밀어내기만 했지 표현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때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의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을 섭섭하게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은 너무 쉽게, 빨리 잊혀지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아직 내 자신이 너무 좁고, 부족하지만 노력할 것이다. 넓고, 평화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려면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살아가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뿐인데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누구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신기한 느낌은 인턴십을 하고 있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일까?

3.28

세상은 너무 넓다.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끙끙 거리고 힘들어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별 것 아닌 것들이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행복한 이별을 해야 한다

3.29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사랑과 자발성을 철학을 바탕으로 배우고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중요시하며 배우고, 살아왔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학교생활을 해왔던 것 같다. 간디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뒤로한 채 걸돌기만 했던 것 같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더 중요한 뜻을 잊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참 별 것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귀찮아했다.

나는 간디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걸돌았던 것 같다. 맡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성하고,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다른 것들은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4.4) 포카라 여행 中

음악 때문에 20년 이상 차이나는 분들과 벽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음악과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행복한 날이었다.

4.7

이곳에 오기로 결정을 한 후 너무 급하게 오게 되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곳에 오기 전 연락했던 단체와 정보를 주고받은 만큼 이곳 분들과도 정보를 주고받았어야 했다. 짐을 싸거나, 여행 준비를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사님과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어쩌면 대화를 피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할 만한 일이 없냐고 선교사님께 여쭙었다. 과연 선교사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바라고 요구했던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면 선교사님께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4.20) 모란에서 어린이들과

집으로 돌아 온 후 쉬면서 생각했다. 아이들과 바자르에 갔다 오는 길, 그 때는 더워서 다 귀찮게 느껴지고, 빨리 돌아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 밖에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만 너무 급했던 것 같다. 물론 더운 것도 있었지만 그 잠깐의 여유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항상 계획을 세워두고 그것이 끝나면 곧장 돌아오는 짜여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하다가 힘들면 쉬고, 다른 것들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힘들고,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것 같다.

4.21) 모란 어린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호망 하나 없이 세상에 던져져버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해 줄 수 없다. 그 아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건 사랑과 꿈이 아닌 돈이라는 것. 아이들은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버렸는지

4.27

벌써 2달이 흘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무료하고,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뭘 하기는 계속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계속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런 건 아무도 몰라주겠지만 혼자서 뿌듯해 하고 있다. 다른 것보다도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네팔에 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 힘든 순간순간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다는 것, 가끔은 아무 일정 없는 하루, 가끔은 너무 뻑뻑한 하루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잘 보내고 있다는 것, 부모님에 대한 감사 등

5.11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아주 열심히 말이다. 그리고 그 열정과 재능을 옳은 곳에 사용한다는 것 또한 공통점 중 하나다. 자신과 남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용기 있는 일인 것 같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진심을 담아, 열정을 담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이나 될까? 돈 많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난 언제 그런 기분을 느껴봤지? 그런 일을 찾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미친 듯이 무언가에 빠져서 해보고 싶다.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

5.12

항상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다. 나에게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말이다. 인턴십은 이런 깨달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5.14

귀신이야기로 밤을 보냈다. 이 아이들이 어리다는 생각을 잊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 하나도 안 무섭고, 신빙성 없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내뱉으며 덜덜 떨었다. 사실은 너무 웃겼는데 그 분위기에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무서운 척 하면서 한국 귀신 이야기를 들려줬다. 빨간 마스크, TV에서 본 귀신 이야기. 한국어로 했으면 2배는 더 무서웠을 거다. 너무 웃긴다. 영어로 한국 귀신 이야기를 하다니.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등장한 후에 끝이 났다. 아이들은 '못 잘 것 같아' 하면서 방으로 돌아갔다. 얼마 안 돼서 다 훑아 떨어진 것 같았지만

5.23

휴. 너무 힘든 하루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정말 안 아프고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너무 멀쩡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통증이라 기분만 우울해진다. 답답하다. 감기 같은 거면 숨기고 지낼 수라도 있지 통증은 숨길 수도 없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라 괜히 무섭기만 하다. 아무것도 못하고 의사가 시킨 대로 누워만 있어야 한다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괜히 주변사람들 걱정시키고 있다. 휴. 인도에 다녀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다니.

5.29

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허탈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6.1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한국에 돌아가면 마음이 정리가 되겠지. 그렇게 믿고 있다.

6.6~6.7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특별한 느낌이 없다. 뭔가 그림고, 떠오르고 그럴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있던 것 같다.

한 가지 다르다고 느낀 건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다정해진 것 같다. 이게 얼마나 같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이게 변한 것 같아 좋다.

5) 선교사님 인터뷰

Q.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A. 자신의 계획(자신을 위한 계획),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이다. 내일 또한 기약이 없는 삶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때로는 측은하고 불쌍할 때도 있지만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기도 하다.

Q.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힘들고 슬프고 외로웠던 때가 있으시다면?

A. 현지 사역들에서 바로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점점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이며 특별히 힘든 그러한 때는 없었다.

Q.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또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만족을 넘어서 행복한 삶이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가난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다.

Q. 네팔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의 차이점, 좋은 점,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있으시다면?

A. 네팔에서의 삶은 빠른 한국에서의 삶과는 달리 한 템포 느려서 굉장히 편안한 삶이다. 한국에서 보다 더 여유롭고 부자처럼 살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야하는 불편함도 많다.

Q. 선교사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A. 전에는 가족 중심으로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라면 선교사가 되고 나서는 이웃에 초점이 맞추어진 섬김의 삶이다.

Q.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또 다른 목표나, 새빛 홈 미래 등등)

A.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지역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로 나가도록 도우며 가장 소외되고 있는 농아, 맹아,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五. 채 우 기

1. 어디를 갔나?

대구 서구 원대동에 위치해 있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활동했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만평 주민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은 건물 3층에 가정집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도서관 보다는 공부방 또는 놀이방과 비슷한 듯하다. 조용히 앉아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은 자주 볼 수 없지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매일 볼 수 있는 곳이다.

도서관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주민들을 위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은 강의, 아트수업, 독서수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강료로는 재료비 정도를 필요로 한다.

이번 여름 방학 때에는 ‘씨앗학교’ 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2. 무엇을 했나?

2주 동안 활동했다. 여러 가지 잡일 중 비중 있는 잡일들을 몇 가지 적어 본다.

1) 청소

어딜 가든 청소는 꼭 하게 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서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실 공간은 청소가 필요한 공간이었다. 그 분들도 말씀하시길 ‘우리는 절정에 올랐을 때 치운다.’ 하셨다.

나는 항상 가장 먼저 도서관에 도착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방을 치우고 널브러져 있는 책을 치우는 것이다. 퇴근 전 하는 일도 같다. 도서관이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엔 아이들 나이가 너무 어린가? 조금은 안타까웠다. 책 뿐 아니라, 수업을 하고 난 뒤, 물을 마시고 난 뒤, 밥을 먹고 난 뒤, 간식을 먹고 난 뒤 등 항상 뒷정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번 신세계를 봤다. 사무실 안쪽 자리 한 곳, 부엌 안 쪽 창고 청소를 할 때이었다. 두 곳 다 심했다. 그 분들 말씀대로 절정을 보았다. 사무실 안 쪽 공간은 혼자 열심히 치운 결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바꿔놓았고 창고는 간사님과 청소한 결과 별레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매일 청소해도 더러워지는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이 계속 드나들 수 있는 가정집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움직였다.



<사무실 청소 전>



<사무실 청소 후>

2) 도서관 사서 활동

다른 일보다도 도서관 사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실장님과 간사님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실 일과 함께 도서관 일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출, 반납, 신간 책 입력 및 라벨 작업, 책 정리를 주로 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라 피곤한 감은 있었지만 저번 인턴과 다르게 일이 많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

3) 선생님

도서관에서 나는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아이들과의 사이는 어색했다. 아이들 역시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대가 아닌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듯 했다. 처음 일주일만 그랬다. 서로 인사만 하고, 간사님께서 ‘이런 것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시키는 일들만 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시간은 약이었다. 방학 숙제를 도와주고, 점심 차려주고, 뒷정리 시키고, 사투리를 쓰며 아이들을 허물없이 대하니 아이들도 나를 인정해주는 듯 했다. 항상 생각하지만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서로 민망하고 불편한 일인 것 같다. 참 어려운 일이다.

4) 씨앗학교 수업 진행 및 보조

한 주에 수업이 7~8까지 정도가 있다. 그 중에 공동체 놀이 수업을 맡았다.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수업이었지만, 다른 강사 분들의 사정으로 인해 빠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매번 급하게 수업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수업은 합동화 그리기 수업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 했다. 중3도 있었다. 보고서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여하튼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그림 그릴 수 있게 색연필, 물감, 색종이 등 다양한 도구들을 준비했다. 우리는 먼저 함께 주제를 정하기로 했다. ‘요즘 아이들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 일까?’ 기대하며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 뻘하고 귀찮아서 내뱉는 대답들뿐이었다. 굴하지 않고 진행해나갔다. 주제는 여름. 아이들은 각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의 그림은 귀찮음을 표현한 듯 했다. 여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바다뿐이었다.

이런 걸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말해도 되려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안 된 것일까?

급하게 만들어진 수업이었지만 멋진 합동화를 그려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중간에 인터뷰를 하러 가는 바람에 마무리는 다른 분께서 해주셨다. 결국 원하던 합동화 대신 개인 상상화가 되어버렸고 그림들은 화장실 문 앞에 붙여졌다.

두 번째 수업은 독서 수업이었다. 서로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공유하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두 번째 수업 역시 급하게 만들어진 수업이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준이 너무 달라서 애먹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처음에는 삐딱삐딱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흡한 진행 때문에 수업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엉뚱함 때문에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



<민요 수업 중>



<만들기 수업 후>

3. 어땠나?

두 번째 인턴을 시작할 때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날짜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인턴 활동이 재미있을 리가 없었다. 의욕 없이 주어진 일만 했다. 첫 시작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출근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 도서관에서 잔재미를 찾아 즐겁게 일했던 것 같다.

짧은 활동이라 특별한 느낌은 없었지만 처음 해보는 활동들이라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는 것,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人 Turn

고예솔

When

2011/1/3~2011/7/31 (약7개월)

Where

인권교육센터 '들'

What

lot of thing's

목차.

I. 들어가며

II. 활동소개

1. 활동

1-1. 들

1)인권교육

1-2 주거권

1)강제퇴거감시단

2)우리동네 소모임

1-3 학생인권조례

1) 선전전

2) 숙박질

3)조례내용 간략 정리

-주민발의법에 대해.

1-4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1)워크샵

1-5 저공비행

1)저공비행

2)페미니즘세미나

III. 느낀점

1. 페미니즘 세미나

2. 주거권

3. 학생인권조례

4. 6개월을 정리하며.

IV. 첨부자료

1. 자기소개서

2. 활동일정

3. 인터뷰

4. 들 메모

5. 들과의 대화

6. 두리반 보고서

7. 기사 스크랩

8. 활동사진

I. 들어가며

인턴십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전에 현실 속에 한걸음 성큼 걸어 들어와 압박감에 시달리곤 한다. 꿈은 마음껏 꿀 수 있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녹녹치만은 않은 것을 사실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일조차 마음 편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는 어른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워 뚜렷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마냥 부럽기도 했다. 어른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안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다르고 조금은 정의로운 꿈을 꾸어야 하지 않냐는 무언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

처음 내가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을 때 외부로부터 혹은 내 스스로 했던 질문이 “왜?”냐는 것이었다. 아마도 왜 하필이면 네가?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질문 속에 들어 있는 나에게 대한 불신도 아팠지만 혹시 근사해 보이는 일이라서 선택한 건 아니냐는 물음에 백퍼센트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팠다. 그래서 이번 인턴 경험은 내가 꾸는 꿈이 정말 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과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활동가라는 꿈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번 인턴의 주제인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딱 와 닿거나 확 끌리는 건 아니었다. 처음에는 참여연대에 가서 일하고 싶었다. 솔직히 그곳에 내가 잘 맞는지 보다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곳에 가면 뭔가 좀 근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인턴십 준비를 하게 되면서 시민운동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고민을 해보았다.

가장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는 운동을 하기 위해 가져야할 삶의 철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들을 듣고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내 마음속에서의 운동의 상은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활동가를 꿈이라고 생각할까 좀 있어 보이기위해서? 초졸인 내 현실. 경쟁사회에 뛰어들 수조차 없는 조건을 가진 내가 학교에서 배운 철학이라는 가치와 그런 현실을 적절히 타협해서 만들어놓은 자기기만적인 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원하는 걸까, 부당한 이유를 품고하는 거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운동이 뭘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다. 일단은 부딪혀보자고 생각을 했고 인권이라는 주제는 내게 그런 마음이 뭔지 느끼게 해줄 좋은 주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가 가장 잘 다갈 수 있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권교육센터 ‘들’은 소수자인권, 성과인권 청소년인권 청소년노동권 등 의 다양한 주제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교육하는 단체이다. 사실 ‘들’에는 인턴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못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에서 내 자기소개서를 보고 너무 좋아서 받아주셨다고 했다. 역시 나는 어디하나 빠지는 데가 없군.

II. 활동소개

1. 활동

인권교육센터 들에 인턴으로 가 있었지만 들 활동만 한 것은 아니다 들에서 파견시킨 학생 인권조례일이나 연결해준 다른 많은 일들도 함께했다.

1-1 들

1)인권교육-들의 주 활동인 인권교육에 참여하였다. 청소년 노동인권 등 여러 다양한주제와 인권을 연결시켜 교육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주제의 교육에 함께 가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교육 전반에 대한 느낀 점을 기록했고 그걸로 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기도 했다. 인턴이 끝나갈 무렵에는 교육시간 중 10분정도를 할애 받아서 직접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기도 했다. 처음 인권교육에 참여했을 때는 인턴을 마칠 즈음에는 30분정도 교육을 맡아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학생인권조례 일에 너무 몰두하느라 그 목표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아쉽기도 하다.

1-2 주거권

1)강제퇴거감시단

제작년 용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용역들의 폭력으로 숨졌다. 2011년,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강제퇴거 감시단이 꾸러졌다. 상도동, 단대동 등 재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곳들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썼는데 우리 모듬은 홍대에 있는 두리반을 맡았다. 개발에 관련된 법, 개발의 종류는 상상이상으로 다양하다. 두리반은 어떤 개발인지, 구청은 어떤 법률에 의거 두리반에게 퇴거를 명하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두리반을 방문하여 유채림 사장님 인터뷰를 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2)우리동네 소모임

사랑방이 위치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이곳에 재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뭐라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절박함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개발에 대해 구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굉장히 편파적이다. 개발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살던 터전이 망가지는 문제, 어마어마한 개발 분담금 문제 등) 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주민들이 개발을 찬성할 수밖에 없게끔 편향된 설명만을 한다. 그런 구청의 입장에 반대하고 막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드린다거나 주민들에게 이 동네에 굳이 개발이 필요 없는 이유, 개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려드리는 활동을 했다. 생전처음 구청공무원한테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이라는 걸 해봤다. 덕분에 법원에서 보낸 내 이름으로 된 등기우편이 여러 번 집으로 배달돼 엄마를 놀라게 했다.

*** 우리동네 소모임의 상반기 활동**

3.4 앞으로 활동계획과 모임이름 확정 (우리동네)
3.14 앞으로 활동방법고민 (서울시 중구청 압박하기, 주민만나기)
3.23 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일까에 관해 자료읽고 이야기나눔
3.30 블로그 우리동네 중립동에서 개발을 묻다 개설 서울시에 보낼 질의서 검토
4.6 도시환경정비계획 의견수렴조사 결과 공개. 웹자보로 자원활동가 모집개시
4.12 중립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 나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기각결정. 행정심판청구결정.
4.14 개발반대 주민간담회.
4.23 중립동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준비 회의 끝난후 700여 가구에 안내문 돌리고 동네 곳곳에 벽보붙임, 각 구청별 설문조사 항목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작
4.30 중립동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개최 중립동 사진전진행 ‘시사인’ 취재
5.11 주민모임이후 주민모임생김 개발반대 유인물 등 준비
5.25 주민모임 2차 회의
6.1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현동포함구역지정안 부적절하다고 권고 그전에 서울시중구 최강선 시의원에게 탄원서 보낸 바 있음
6.29 중구청에서 아현동 제외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방안 검토 중임을 확인 중구청에서 반대하는 사람 많으면 구역지정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반대서명이 중요해짐. 798세대중 113세대 받았는데 3~400개정도는 더 받아야 할 듯, 반대서명한 세대에 연락해 이웃에 서명 받아주길 부탁함.
7.4 개발반대 서명준비
7/12 개발반대 서명 선전전 준비모임
7/22 저녁6시~8시30까지 충정로역에서 선전전 중구청에서 주민모임에 만나자는 제안 있어 주민들 다녀옴 의견 조사를 더하겠다고 약속함. 의견조사의 방향에 대해 고민 해봐야 할 듯.

1-3 학생인권조례

1) 선전전

겨울부터 여름까지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제일 힘들게 해온 활동. 서울시민 유권자 8만5천여 명의 서명을 모으면 법을 발의할 수가 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위해 입법운동을 펼쳤다. 밤이고 낮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피부에 화상 입어가며 발로 뛰었다. 의원발의로 하지 않고 주민발의 방식으로 갔던 이유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학생인권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일이었다. 길거리로 나가 좌판을 펴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붙잡고 “서울시민이시면 서명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 부당한 폭력 없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서명30초만 해주고가세요 30초면 되세요, 부탁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루에 백번도 넘게 했다. 그것도 매우 애절하게. 한 5년간 쓸 애절함을 반년동안 다 써버린 것 같다. 힘들었지만 내게 있어 제일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

2) 숙박질

서명을 받아오면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었다. 작업할 게 굉장히 많았다. 그날그날 받아온 서명지, 여러 단체에서 받아다 준 서명지, 우편으로 들어온 서명지들 중 유효(이름, 정자서명, 서울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짜가 모두 정확한 서명지)와 그렇지 않은 서명지를 골라내 무효서명지는 폐기한다. 피켓을 만든다거나 서명판을 만든다거나 퍼포먼스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일도 많고 그 외에도 중요한 기타작업도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이번에 총 11만장의 서명을 받았다. 그 서명지들을 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노력하면서 구와 동을 분류하다보면 야근은 기본이다. 다른 작업들까지 다 마치기 위해서는 밤을 새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조례사무실이 이제 내 집같이 느껴진달까.

3)조례내용 간략 정리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학생이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한다.
- 개성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교육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실현. 자의적 소지품검사. 압수금지. 개인정보보호
- 폭력없는 교육
체벌 괴롭힘 언어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차별없는 교육
성, 장애, 가족형태, 경제력 등에 의한 차별금지. 장애인, 노동청소년, 운동선수,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학생 권리보장
- 자발성의 교육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강제금지, 종교 서약 강요금지, 자율적 학습보장
- 돌봄의 교육
쉽, 안전, 건강, 안전한 먹거리 상담과 조력 복지보장
-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육
학생의 의견존중 학교 규정 재개정 및 학교운영에 참여보장 자치활동 신장

- 주민발의에 대해, 조례제정 운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주민발의법이다. 법을 발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민발의방식을 택했다. 길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의도는 정말 너무 좋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 발의법은 정말 너무 엉망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두 번을 써야하고 주소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아파트 동 호수 번지까지 모두 써야하고 주민등록 번호와 해당하는 서명날짜까지 모두 기입을 해야 하나의 서명으로 친다.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한창 씨끄럽던 시기와 우리의 선전전시기가 겹쳤었다. 시민들 중에 너무 공감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쓰긴 싫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 써주신 분들 중에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지방으로 되어있거나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긴 하지만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집 말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써서 무효가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1-4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1)워크샵팀

이번에 한겨레에서 발간된 책 '인권 교문을 넘다' 후속작업 비슷하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인권 워크샵을 기획하는 팀. 8월에 워크샵이 있지만 나는 학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획단계에만 참여했음.

1-5 저공비행

1)저공비행

저항을 공부하는 비행청소년이란 뜻의 저공비행. ‘공부도 운동이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열고 공부도 하는 모임.

2)페미니즘 세미나

저공비행의 프로젝트중 하나.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 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가 여성들이 모여서 공부했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약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만든 공부모임. 남성들의 언어로 된 이 세상에 여성도 여성의 언어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발제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나누면서 공부했다.

III.느낀점과 에피소드, 마무리

1. 페미니즘 세미나

이 공부를 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깰 수 있었다. 생활하면서 많은 남성들을 만나고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자주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고 계속 내 탓을 해왔다.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불편한 것은 당연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고 내 스스로도 나(여성)를 비하하거나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버릇을 깨닫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나의 언어, 내 생각의 논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활동이다.

2. 주거권

주거권 활동을 하면서는 법이라거나 제도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자각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주거권 이라는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구조 안에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가 집이다. 집이란 것을 그냥 그렇게 나의 재산 부동산으로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구조 안에서는 함께 가기 힘든 가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 사실 이 활동에서 강렬하게 느낌을 받았던 건 초반부분이라서 그 느낌을 글로정리하기에는, 구체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나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별첨에 첨부된 일지를 읽기를 바란다.

3.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나에게 있어 참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운동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활동이기에 애착도 많이 간다. 학생인권조례가 유효서명 97702명으로 수리되었다. 이제는 의회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자 내안에서 뭔가가 푹 하고 놓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꾸만 눈물이 나서 글을 쓸 수가 없다. 이 글도 벌써 몇 번째 쓰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례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일, 조례가 선거 때문에 연장되고 서명지가 모자랐다가 역전을 하는 이런 과정들, 지난 반년이 내 머릿속을 죽 훑고 지나갔다

조례회의에 처음 갔었을 땐 조례 활동에 올인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서명지는 정말 턱도 없이 모자라는 등 문제가 많아보였는데 회의참석

자들은 느긋해 보였기 때문이다. 낙관적으로 보인다고보다는 별로 성의가 없어보였다. 그러다가 2월초, 조례팀이 본격적으로 거리선전전을 나선시점부터 함께 합류하게 되었고 이운동의 중요함과 절박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올인하게 되었다.

조례운동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이었다. 주민발의 법상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의 서명은 서명으로 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일인데도 말이다. 어찌됐든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례는 나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었고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 주었다.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절망했던 적도 있지만 설레었던 적도 많은, 너무나도 뿌듯했던 운동이었다. 조금 가슴 아프기도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위해 왜 이렇게 노력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똥이 마려우면 똥을 누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생리현상처럼 태생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것인데 이렇게 애써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선전전을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어른들도 많고 동의는 하지만 아이들은 맞고 크는 거라며 훈계하는 분들도 많다. 여기 길에 나와서 서명 받을 시간에 책 한 줄 더 보라는 말도 들은 적도 있다. 거리서명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이런저런 여러 말들을 많이 듣지만 유독 가슴이 아픈 말들이 있다. '그래도 말 안듣는 애들은 좀 쳐 맞아야 되요' 라고 말하는 학생을 볼 때가 가장 많이 슬프다. 슬프다 못해 정말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다음으로 가슴이 아팠던 말은 학생이 인권이 어디 있냐는 말이었다. 학생들도 사람인데 다들 왜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걸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인권. 학생이 인권이 없다는 말은 결국 학생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 등교시간엔 내 이름이 박힌 명찰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앞가슴에 달아야하고. 내 신체의 일부를 규제당하고 내가 사랑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내가 선택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나는 왜 이제야 바라보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 잔혹했다.

여러 사례들을 접수받으면서 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왠지 좀 미안해졌다.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뒤돌아 앉아 등 뒤의 현실에 눈감아버린 느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슬프게 만들었던 건 자신과는 상관이 없으니 서명하지 않겠다는 반응들이었다. 나는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든가 나는 집에 아이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 일, 내 아이는 이미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때였다. 나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조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것하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생들은 상처받고 있다. 엄연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을 부정해 버릴 순 없다. 좀 알아주었음 좋겠다.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에 무지하게 상처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물론 조례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가 지금 현실과는 갭이 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눈 감고 모른 척 한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학교가 바뀌었다고. 체벌도 금지되지 않았냐고. 하지만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서는 대체벌(상,벌점제, 간접체벌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은 차라리 한 대 때리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 도대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육체적 폭력만이 폭력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 내 손만 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

각하는 건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조금 더 교묘해지고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아졌을 뿐이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다. 그것이 육체를 가격하는 행위의 폭력이던, 토끼뽀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 같은 폭력이던, 조롱 같은 언어적인 폭력이던 학교공간 안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공간 안에서 언제 내게 폭력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항상 자기행동을 자기가 알아서 통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된다. 공포가 동반되는, 통제와 함께 가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교사들도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에게 남을 존중하라고 가르칠 때 교사본인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아이들에게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칠 때 교사 본인이 폭력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한다. 계속해서 '바람뽀'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바람뽀'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과 폭력이 함께 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것들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청소년이 미숙하기 때문에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미숙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폭력으로 해결해선 안 될 뿐더러 우리는 미성숙하지 않다. 우리는 미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미성숙하다고 결론짓고서 보호라는 명목 아래 기회를 모두 빼앗는 건 아닐런지, 사람은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계속 배워나가고 성숙으로 한 발짝씩 나아간다,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한 도전의 기회가 없다면 실패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는 점점 '미성숙'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뫼비우스의 띠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다.

교사들만의 문제라고 몰아가는 말은 절대 아니다. 얼마 전에 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폭력 없는 교육, 대화로 풀어나가는 교육이 불가능한 이유를 들었다. 학교공간이 폭력이 없이 교육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교사 대비 학생 수는 너무나 많고 그 때문에 교사에게 아이들 개개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그리고 수업 외의 업무량도 아주 많아 수업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도 공감했고 그런 구조적인문제들을 이때까지 너무 교사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교사들이 편하게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탄압한다는 쪽으로 결론내리기 보단 그 열악한 환경들을 고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조례운동 내내 나는 전교조에 너무 서운했다. 우리의 제일 든든한 아군이 되어야 할 전교조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는 몇몇 선생님들만 열심히 뛰어주셨다. 그래도 전교조라면 학생인권조례 정도는 동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하진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거대한조직이 자신의 조직조차 설득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조례가 실패한다면 전교조 집행부도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한데도 그렇게 무신경하고 무책임하게 구는 것을 보고 아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예전부터 전교조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더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다. 전교조가 무엇이던가? 교사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그 투쟁의 근거와 열정들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지금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다. 나는 이 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정말 치명적이게 매력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겨울에 손발이랑 헛바닥이랑 막 뽀뽀 얼어가지고 떨면서 외치고 있는데 경기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가 너무 좋아졌다며 따뜻한 캔커피 사다주는 학생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 막 수고하신다며 같이 못 도와드려 죄송하다며 서명지를

한 묶음 보내주시는 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이만큼의 공감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였다. 투표율33.3%가 되지 않아서 무산되었고 서울시 학교들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단지 귀찮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러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게 된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분명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의 취지에 공감했을 것이다.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니(비록 뭔가 그 사회적 갈등들이 충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제야 나의 인턴에서 조금씩 시선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엔 정말 초조하고 불안해서 늘 신경이 쓰였었는데. 뭔가 '우리가 해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도 되는 거겠지 히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공감과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들 땀 정말 감동적이다. 어쨌든 그이들의 상처는 아닌 문제들인데도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서명을 해 주시고, 투표거부의 행동에 동참해 주시는걸 보면 아직 우리사회가 그럴만한 능력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진다.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도 진짜 놀랍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서명 전 초기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말하는 게 진짜 자주 보인다. 잘은 모르지만,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도 거의 반반 정도인 것 같다. 나는 이 운동이 의심할 바 없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치를 모아서 성공한 것도 거지만 설사 다 모으지 못했다고 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한 동지들 모두 잊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조례팀에 함께했고 내가 역사의 한부분이 되었다, 라는 사실이 어쩔 이렇게 뿌듯한지,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서, 학생인권이라는 가치가 우리사회에 당연한 가치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교실에도 꽃피는 봄날이 찾아 왔으면 좋겠다.

4. 6개월을 정리하며

인턴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인턴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쏟았던 활동은 학생인권조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정말 많다. 친구들도 그렇고 쌤들, 간디 식구들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다. 그걸 잘 풀어놓고 싶은데 좀처럼 글이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 슬프다.

나의 이번 인턴십 주제는 인권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가치이다.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인턴십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다. 그냥 좀 좋은 말이구나 정도였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지 않았었다. 이번 인턴십은 내게 처음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것을 가져다주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나의 추상적이던 진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나니 운동이라는 길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꾸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건 나와는 맞지 않아져 버렸다. 내 주변사람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정의감일까 불의에 순응해버리지 않겠다는 사명감일까 뭐가 되었건 나는 이길을 걸을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버렸다. 이젠 정말 내가 가지게 된 아직 논리로 풀지는 못하는 그 흐릿한 감들을 또렷한 논리 혹은 신념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 남은

것 같다. 그 역할을 인문학 캠프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운동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지만 내가 이 길에 말뚝을 박고 검은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나가기 위한 내 마음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꼽는다. 하지만 내 그릇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다른 혁명가들처럼 사회 구조에 대한 확실한 꿈이라거나 이상 혹은 야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치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 눈에서 피눈물은 흘리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상처 입는 것을 좌시하진 말아야지라는 생각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사실 이번 인턴십을 마무리 짓고 학교로 돌아오는 게 나는 너무 어려웠다. 상황들이 분기별로 나뉘어져 딱딱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다 운동이란 게 정말 역사와 같이 언제나 선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 위에서 잠깐 내려와 학교를 마무리 짓고 돌아간다는 건 정말 타이밍도 못 찾겠고 나도 내려오기가 정말 싫었다. 하지만 내가 육년간 벌려놓은 것들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후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스스로 한 타임 쉬며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 학교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보고서를 쓰며, 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나란 사람이 정말 미숙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즐기치게 주장했던 것들이 내 삶속에서는 묻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도 느꼈다. 나란녀자 정말 모순적인 여자인것만 같을때, 내가 정말 모순에 가득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걸 느낄 때면 부끄럽고 민망해서 견딜수 없어진다. 나의 감수성들 신념들을 어떻게 내 삶속에 녹일 것인가 하는 고민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멈춰선 안되는 고민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가장 혐오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전교조집행위 같은 짓을 내가 또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이가 들어 나를 뒤돌아보았을 때 지금 느낀 이 생각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왔구나, 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항상 경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IV. 첨부자료

정말 확실히 자기가 쓴 글, 자기가 했던 말은 한달 정도만 지나면 부끄러워지는 것 같다. 너무 부끄러워서 첨부자료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나의 인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들이 많아서 첨부한다. 이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조금씩이지만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조금 느껴서 부끄럽지만 뿌듯하기도 하다.

1. 자기소개서

저는 제천간디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고예솔입니다.

저는 지금 NGO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NGO 활동가는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함에 대해 맞서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가지게 된 꿈입니다.

제천간디학교는 중고등통합과정의 6년제 대안학교입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셨던 아버지와

교육운동을 하셨던 어머니는 늘 우리나라 교육의 모순과 마주하셨고 대안을 고민하시다가 체계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입학 계절학교에 참가해서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분위기와 다정한 선생님들이 좋아 간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일학년 때까지는 그 자유로움에 취해 느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자유롭고 느슨한 생활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고 저를 해방시켜 줄 탈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50일간의 도보여행인 청소년 “강강수원래” 행사가 기획되었습니다. 48일간 도보로 4대강을 돌아보는 힘들고 긴 일정이었지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셔서 전 구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의 경험이 체계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에게 다가온 이런저런 지식 새로이 접한 충격적인 사실과 세상의 불의 같은 것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었어요. 학교에 대한 알 수 없는 갑갑증과 불만이 생기고 제 스스로 저를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집회를 쫓아 다녔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불안함이랄지 화가 난달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긴 공금증, 지식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아이텍(IDEC) 공부프로젝트, 나다 교육공동체 같은 곳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들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뜨거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게 되었지요. 아이텍(IDEC)은 인터네셔널 데모크레틱 에듀케이션 컨퍼런스의 약자로 전 세계의 민주교육을 꿈꾸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009년 한국이 맡아 기획하게 되었고 저는 그 부속으로 만든 아이텍을 위한 청소년의 공부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나다 교육공동체에서 하는 인문학특강도 듣고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도 좀 진정이 되고 시끄럽던 사춘기시절도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 고등과정에 진학한 후 인턴십 준비와 함께 필리핀 여행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천간디학교는 고등부 때 두 달 정도 필리핀평화여행을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필리핀 근대화의 역사 그리고 공정여행에 대해 한 학기 정도 공부 및 준비를 한 후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일방적인 소비가 아닌 공정한 소비, 일방적 관광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공정여행을 밀바탕으로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나누었고 평화를 상상하며 폭넓은 시야를 보다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은 인턴십을 준비, 계획, 경험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인턴십은 제 진로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NGO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아는 것도 너무나 적지만, 앞으로 더 공부하고 제 자신을 채워가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을 하고나면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할 계획이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활동가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내딛으려고 하는 이 한걸음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린 결정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권교육센터 들’이 체계 그런 입문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건 도통 익숙해지질 않는군요. 사실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지식은 좀 딸리는 편이지요. 오랫동안 지식 공부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저는 좀 더 값진 가치를 얻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함께 사는 법 같은 여러 좋은 가치에 대해 배워왔고 그 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에 대해 생각할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린 사람이 된 거 같기도 하고요. 일부러 검정고시도 보지 않았습니다. 학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무학력자로 당당히 살아가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치기어린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기도 하지요. 소심하지만 가끔은 화끈하고 막 나갈 줄 아는, 하고 싶은 건 꼭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 친구들은 말하더군요. 사춘기 방황하던 시절에 많이 치여서 그런지 옳고 그른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고 난 뒤의 그 성취감이 참 좋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에요. 손재주도 제법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 아이텍을 준비하며 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잡다한 사무도 약간은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하시는 일 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세미나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거 거들어드리고 듣고 공부하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들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받아주신다면 일월중순쯤부터 사개월정도 일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싶고 많은 경험이 되도록 저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2. 활동일정

2011/1/3 ~ 2011 7/31	
12/15	인권교육센터 들 첫 연락
12/16	들 첫 방문, 인턴설명 의논해보고 연락준다고 함
12/20	학생인권조례 회의 첫 방문,
12/22	들 송년모임 다녀옴
12/30	-강제퇴거감시단- 첫모임
1/3	-들 교육- 알바청소년 건강권 워크샵
1/4	-들-충북대로스쿨 청소년노동워크샵
1/5	-강제퇴거감시단- 홍대 두리반 유채림씨 인터뷰
1/6	-들- 용인 교사대상연수 교육!
1/7	-학생인권조례미팅- -강제퇴거감시단미팅-
1/8,9	학년모임 in 민들레
1/10	-강제퇴거감시단- 회의
1/11	-들- 참실보고대회, 학생인권조례서명전
1/12	-들- 참실보고대회 학생인권토론평의
1/13	-강제퇴거감시단- 모임
1/17	용산참사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개발지역순회단, 단대동, 상도동, 두리반.
1/18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
1/19	용산영화제
1/20	용산참사 2주년 참배, 문화제
1/24	박래군씨 재판
1/25	초중등 교육법 학생 성토대회
1/26	초중등교육법공청회
2/7	-들-상임회의참석 -조례- 첫선전전in신촌
2/8	-조례- 홍대입구에서 선전전
2/9	네트워크회의
2/10	-조례-종로서명
2/11	-들- 학생주도 갈등해결 활성화 방안 워크샵
2/14	-들-변호사단체 공감 교육

2/15	-조례- 홍대 선전전 홍대 청소노동자 집회참석
2/16,17,18	인권활동가 대회
2/19	-조례- 고속터미널 선전전
2/22	-조례-신림 선전전
2/23	-조례-삼실방통대졸업식 선전전
2/24	-들-롯데 듀티프리노조 교육
2/25	-조례- 명박규탄집회선전전
2/27	-조례- 사무실에서 집계.
2/28	-조례- 집계
3/2	-조례- 사무실 업무,
3/3	-들- 사무실근무, 식사당번
3/4	-들- 온양온천교육 -주거권- 첫모임
3/6	-조례-신정선전전
3/7	-조례- 엑셀작업
3/8	-조례- 아현공덕신촌 선전전
3/9	-조례- 이수선전전
3/10	-조례- 연신내 선전전
3/11	-주거권- 강제퇴거토론회
3/12	페미니즘세미나. 올라잇.
3/14	-조례- 건대입구 선전전 -주거권-우리동네
3/15	-조례- 충신대입구역 선전전
3/16	-조례-미아삼거리 선전전
3/17	-조례- 사무실근무
3/18	-조례-노원역 선전전
3/19	-조례- 광화문선전전,아수나로집회
3/20	-조례-삼실&날맹후원주점 서명.
3/21	인권토론, 페미니즘세미나
3/22	-조례- 신당동 선전전
3/23	-조례- 삼실근무 -주거권-중림동소모임
3/24	-조례- 망원서명전
3/25	-조례- 노량진서명전
3/27	-조례-어린이대공원 서명전
3/29	-조례- 시립대 선전전 , 연대 선전전
3/30	-조례- 숙대입구 선전전 -주거권-우리동네 회의
3/31	-조례- 고대 학생총회 선전전
4/1	-조례-삼실근무
4/2,3	간디학교
4/4	-조례- 건대 선전전, 서강대 강풀강의 서명받으러감
4/5	-들- 성장학교 별 교육 -조례-전체회의
4/6,7	-조례-삼실근무
4/8	-조례- 망원 선전전 -주거권- 여성영화제
4/9	-조례- 남산선전전
4/10	-조례- 월드컵 경기장 선전전

4/11	-조례- 서명 촉구 기자회견 , 홍제 선전전 페미니즘세미나
4/12	-주거권- 도시연구소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조사팀 교육, 우리동네모임
4/13	-조례- 신림 선전전 -주거권- 재정착률 조사 주소뽑기 올라잇
4/14	-조례- 신촌 선전전
4/15	-조례- 내생일 맞이 선전전.
4/16	-주거권- 뉴타운 원주민 재장착률 조사. in 미아,수유
4/17	-조례- 여의도 선전전
4/18	-조례- 4.19퍼포먼스준비, 페미니즘세미나
4/19	-조례- 도보행진!!
4/20	-주거권- 원주민 재정착률 in노원
4/21	-조례- 삼실근무 , 강의서명받으러
4/22	-조례- 전체회의
4/23	-주거권- 우리동네 선전물부착활동 -조례- 용산벌금모금후원주점 서명받으러감,
4/24	-조례- 남산선전전
4/25	-조례- 신림선전전
4/26	-조례- 완전비와서 서울대 안에 들어가서 선전전, 결의대회!!!!

3.인터뷰

1. 개울선생님과의 인터뷰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와의 인터뷰입니다 히히)

Q.운동을 시작한 이유 계기가 있으세요??

A. 대학교 1학년때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다.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학을 서울로 상경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모범생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있던 차에 중간고사기간에 이웃학교 학생이 백골단한테 맞아서 우리학교 근처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건이 있었던거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막 들어오더니 ‘누가 죽어간대’ 이래.

그래서 가봤는데... 91년도였는데 백골단에 의해 대학생이 희생된사건이 있었거든, 강경대열사 사건. 그일을 보면서 모순에 눈뜨게 되면서 국가가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사회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 그러면서 학생운동에 몸담게 되었어.

뭔가 좀 그렇던 차에 이 사건이 불을 확 지피게 하는 계기였다면 이건 전부터 가져왔던 생각인데 나는 자라면서 딸로 태어난 설움, 아버지의 폭력. 폭력에 대한 저주같은게 있었던 것 같다. 왜 나는 가난한집에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둘째딸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이런걸 푸는게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단순히 ‘우리집의 불행한 운명’ 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풀수있는 내언어를 찾아야겠다. 사회구조나 인권 여성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지,

Q.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 - 이유가 있으신가요

A. 나? 난 너무 재미있었는데? 하하하 나는 나를 행복한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 학교 졸업 후 내가 가진 생각을 풀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 골리지 않게? 그런 자리였음 좋겠다는 생각과 안정된 일이었음 좋겠다는 생각, 좀 떳떳했음 좋겠다는 생각 하지만 내생각대로 살 수 있음 좋겠다 이런 모순된 생각들이 막 부모님도 걱정시키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이런 완벽한 선택이 없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싶어서 사랑방에 왔다. 근데 너무 활동비가 적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니까 부모님걱정도 많았고. 좋은

사람들과 내가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게 좋았다. 집이 부도나서 부모님이 어려워지시고 빚을 갚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가족들이 활동을 접고 돈을 벌어라 라고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나도 가족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돈버는 것과 활동을 병행 했는데 내가 할수있는건 이만큼이다 하고 가족들 이해시키는 게 좀 힘들었고 내가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인권의 도약기 같은 느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우리가 개척하는 일들이 새로 시작하는 일이고 반응도 많고 주목도 많이 받아서 행복했다.

Q.활동가로써 가져야할 원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A.년 뭐라고 생각해??

Q.음...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ㅋㅋㅋㅋ

A.에이 어떻게 모두를 사랑해 ㅋㅋㅋ

Q. 운동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말을 많이들어서 하하핳

A. 희망? 인간의 폭력성이라거나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걸 볼 때 저게 인간의 본성인가 그 구조 속에서 선택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느 것에 희망을 걸고 갈까냐 하는건 선택이라고 생각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선택 할 수 있다는 희망? 아무리 나쁜짓하는 인간이라도 다른 상황에 놓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거라 믿는 건 중요한 것 같다.

낙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원하는바가 당장 만들어지는게 아니거든, 거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거라는게 아니라 지금 사는 오늘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해 할 줄 아는게 중요한 것 같아. 자부심. 그런데 한발짝 더나아갔다는. 꾸역꾸역 이지만 더 나아질꺼라는 낙관 같은게 원하는 결과가 당장오지 않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 것 같다. 힘든 조건이라도 왠지 잘될 것 같은 그런거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인권이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필요로 하는건 분명한 것 같다. 권리의 총합이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이해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찾는것 사람의 비굴함이나 주책없음이나 여러 가지 모자란 부정적인 장면들도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서 품을 수 있는 이해의 폭을 가질 수 있는건 필요하다. 그래야 분노나 미움에 기초한 운동으로 안빠져들것같다

Q.고등교육을 받아야하냐????????무슨주의 무슨주의같은 ‘세련된’ 지식들을 늘어놓을수 있을만큼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요?

A.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간다는걸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는 생각하는데 지식이나 교양이 필요한건 분명하다. 그걸 책으로 다 알수는 없다 만남과 경험 실천 부딪힘이 필요하다. 자기말로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갖추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한사람의 삶에서 계속 동반하는 과정임은 분명하다.

Q 되게 유명하고 큰 단체 사람들보면..대학 다닌 사람도 많고... 대학을 가야 하는 게 맞나?

A. 가장 우수한 고등학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훌륭한 단체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데서 훌륭한 결정이 나오나? 그건 아니잖아 활동을 할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활동을 하려면 자기질문은 분명히 해야 한다. 보통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걸 발견하는 게 대학인 것 같다. 대학의 열려진 틈 안에서 그런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런 열린 틈들을 만났다면 대학을 가는 게 필수코스는 아닐 수도 있다. 분명치 않은걸 찾는 공간이 대학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그걸 찾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

다. 활동을 하기위해선 많이 알고 들어가야 한다기보단 자기 질문이 분명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시작한사람은 활동 그만둘 확률이 높다.

대학 때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대학졸업하고 운동하느라 성적도 안 되고, 직장 들어가서 남 밑에 굽신거리기 싫고, 단체활동을 하러 왔는데 운동을 해왔던대로 하려고 몸만 옮겨간 경우일 때 그 사람들 오래 못버티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이 있다. 정치에 대한 야망이라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 그걸 위해 수단적으로 단체를 이용했을 때 그 단체는 깨지는 것 같다. 그들이 이 단체에서 상가운동을 병행하는 기꺼움을 잘못 느낀다. 남들처럼은 살기 싫다, 이런 모호한거 갖고 들어왔을때도. 단체라는 것도 조직, 공동체인데 그 단체의 바운더리 안에서 기획되는 일들이 이 일이 맞고 재밌다라는 게 없으면 중간에 그만 두게 된다. 그래서 자기질문이 분명하고 나는 이런 단체가 좋겠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

Q 활동가로써 버려야할 원가가 있다면 뭘까요

A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안될 것 같다. 우리 원가 늘 부족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엔지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인정과 겸손이 좀 필요한것 같다 예를 들어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어. 예를들면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단체에 동성애자가 나타났을 때 자기세계가 너무 완성되어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단체에 모인사람들은 신념에 기초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모인 사람인데 자기신념을 닫힌 신념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런일이 일어나는 것. 자기신념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놓는게. 낯선 존재의 출현을 받아들일수 있는. 뭘 또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거나 그런거 피해야 할것같고, 그리고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남을 찌르는 창만되고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건딜수가없다. 그런것들은 좀 피해야되는게아닐까 싶다. 활동가가 무지몽매한 시민에게 진실을 알려준다는 태도도 바뀌야 할것같다. 물론 새로운 이야기를 할때 답답함이 있을수 있는데 그사람들 너무 모자라다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할까 하는 자세를 갖는것. 단체도 없고 활동가로 정체화 한것도 아닌데 개인이 놀라운일을 해내는 경우가있다. 예를들어 평택을 지키는힘은 농사짓는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무지몽매한’ 농민들이었던거지. 그런거에대해 인정하고 듣고 배우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찝려하고있음 서로 ㅋㅋㅋㅋ)

Q. 활동에대한 꿈이있다면?

A. 꿈? 뭘 말하는거지? 굉장히 추상적인데??

Q. 내 활동이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거나 하는??ㅋㅋㅋ

A. 대학 다닐 때 사회이론이나 사회변혁이론이나 전체 사회나 그런 걸 바꾸는 것에 대한 문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걸 실험했던 것들 보면 많은 모순과 한계를 남기고 체제가 또다시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전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 전체그림이 분명치는 않다. 그럼에도 월보고 운동하냐 할 때 사람들이 좀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이런거있고 그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이는 공동체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일종의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사회를 스며들며 포위하는 그런게 좋을것 같다. 인권이 그런말들을 많이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작은 세포들이 많아지는 그런거에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권운동이 좋은거다.

예를들면 우리 사는 마을에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져 우리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누군가는 말해. 그럴때 누군가는 환영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 아닌거 같다라고 해.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나면 아 이게(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폭탄을 가져다 놓는거구나 생각을 하게된다. 공부를 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어디부터 세워졌나, 방사능의 폐해 이런거 연구해놓은거 보고 왜

우리 마을에 왔나 생각해보니 우리마을사람들이 사고가나도 저항운동이 거세지 않을 것 같은 후진마을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마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데 갈 텐데.. 이런 생각하다가 다른 대체에너지로 살아가자는 주장까지 가게 되고. 그런걸 알아나갈 때.. 음 불필요한 지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뭘 할거냐 할 때 이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이명박 때문이다. 라고 볼 것인지 원자력발전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보면서 원자력과 같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고 할 것인지는 다른 거지 거대담론으로도 부족하고 정세분석 만으로도 부족하고 어떤 의미에서 통찰도필요하고. 이 분노를 풀어낼, 지어저선 안된다는 그런 언어도 필요하다. 우리 마을만 아니면 된다에서 벗어나서 대안 삶 고민하는 친구를 만나야하고 이런 징검다리가 놓아지는 그런 것들 함께 가는 게. 청소년인권도 마찬가지다 입시제도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학교를 없애기 전까지 해결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니까.

Q. 예술이의 인턴을 평가해주세요>_<

A. 예술을 바라보는 나의마음? 처음. 신기했다ㅋㅋ 왜 우리한테 왔나 우리가 어중간한 단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대 단체도 아니고 구체적인, 깨알 같은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귀한시간을 왜 우리한테 와서 보내려고하나 하는거. 인권활동에 대한 관심이 신기했고 부담도 있었다. 이런 경험을 제공할수 있을까 하는 부담. 그리고 낮을 많이 가리는구나 하는 생각? 교육은 낮가리면 힘들텐데 하는 걱정했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잘못봤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하하하황하하하황하하하하황 고마웠어 그런거 ‘어 이래선 안되구요, 아니요 안할래요’ 이런거 보다는 흔쾌한 동의가 있는 친구였던거 같아서. 많이 물어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같이 경험하겠다 하는 자세가 고마웠다. 왜요?라는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A. 신뢰죠 신뢰. 그대들이 나한테 똥을 주진 않을거다. 그대들을 믿고 따라간거죠.

Q. 그래 신뢰하는 게, 그리고 뭐 하나를 알면 전체가 다 보인다는 말이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같이 오래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못 나눈건 아쉽다. 학생인권조례가 잘 안됐던 이유 막판 성공의 이유 이런거 둘러싼 사회적인 공격 사람들이 학생인권에 머뭇거리는 이유들이 인권교육에 머뭇대는 이유와 같다 이런걸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교육나가 생각한거랑 조례하면서 고단한 고비들과 이런 걸 연결해 정리하는 게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 그 작업이 앞으로 만나면서 해볼 이야기 2학기 때 정리해 보면 좋겠다하는 부분인 것 같아. 주거권운동을 충분히 못한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다 조례는 특별한 활동이다 정해진 시간, 수처화된 목표 , 바닥까지 쳐보기도하고. 나도 그런 활동순간이 몇 번 있었다. 평택, 마지막에 포크fp인 파해칠때 무력감 같은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사명이 있었거든 조례도 분명한 목표, 사명감 절박감이 있고 막판에 성공하고 기사회생에 대한 감정, 무력감 감격이던 뭐든 간에 시기가 주어져있고 강력한 그런 운동이 있다면 활동의 상당부분은 보이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한정없이 가야하는 끈기, 미밋함과의 싸움, 목표를 우리가 만들어야하는 8할은 그런 성격의 운동이거든, 2할은 강력하고 긴박하고, 그 2할의 경험이 전체운동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 활동이 너무 미밋하다고 느껴지면 어찌지 그런 건 있지만. 첫사랑이 강렬하다고 두 번째 사랑을 안하는건 아니니까, ㅋㅋㅋ

Q 네 너무 감사함이다 >_< 사랑해요 보고플거예요 깨굴깨굴깨굴 으형ㅍㅍㅍ

4. 들 메모

(1) 학생자치법정

체벌금지의 대안을 소개하는 세미나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았다. 학생자치법정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모의 재판을 열어서 친구를 징계하는 그런 느낌의 시스템이라고 한다.

느낀점.

사회는 정부와는 별개로 의회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학교의 경우는 학교, 교사 라는 권력집단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 필요하다면 권력집단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그럴 수 없다면 이게 실제로 법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 학생들이 함께 벌칙이랄까 그런 걸 결정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주체에 당사자(벌을 받는 사람)이 빠져있을까.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드러난 상처하나하나를 봉합한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될까 입시구조랄까 뭔가 반인권적인? 교복문제라거나 체벌문제라거나 그런 것들. 그런 불합리한 규칙 안에서 그 틀안에서 틀을 동그라미나 네모로 만들려는 노력 말고 틀 밖에서 틀을 비판하는 기관이 되면 어떨까 불가능 하려나 뭔가 학교구조 자체가 문제인 걸까

(2) 들에 제출했던 감상문

1월 5일 일기

오늘은 홍대 두리반에 다녀왔다. 인터뷰 하고 왔는데 내가 질문자를 맡아서 어려웠다. 아무튼 나는 사실 철거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알기만 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오늘 만남은 냉혹하고 불합리한 이 사회를 너무 크게 느꼈던 시간이었다. 글이나 자료로 접한 게 아닌 직접 대면한 현실에서 나는 참담함을 느꼈다. 내가 걸으려고 결심한 이 길이 생각만큼 만만한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다. 오늘은 이 세상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 만남을 가진 날인 것 같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아아 세상은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도데체 이런 불합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어째서 법은 강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원 이런 게 가능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걸까? 이 사회는 눈물나게 웃기다. 빌어먹을 자본주의덕에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이명박이 금인지 똥인지 구분도 못하고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혹은 돈을 뿌린다면 눈들이 뒤집혀가지고서는 철거민? 내가 알바 아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내 가족아니니까. 차라리 이 세계가 모두 사회주의였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인터뷰를 하다보니 이세상이 싫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지려 하더라. 어째서 약한 자는 강자의 선심쓰듯 던져주는 작은 보호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간다. 아 너무 감정의 배설만 하게 되는 것 같다. 사실 오늘은 좀 충격적이었다. 무서웠어 사실. 나와 부닥친 이 현실이.

이런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 이런 소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하나 쌓아올려져 가고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경험이라니 앞으로 웬지 엄청 잘될 것만 같아 기분이 좋다. 하하 게다가 홍대서 시간이 남기에 피씨방엘 갔는데 소지섭님은 미청년 사장님이 날 맞아서 기분이 초초좋아졌기도하고. 푸하하하사장님 자주올게요.

1월7일 메모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선 안된다. 나는 누구에게도 맞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 난 부장님 당신이 맘에 안드니 당신을 때릴 권리가 있소!!!라는 말을 한다면 사회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란 꼬리표를 달고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폭력을 당해도 된다고 주장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구타하는가 당연히 되어야할,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되었을텐데. 폭력을 하지 말라고 체벌을 하지말자고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큰목소리로 반박을 외칠까 그럴 수 있는 건 왜일까 인권이라는 걸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기고 있던 내 자신이 한심해지는 하루였다.

오늘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있다. 사회를 먼저 바꾸고 학교를 바꾸려고 해선 안된다. 학교가 바뀌어야 사회도 바뀌는 것이다. 교육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현실이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이상으로만 치부되는 이 세상에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구나' 를 외치며 등을 돌릴 것인가 함께 분노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는 좋은 것보다 나쁜게 더 많고 온통 불합리가 난무하고 있는 걸까. 요즘 너무 비관적인 생각만 드는 것 같다. 나혼자 세상을 깊어져야만 하는 것처럼??ㅋㅋ 무거워질 때가 많다. 하지만 이곳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함께 살고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되기도 한다. 뭐 그런 생각이드는 하루였다, 오늘은.

참교육실천대회 마치고 적었던. 교육을 따라다니면서 드는 생각 메모.

“인권”, 관심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뭔지 잘 알지 못했다. 교육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젠 어렵פות이 알 것도 같다.

교육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자신의 권리쯤은 알고 살기 위해!! 인권을 교육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민이 많이 된다. 어디까지가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권인지도 아직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렇게나 당연한 권리가 왜 이렇게도 많이 무시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 커다랗고 단단한 현실의 벽 앞에서 슬퍼지기도, 막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언젠고 아 현실은 너무 냉혹해 잔인해 비정해!! 라면서 숨어살 수 만은 없으니 조금 더 덜 불편한 세상이 되도록 나도 힘을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 들과의 대화

<예술 님과의 솔까말 토크>

- 교육 활동

* 인권교육의 목표?

예술=> 충북 로스쿨이 최초의 참관이었는데, 인권교육가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딱히 인권에 큰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개굴=> 교육가 양성이라고 했을 때 인권교육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것, 인권교육 방법론, 인권교육할 때 주의해야할 팁 등을 공유하는 내용이 더 들어간다.

은채=> 인권교육은 내용의 경계가 명확치 않다. 설불리 단계론을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이거다- 심화는 이거다- 라고 딱 나눌 수가 없다.

* 내용에 있어 궁금한 것?

예술=> 조금 더 다녀봐야 궁금한 것이 생길 것 같다(ㅋㅋ)

개굴=> 어디까지가 인권인가? 이걸 우리도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예술=> 정답을 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헛갈린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대답이 다르다. 이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냐, 하면 또 상대방은 자기 논리를 세우고, 그 말 들으면 내 의견이 헛갈려지고. 나의 논리를 잘 세워야 하는 것 같다.

개굴=> 교사들 교육을 주로 많이 참관했는데, 교사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짚어야겠다라고 느낀 것은 없나?

예술=> 교사들 프라이드가 강한 직업이다. 예를 들어, 체벌 이야기할 때 19세기 노예 훈련 법으로 연관 짓자 항의하는 교사를 보았다. 본질을 짚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짝 우회에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 세계 이야기해서 설득되는 사람이 있고,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은 되레 확 돌아서버리는 것 같다.

예술=> 몸풀기 같은 거 다른데 서도 하는 거 싫다. 오그라드는 느낌이다. 그런데, 들 분들 교육 다니시는 거는 그런 거 시켜도 별로 안 어색하고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편한 느낌이다.

- 교육 외 활동

(재개발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서명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예술=> 용산 2주기 때 강제퇴거금지법 보고서 작성을 도왔다. 개발 지역 주민 인터뷰도 하고, 지역마다 개발 상황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동네 분위기를 살피기도 하고. 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로 싸우기도 하고.

개굴=> 재개발이나 주거권 문제 쪽 자료 읽어보고 관심을 가졌던 건가?

예술=> 뉴스 등으로 접한 거 빼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부해봤다.

예술=> 일기 내용은 너무 흥분해서 써서. 인터뷰하고 충격 받고.

개굴=> 참실대회 학생인권 토론회 때 봤던 사회 교사 분. 그 분 요청으로 그분 담임학년 학생들 인권교육을 최근에 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야! 이렇게 하더라. 자기 반 애들이면, 이름 부를 만도 한데. 교육 내용 듣고 나서는 너무 좋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 태도에서 나오는 부분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참 먼 것 같더라. 참여했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말 속에 괜찮은 말 많았다고 감탄하자, 몇몇 친구들 감수성 예민하다고 말하자, 전교에서 등수 좋은 아이들이 몇몇 있다고 반응하더라. 놀라운 분열;

은채=> 내가 교육 다녀 봐도, 대부분 교사들이 '우리 애들이 멍청해요'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이중적인 모습.

개굴=> 학교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졌나, 체벌이 없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학생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뿌리 깊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왜 교사들은 본인들을 약한 피해자로 자꾸 말하는지.

예술=> 지난 주 내내 흥분해 있었다. 그 때 썼던 일기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ㅋㅋ)

-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

예술=> 주거권처럼 중요하지만, 평소에 생활하면서 잘 신경 쓰지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공부해 보고 싶다. 친구들한테 요즘 인권 이야기 하면, 친구들이 반론을 편다. 그러면 내가 말려든다. 논리를 세우고 싶다. 애들은 맞아야 크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위험하니까 미성년자들의 이동 제한되어야 한다, 여자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이런 말들. 친구 중에는 우리는 미성년자니까 술/담배 먹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하고. 참실 대회 끝나고, 어떤 교사가

학교에서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 그걸 친구한테 말했을 때, 친구들도 교사의 말에 동의하더라. 평등이라는 말이 항상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개굴=> 교육에서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 교육 철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권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후자의 경우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권위의 해체에 집중한다. 그런데 후자는 정말 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다. 조례 이후, 교사들이 위협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 인간적 안전의 위협보다 권위 실추의 위협인 것 같다. 교권 논쟁의 핵심은 기실 교사의 권위였다, 라는 판단이 든다. 전교조 교사들도 그 권위를 놓지 못하는 것이고, 통제의 한 수단으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를 들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남겨두려고 한다.

예술=>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똑같이 대하라, 라고 말할 때..어른들한테 자꾸 말린다.

개굴=> 서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똑같이 대하는 건가? 약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사람이 아닌가, 똑같이 대접하지 않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그 때의 똑같음은 존재의 무게감을 말하는 것이지 똑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 무게감과 방식을 연결하는 세밀한 고리를 잘 만들어야 하는 것 같다.

은채=> 앞으로 교육 참관을 더했으면 좋겠다. 청소년 인권 논리나 차이/차별 강연, 인권의 가치 등등. 앞으로 교육 일정 확인해서 골라보자. 요즘 조례 서명전은 어떤가?

예술=> 캠페인 어제 240매인가 받았다.

- 총평

개굴=> 일주일전에 결정되는 일정들.. 안정적이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나?

예술=> 그렇지 않다. 신뢰가 있다.

은채=> 중간 점검, 한 번씩 이렇게 할까요?

한날=> 추천도서 목록이나 읽을거리를 짜보자.

개굴=> 인권 일반 책 중에 쉽게 나온 괜찮은 책이 별로 없다.

6.두리반보고서

강제퇴거 실태 조사_

두리반(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만든사람들 // 예술 남희 세안세다

I,서론

2008년 보다 2009년, 하천 정비 사업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무려 26.7%나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2.5%씩 늘렸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건설업에 대한 국가적 비중에 비해 건설업의 경제적 가치는 현저히 적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업 GDP비중은 2006년 7.5%, 2007년 7.4%, 2008년 7.0%으로

계속 감소해 2009에는 6.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고용비율 또한 7%대에
서 머물고 있다.

건축업의 부정적인 경제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
나고 있다. 이제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조건적인 개발만 할 때가 아니다.

보다 그 지역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개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모습의 방향을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쫓겨난
뒤 농성중인 두리반을 통해 알아보았다.

II.본론

1. 대상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

1-1 .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을 지정해서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획이다. 구역을
지정해서 용도와 목적을 제한한다. 이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을 해야하는것도아
니다. 개발은 해도되고 안해도되지만 이 구역안에서 개발을 하게된다면 많은특권을 준다.
그 구역 안에서 개발을 하는 시행사는 제한기준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인
센티브를 준다.

마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두리반 일대) 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를제외한 모든용도의 건물
이 들어설 수 있고 특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
동관련시설, 업무시설을 짓는것(입주하는것)을 권장하고 있다.(출처-마포구청 민원서비스
원클릭도시정보)

1-2 개요 및 개괄적인 상황

*사업개요

사업구분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사업명: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일대

면적: 451,500.00(m²)

* 대상 지역의 거주민 현황

상호: 두리반

주소: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7-31

상가 세입자: 유채림, 안종녀

건물면적 :약 93(m²)

영업 당시 평균 소득: 약 월 250만원

현재 거주 및 영업 현황: 2009년 12월 24일 영업을 중단 된 후, 현재 철거 위기의 상가에서 거주하며 농성 중

***추진현황**

날짜	사업 추진현황	두리반 현황
1987-02-04	마포지구 도시설계 최초수립	
1995-09-22	마포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1998-05-18	서교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동교동 161-8번지일대, 8,500㎡)	
1998-05-18	마포지구 도시설계 (부분)재정비	
2005-03		동교동 167번지에 칼국수, 보쌈 전문점 두리반 영업시작
2006-03-1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결정(서교지구중심 통합, 마포1.2지구 분할)	마포구청에서 두리반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발표. 2006년가을부터동교동 167번지 일대에 신공항 철도역사가 들어선다는 소문 이있은뒤, 2007년부터공사시작.
2007-05-10	서교동 392-20외 5필지 획지 계획변경결정 고시	
2007-07-19	서교동 354-5외 3필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007-12		두리반에 명도소송장 날아옴. 남전디앤씨가 시세의 열 배가 넘는 가격으로 두리반 일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2008-03 부터		GS건설의 명도소송에 맞서 상가세입자들 법정싸움 시작. 세입자 측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를들어상가세입자들의법적보호역설. GS건설 측 변호사 역시 10조 1항의 예외조항을 들어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맞섬
2008-04-03	서교동 354-5외 3필지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2008-06		상가세입자들 1심에서 패소. 라틴댄스클럽을 제외한 10세대 항소. 라틴댄스클럽은 이때부터 GS건설의 용역들에게 시달리다가 3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음. 시설투자비, 보증금, 이사비용조차 못 받고 알몸으로 나감
2009-02-12	서교동 371-19외 1필지 (경미한 변경) 결정	

2009-05		두리반을 비롯한 나머지 세입자들 항소심에서도 패소. 이때부터 남전디앤씨는 이사비용 300만원, 100만원, 70만원을 얘기하면서 상가세입자들을 몰아세우기 시작
2009-06 부터		세입자들 현수막 내걸고 공동대처하기로 함. 남전디앤씨가 세입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8월21일까지 반드시 개별적으로 전화하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통보
2009-09		도장 찍지 않으면 라틴댄스클럽처럼 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세입자들 줄줄이 도장을 찍기 시작함. 이발소 900만원, 신발가게 700만원, 단란주점 1,000만원 등
2009-11-26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09-12-24		GS건설의 용역 30여 명이 끝까지 전화를 걸지 않은 두리반에 들이닥침. 유채림의 아내와 주방장, 주방보조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집기를 들어내기 시작함. 용역들 가게에 철판까지 둘러친 뒤 오후 6시경 철수
2009-12-25 밤		유채림 부부 철판을 뜯고 두리반 안으로 진입, 농성을 시작. 26일 오후 2시경 인천작가회의 이사들 찾아와 지지 농성을 벌이기 시작. 이때부터 인천작가회의 식구들과 유채림의 모교 동문들이 돌아가면서 번을 서주기 시작
2009-12-28		인천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공동명의로 '소설가 유채림의 삶터, 두리반 식당을 빼앗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
2010-1 부터		두리반 음악회등 문화행사 시작
2010-04-26		51+` 공연 앞두고 GS건설이 두리반 뒤편 한옥 철거를 강행하려 하자, 두리반대책위원들 마포경찰서 항의 방문
2010-07-21		두리반 단전
2010-08-01		박홍섭 구청장의 '두리반 사태 해결 때까지 전기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고 두리반으로 돌아옴. 저녁 때 구청에서 경유발전기 보내옴

2010-08-03		박홍섭 구청장 경유발전기 돌릴 연료비 지급 불가 선언
2010-12-02	동교동 175-19호외 3필지 지구 단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개발 사업에서 대상 지역의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

2-1 개발 사업에 대한 거주민들의 인지 시기 및 취득 정보

건물주외의 세입자들은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당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는 2개의 일간지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한다.

“농성하면서 이 건물등기부등본을 떠보고 이러면서 남전 디엠씨가 매입을 했고 소유권이전 이 이전으로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있고 막 복잡하드라고요 그런 거를 다 농성하면서 알게 됐지요. 사실 영업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장을 봐다가 열시에 가게문을열어요. 그 리구 밤에 열시에 문 닫는다고 하지만 손님들 늦게까지 있으면 열한시 넘어서 닫고 정리 다 하면 밤 열두시고 상가 거의 모든 상가세입자들이 구청홈페이지든 부동산중개소든 건물주든 이렇게 대화하고 알아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현행법령상 처리한 일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절차였음을 알 수 있다.

2-2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 실태

위에서 언급했듯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몇차례 있어왔지만 소유주의 이해관계인, 즉 세입자들은 대상이 아니었음. 구청과 시행사는 소유주의 이해관계인(세입자)을 대상에 넣어서 설명회를 해야 할 의무도 없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않음.**

“그해 12월 그니까 2007년 12월에 명도소송장 받아들구서 어 이거 팔렸네 이래가지고서 우리 건물주한테 연락을 했더니 나는 끝났다 나한테 더는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어떻게 세입자 몰래 그따위로 행동할 수 있느냐 막 따졌지요 암튼 매매하기 전부터나 매매과정이나 우리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명도소송을 받고서야 철거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책위를 구성, 공식적으로 남전D&C에 요구 사항을 적은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재정착대책은 없음. 시행사로부터 보상금만 주기로 제시받은 상태.

3.거주민들의 제정착권리

3-1 세입자 보상현황

꽃집/150만원	르꼬르즈옷가게/100만원	2009년 5월 말 향소심 패소후 보상으로 제시
신발가게/70만원		

받은 (통보받은) 내용 (이사비용)

2009년 7월 시행사에서 공문발송.

8월 19일까지 반드시 개별적으로 연락하라는 내용이었고 두리반을 제외한 가게들은 다 협의를 하고 이사나갔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각각 7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보상받고 나갔음.

두리반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두배 되는 액수를 제시하려고 생각중 이었다라는 발언만 한 후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2 세입자들의 재정착권리에 대한 요구 및 현재 상황

영업을 다시시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고계시다.

“두리반이 28평이거든요 실 평수가 이 평수에 준하는 인근, 홍대앞 어디다가 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얻는 과정까지도 너네가 부동산 가서 알아봐라 돈 얘기는 하지 말어라 알아보고 이정도면 되겠냐 하고 우리 대책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대책위원들이 가서보고 좋다 이러면 구체적으로까지 니네가 다 해다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거죠.”

현재 두리반은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 두리반을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에 농성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 남편인 유채림님도 직장을 그만두고 농성을 하고 계신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무언가, 생계 터전마련이 시급.

4. 대상 지역의 강제퇴거 현황

4-1 철거예비행위

4-1-1 냉각기 파손

2008년 7월 어느 날 가게 안이 에어컨을 틀어도 더 후끈후끈 해져 실외기를 확인해보니 냉매 연결관이 끊겨있었다. 며칠 뒤 두리반 건물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누가 그랬는지 정확한 증인이나 증거는 없으나, 그 당시 용역업체가 두리반 건물을 자주 오고 가서 용역들이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 두리반 지하에 있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용역들 짓이겠쥬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냉매를 이놈들이 니퍼로 끊어가지고 냉매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다음날 낮에 장사를 못하게 그니까 뜨거우니까 누가 들어왔다가 어우 왜 이래요 이려고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 식의 해코지를 하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다 감당하는 거죠"

4-1-2 단전

2009년 12월 26일:

GS 건설사의 유명시행사인 남전디앤씨(추신에 자료첨부) 가 용역을 불러서 무단으로 전기를 끊음.

2009년 12월 28일 :

- 한국전력 서울본부 서부지점에서 남전디앤씨의 전기 해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하지 않은 채 서류로 전기 해지 절차를 마무리 지음. 실질적 전기 해지는 26일날 이루어졌지만 서류상으로는 28일날 단전이 됨.

- 전기가 끊기자 바로 인근 공사장 (한영토건-포스코건설의 하청)의 현장소장이 공사장의

전기선을 끌어들어서 두리반에 연결해줌. 한영토건이 돈을 낸 전기를 두리반이 허락 하에 사용했고, 전기료 문제는 한영토건이 공사를 하면서 두리반 건물 1층이 균열이 가고 벽이 약간 뒤틀려서 이것을 공사해주는 대신에 전기를 무료로 주기로 함. 이런 사실을 모르는 GS 건설과 남전디앤씨는 두리반이 전기를 도전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한전에신고를 해서 한전 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벌이기도 함.

-2010년 7월 21일 :

- 도전이 아님이 드러나자 결국 GS 건설과 남전디앤씨는 두리반에 전기를 끊어라는 협박성 공문(전기를 계속 공급하면 소송을 걸어 막대한 피해보상을 물리겠다)을 포스코와 한영토건에 보냈고, 한영토건은 결국 전기를 끊음.

- 두리반은 이와 같은 단전 상황이 가시화되자 7월부터 한전에 연락을 해서 만약 한영토건이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끊을 경우 2009년 12월 28일자로 해지 처리된 전기를 다시 이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함. 그러나 GS 건설과 그 유령시행사인 남전디앤씨는 한전과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에도 '두리반에 전기를 넣어줄 경우 막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걸겠으니 알아서 업무에 협조하라'는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 협박을 함.

- 2010년 8월 1일 : 두리반 대책위원장이자 두리반 칼국수집의 사장이신 안종려 사장이 7박 8일간의 마포구청에서 항의농성을 하자 마포구청장이 약속으로 발전기를 주었지만, 실질적인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기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2010년 8월 4일 : 마포구청은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마포구청은 개입할 수 없다." 는 입장을 표명하며, 기름을 주지 않음. 두리반은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함.

- 2010년 8월 11일 : 국가인권위 앞에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두리반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함.

- 2010년 8월 17일 : 경향신문 '두리반에 당장 전기를 공급하라' 광고 게재

- 2010년 8월 30일 : 한겨레신문 '두리반 사태에 대한 111인 작가 선언' 광고 게재

4-1-3 용역업체의 폭력적 행위

용역업체는 두리반이 개별적 재협상에 거부하자, 12월 24일 들이닥쳤다. 이후 몇 번 찾아왔으나 폭력적인 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에 말이 의하면 용역이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3-4번 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아래의 내용은 두리반 유채림씨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일시 : 2009년 12월 24일

인원 : 30여명 (인부 20여명과 조직폭력배 10여명)

행위 : 깡패들이 안종녀씨와 두리반 주방장, 주방보조를 계산대쪽으로 몰아서 포위했다. 회사를 조퇴하고 두리반에 도착한 유채림의 먹살을 잡고 낙아채 계산대 옆으로 강압적으로 밀었다.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막고 인부들이 계속 홀에 남아있던 집기와 주방, 화장실 모든 집기들을 다 들어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계산대 쪽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집기들을 다 들어낸 뒤 계산대에 있던 안종녀씨와 유채림씨, 주방장, 주방보조를 밖으로 밀어냈다.

밖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내자 마자 철판으로 두리반 현관을 막았다. 안종녀씨가 용역들에게 "네들이 이려고도 사람이냐"고 항의하자 "밤길이나 조심해. 이년아."라고 폭언을 한 뒤, 어딘가로 전화 해 상황 끝났다고 하더니 가버렸다.

4-2 빈집철거 실태 :

현재 두리반의 좌측과 우측 그리고 뒤쪽 모두 철거가 끝난 상태이다. 2009년 8-9월쯤 라틴댄스클럽이 철거 된 뒤, 세입자들이 차례대로 나가자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든 철거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두리반과 한옥집 인쇄소가 철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쇄소는 건물 뒤편까지 100평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평당 2억 1천 5백을 요구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옥집은 다른 곳보다 늦게 1월 말쯤 합의가 된 뒤 방치되었다. 그 뒤 4월 말 쯤 철거하려 하자 두리반대책위가 마포경찰서를 찾아가 '51+' 음악행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두리반 먼저 해결하기 전에 저 건물을 허물면 폭력적으로 두리반 사태를 해결할 우려가 있다고 항의한 뒤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다.

4-2-1 두리반 주변 철거 상황



그림 40 한옥집 뒤쪽



그림 41 두리반 왼쪽



그림 42 두리반 왼쪽



그림 4 한옥집 앞쪽

4-2-2 두리반의 유일한 방어막, 두리반 우측의 한옥 건물



III 결론.

사람을 위한 개발

집은 사람이 사는 곳. 삶을, 생계를 꾸려 나가는 곳에서는 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미시적으로,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만 좇아 비인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세상사 팍팍하고

슬퍼지지 않을까?

지금우리나라의 개발들은 너무나도 폭력적이다.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무대책 없이 내쫓고 빈털터리 가되어 절박함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폭력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이 문제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뭐가 잘못되긴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제도적 장치는 모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개발을 하는 건설업자 및 건물주에게로 흐르게 되어있는 것 같았다. 건설업이 불황에 접어들면 한국경제도 안좋아지니까 돈이 잘 돌게 하려고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하게 하려고 법을 너무 한쪽으로만 바꿔준 것 같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질의 삶 혹은 적어도 동등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도 아닌가 보다. 세입자들도 한국국민인데 왜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걸까?

이 사건에서 짚어볼 것은 이거라는 생각이 든다. 법대로 이 문제를 보자면 집주인이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는 게 맞다. 어떻게 보자면 농성하시는 분이 잘못되기까지 했다. 이 문제는 법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틀을 벗어나서 사고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틀이 잘못되었으면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생각해서 빌려준 게 단순한 물건이라면 돌려받고 싶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식으로 나의 소유권, 재산권만을 주장하기에는 집이란 것이 가진 의미가 단순물건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때껏 일궈왔던 삶 역사 추억들이 깃들어있는 곳이 집이며 생계를 꾸려왔던 곳 앞으로 삶을 이어가야할 터전 역시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 같다.

유채림씨도 말씀하셨지만 거창한 대안은 우리사회에서는 아직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 같다. 그치만 내가 살면서 영업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터전 그 일대에서 계속살 수 있게 해 주는 것 정도는 보장되어야하는 것 같다.

7. 기사 스크랩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실감이 안 난다”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예술 청소년 활동가는 “전교조도,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들 (주민발의 성사가) 안 될 거라고 그랬다”며 “그래도 우리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좋다”고 말했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도 “20일에 이렇게 주민발의 성공했다고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전했다. 다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2천이 모여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현장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성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된 정도의 비중과 의미가 있다”며 “교사들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삶터인 학교에서 인권이 꽃피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 5천821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본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두 발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축소한 부분도 바로잡았다”며 “서울시민의 뜻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8. 활동사진

하이서울 페스티벌



신림역 선전전



월드컵 경기장선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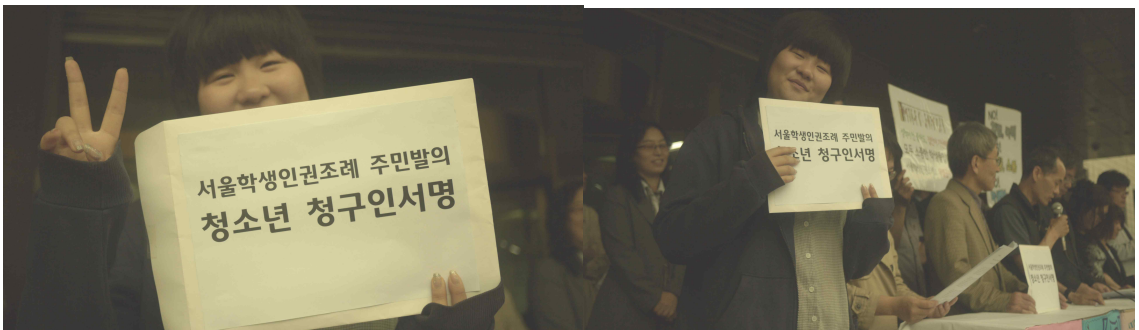
여의도 선전전



도보행진 퍼포먼스



1차 제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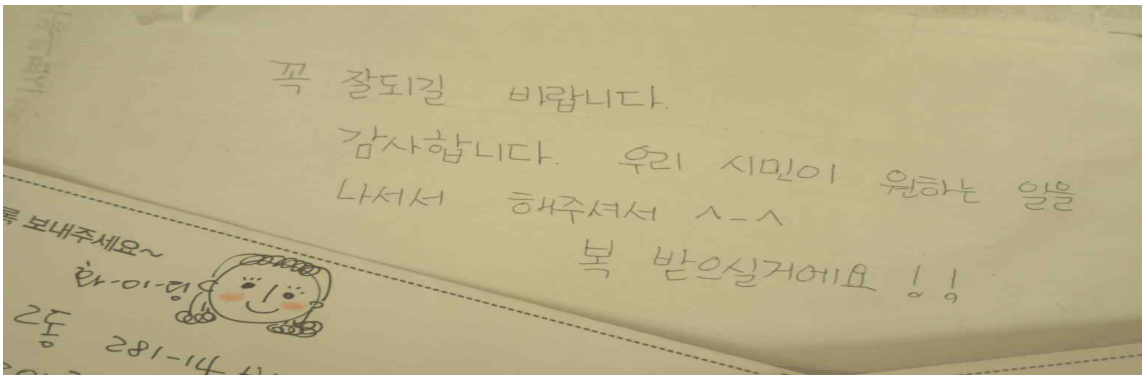
신촌역 선전전



희망의버스



대박



인턴십 보고서

제천간디학교 김민성

<목차>

I. 들어가기 전

1. 인턴십 준비를 하면서

II. 인턴십

1. 첫 번째 인턴십 ‘흙집 짓기’

- 1) 단체를 선택한 이유
- 2) 활동 내용
- 3) 느낀점

2. 두 번째 인턴십 ‘상상 공장’

- 1) 단체를 선택한 이유
- 2) 활동 내용
- 3) 느낀점

III. 인턴십이 끝나고

- 1) 인턴십이 끝나고 아쉬웠던 점
- 2) 인턴십이 끝나고 얻은 것
- 3) 앞으로의 나

I. 들어가기 전

1. 인턴십 준비를 하면서

나는 올해 초 인턴십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평소 미루던 습관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다른 아이들이 준비하는 동안 집에서 놀고, 친구들과 만나며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덕분에 인턴십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때문에 인턴십을 시작한 시간 역시 늦춰졌다.

내가 좋아하고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음악과 관련된 곳에 가서 인턴십을 하려고 했지만, 막연하게 음악이라는 큰 틀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루기 바빠서 이마저 잘 진행하지 못했다. 친구나 선배의 도움으로 이태원, 이대 쪽의 클럽도 알아봤지만 역시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 6년 동안 그랬기 때문일까? 처음 인턴십 준비를 하면서 인턴십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다.

나름대로 인턴십 단체를 정해보려고 클럽 ‘뽕’에 연락을 했고, 운이 좋게도 우리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보내려고 했지만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쌤의 추천으로 진주에 있는 공연단체 ‘새놀이’라는 곳에 찾아가 보았는데 전문 공연단체라기보다는 직장인들이 본업을 끝내고 모여서 연습하고 가끔 공연하는 단체였다. 풍물이나 난타는 나름대로 연습과 공연이 잘 되어있었지만 밴드 활동은 우리학교 동아리 수준이어서 새놀이 쪽에서 내가 원하는 인턴과정을 충족시켜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클럽 ‘뽕’, 새놀이를 찢러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쌤들과 상담을 했는데 인턴십의 과정이 진로의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20대를 앞에 두고 그동안 안고 살아왔던 단점을 고쳐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자는 말과 함께 콩살림, 흙집 짓기, 서정홍시인 농가, 꽃동네 등의 단체들을 추천 받게 되었다. 고민 끝에 흙집 짓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제천간디학교 학생을 인턴으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형찬 선생님 밑으로 갈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흙집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흙집을 지으러 왔는지 솔직하게 형찬 쌤에게 말씀 드렸고 그 말을 듣고 잘 왔다. 라고 해주셔서 감사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흙집 일을 끝내고 나니 관심 밖의 일을 계속하기보다 관심이 있고 진로와 관련된 단체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꼭 힘든 일을 해야만 내가 안고 살아온 단점이 고쳐지는 것일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단점도 고칠 수 있진 않을까? 라고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결국 음악과 관련된 단체를 알아보기로 결정 하게 되었다.

교내외로 학교축제,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공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연단체나 공연기획단체 쪽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나 공연 기획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항상 공연자, 관객으로 공연을 보고 공연을 했던 경험은 있었지만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연 기획 단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연기획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고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단체를 찾다가 “상상공장”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드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단체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II. 인턴십

1. 첫 번째 인턴십 ‘흙집 짓기’

- 조형찬 선생님

형찬쌤은 건축을 전공하셔서 원래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집을 지으셨는데, 금산 간디학교 사감선생님으로 들어가시고 또 집짓기 수업을 하시면서 흙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더 전문적으로 흙집을 짓고 싶으셔서 “장성 한마음 공동체”에서 흙집을 짓는 방법을 공부하고 배우셨다. 현재 자기 집을 지으시려다 좀 휴식기간을 갖고 계시다.

1) 단체를 선택한 이유

평소 흙집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 20대를 앞둔 19살 처음엔 인턴십을 통해서 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진로의 발판이 되는 인턴십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인턴십을 쉽게 생각하고 준비를 미루고 놀기에 바빴던 생활 때문에 인턴십의 시작이 늦어지고 단체를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턴십의 방향을 나태하고 무기력했던 나 자신의 생활패턴, 편하게 만 살아왔던 나에게 힘듦을 주면서 그동안 안고 살아왔던 단점을 고쳐보는 계기로 삼아보자 라는 쌤들의 말을 듣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되돌아보고 단점을 고쳐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콩살림, 꽃동네, 서정홍시인 농가, 흙집 짓기 중 흙집을 지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활동 내용

조형찬 선생님 밑에서 한일은 흙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황토 흙으로 지어진 집을 보수하는 일을 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날이 저물면 일을 마쳤고, 쉬는 날을 따로 없고 비가 오면 일을 쉬었다. 흙집 보수 공사는 4월 15일날 끝났고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통영에서 조형찬 쌤 아버님이 살고계시는 집 근처 계단 만들기, 바닥에 대리석 깔기, 농사지를 밭 갈고, 김매기, 낚시 그물망 씻기 등의 흙집일이라기보다는 집 보수, 농사일을 했다.

산청 흙집 보수작업 (4월 4일 ~ 4월 15일)

4월 4일부터 산청으로 가서 흙집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흙집을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니라 불로인해 훼손된 흙집에 미장을 하고, 구들을 올리고 하는 보수 공사를 했는데, 나는 형찬 쌤의 조수 역할을 했다. 일은 해가 뜨면 시작해서 날이 어두워지면 끝났고 주말이나 이런 날도 쉬는 날은 없었지만 비가 오는 날은 쉬었다. 내가 했던 일은 크게 황토 흙 비비기, 벽에 미장하기, 구들 올리기를 했는데 황토 흙을 비비는 일은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도 금방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항상 내가 맡아서 했다. 그리고 벽에 미장하기는 섬세한 작업이라서 처음에는 옆에서 흙을 퍼다 주는 일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하게 되었다. 내가 했던 미장은 벽의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벽에 미장을 하는 일이었는데 미장 칼을 써서 매끄럽게 벽을 미장하기도 했고 손으로 거칠게 미장을 하기도 했다. 일을 하는 전체적인 기간 중 미장하는 일이 가장 많았다. 집에 불이 나서 벽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벽을 복구하는 일이 대부분 이었다. 산청에서 흙집보수를 하는 11일 중 9일은 미장을 했다. 10일째 되는 날 구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비빈 흙을 바닥에 쌓고 수평을 잡는 기계로 수평을 잡고 흙이 어느정도 굳으면 바닥 구석에서부터 촘촘히 밟기 시작했다. 1~2시간정도 밟는 일을 했다. 흙집 보수일 이외에도 흙집 주인분이 유정란 양계장 과 농사 일을 하셔서 달걀을 닭고

닭똥을 퍼서 밭에 거름을 주고 새로 들어온 닭을 하우스에 넣고 닭 밥을 주고 하우스 청소 하는 일과 달걀 배송을 도와드렸다.

통영 형찬쌤 아버님 일손 돕기 (4월 27일 ~ 5월 6일)

통영에서는 흙집을 짓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형찬쌤의 아버님이 통영에 종이섬 이라는 뜻의 '지도' 라는 섬에 살고 계셨는데 산속에 집이 있었다. 산속에 있다 보니 집으로 들어갈 때 계단도 없어서 집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집안은 집밖과 다름없이 더러웠고 집안에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계단을 만드는 일과 집안을 청소하고 대리석을 까는 일을 했다. 정사각형으로 깎인 돌을 집으로 오는 길로 옮기고 망치로 박아 고정을 시켜서 계단을 만들었고, 집안의 물건들을 바깥으로 내놓고 청소를 하고 대리석 전용풀을 바닥에 바르고 대리석을 까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형찬쌤의 아버님은 그물낚시와 발농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물을 닦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꺼내고 그물에 붙은 불가사리, 소라 등의 먹거나 팔 수 없는 것들을 떼어내고 빼내는 작업을 했고 밭에는 칩닝쿨과 나무, 잡초들이 너무 많아서 뽑고 태우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구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삼질을 했고 밭에 심은 모종이 바람에 상하지 않게 바람막이를 만드는 일을 했다.

3) 느낀점

인턴십을 흙집 짓기로 정하고 정말 나의 단점을 한번 고쳐보자! 라는 마음속의 다짐을 했다. 흙집을 짓는 일은 몸이 고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끝나는 작업이라 일찍 잠에 들고 일찍 깨는 습관이 몸에 밸 줄 알았지만 사실 형찬 쌤이 좀 여유로우셔서 기상 시간은 8시 늦으면 9시 이었다. 그리고 산청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맡아주신 형찬 쌤이 연애를 시작 하셨다. 그 덕분에 형찬 쌤과 이야기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었고, 또 종종 일을 하시다가 여자 친구 분이 계신 '민들레공동체' 로 자주 가셨다.

사실 산청에 있으면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은 양계장일이였다. 달걀을 거두고 닭고 닭똥을 퍼서 거름으로 주고 새로 들어온 어린 닭들을 하우스로 옮기고 하우스 청소를 했는데, 내가 닭띠라서 그런지 닭 이라는 동물이 매력적 이였고 일이 좀 힘들어도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어쨌면 어른들만 있는 환경에서 닭을 친구로 생각하게 된 것 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산청 흙집에 살고계신 부부께서 아들이라고 해주셔서 더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었고 같이 일을 하면서 주시는 막걸리는 꿀맛 같았다. 산청 보수 일을 하는 흙집에서 주인 부부와 함께 생활을 했고 형찬쌤은 첫날만 같이 자고 여자 친구 가 있는 '민들레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셨다 그런 점 때문에 형찬 쌤 보다 같이 집에 계시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더 편했고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았다. 도시에서 일을 하셨다가 도시의 경쟁구조에 지쳐서 귀농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모습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두 분께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산청에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귀농을 제안하기 까지 했다.

흙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농사를 짓는 일을 막연하게 힘들고 돈도 못 버는 직업이라는 나의 생각을 깨주셨다. 도시에 살면서 다른 사람 보다 잘해서 경쟁자를 누르고 올라가야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가야 성공을 하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의 모습은 여유로움과 행복 이었다.

형찬 쌤 밑에서 조수역할을 하면서 하는 일들은 체계적으로 일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청에서 흙집 보수공사를 할 때는 그나마 항상 일정하게 할 일이 있었지만 통영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집을 청소하다가 밭일을 하러가기도 하고 그물에서 물고기를 꺼내는 일을 하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또 밭으로 가기도 했고 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아

버님이 시키는 대로 항상 다른 일을 했었다. 그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했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조수로 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집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일에 흥미를 쉽게 느끼지 못해서 나쁜만 아니라 형찬 쌤도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다.

한 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서 신선함을 느끼고 또 배우는 것은 좋았지만 흠집을 인턴십으로 시작하면서 나의 생활패턴을 고쳐보기를 바랬던 목표의 달성엔 사실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산청, 통영에서 일을 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은 또 다른 큰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2. 두 번째 인턴십 ‘상상 공장’

문화기획단체 상상공장은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는 류재현 감독님, 홍대 인디밴드 출신 김민정 기자님, 대기업 광고 부서를 거치고 기획사를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최태규 감독님을 중심으로 2001년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축제’ ‘공연’ ‘지역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홍대의 ‘클럽 데이(club day), 하이서울 페스티벌, 하이 서울 락 페스티벌을 기획 했다. 자유로운 발상을 중심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를 만드는 것을 모토로 상상공장에서는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영덕의 “인량리” 에 있는 농 또 농촌문화기획단 “물꼬” 라는 기획단을 만들어 촌을 주 무대로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새끼 꼬기 등의 옛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한 달에 한번 ‘농촌사랑의 날’ 을 만들어서 옛날 농촌 체험 축제를 여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축제를 만들었다.

<출처 : Naver 블로그, Daum 카페 상상공장>

1) 단체를 선택 한 이유

평소에 음악에 관심이있었고 진로로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중에서도 공연을 좋아했다. 학교에서 ‘지락’ 밴드동아리에 있으면서 교내에서는 기말축제, 전야제, 지락페스티벌, 주여. 학교 밖으로는 청소년문화축제 ‘판’, 간디 음악회, 제천여중기말축제, 국제문화축제등 공연을 했다. 그리고 홍대에서, 학교에서 밴드의 공연을 많이 보기도 했었다. 항상 공연자로나 관객으로 공연을 관람하거나 또 공연자가 되어 공연을 해본적이 있지만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 기획이라는 것이 궁금했고 몸으로 느껴보고 싶었다.

2) 활동내용

- 인디문화 홈페이지 김기자의 인디속 밴드 이야기 운영

상상공장에서 나의 주된 업무였다. 홍대를 중심으로 이룬 인디밴드, 인디문화의 소식들을 담은 ‘김기자의 인디속 밴드이야기’ 홈페이지에서 인디문화나 인디밴드에 대한 뉴스기사 올리기, 공장내의 직원이 공연을 보고 취재한 사진과 글을 옮기기, 한주 동안 홍대 근처 라이브클럽들의 공연현황 정리하는 일을 했다.

- 춘천 마임축제 ‘강강예술래’

춘천마임축제에 ‘강강예술래’ 라는 팀의 스태프로 참가했다. 강강예술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강강술래를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같이 춤추며 즐길 수 있도록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강강술래 노래를 믹스 해서, 강강술래 디스코 댄스 를 혼합시킨 공연을 보여 준다. 스태프로 참가해서 무대가 될 공간에 스크린을 달고 스피커를 옮기고 또 퍼포먼스 막

바지에 같이 참여했다. 춘천마임축제에서 강강예술래 만 본 것이 아니라 Firedance, 싸일런트 디스코, 굿 등 여러 가지 공연도 볼 수 있었다. 강강예술래의 공연은 공연자 와 관객이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가 공연자가 되어서 음악에 맞춰 함께 즐기는 공연이었다. 무대와 관객석도 따로 나누어지지 않고 손을 잡고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었다. 평소에 관객석과 무대가 나누어지고 공연자 또는 관객이 되어서 공연을 하고 또 보았는데 강강예술래의 공연은 그런 점에서 신선했고 또 기억에 남는 것 같다.

- 올림픽홀 뮤즈 라이브 개관기념 공연 “라이브 홀릭”

올림픽홀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중음악 전용 라이브 공연장이 생겼다. 개관기념 공연의 공연자 섭외, 기획, 연출을 상상공장이 맡게 되어서 뮤지션 공연계약 서류 관련 전화, 백 스테이지 스텝, 티켓 배부 스텝, 입장 안내 스텝 등의 역할을 맡았고 공연장 포스터 붙이기, 공연장 주변 홍보 배너 설치를 했다. 뮤즈라이브 개관공연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신촌 블루스, 이승열, 이적 등 굵직굵직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 올림픽홀 뮤즈라이브 “헬로루키데이” 공연

EBS스페이스 ‘공감’에서 매달 200여 팀의 밴드 중 2~3 팀을 그달의 헬로루키로 선정하는데, 뮤즈 라이브 에서도 ‘헬로루키데이’ 를 열어서, 1달전에 뽑힌 헬로루키들의 공연이 이루어 졌다. 올림픽홀 뮤즈라이브 개관공연과 마찬가지로 입장료는 무료였고 이벤트를 통해 초대장을 받는 형식이었지만 초대장이 없어도 뮤즈라이브에서 티켓을 배부 해 주었다. 헬로루키 데이 공연도 개관공연과 마찬가지로 무대 좌석 셋팅, 백스테이지 스텝, 티켓 배부, 입장 안내, 배너 설치를 맡았다. 헬로루키들의 공연은 다른 프로밴드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수준을 보여줬고, 비교적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밴드 들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밴드는 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 싸일런트 디스코

싸일런트 디스코는 언제 어디서든 디스코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무성 디스코 파티이다. 참가자들은 모두 헤드셋을 끼고, 헤드셋을 낀 사람들은 같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즐길 수 있다. 상상공장의 대표 류재현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 저녁 홍대놀이터에서 열려UT다. 그 외에 춘천마임축제, 제주도 피스루트, 부산 해운대 등의 행사장에서도 공연이 이루어 졌다.

싸일런트 디스코를 하면서 헤드셋을 나누어주고 풍선을 달아주는 역할을 맡았고 또 직접 참여해서 과감히 춤사위를 선보였다.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디스코 파티 ‘싸일런트 디스코’는 단순히 헤드셋 을 껴서 저절로 춤을 추게 되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파티 였다.

- 길거리 공연 ‘씹대’

길거리 공연 ‘씹대’ 는 10대 공연자들을 중심으로 홍대놀이터에서 공연을 했다. 프로가 아니어도 프로 못지않은 열정, 끼로 뭉친 10대들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도 공연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듣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꿈꾸며 기획 하게 되었다.

상상공장의 손 소영 팀장님께 공연을 기획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길거리 공연 기획을 시작 하게 되었고 8월 초 상상공장의 인턴으로 들어온 현무와 함께 기획했다. 공연자 섭외, 장소섭외, 예산 짜기, 장비대여, 후원금 받기, 포스터 만들기, 홍보까지 현무와 준비하고 기획했다. 처음으로 공연을 기획해 본거라 공연진행 관련, 포스터를 통한 홍보 부족, 믹서, 엠

프 등 장비사용 등 여러 가지면 에서 허술 했지만 8월 10일 홍대놀이터에서 공연을 시작하고 무사히 마무리를 지었다. 이번 공연기획을 통해 공연을 기획한다는 것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성향, 날씨, 공연을 진행 할 멘트, 공연장소의 분위기 등 정말 세심하게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8월 10일 6시에 공연이 시작 되었고 7시 쯤 공연이 마무리됐다. 장비설치, 공연자 섭외, 장소 섭외, 장비 대여, 홍보, 포스터 제작, 후원금 받기 등의 공연에 필요한 준비와 공연 까지 현무와 둘이서 진행했다.

3) 느낀 점

휴집 일을 끝내고 늦은 시작 때문에 조금 급하게 찾고 또 시작한 경향이 없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단체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찾은곳이 상상공장 이었다. 항상 여러 공연을 보거나 공연을 해본 적은 있지만 공연을 만들어 본적은 없기에 공연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턴십을 통해 몸으로 느껴보고 싶었다.

상상공장에서 인턴을 시작하고 상상공장이 해 온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신선하고 새로운 공연을 기획한다는 느낌을 받고 공연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접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으로 맡은 일은 홍대의 인디밴드, 인디문화의 모든 자료를 기재하고 또 알려주는 “김기자의 인디속 밴드 이야기” 라는 카페에서 홍대와 이대 주변의 라이브클럽 들의 주간 공연 일정을 정리하는 일과, 인디문화, 인디밴드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리는 일들을 맡았는데 밴드를 진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즐겁게 일을 하게 됐다. 사실 밴드음악을 좋아하고 또 많이 들었지만 외국 유명밴드 위주로 많이 들었고 한국 인디밴드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었다. 곡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도 했고 우리나라 인디밴드는 음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기자의 인디속 밴드 이야기 관리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인디문화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 노래들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은 바뀌었고 인디밴드들의 음악을 찾아 들어보게 되면서 음악을 더 넓게 듣게 되었던 점이 고마웠고 또 좋았다.

그리고 춘천마임축제, 싸일런트 디스코, 라이브홀릭, 헬로루키데이, 실험예술제 등 스텝일을 도우면서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특별했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공연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공연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해 봤던 공연기획, 공연기획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상상공장이 연출하고 기획한 공연을 보고 참여하는 것 보다 더 확실하게 공연기획이 어떤 것 인지를 몸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해본 기획이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툴렀고 뭘 준비해야되는 것인지도 잘 몰라서 공연자체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번에 공연을 기획해 봄으로써 얼마나 많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임감이 필요한 일인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김기자의 인디속 밴드 이야기’, 뮤즈라이브 라이브홀릭, 헬로루키 데이, 싸일런트 디스코 등에 참여하고 일을 했던 것보다 7월 말에 시작해서 8월10일 까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공연의 모토를 생각하고 섭외하고 장비를 대여하고 후원을 받아보고 하면서 날씨나 장소문제 등으로 어려움도 겪고 섭외한 밴드들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 체크해보기도 하는 일을 했던 것이 사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해봐라 라고 말해준 상상공장에 감사한다. 금전적인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해서 또 그런 문제로도 힘들었지만 결국 대안교육 학부모 연대의 도움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본 경험이 잘 없었던 나에게 기획을 해보면서 맡은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본 것도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또 굉장히 좋다고 느낀 부분은 사무실환경 이었다. 그리고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부분은 상상공장의 직원 분위기였다. 상상공장의 사무실은 딱딱한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게 변형 시킨 느낌이었다. 너무 딱딱하지 않은 가정집 분위기 덕분에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상상공장의 직원들은 다들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직원들은 거의 20대 젊은 층이었다. 그래서 분위기도 밝았고 또 친절해서 적응하기가 편했다. 그리고 상상공장은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라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검사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일이 없는 경우 직접 찾아가서 일이 없냐고 물어보거나 일을 찾아서 하는 방식이었다. 직원들에게 터치가 전혀 없는데도 상상공장에서 진행하려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런 터치가 없는 구조에서 항상 다들 각자 서로의 일을 찾아가면서 꾸준히 했던 것은 아니었다. 분명 쉬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하고 있는 직원도 있었고, 소개팅의 이유로 일찍 퇴근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리고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도 있어서 회의 때 혼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상상공장 에서도 문제라고 느끼는 만큼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였다. 물론 나 또한 막바지에 와서 지각을 자주 했어서 많이 혼났지만 상상공장의 직원 방목 시스템 덕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튼 상상공장에서의 인턴십은 나에게 많은 경험과 행복 이었던 것 같다.

III. 결론

1. 인턴십이 끝나고

1) 인턴십이 끝나고 아쉬웠던 점

늦게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나의 인턴십은 조금하게 진행이 됐고, 인턴십을 하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인턴십을 쉽게 보고 준비를 소홀이 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으로 인턴십을 진행하지 못 했던 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리고 상상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다짐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못 했던 것 같다.

인턴십을 하는 동안 일이 주어지길 바라기보다 내가 일을 찾아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

2)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것

-나 자신을 인정하기-

우선 첫 번째 인턴십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산청이나 통영에서 특히나 그랬었는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안고 살아온 단점들을 고치는 것 까진 되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고 부족했는지를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몸의 힘듦을 느끼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소홀 했던 부분들을 반성하는 시간이 됐다.

- 책임감 -

상상공장이 참여하고 연출하고 기획하는 행사들 싸일런트 디스코, 헬로루키데이, 뮤즈라이브 개관공연, 춘천 마임축제 등 을 보고 또 상상공장 안에서 길거리 공연 “썩대” 를 맡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고 또 결과를 위해서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또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책임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어떤 일이든 피나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3) 앞으로의 나

조급하게 시작한 인턴십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점점 정리가 되어 나름대로 잘 마무리 한 인턴십인 것 같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느낀 것이 많다. 인턴십을 통해 한 발짝 세상에 발을 담가 보면서 나의 앞으로를 생각해봤다. ‘긍정적으로 살기’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나 자신에게 솔직하기’. 이 3가지가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싶고, 적극적이고 싶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항상 나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사람이고 싶다.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는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려고 한다.

부비대기

제천 간디학교
6학년 최강여신 조하늘

목차

하나.

들어가면서.
시작 전에는.
이런 일정 속에서.

두울.

분기별로 나누어볼까?
나만의 에세이
나와 함께한 '진동'

세엣.

인턴을 마치면서

별첨

_일지
_인터뷰

하나.

1. 들어가면서

나의 길고 긴 인턴십의 끝이 보이고 있다. 많이 흥분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뿌듯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보다 긴 인턴십 일정과 짧은 정리기간 때문일까. 사실 처음에는 ‘다 감수 할 수 있어!’라며 시작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 스트레스와 압박이 장난이 아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휴식도 좀 갖고, 지난날들을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데 끝도 나기 전에 보고서를 쓰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한 것 같다. 그래도 나의 천성인 ‘사서고생!’ 짜질렀으니 그래 그럴 듯하게 처리해야지 어찌겠나. 아무래도 이 천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싫지만은 않다. 그로인해 얻어지는 것도 난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니까.

긴 기간 동안 내 그래프도 들쭉날쭉 이었다. 잔잔한 적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하루걸러 하루씩, 일회일비하며 조울증에라도 걸린 양 지내기도 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많이 슬퍼도 하고, 나의 곁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느낀 사랑에 너무 따뜻해하기도 했다. 단순히 좋았던 일, 나뻐던 일들로 나누기가 힘들다. 정말 갖가지의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의 8개월이 되었다. 이 짧고도 긴 시간동안 나는 딱 한 호흡 쉬고 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버거웠던 것 같다. 가끔 주변도 둘러보고 내 앞길도 살펴보고 내 뒤도 돌아보면서 쉬어가기도 해야 하는데 ‘달려달려달려 가자!’ 때문에 너무 빨리 지쳐버렸는지도 모른다.

작년 인도여행에서 느꼈던 여유, 평화, 마음 등은 어디로 갔는지……. 도시 생활에 찌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 또한 콘크리트 건물들과 같은 께빔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다. 문득 돌아보니 이걸 아니다 싶었다. 누구보다도 밝고, 색으로 표현하자면 푸른 하늘색이랄까. 당당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인데 이렇게 칙칙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니... 절망이었다.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쉽고 후회스러웠지만 노력했다. 내가 지금껏 배운 것들. 나의 철학. 나의 마인드들을 놓지 말고 함께 안고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대중매체의 공격들, 도시의 소비문화 등이 몸과 마음을 다 지쳐가게 하고 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많이 다르다.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마지막까지 힘내려 하고 있다. 나의 꿈조차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인턴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잃지 말아야 할 신념들도 다시 한 번 정해서 상기시킬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바위처럼’ 살아가고 싶다.

사회 속에 한발 담그고 여기저기 부비대며 시작해서, 끝나려 하는 나의 인턴! 부비대기도 이만큼 부비대기가 없을 거다. 가끔은 수줍고 조심스럽게, 가끔은 뻔뻔하고 대담하게 똥배짱으로 지금껏 지내온 파란만장한 8개월간의 인턴이, 제발 좀 정리해달라며 아우성 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맛깔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다소 엉뚱하고 어이없고 생똥맞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재밌을 나의 인턴 이야기 ‘부비대기’ 함께 빠져보실까나.

2. 시작 전에는

단체

3) 청소년 전문극단 진동

단체(멘토)를 선택한 동기

2학년 무빙스쿨 때 처음 만났던 그들과, 작년 무빙스쿨 때 다시 만나 한 달을 함께 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아쉬웠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긴 호흡으로 함께하며 배우고 느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극단 대표님이신 종우쌤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했는데, 지금 인턴을 위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어서 과연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고, 함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함께 무엇이든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는 겨울방학이 시작하고 하루정도의 휴식을 가지고 바로 인턴현장에 투입이 되었다.

목적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배우며, 더 깊게 알아가고 싶다. 사회에 나가기에 앞서 미리 해보는 사회경험. 앞으로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연극이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인지도 확인하고 싶다. 나는 청소년이지만 우리나라의 일반 청소년들과는 많이 다르다. '같지만, 다른' 나의 이런 점들이 극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된다.

구체적인 계획

- 연기, 발성, 스트레칭 등의 워크숍 참여
- 배우로 극 참여 해보기
- 극단 운영 시스템 알아보기
- 타 극단 공연 관람
- 연출 기획, 스텝 배우들 인터뷰 등

나의 다짐

1. 뭐든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다.
2. 항상 당당하게 나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3. 듣는 것에 집중하고 상대를 존중할 것이다.
4. 최선을 다해 현재를 즐기고 창조할 것이다.
5. 계획을 세워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고 말 것이다.

3. 이러한 일정 속에서.

일시

2010년 12월 27일 ~ 2011년 8월 21일 (약 7개월 간), (중간에 3주정도 쉽)

-
- 3) 청소년 중심의 둔 전문 청소년 연극을 지향하는 극단이다. 청소년 극을 주로 하지만 구성원들은, 전문적인 배우들 중심이며 극의 내용과 형식을 청소년 지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억압받는 청소년들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창작, 공연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연극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월	기간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2/26-1/1	1		인턴시작 고스트라디오 막공 마지막 쫄MT	워크샵 시작				
	2-8	2						올학년 모임	
	9-15	3						아파요 조퇴 ㅠ	
	16-22	4							
	23-29	5	상현홍 결혼식	워크샵 '하녀들' 발표		에듀드, 삐페데 워크샵 시작			
2	30-5	6							
	6-12							연극놀이 워크샵 시작	
	13-19	7							
	20-26	8							
3	27-5	9				워크샵 끝	'지금해라' 네팔 순회공연 연습 시작		
	6-12	10							
	13-19	11							
	20-26	12							
4	27-2				네팔 공연 팀 출국	나	의	천	국
	3-9	13	같	은	휴	식			
	10-16	14							
	17-23	15							
	24-30	16				끝ㅠㅠ	정기공연 준비 시작		
5	1-7	17			고스트라디오 오디션				
	8-14					고스트 첫 모임			
	15-21								
	22-28								
6	29-4								
	4-11								
	12-18								
7	19-25	1							
	26-2	2							창동 특공
	3-9	3		시연회		나무와물 특공		나무와물 특공	
	10-16		음악 녹음		동작문화원 특공	성북 특공	화곡특공		
	17-23	4					2011 뮤지컬 고스트라디오 첫 공		
8	24-30	5	고스트 라디오 시파티		진동 10주년 기념 파티				
	31-6	6							
	7-13	7				하늘 총 리허설			
	14-20	8							
	21-27		막 공						

두울

1. 분기별로 나누어볼까?

<1분기>

기간 : 12/29 ~ 3/2

활동내용 : 연기, 연극놀이, 뽀뽀데&에튜드 워크샵, 극단 일상 업무

사실은 제일 암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기간이었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약간의 부담도 있었고, 집에서 떨어져 부천에서 생활하며 왕복 3~4시간씩 출퇴근을 하는 것도 적응이 안 됐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도 잘 몰랐으며, 이토록 쓸모없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도 했다. 계속 추워지는 날씨에 옷은 자꾸 두꺼워져만 갔고 무거워져가는 옷의 무게만큼 나의 마음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자꾸 무거워져만 갔다. 좋게 말하자면 차분해졌고 나쁘게 말하자면 생기와 활기가 사라져갔다고 할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평소만큼 쏟아내지 못해 더 힘들어했던 것 같다.

워크샵이 없는 날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빠들이랑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에 매달려야 했다. 조금 중요하고 까다로운 것들은 겁이 나서 막상 손을 대지도 못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렇게 쪽도 못 쓰는 건 상당히 오랜만이었기에, 나는 나에게 조금씩 믿음을 잃어갔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기운이 났던 건, 인턴십 나오기 전에 선배들과의 만남에서 수빈언니가 해줬던 말 덕분이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모두들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지 말라’ 뭐 대충 이런 말이었는데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다. 너무 너무 너무 고마워서 만나게 되면 진짜 꼭 끌어 안아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디서 만나기만 해봐라!!!!

워크샵이 있는 날은 그래도 꽤 좋은 편이었다. 새로운 걸 배우고, 활동량이 많아 졌으니까. 내가 공식적인 일지정리 담당이었는데, 당시에는 좀 귀찮았지만 일지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고, 더 나의 것이 되는 것 같아서 무척 흐뭇했다. 기억이 안날 땐 오빠들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기억해내고, 해보기도 하면서 끝까지 작성해냈다. 무엇이든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계속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깨달아 가는 것이었다.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을 보면 나도 노래를 잘하고 싶고, 춤을 잘 추는 배우를 보면 나도 춤을 잘 추고 싶고, 연기가 자연스러운 배우들, 무대에서 자유로운 언니오빠들을 보면서 자꾸 경직되는 내가 너무 답답했다. 사실, 좋은 대학 나온 언니오빠들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을 굳힌 나지만, 사회에 막상 나오니 안 볼래야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 때도 참 많이 흔들렸었다.

많은 연습을 못한 채 발표한 연기 워크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처음이고 지금 배우러 왔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좀 뛰어나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그것들을 말로만 안다고 말하면서, 가끔 도지는 ‘조급병’에 아주 단단히 걸려버렸다. 보컬학원에 다녀볼까. 춤을 다시 배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통장의 잔고를 보기도 하고, 난태없는 검정고시 생각이 머릿속을 때리기도 하고... 하루에도 그렇게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혔고, 엄마랑 문자로 실랑이도 하면서 으아아아 완전히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남들 다 가는대로 따라가자면 그들 말로, 이미 나는 ‘중도 하차자’가 아닌가. 이미 공식 학력이 없는 것부터가 완전 다른 레일로 걷고 있는 것임을. 나는 뭐가 조금해서 그렇게 애써서 모두가 가려하는 그 길에 달라붙으려 하고, 저 크고

빠른 특급열차에 매달려볼까 궁리하며 용을 쓰고 힘들어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남들과 다르게 달려 가보겠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열정과 오기, 자존심으로 짝 깔아놓은 내가,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사소한 것들까지 안절부절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나에게 많이 미안하다. 그 때 괴로워할 때 썼던 에너지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는 참 힘들어하다가. 다음 날은 그래. 기운내자! 이러다가 또 다시 축 쳐져서 다니고. 나랑 문자하던 엄마도 들쭉날쭉한 나의 상태에 참으로 당황스럽고 걱정이었을 거다. 집 떨어져서 징하게 불효였지. 본의 아니게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부렸다.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휘청거리도 항상 든든하게 잡아주던 그 손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싫지만은 않다. 괴롭다 생각했던 그 시간마저도,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쓰디 쓴 인생 공부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쓴 맛을, 매운 맛을, 수도 없이 맛보게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 웃으며 ‘좋은 약이었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나도 굳세게 푹푹 씹어 삼켜내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계속 커가고 있으니까.

<2분기>

기간 : 3/3 ~ 3/29 or 4/27

활동내용 : ‘지금해라’ 네팔 초청공연 연습 (나의 휴식)

가장 짧은 2분기다. 뭐 굳이 나누고 싶진 않았지만, 1분기와 3분기를 두고 가운데 남은 것들을 어디로 보내기 곤란해져서 만들어진, 제일 짧고, 영성한 2분기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얻은 건... 즐거움과 네팔어?? 거의 작년 무빙스쿨 때 함께한 연극 ‘고스트라디오’의 배우들이었고, 하루 종일 업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들을 즐겁게 날려버리는 시간이었다. 음향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은 언제 봐도 재밌다. 그렇지만 재미로만 이 일정들을 함께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다. 네팔도 같이 가고 싶고, 나도 배우들이 갖춰야 할 것들을 배우고 싶는데... 쯤이 쭈시긴 하다.

네팔 공연 연습 기간이라고 적긴 했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가서 극단의 업무들도 함께 하고 있다. 제일 힘든 건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맡게 되면 아주아주 막막하고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최대한 열심히!! 인턴의 일환이니 아주아주아주아주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해서 당선된 건 아쉽게도 하나도 없었다.

그! 리! 고! 나도 네팔에 가고 싶었다. 으헿헿헿헿헿헿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함께 연습을 하고, 다들 네팔로 떠나시는 날. 나는 올 해 첫 방학을 맞이했다. 우아! 그래 휴식이 있어 참 다행이었다. 잘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네로 가서 이모의 결혼을 도와주고, 아기들과 할머니와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머지는 집으로 가서 엄청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완벽히! 한 후, 이제 대망의 정기공연이 기다리고 있는 나의 일터로 날아갔다 뿅!

뭐 이리 짧고 내용도 없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의 인턴은 사실상 두 개 정도로 나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쁘게 넘어가자.

<3분기>

기간 : 4/28 ~ 8/21

활동내용 : 2011 뮤지컬 고스트 라디오 정기공연 & 특공

오디션 준비과정부터 열심히 참여하였다.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알아가고,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이다. 오디션으로 몇 명의 배우들을 뽑았지만, 캐스트가 전부 확보되지 않아서, 추가 오디션을 몇 번 했었다. 또 바뀌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배우 6명 한 팀이 완성되었다!

나는 이번 작업에 주인공 '나미' 역의 언더스터디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 언더스터디란 공연하는 배우가 갑자기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공연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된 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에 한 번도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오르기도 한다. 이제 배우기 시작한 나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 같다. 함께 안무도 배우고 노래 연습도 하고.. 원래 '나미' 역의 은지연니가 오지 못하는 날엔 리딩도 대신 했었다. 처음엔 공연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연출 같은 건 죽어도 말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연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출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배우 분들도 기획팀과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회식자리에서 재민오빠가, 내가 이번에 조연출 하면 내년에 작품을 하나 꽂아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뒤 썰 것 없이 바로 꼴을 해버렸다. 그래서 조하늘은 2011년 고스트라디오 언더스터디 겸, 조. 연. 출 이 되었다. 으아아아 그때부터 고생은 시작되었다. (ㅎㅎㅎㅎ)

연극이었던 작품이 아직 뮤지컬로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여서 연출,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함께 했다. 장면도 함께 만들어보고, 가사들도 바꾸고, 이것저것 추가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수정작업을 계속 함께 하며 연습을 해나갔다. 그래서 연습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음악과 안무가 나와 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썬 수정과 연습만을 하면서 명색이 뮤지컬인데 노래와 안무연습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 가면서 배우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다.

또 본 공연 전에 특별공연(이하 특공)이 너무 많이 잡혀서, 작품도 안정되기 전에 장소를 매일 옮겨가고 무대 4)셋업, 스트라이크까지 계속 하면서 우아... 진짜 녹초가 되어갔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특공은 페이도 나오고, 본공 전에 더 빨리 작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공 때 5)조명오퍼를 겸했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우겨우 맞는 조명들을 찾아서 큐시트 옆에 새로 나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보며 연출님과 맞춰보고 겨우 오케이 싸인이 나오면 그대로 적용해서 공연 때 콘솔을 가지고 거의 피아노 수준의 현란한 손놀림을 보이며 인간에 한계에 도전하기도 했다.

정말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 같다. 2주 동안 특공을 다니며 그렇게 힘들게 조명을 하고나서 연출님에 확실히 말씀드렸다. 본 공연 때는 절.대 안할 거라고. 꼭 조명 오퍼를 구해달라고!! 절대절대절대 안 할거라고!! 다행히 정식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조명을 맡아주실 한솔연니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셨고, 새롭게 한 팀이 되어 우리 공연을 함께 했다.. 하트뽕뽕

시연회를 하고 중간에 쉬기로 한 시간들에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채로 부족한 연습들을 했다. 앞서 말한 대로 연습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서 작품이 너무 불안했던 것이다. 그래도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첫공을 올렸고, 그 뒤로 약간의 보충을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4) 셋업;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 장치, 세트를 세팅하는 것.

스트라이크; 무대장치, 세트를 철수하는 것

5) 오퍼; 오퍼레이터의 준말. 조명계획표를 조직하여 공연 중 조명을 관리한다.

있었다. 휴..

공연도 안정이 되어가고, 나의 공연 날짜도 정해주셨겠다 나의 맹연습이 시작되었다. 콜시간 2시보다 훨씬 빨리 나와서 몸을 풀고 안무 연습을 하고 노래연습을 하고.. 혼자하기 힘들다면서 언니들이 한 시간씩 일찍 나와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셨다. 개인적인 연습들 때 하고 나서는 모두와 함께, 하루에 한, 두 장 정도씩 씩 연습을 했다.

정식 공연 역시 연습이 처음에 부족했던 터라 언더인 나는 더욱 시간이 부족했었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다.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가 날 때 그 답답함보다 더 부끄러웠던 건, 너무 힘든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 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하고 무거운 말이라는 걸 처음 느꼈다.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난 후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안된다고 짜증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근데 나 많.이 열심히 했다. 정말 언니, 오빠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나도 꼭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공연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었다. 또 내 첫 무대라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보러 오신다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씩씩하고 이쁜 나미를 완성시켜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랬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났을 때 당장 걸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너무 많이 속상했다.

나의 리허설은 너무 재미있었다. 하는 내내 너무 즐겁고, 신이 났고,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설프게나마 호흡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가장 많이 느꼈다. 많이 긴장해서 집중을 잘 하지 못했고, 호흡도 너무 많이 떠있었다. 기획팀과 연출님은 공연 날짜까지 다듬어서 공연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름대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보았다. 정말 중요한 첫 무대인데,, 겨우 이정도로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욕심이 너무 많은 나라서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채로 올리게 되면, 내가 제일 만족하지 못하고 속상할 것 같았다.

그래서 더 큰 욕심을 위해서 당장의 욕심을 내려놓았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다. 비록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정식 공연은 하지 못했지만 많은 경험들을 하고 커다란 것들을 얻었다. 내 감정을 솔직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들도 했고, 더 큰 것을 위해 당장의 작은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도 가졌다. 내게 솔직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고, 딴고 일어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

2. 나만의 에세이

인턴으로 사회에 살짝 발 담그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동안, 나는 다양한 시선, 또 나만의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나는 작은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안타깝고 의아했던 것들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대답도 찾아본 것 같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나만의 대답으로, 방법으로 그래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원동력을 얻은 것 같다. 글을 쓸 때 나는 가장 행복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인턴과 정과는 별개로 내가 얻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어두운 밤이 좋다 〉

즐거운 인턴생활을 꿈꾸며 상경(?)한지 만 7개월 정도가 되었다. 우리 집, 학교와는 너무나 다른 생활환경. 엄청난 유동인구와 교통체증 때문에 정신이 없고, 밤에도 거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자기도 불편했다. 이제는 그나마 적응이 되었지만 그래도 가끔 머리가 아프다. 특

히 출, 퇴근 시간에는 더 심했다. 나는 지하철 속에서 콩나물시루 속의 콩나물처럼 딱딱 채워진 채로 내 목적지까지 배달이 되었다. 하루 왕복 2,3시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간 쌓인 피로를 풀려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잤다.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도시의 괴물 같은 소비문화에 반쯤 잡아먹히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온통 먹을거리, 술집, 커피숍 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옷 가게들의 마네킹들은 ‘나 예쁘지, 이거 사 입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하철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엇이든 더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꾸고 또 바꾸고,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만을 선호하며 유행을 좇아 살아가는, 이슈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숨 막히고 답답하기만 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안에서 나 또한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 mp3도 좋은 걸로 갖고 싶고, 저 옷 나도 입고 싶고, 남들 다 가진 거 나만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져보고 싶고...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애달아서 자꾸만 마음 졸이고 뒹달하고 욕심 부리면서 내 자신을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됐을 때마다 나는 울었다. 이제야 후련한지.. 알바든 뭐든 그 고생을 해서 겨우 번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사서 날 충족시키면 행복해지는 건지... 대체 내가 여기서 뭘하고 있는 건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무엇이지. 내가 여행 속에서 느낀 것들은 무엇이지. 왜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지, 내가 왜 이 곳에서 맥도 못 추리고, 움츠러들기만 하는지. 너무 속상했다. 나는 소신 있고, 언제나 당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에 나한테 많이 실망하기도 했다.

하루는 퇴근길에 용산역에서 급행열차를 타려고 내려서 엄청나게 달리는 중이었다. 1분도 채 안남은 시간동안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해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내 옆에도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려가는 길에 어떤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신발이 벗겨져서 넘어져서 굴러버린 것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물론 다른 젊은 아저씨들이 그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부축해드리고 특별히 크게 다치신 곳은 없는 듯 했지만 나는 그 와중에서도 내 갈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는 것에 많이 부끄러웠다. 그 아저씨도 다행히 지하철에 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내 맞은편에 앉으신데다가, 부천역에서 내려서 갈아탄 버스까지 갈아서, 가는 내내 그 아저씨를 계속 바라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개인이기주의. 왜 이 곳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앞만 보면서 달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마음을 많이 정리하고, 끊임없이 다짐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편해지고 가벼워졌다. 인턴과 도시생활을 정리하며 다시 학교로 간다는 생각에 더 그런 것 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어보고 싶다. 연극을 계속 하고 싶어서 나는 결국 다시 도시로 오게 될 텐데... 다시 살게 될 그 곳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안에 집어 삼켜지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그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오늘도 나는 전혀 조용하지 않은 밤, 전혀 어둡지 않은 밤거리를 지나 집으로 배달되어간다.

〈 자신만의 입시 〉

5년 만에 보는 초등학교 친구가 공연을 보러왔다.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서 옛날 얘기도 많

이 하고 서로 사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 내 나이 열아홉. 그래 내 친구들은 전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빠 난 공무원이 싫어요.’, ‘대학 한 번에 통과 못하는 게 인생의 오점인가요?’ 등 눈물 나는 감동의 베스트셀러 작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줄줄 적어도 그들의 스트레스, 압박감은 그 때의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공감하려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의 마음 솔직히 100% 알겠다고 감히 말하진 못하겠다.

얘기들을 들으면 드는 생각이 너무나 많다. 초등학교 이후로 6년간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교육을 받아왔다. 내 마음 속엔 대학 생각이 아직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대학만이 전부다. 안 간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었다. 대학에 가야하니깐 내 관심분야도 아니고, 정말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중에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적성분야를 찾은 친구들은 정말 행운인 것이다. 그 입시전쟁의 군인들이 딱 내 친구들이 되고나니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 내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들 맘껏 접할 수 없다고 투정부리고, 수업 만들어달라고 떼쓰고 했던 것들은 진짜 그들에 비하면 배가 불러서 터져버릴 정도의 소리였다.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보통 한 학기가 지날 때마다 휴학할까? 하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더 전문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한다. 나 또한 그러했었다. 연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연극적인 것들을 배우기는커녕 연극 한편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순탄하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고, 예고를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고, 예대까지 준비할 다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기도 했다. 내가 과연 나중에 그들과 만나서 상대나 될까 하는 걱정도 들고, 나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할 것 같은 압박감도 들었었다.

그렇게 몇 년을 생각하며 살다가 고등부에 진급을 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정리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아예 중, 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도 보지 않았다. 특히 중등과정 인정 검정고시는 웬만하면 붙는다는데, 웬만하면 붙는 것을 굳이 봐서 그들의 틀에 박혀 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대학생각도 없는데 꼭 봐야할까? 그래 내가 언젠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준비가 되어있다면 물론 좋겠지. 그렇지만 조금 느리고 기다리게 되더라도 그 때가서 그 때의 열정과, 그걸 받쳐주는 힘들로 해나가고 싶다.

나에게 있어서 속도란 의미가 없다. 남들과 다른 길은 버린 지 오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초졸이어도, 나는 제천간디학교 졸업생이고, 그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얻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아주 많다. 지금은 연극을 가장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설령 연극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내 인생에서 해나가고 싶은 것들은 아주 많다. 그런 꿈들을 심어준 나의 학교에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입시에 대한 걱정,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다.

우리 공연 ‘고스트 라디오’에 이런 대사가 있다. ‘저는 사회부 기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기쁨과 슬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기자가 되기 위해선 대학에 가야하니깐.’ 나는 항상 그 부분에서 눈물이 났다. 수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말해주는 그런 대사.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며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내가 봐도 너무 재밌고, 추천할 만한 공연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 전부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꼭 봤으면 하는 친구들은 수험준비 때문에 보러 오기가 참 힘든 게 현실이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서, 공연 한 편 볼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그렇게 고생한 친구들 모두 80일 후에는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에게는 이렇게밖에 말해줄 수 없었다. ‘나는 네가 정말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참 미안한 말이다. 그렇지만 내 친구는 아주 똑똑하고 씩씩한 친구기 때문에 자기도

‘꼭 그렇게 살 거야’라고 내게 말해주었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것 같다.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면, 남들과 다를 수도 있는 것에 두려움을 버린다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더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다들 그 엄청난 두려움을 감히 생각도 해보지 못하면서 죽어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수험생들의 자살소식이 이제는 남들 소식 같지 않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사라져 가고 있다.

나는 그 친구와 여행을 약속했다. 입시가 끝나고 난 뒤, 각자든 함께든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같이 가난한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설렌다며 문자가 왔다. 친구는 힘든 입시 준비 속에서도 우리 여행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대한 꿈과 기대를 약간이나마 하게 되겠지? 일단 나는 그걸로 너무 기뻐했다. 내 친구가 찌들대로 찌들어서 대학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대단한 것들을 해줄 순 없다. 대학에 붙게 해준다던지. 다른 길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 그런 것들을 해줄 힘은 당연히 절대로 없다. 그래도 작은 꿈을 함께 꾸고 나누는 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내 친구들과 많은 꿈을 꾸려고 한다.

그리고 나의 학창시절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를 계획해가야지. 사회를 잠깐 경험하며 책임감도 느끼고, 배운 것도 많았다. 더 많은 꿈들도 갖게 되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나도 입시를 준비해야지. 대학을 위한 입학시험이 아닌, 세상을 위한 나만의 입학시험을! 나의 인턴은 입시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잘 정리하고 마지막 입시준비 스팟트를 올려야지. 모두들 자신만의 입시준비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입시생들 화이팅!

3. 나와 함께한 '진동'

힘들고, 재밌고, 속상하고, 보람 있었던 많은 날들을 함께 한 진동!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오래토록 나에게 남아있을 소중한 보물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그들에게 내가 인턴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다. 짧고 굵게 나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적어 나누었다. 진동과 나, 둘 다 앞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기를 바란다.

<h2>인턴십 보고서</h2>	
제천간디학교 6학년 조하늘	
기간	2010.12.27. ~ 2011.08.21
장소	극단 진동
내용	<p>긴 시간이었지만, 정리해보니 그렇게 길지도 않다. 내일모레 입교 날을 두고 많이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고 학교생활이 다시 두근두근 기대되기도 한다. 내가 이곳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 만큼 내가 이곳에 두고 가는 것도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렇게 어리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어여쁜 학생이 함께 8개월 간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진동'은 엄청난 것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한다.</p> <p>처음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본 극단은 정말 신기했다.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획, 제작회의부터 참여를 하고 오디션 과정부터, 하나의 뮤지컬을 완성시켜 무대에 올리는 과정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고, 역시 보통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p>

그것과는 별개로 극단이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단원 생활을 하려고 들어온 배우들은 연극적인 것들을 배우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앉아서 문서작업을 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워크샵은 일상 업무 때문에 연습시간도 너무 많이 부족했다.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단원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연습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단원의 의미도 많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연극을 하고 싶어서 모인 배우들이 지친 모습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연극이 좋고, 연기가 좋아 같은 곳에서 모여서, 내 몸을 다룰 수 있게 훈련을 하고, 다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극단원들의 모습은 그냥 내 환상 속의 모습이었던 걸까.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웠다. 배우들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진동'에서 하는 작품들이 객관적으로도 너무 좋다. 하고 있는 교육활동들과 이곳의 목적이 참 좋고 너무 멋있었다. 소신 있고, 신념을 지켜가며 오랜 시간 극단을 유지해온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 '배우'들에게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일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획자를 뽑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극단의 사정상, 전문 인력이나, 많은 사람들은 뽑기 힘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한, 두 명의 직원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모르는 일까지 배워가며 멀티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지칠 것 같다. 모두가 즐겁고 만족하며 일을 할 수 있으면 기획자, 배우, 대표, 스태프들의 역할이 잘 나누어지면 좋겠다.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그 자리에서 한다면, 지치고 힘들더라도 더 즐겁고 뿌듯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마음껏 하고 싶지만 주머니사정에는 한계가 있다. 누군들 지원금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대학로에 있는 많은 소 극단들의 문제점일 거라고 생각한다. 인력부족, 자금부족.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딛고 10주년을 맞이한 극단 진동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뭐 10주년이 지났다고 사정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자

내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들이지만 청소년 극은 성격상 크게 성공하기도 어렵고 특공이 잡히지 않으면 수입도 많이 없다. 그렇지만 진동은 국내의 몇 없는 청소년을 위한 극단이고, 그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는 극단인 만큼 청소년 극에 대한 발전에도 더 많은 힘을 쏟아주면 좋겠다. 이번 작품을, 나는 수도 없이 봤다. 그래도 항상 몽클하고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있다. 나의 이야기, 내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많은 생각들을 했고 친구들을 불러서 꼭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내 친구들은 수능준비 때문에 많이 오질 못했다. 정말 꼭 봤으면 하는 친구들이 공연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극단에서도 공연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생각해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난생 처음 워크샵을 받아봤고, 오디션을 보러온 긴장한 배우들의 모습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었다. 프로 배우들이 연습을 진행해가는 것도 함께 했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언더로서 많이 배우고 배우들과 호흡하며, 리허설까지 해보았다.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언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당장 앞으로의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도 있었고, 더 큰 꿈들도 생겼다. 하고 싶은 것들도 참 많고 연극을 좀 더 알아가고 싶어졌다. 정말 연극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인턴의 목표 중 하나였는데, 그 것을 확실히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나보다. 대신 몇 년 더 연극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제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가 잘 정리를 하고 나의 학창시절을 정말 정리하고 싶다.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졌다. 아직 학생이지만 나를 믿고 이것저것 맡겨주시기도 했고, 잘 챙겨주시기도 했다. 고마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작년, 또 올해 고스트라디오 배우 및 스태프 분들, 그리고 기획분들. 그 밖에도 짧더라도 함께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나의 인턴 시작 전부터 함께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신경써주신 종우쌤! 진짜 정말 감사하다. 이 시간들은 앞으로 계속 잊지 못할 것 같다. 더 잘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즐겁게 최선을 다했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간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 즐겁게 신나게 하고 싶다. 극단 진동도 화이팅!

세엣

1. 인턴을 마치면서

계속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건, 정말 인턴이 끝났다는 것. 학교로 들어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너무 즐겁다. 정리시간이 짧아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스트레스가 생기지도 않는다. 충분히 잘할 것 같고, 부담도 없다. 여유라는 친구가 내 등 뒤에 꼭 붙어 있는 기분이다. 몇 년 만에 살게 된 기숙사생활도, 짐을 푸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심지어 식사당번도 기다려진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진다.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 있고, 즐겁게, 웃으면서 기꺼이 하고 싶다. 내가 인턴을 다녀와서 큰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시간들이 그리웠던 것일까? 뭐 그것들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내가 현재를 즐기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눈물 나게 감사하다.

항상 돌아보면 무엇이든 커다란 배움이었다. 함께한 장소도, 시간도, 사람들도, 그 때의 마음들도 떠오르며 벌써 너무나 그립다.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보물들을 얻었다. 아니 보물지도를 보며 함께 격려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동지들을 얻었다. 결국 보물을 찾고 찾지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함께 손잡고 쉬어가며 때로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소중한 그들과 함께 걸어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 결국은 그 것이 보물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경쟁에서 상대를 이기고 올라설 수 있을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려한다. 이만하면 성공이지 않은가?. 인턴은 끝이지만 내 꿈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지금 일어났다. 이제 몸을 풀고 달려갈 준비를 해볼까.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 회색도시를 벗어나 온통 푸르른 예쁜 산과 숲들이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그 동안 쌓인 피로들이 단 하루의 휴식이 없어도 말끔히 해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고 살아가던, 그 때 느낀 그 푸른 숲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비록 몸은 다시 회색 도시에 가서 살더라도, 마음만은 울창하고 평화로운 내 고향 이곳에 두고 싶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밖으로 뛰쳐나가 해 좋은 거리를 산책하는 것. 나 혼자도 좋고, 친구와 단 둘이도 좋고, 다 같이 우루루 몰려나가도 좋다. 그 자체로 즐거울 테니까. 지금의 이 여유를 마음에 담고서 살아가련다.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지.

별첨

일지 (부분 발췌)

1/6

요새 목이 아픈데 걱정이다. 관리를 잘해야지, 감기가 들어올 것 같다. 주변에서 자꾸 나를 찌르는 듯 한 말들에 신경이 쓰이고 오히려 오기가 생긴다. 상처받기는커녕 잡초처럼 자라나는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자꾸 찢러주시길.

연극에서 나이 지긋하신 배우분이 나오셨다. 엄청나게 포스 같은 걸 느꼈고 굉장히 고우셨다. 대왕 선배님의 대한 존경심이 절로 생기는 기분? 왜 다들 이순재를 선배님이라고 떠받들고 존경하는지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이해가 되어간다. 나도 저 나이가 될 때까지 배우를 한다면 저런 힘이 나올 수 있겠지?

1/12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다.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1/20

모두의 도움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1/24

그래 끝났다. 쫓우쌔이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즐기면서 하는 건, 대충 설렁설렁 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항상 매순간을 미친 듯이 한다. 그게 즐기는 거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난 정말 연극을 하고 싶어졌다. 지금 난 뭐가 부족한 게 아니다. 있는 게 없는 거다. 열심히 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2/15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 뭐 각오는 하고 나왔지만... 내가 맘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 순 없지만 그냥 속 터질 만큼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신선한 충격이다.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부딪혀서 싸우면서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막내고, 싫어도 내 손해고.. 뭔가 좀 짜증난다. 스트레스, 화를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결하는 건지.. 정말 어렵다.

2/17

조금씩 생각들이 더 생겨난다. 내년의 구상이랄까.... 나의 스물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고, 기대되고..... 모두의 대한 고마움을 돌아본 하루.

3/2

뭐랄까 나는 내가 더 기발하고 독창적이고 새롭고 신선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참 많다는 걸 알았다.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려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고 감탄스럽고, 멋있고, 부럽기도 했다. 항상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3/8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감사할 게 참 많은 세상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다.

3/9

족구 너 내가 끝장을 내주마! 자존심을 건드렸다. 연극인들은 참 힘들다. 살아가기 위해선 알바를 같이 해야만 한다. 터널 물청소를 하고 쓰러져있는 오빠들 안마를 해줬다. 곧 나도 이렇게 뺨어가겠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1

3/17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참 좋다. 사람을 알아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다. 누구에게나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3/24

근래 다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 사실 혼자 제대로 맡은 일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출근했다가 그냥 퇴근하는 날들도 있어서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다. 그런데 아직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위안이 된다. 이런 허무감도 다 공부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진짜 홀로 사회에 나오면 그러한 것들을 더 강하고 굳세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정도 공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새는 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하다.

3/28

다들 여행준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제일가고 싶은 나라가 인도다. 그렇게 싫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했으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자꾸 든다. 내가 세운 목표를 꼭 이루면서 살고 싶다. 일 년에 한 번은 꼭 짐 싸서 어디론가 떠나기. 자유롭게 사는 어른이 되고 싶다.

4/27

조급함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
묵묵히 정말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환하게 빛을 낼 거라는 걸 믿고 있다.

5/9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도 중요하더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오는 것이다. 어찌면 그게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사람부터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아직은 미성숙하게 있고 싶은 마음도 크다. 학교로 돌아가면 다시 애가 되어버릴지, 더 크고 묵은 어른이 되어, 아무리 할 지 고민 중이다. 음.. 둘 다 아주 욕심이 나서 큰 고민이다. 하하

5/11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이제 8월 막공까지 한 팀이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어색어색. 그래도 그 처음의 어색함과 쑥스러움이 나쁘지 않다. 오랜만이라서 참 좋달까. ㅋ
학교에서는 항상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 집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신선하고 좋았다. 내일모레 다시 모일 때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겠지ㅋㅋ

6/2

실제공연에서의 음향은 처음이라 완전 긴장된다. 진짜 잘하고 싶은데 기기가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다 흑흑
내일은 정말 실수 없이 잘하고 싶다. 음향과 조명도 무대 위의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해야 한다. 잊지 않고 내일 공연 빠샤!!!

6/7

리딩은 많이 할수록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선배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연출님의 엄청난 수고들을 옆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 연출의 입장으로, 배우의 입장으로 양쪽의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다.

6/13

선배님들한테 배우는 게 참 많다.

부풀리고 허황된 것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을 말해주시니까 더 와 닿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나도 참 생각이 많아졌다.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많아지면 머리가 터져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모르겠다. 우키키키 그래도 요즘 너무 즐겁다.

6/14

배우고 싶은 게 많다. 그러나 조금하지 않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들부터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습하고 있다.

6/21

모든 일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열정을 보태면 더욱 커진다.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건

짱다구

어금니 짱 깨물자.

6/28

언더와 조연출과 스태프를 함께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다.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완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하는 거다!

7/4

사실 많이 부러웠다. 오퍼를 하면서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을 보면서. 나도 이번 인턴이 끝나면 절대 배우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스태프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배우니까. 앞으로는 배우로서만 힘쓰고 싶다. 그래도 스태프들, 조연출, 언더 등.. 많은 이들의 입장에 놓여지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게 참 값진 경험인 것 같다. 나는 이번 인턴이 너무 고맙고 소중하다.

7/10

새로운 것들을 보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항상 하는

생각들은, 나도 정식 배우가 되어서 저런 것들의 주축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다니며 보고 배우는 것들도 재밌지만 역시 욕심이 생긴다! 어서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기도.. 안되고 싶기도.... 고민이 많은 요즘이다.

뭐 고민 한다고 나이가 안 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히히 그냥 즐기고 싶다.

7/18

조연출로써 배우들 챙기랴. 연출님 챙기랴... 애공....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다. 집에 다녀와서 충전이 된 것 같다. 지치는 일정이지만 그래

도 좋았다.

모두를 위해!! 졸려 죽겠지만 한술언니를 위한 조명 큐시트를 밤 늦게까지 애쓰며 겨우 완성시켜 놓고 잤다!

7/26

무엇이든 10년을 한결같이 지켜오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10년도 놀라웠는데, 극단 작은 신화가 25주년 기념 공연을 한다는 소릴 듣고 오 더 놀라워졌다. 그 시간들 동안 분명 나름대로 많이 성장하고 변화를 해왔을 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8/2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믿는다.

8/4

언니오빠들 너무 감사하다. 공연도 하는데 연습까지 신경 써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항상 더 격려해주신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몸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상하다.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죽을 만큼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그렇게 무거운 말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도 조하늘은 파이팅이다.

8/12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 괜찮지 않다.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다.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일정과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너무 실망도 되고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치만 이대로 올리면 내가 나한테 더 미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공연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내린 결정이다.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위해 당장의 작은 욕심을 내려놓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속상하다니... 에라.. 충분히 속상해하자.....

8/13

충분히 속상해하고 씩씩하고 괜찮은 척만 하지 않고, 찡찡대고 위로받고 훌훌 털어버렸다. 어느새 나의 버릇이 되어 있었나보다. 아픈 척 하지 않고, 상처받은 척도 안하고 무조건 괜찮은 척 하기.. 이제 그만 건 개나 쥐야겠다. 하늘 아자

8/14

나에게 솔직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이번에 그렇게 바랐던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생각, 시간들을 예기치 않게 갖게 되어서 그것대로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리허설까지의 과정까지 일단 갔지 않았는가 >< 이럴줄 알았음 그 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놓을걸 그랬다. 그래도 파이팅이다. 그래도 나는 지금 너무 즐겁다.

8/17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만든 공연을, 자랑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의 사랑을 먹고 작품은 만들어 지는가보다.

인터뷰

Q. 청소년 극을 10년을 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성인극 ‘6시 퇴근’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

A. 하다보니까 하게 되었다.(웃음) 6시 퇴근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그 작품에서 만나려고 하는, 6시가 갖고 있는 밴드 뮤지컬의 형식과, 지금 현재 직장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불안 문제들을 갖고 공연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예전부터 있었다. 또 하나는 극단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청소년 극만 하다보니까 배우들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하자면 청소년 극만 하다보니까 별 매력을 못 느끼는 배우들도 있고 성인극 레퍼토리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Q. 극단에는 많은 작품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연극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쪽에서 더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할 수 있다면 무엇에 더 매진하여 하고 싶으신지.

A. 보람과 매력을 느끼는 건 다 마찬가지로인데 교육활동을 할 때도 보람과 매력을 많이 느끼고미었다. 하지만 연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만 가지고 매진을 해야 한다면 공연 쪽이 될 것 같다. 교육활동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싶진 않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주관적인 능력, 조건상 교육활동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다.

공연활동도 지금 그 자체만을 가지고 꾸리기에 주체적인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활동을 더 늘리기도 그렇고 현재 것들을 소화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줄여할 것 같다. 배우 구하기도 어렵지만 교육 활동을 할 인자들을 구하기도 어렵다.

Q. 연극판에서 극단 진동이 가지는 의미가 궁금하다. 어찌 보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극을 다루고, 교육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 등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연극판에서 극단 진동은 어떠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A.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 하듯이 청소년 극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그것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 청소년 극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명확한 주체의식, 내용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현재 대학로에선 정확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더 의미를 가지고 싶고, 다 고만고만한 상업극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집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

Q. 극단 진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단적인 예로 말하자면 관객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나는 연극을 한다. 나는 청소년들이 공연을 보고 받은 에너지를 분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성인극도 보고 사회적, 정치적 현실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식의 전환들을 이루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제시하고 싶다.

Q. 극단 진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궁금하다.

A. 이름을 알리면 좋겠죠. 그것은 목표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로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우리가 명 작품이 되고 제가 명 연출이 되면 좋겠지만 그걸 목표로 삼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작품들을 끊임없이 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

재의, 경제적, 상황적 여건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다. 이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다. 왜냐면 이 사회에서 명 작품, 연출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내가 별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웃음)

Q. 내년 계획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A. 내가 한 달 동안 휴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웃음)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뮤지컬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연극을 작은 소품으로 할 생각이다. 올해 겨울에 원장님을 워크샵으로 해보고, 팬찮으면 연극으로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이다. 내년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올해의 고스트라디오를 가지고 갈 것인지 새로운 신작을 할생각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다. 6시 퇴근은 당분간 계속 갈 것이다. 연말 11,12월에는 서울 극장공연을 할 거다.

Q. 성인극이 청소년 극보다는 수입이 좋은 편인가.

A. 아니 성인극이 훨씬 마이너스가 많다.

Q. 투자라는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겨야 다음에 더 좋은 투자를 하고 그 힘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감당할 수 있나 보다. 청소년 극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안정적인 루트르 가지고 있는데 성인극은 그렇지 않다. 물론 성인극이 대박이 나면 더 많이 벌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럴 확률이 적다.

Q. 많은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A. 가장 애착이 가고 기억이 남는 작품은 창단 공연 했던 '비행하는 이카루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다시 공연할 생각도 있다.

Q. 저 같은 학생을 인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인턴을 무사히 마친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과, 이제 학교로 들어가 마무리도 잘하고, 새롭게 사회에 나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A. 일단 먼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 좀 인턴으로서 제대로 좀 경험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많다. 아쉽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의 역량 정도다. 지금 극단의 상황이 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인턴이나 교육생이 와서 그들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오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 제대로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익혀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두고 싶은데, 당장 내일 공연가는 곳에 오퍼가 없고 인력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인력을 급급히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 인턴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지금은 인턴을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턴이라면 좀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지금은 뺨질 형태로 채워 넣는 형식으로 하게 돼서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함께 배우고 연극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탐구를 하고 알아가 보는 연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예를 들면 알고 있는 품 같은 곳에서는 1년 동안 인문학 교실이란 이름으로 다양하게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활동을 했다. 그래

서 앞으로 우리도 그러한 인턴들이 온다면 그들만의 교육기간 같은 것들을 가져서 왜 연극을 하려고 하는지, 왜, 무슨 연극을 하고 싶은지 등을 서로 모색해보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작업들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봐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에 닦친 일정들을 수습 하는 것에만 급급해왔던 활동의 내용들이라서... 그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Q. 내년에 당장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음.. 연극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그걸 생각하자 내가 연극을 하고 싶은지. 배우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자.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배우로 하고 싶다면 정말 배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배우고, 나를 배우로 써줄 수 있는 곳에 가서 배우를 하면 되겠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이 대학 연영과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한국 사회에서 연영과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량 보다는 인맥을 쌓기 위해 가는 것이 90%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걸 무시하고 가려면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배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연기를 배우는 가장 큰 방법은 공연을 뛰어나. 근데 처음부터 수준이 되지 않은 배우를 세우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밀바닥부터. 지금은 극단 시스템이 없어지고 오디션형식이 주를 이룬다. 오디션은 더욱 초보자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없기에 대학을 가는 거다. 대학에서 동기들, 선배들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졸업하고 동문들의 인맥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현재 사회의 현실이다. 그게 싫다 하면 많은 공연들을 보고 공연과 연출이 맘에 드는 집단에 가서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고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집단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Q.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A.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턴십 보고서

김민욱

12월13일 ~ 4월14일

목차

서론

1. 동기 및 목적

본론

1. 단체소개

- (1) 충북환경운동연대 소개
- (2) 어떻게 운영유지??
- (3) 연결된 단체

2. 나의 활동

- (1) 환경운동
- (2) 회의 기록
- (3) 명성황후 도서관 수업
- (4) 일본 오사카 조명조사
- (5) 사무실 업무
 - ↳ 공문, 회지 작성 및 보관
 - ↳ 현장 조사
 - ↳ CMS업무
 - ↳ 월말결산

3. 하루일과

- (1) 사무실 업무
- (2) 명성황후 도서관 수업

결론

- 1. 인턴십을 활동하며...
- 2. 아쉬웠던 점

서론

1. 동기 및 목적

어릴 적에 나는 매우 소심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못했다.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도 힘들며 건축을 좋아했던 나는 어느새 제천간디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고등과정 1달간 이동학습 통해 생태건축, 환경서명운동 등 활동을 해봤었다. 사람들과 얘기를 잘 못하는 내가 서명운동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17일간 157명의 적은 서명을 받았지만 나에게겐 내 발전을 위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국 이동학습을 마치고 나는 계속 혼자 컴퓨터 대학 지신을 쌓아갔다. 컴퓨터 보안 쪽으로 독습을 하여 인터넷캠프 때도 내 삶을 찾은 느낌이 들었다. 네트워크의 보안을 만들면서 내 컴퓨터를 방어한다는 것이 뿌듯하고 앞일이 즐거웠다. 그래서 비공식 온라인게임을 2년간 운영 해왔다. 포탈사이트의 카페에 회원을 모집하여 서버 트레픽으로 돈을 벌곤 했다. 한창 서버운영이 즐거웠을 때 다른 네티즌이 서버를 공격하여 1달간 서버중지 된 상태가 되었다. 단순한 공격이었지만 무척 화가 나서 공격자 네티즌을 아무 고민 없이 보복을 했다. 그 이후로 네트워크 공격하는 법과 바이러스 만드는 법을 배워왔다. 그렇게 혼자 생활하다보니 다시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간 것 같았다. 주변사람들만 봐도 시선을 피해 다니고 네티즌과 대화하면서 마치 가상의 사람들과 대화한 것 같았다.

19살이 된 나는 진로를 찾아 가는 나이가 되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했다. 하루가 탄탄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다른 단체를 방문하고 단체대표와 인터뷰를 할 계획을 했다. 아는 사람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로 한 나는 첫번째로 좋아했던 생태건축은 간디학교 이동학습 통해 알아보았지만 이번만큼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내가 잘 모르는 환경에 대해 방향을 잡았다. 내가 하고 싶은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하여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봤다. 컴퓨터와 환경에 연관성은 없지만 컴퓨터로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양한 일을 하면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UCC 단체 대표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직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보라고 추천했다. 그런 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싫어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인터넷에 돌아다녀보곤 했다. 하지만 학교철학과 어긋나 계속 알아봤지만 결국 못 찾고 더 이상 모든 의욕이 없었다. 결국 내 곁에 있으신 부모님에게 물어 보니까 바로 알려주셨다.

추천해주신 ‘충북환경운동연대’에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인턴계획을 짰다. 잠깐 생각해보니 내가 5학년 이동학습으로 서명운동 하러 갔던 단체였다. 사무실도 다른 데로 옮기고 많이 달라졌다. 단체 대표인 박.일.선 대표님과 간사 한분이 계셨다. 대표님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보았으나 단답형으로 얘기했다. 대표님의 표정을 딱 봐도 쓸쓸해 보이거나 일손이 부족해서 안절부절 하는 표정 같았다. 단체 직원은 그대로 두분 밖에 없으니까 인터뷰 기간을 미루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준비했다.

나에게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라 잘 적응이 될지 걱정이 많았고 내가 그 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단체가 바쁜 관계로 12월13일 학교 방학식을 마치고 바로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할려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해서 막상 걱정이 많아지고 그 일을 편히 받아 들었다.

본론

1. 단체소개

(1)충북환경운동연대 소개

단체 담당인 박.일.선 대표님은 충북환경운동연대를 만들었으며 물을 아끼는 환경단체라고 소개했다. 충주에서 “호암지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황금박쥐 살리기 운동” “환경 예술전 최” “구제역 관련 기자회견” “구제역 반대운동” “대운하 반대운동” 등등 많은 활동을 추진해왔다. 직원은 3명이며 인턴활동중인 대학생들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운동 뿐이 아니라 청소년 상대로 환경에 대한 강의를 연고 환경예술 대회 등등 많은 행사를 개최한다. 가끔 해외에 “수달 살리기 운동” 등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단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환경예술전은 미술작가들끼리 작품을 단체전을 열어 환경에 대한 상징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괴산에서 도 심각한 구제역을 방지하기 위해 도청에서 한 마을에 퇴비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운동을 했다. 이번 계기로 시청에 들락날락 거렸던 이유는 기자회견을 이 많이 참여했다. 남한강에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문제점과 충주 환경평가서 수정요청 기자회견을 자주 했다. 보통 후원자들을 보면 건설업체들이 40%정도 된다. 이렇게 많은 건설업체들은 친환경지 등등 친환경 토목계설 업체 이다. 후원자 모집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집을 한다. 후원회원들에게 매월 1번 씩 회지를 통해 단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통보한다.

(2)운영유지??

단체에 일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단체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었다. 단체에 분명히 돈을 소비하는데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발견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비영리 법인이며 이익을 남길 수 없는 법인이라 말한다. 시청에서 활동자금을 지원해주며 사용한 자금의 영수증을 꼭 받아 시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 ‘월말결산’이라 말하며 섬세한 작성이 필요하다.

시청에서만 단체를 유지할 수 없어 단체 회원들 받아 단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일이 회원들은 월 입금 상태를 알수 없어 'CMS'(자동이체)가 있다.

CMS에 충북환경운동연대의 회원들의 목록을 입력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체계좌에 자동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다. 단점은 출금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 신청 일을 출금하는 날 아니면 출금 할 수 없다.

(3)연결된 단체

수달아동센터

환경운동연대는 환경운동만 하는 단체가 아니다. “수달아동센터” “명성황후 도서관”를 관리한다. 다들 수달아동센터 대해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수달보호구역 인가요?’라곤 한다. 괴산에 있는 수달아동센터는 동네에 유치원이 멀어서 다니기 힘들 애들을 교육하는 아동교육센터이다. 연령은 4~7살 이고 영어, 기초적인 교육, 놀이 등등 하고 있다. 이 단체에도 CMS으로 자금 관리한다. 은행을 후원 받아 건물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명성황후 도서관

괴산군에 있는 도서관은 시골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연령9~14살의 학생들을 수업한다. 학교에 미술과 독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

으며 명성황후 도서관을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미술, 요리에 대한 수업을 실행해왔다.
학생 6명이라 건물이 매우 작아 크게 운영을 못하는 상태이다. 상태유지는 충북환경운동연대를 통해 도서관을 유지 할 수 있다.

2.나의 활동

(1)환경운동

내가 생각하는 환경운동은 단순한 소리 지르고 저항하는 것이 끝인줄 알았다. 여태까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환경이라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다. 이번 계기로 구제역반대운동을 통해 직접 경험해봤다. 직접 봐도 아무 느낌은 안들었으나 저항하는 운동가의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그쪽에 의지가 되었다. 내가 괴산군청 앞에 소리를 질러보고 기록해보았으나 관리자에게 강제로 자료를 뺏겼다. 이토록 사람들끼리 투쟁하는 것은 힘들지만 안되면 될 때까지 밀어 붙인다.

저항운동 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자회견을 시간을 가진 적도 많다. 주로 충주시청에서 환경에 관련 된 것을 조사하여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날에는 많은 기자들이 와서 충북환경운동연대의 대표의 발언을 촬영 했다. 이렇게 발언을 제시하면 관리자 측의 공격적인 질문이 나온다. 마치 이런 기자회견도 환경운동이라 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기자회견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다. 최종 목표는 시청 측을 자극하기 위해서인걸 알았다.



공연 주차장 유료화 제시



건설 전 환경조사 제시

(2)회의기록

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기록이다. 다른 단체들과 회의기록을 하다보면 기록자료를 통해 행사, 다양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나에게 큰일을 주어져 부담되었지만 색다른 경험과 다른 단체들과 이야기들을 들어 어휘력을 집중시킨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양군청과 남한강 자전거도로 건설에 관련된 회의기록 하게 되었다. 첫 회의기록이라 회의내용을 봐도 어떤 말을 주고받는 지 이해가 안되었다.

대표님과 충주시청, 군산도청에 회의하러 많이 갔을 때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첨부자료를 잘 읽어보고 기록해보니 기록하는 작업이 수월 했다. 회의기록의 작업은 담당자와 회의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를 시작한 후 다른 시민단체와 사무실 대표의 회의 내용을 카메라 촬영과 관련 된 자료 체크하여 회의내용을 수집한다.

(3) 명성황후 도서관 수업(영화)

초등학생 상대로 있는 도서관에 영화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다른 선생님들과 돌아가면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치며 간식거리도 만들며 수업했다. 괴산의 외진 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영화관과 그 다른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와 다른 23일간 봉사활동으로 오신 형님들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겨주기 위해 명성황후 도서관의 영화수업을 맡았다.

내가 이 단체로 인턴오기 전에 미술수업만 진행해서 명성황후 도서관의 미술담당인 천병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없어 걱정하였지만 나의 인턴활동의 통해 선생님 잘 도와주기로 결심 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나의 명칭은 선생님이 아닌 “아저씨!”라고 부른다. 왠지 묘한 기분은 들었지만 아이들에게만은 “착한 아저씨”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

영화수업은 진행은 역사, 평화, 영화제작과정 같은 목적으로 가르치고 가끔 3D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면 애니메이션의 구성을 알려준다. 준비과정은 해당 영화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고 영화의 배경의 시대와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 준비하는 시간이 무척 힘들지만 아이들과 만나면 외롭지가 않았다.

재미 위주인 영화방영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문화,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영화도 설명한다. 연령에 맞춰 방영하기 때문에 영화수집 하는 것이 힘든 단점이다. 가끔 애들이 공포 영화를 보여 달라고 했을 때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러나 내가 쉽게 거절하고 일정대로 영화 방영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영화 감상 후 아이들과 간단한 간식거리를 만든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쉽게 먹어보지 못한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 대형 슈퍼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간식거리를 다 같이 만들었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이 떠올라 나의 간디학교 중2,3 때 배운 두부과자와 초코 브라운 생각이 떠올라 만들었다.

(4) 일본 오사카 조명조사 (1월13일~1월17일)

내가 이 단체에 있으면서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은 조명공부다. 조명의 대한 연구를 하여 전기를 통한 기계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조명행사를 보면서 조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번 계기로 충주에서 개최되는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의 조명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대회는 탄금대 호수에서 열리고 관리자분들과 조명조사를 허가를 받아냈다. 그 후 우리 단체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조명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탄금대에 조명할 곳을 다 파악하고 조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 일본에 방문하게 되었다.

일본 오사카에 방문하면서 3박4일간 주변에 의 조명 사직을 찍어 토대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전력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일본의 소모되는 에너지와 조명의 모양을 조사하여 전력 소모를 확인하기 위해 도쿄 조명반전회사에 연락 후 방문하기 위해 연락을 해보았다. 조명발전회사와 아무리 연락을 해봤지만 일본지진관계로 조명조사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취소되어 버려 매우 안타까웠지만 조명에 관련된 공부가 되었으며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되어 즐거웠다.

(5) 사무실 업무

공문, 회지 작성 및 보관

공문 받을 때는 반드시 보관 하고 행사관련된 일이면 공문을 보낸 담당자와 얘기하여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며 공문에 따라 일정을 맞춘다. 공문작성 할 때 수도업체, 시청, 건설업체에게 많이 보내는데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공문을 작성한다. 내용은 주로 절약에 대한 제제뿐이다. 회지작성은 매월 1번씩 후원자들에게 발송하며 회지에 들어 갈 내용을 편집하는

일이다. 탈퇴회원과 신규회원을 철저히 관리가 안되면 엉뚱한 주소로 발송되는 상황이 있다.

현장 조사

연락을 통해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상대방이 주변동네 현장조사를 요청한다. 대표님과 현장에 가서 동네사람들과 인터뷰를 한다. 동네분들의 의견을 통해 관련된 현장을 조사를 하여 결론이 이루어지면 다른 환경단체들에게 보고를 한다. 현장조사의 목적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식계교, 강, 건설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되는 곳을 찾아간다. 주로 현장에 가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동네사람들 또는 노동자에게 상태파악을 듣는다. 그 후 직접 사진촬영과 메모를 남긴다.



(8공구가 건설 중인 남한강의 자전거 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 중 남한강8공구가 건설 중인 탄금대~목행에 이르는 남한강의 자전거 도로이다. 시설위험과 비환경 적인 건축으로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 대하여 찬성은 했지만 도로를 아스팔트가 아닌 마사토 포장 해줄것을 주장 했다.

또 8공구인 조정지댐에서 반천(중양탑)에 이르는 자전거길은 보행겸용길로 지형상 데크(1.2km)로 신설되고 있으나 경사(7%)가 저 미끄러질 수 있고 방호울타리의 높이가 낮아(1.13m) 부주의할 경우 자전거 승차자가 산비탈이나 충주호로 추락할 수 있다며 방호울타리를 1.4m로 높이고 미끄럼 저항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8공구인 동량면 운교에서 용대, 생태교육관에 이르는 자전거길도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마사토 포장으로 바뀌줄 것과 산책길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자연그대로의 길로 만들고, 선도사업지구의 물놀이장은 안정적인 수온과 수위를 유지 할수 있도록 하천복류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말결산

하루에 한번씩 단체에 지출된 돈을 체크하여 매월 결산하는 작업은 100원도 틀리면 다시 해야하는 작업이다. 손님 접대하여 지출된 돈과 행사 준비물품으로 지출이 크다. 손님을 접대하면 주로 음식점에 돈을 쓰고 행사 준비물품은 사진인화 행사장소 대여료 등등 크게 빠져나가고 내겐 크게 부담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엑셀을 통해 지출된 돈을 따로 관리하고 영수증을 수집하고 일일이 정리해서 시청에 보고 하는 힘든 작업이다. 내가 이런 업무를 맡아보면서 힘들었던 날이 많았다. 액수를 1만원을 잘 못 적어 하루 종일 예금목록을 확인한

날이 있었고 월말결산 보고 하는 날이 만료 되어 다른 일정을 미룬 적도 있었다. 이런 일 때문에 슬픈 적도 있었다.

CMS업무

나는 체천간디학교에서 입금관리하는 것이 궁금했다. CMS라는 시스템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보질 못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단체에서 나에게 “민욱이도 이제 CMS를 해봐야지” 하는 순간 나는 기대했다. 그래서 CMS업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색다르고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서 쉽게 배웠다.

CMS란 자동이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일정한 기간을 맞추어 한달에 2번 출금을 할수 있고 등록된 회원들의 월 후원금액을 자동이체를 하여 단체에 돈이 들어오는 거다.

하루일과

시간	활동	구체적인 활동
9:00AM	출근	교통버스를 이용한다.
10:00AM	오전 사무실청소 화초 정리	방 청소 등등
11:00AM	일정 공유	대표님과 업무 공유
12:00AM	점심식사	도시락을 직접 싸와 식사
1:00PM	손님 접대	손님에게 차 대접 자료 내용 대화
2:30PM	CMS관리 및 공문 작성	CMS의 회원 관리 및 출금 관리 / 행사 관련 공문 작성하기
3:40PM	회지 내용 스크랩 현장조사	회지 작성 및 스크랩 보관 / 현장조사를 하여 문제점 있는 곳에 사진촬영
4:00PM	영수증 관리 및 신문기사 스크랩	원말결산을 편리하도록 지출금액 정리
5:00PM	자료방 정리 및 체크	옛날 신문 스크랩 자료 정리 및 보관
6:00PM	퇴근	걸어서 퇴근

사무실 업무

2:00PM	수업시작
2:30PM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
3:00PM	영화방영
5:00PM	감상문 쓰기
5:30PM	수업 끝

결론

1. 인턴십을 활동하며...

환경운동연대에 인턴생활을 하면서 내게 큰 자신감을 줬다. 다른 사건을 통해 여러 사회공부가 되었고 내 진로의 버팀목이 될거라 생각했다.

인턴십을 12월13부터 4월14일까지 활동을 했고 단체가 바쁜 관계로 방학하자마자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의 마음을 준비하고 시작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께서 ‘내일 당장 일할 수 있어?’ 물어보는 순간 당황했다. 첫날에는 사무실 일을 혼자 봐야 되서 전화업무를 등등 어리석게 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턴십 한 활동을 생각하면 뿌듯하다.

처음 왔을 때 사무실 청소와 화분 관리 등 잡일을 시작했다. 이제 업무가 숙련이 된 후 은행 업무를 보게 되었다. 돈에 관련된 일이라 부담스러웠다. 통장을 들고 돈을 출금하려 했는데 은행직원이 법인통장이라 본인 인감이 필요하다 했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나는 너무 복잡해서 다른 인턴 활동하는 형들에게 부탁했다. 그때부터 나는 여러 가지 은행 업무를 보면서 법인에 대해 공부가 된 것이었다.

사무실에 사업자 등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쓰는 용도를 알게 되었고 대표님께 법인통장 만드는 법을 알려줄 정도로 공부가 된 것이었다. 내게 돈의 자신감을 준건 CMS업무 이다. CMS업무는 회원관리 뿐만 아니라 출금관리와 사업자 등본(멀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엑셀작업의 실용도도 알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해 자동이체 회원들을 관리하고 출금도 해보고 사업자 등본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는 단계를 거쳐 신규사업자 등본을 만든어 봐서 자신감을 얻었다. 사회적 기업, 법인의 종류를 나도 모르게 알게 되었다는 점이 신기했고 덕분에 사회가 다르게 느껴졌었다.

어느 날 대표님이 자료방에 있는 기사 스크랩 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 하라고 했을 때 이 단체가 어떻게 만들었지 궁금하여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3/1자료들이 온천지역 개발 반대운동 내용이였다. 그 당시 온천 개발문제로 반대운동 해오 신 대표님이 3달간 단식투쟁 하신 기사를 보고 놀라웠다. 그 후로 대표님의 별명이 ‘이시종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어지고 다양한 역사가 남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느낀 적은 혼자 이 단체를 꾸려 나가는 것이 멋있었다.

대표님이 처음에 왔을 때 달리 색다르게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나에게 잡일만 시키고 했지만 이런 자료정리 덕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간 것 이다. 혼자 일하면서 사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서 놀라웠고 일손이 부족했던 단체지만 내게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점이 기쁘고 하루가 탄탄한 느낌이 들었었다.

내게 가장 인상 깊은 날은 단체이름 사칭 사건 통해 경찰서에 개인적으로 임명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경찰서의 분위기는 무서웠다. 들어가는 순간 시선은 매우 따갑고 나는 바닥만 보게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어 공무원들은 대표님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물론 내가 대표님을 좋게 설명하고 경찰끼리 식사한 것은 첫 경험이었다. x바우 순대 음식점에서 나는 순두부를 먹으며 사적인 즐거운 대화를 계속 나누게 되었다. 그 순두부 맛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즐거운 나는 잠시 경찰이 되고 싶었다.

매주 2번씩 명성황후 도서관에 초등학생의 상대로 수업을 해보았다. 역시 애들은 애들이라 말은 절대 안 듣는다. 밖에서 놀아주면 좋아하고 수업어하면 싫어하고 마치 내가 하던 모습 같았다. 영화 방영하면서 애들과 즐거운 수업을 해보았고 말은 절대 안 듣지만 그만큼 순수했다. 아직 애들 수업 가르치는 자신은 없지만 내게 큰 자신감을 줬다.

무엇보다 기자들 앞에서 시선이 따가운 기자회견을 많이 경험 해봤다. 주변을 보면서 다른 기자들이 각각의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며 분위기 상 전쟁하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회견을 처음 해봤을 땐 서있기만 했을 뿐 인데 창피했다. 하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은 많은데 문제점을 바로 해결을 못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에게 알려서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해결할 시간은 오래가고 해야 될 것은 많아져서 사무실이 바쁜 것 같았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덕분에 환경사태와 사무실업무 보는 법을 알게 되어 기뻐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대표님을 일을 도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인턴십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인턴십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갈 진로의 버팀목이라 생각 한다. 비록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기보단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은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 한다.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며 생활하면 목표를 보일 것 이다.

2. 아쉬운 점

내게 인턴십 활동을 통해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하면 내 인턴의 최종 목표인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조명연구”를 못한 것이 안타깝다. 11월16일부터 계획 했던 일이었다. 일본 도쿄의 통신을 받으면서 회의를 참여 했지만 일본지진 피해 인해 일본 전기공학가의 통신이 없어졌다. 그 이후로 사무실에는 할 일이 없어졌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사무실에서 방청소와 분리수거 등 잡다한 일을 계속 하다가 내게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다. 정말 생각 없이 단순히 일만 하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경험한 것은 처음 이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괴산에 있는 명성황후 도서관의 애들 수업 가르칠 때 이다. 촌에 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가르친다. 촌에 있어 영화관도 못가고 있는 애들과 놀아주고 수업해 주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영화수업을 하면서 매우 아쉬운 점은 수업 가르치는 회수가 8번이지만 내겐 적은 시간인 것 같았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 한 적도 처음이었기에 소중한 의미있는 시간 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적고 내가 수업 가르치는 준비성이 부족하여 수업을 쉬고 애들이랑 놀기 한 적도 있었다. 정말 다시 수업 가르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준비하여 수업을 진행 하고 싶다. 나의 인턴십은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아쉬운 점을 생각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인턴이 되어 기뻐다.

지역에서 나를 만나다

김현지

3/14 ~ 6/25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지역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일하고

논밭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나를 만나다

- 목차 -

1. 인턴십, 들어가기 전에

2. 내가 만난 지역(충남 홍성군 홍동면)

3월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마실이학교), 갯골생태농업연구소

4월 →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밝맑도서관

5월 →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

6월 → 인터뷰, 갯골생태농업연구소

3. 지역 사람들에게 배우다

4. 앞으로 나아가기

*부록: 인턴일지 밑줄긋기☆

*부록2: 생활글

*부록3: 마실소식

1. 인턴십,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고3. 체천간디학교 6학년. 대안학교인 우리학교는 6학년 때 사회의 현장으로 인턴십을 나간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현장에서 배우면서 그려보는 시간. 난 그렇게 이해했다.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싶은지도 확신이 없고, 인턴십 장소도 고민을 했었다. 원래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곤, 환경을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에 가려다가 계획을 뒤엎었다. 얼른 인턴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고….

그러다 ‘마을’을 주제로 정하게 됐다. <우리마을입니다> 책을 보고, 농촌에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지역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5년간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덕산에 있었지만, 사실 나는 우리지역에 그리 관심이 없었다. 흥동은 오랜 시간 마을을 일구어 온 곳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덕산도 이곳에서 보고 배울 점이 많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지역에 머물면서 덕산이든 어디든 뜻이 맞는 사람과 생각이 있으면 풍요로운 마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삼선재단에서 풀무전공부 수업(졸업)생들의 발표를 듣고, 좋아하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싶었던 것 같다.

그 동안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지내왔다. 학교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난 그 속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동안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했다. 이제 졸업하면 소속이 없어지고, 내가 스스로 내 길을 가야한다. 그런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인턴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찾고 싶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건 각자 기준이 다른 거고, 사람마다 자기 속도가 있다. 적성과 진로를 찾는 것도 이것저것 해 봐야 알 수 있다. 나는 더 배우고 싶고, 세상을 알고 싶다.”

2/28. 삼선재단 청년인턴십 발표회에 다녀온 후.

2. 내가 만난 지역 (충남 홍성군 홍동면_갯골)

지역의 특징

내가 만난 지역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일대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주로 활동했던 곳은 홍동면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갯골’이었다. 갯골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갯골농업연구소, 밝맑도서관, 풀무학교 생협, 갯골 목공실, 전공부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을 처음 시도한 곳이며 현재 전국 최대의 오리농법 유기농 쌀 생산지가 되었다. 1975년 일본 애농회와의 교류 후 풀무학교 졸업생인 주형로 선생님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역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한다. 농약을 뿌리고, 대량으로 농사짓는 기존의 관행농업에 비해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은 손도 더 많이 가고 힘든 방법이었을 것이다. 논농사에 제초제를 뿌리는 대신 오리와 우렁이를 투입해 잡초와 해충을 막는 농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⁶⁾

6) 오리는 돌아다니면서 풀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해충을 잡아먹는다. 우렁이는 잡식성으로 해충과 잡초를 먹는다. 하지만 잡식성이라 해충뿐만이 아닌 다른 생물들도 잡아먹기 때문에 논 생태계에는 별로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필요한 것을 함께 시도하는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있다. 7)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지역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이 많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고민하고 실행한다. 중심 산업이 농업이다 보니 농업과 관련된 조합, 가공 및 판매 시설이 많은 편이다.

세 번째는 풀무학교가 지역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 단체 중 ‘풀무’자가 앞에 붙은 곳이 많은 것만 해도 그렇다. 우선 풀무신협은 풀무학교 졸업생과 교사들이 발족하여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금융업뿐 아니라 홍동천에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가꾸고, 미생물 사료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등의 지역에 도움 되는 일들도 하고 있다. 홍성풀무생협은 풀무학교 안에서 시작되어 지역으로 뻗어 나온 곳이다. 풀무소비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해 지역의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비슷한 이름이라 헷갈리긴 한데, 지금 풀무학교 생협이라 하면 갯골에 있는 매장을 말하고, 풀무생협은 먼 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문당리에 있는 사무실을 가리킨다.

이런 곳들이 생긴 데에는 학교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학교가 그 일을 했다기보다 풀무학교를 나온 사람들과 선생님들이 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지역 일을 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준 것은 풀무학교의 정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것들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더불어 사는 평민’이다. 하나님과 이웃과, 지역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평민을 기르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깨어난 평민이 이 사회를 지탱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에 대해 강조하는 점은 우리 학교와 같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니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환경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농사도 혼자서는 정말 힘든 일이니깐. 지역에서는 자연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정말 좋았다.

활동 이야기

3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4달 동안 홍동 갯골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고, 지역 곳곳을 돌아보았다. 나는 인턴십을 현장의 일을 한다기보단 단순히 경험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내 배움과 흥미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다닌 것 같다. 처음의 난 눈에 보이는 지역 단체들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사람들에 대해선 잘 보지 못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로 벽차서 주어지는 일을 단지 할 뿐이었다.

3월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마실이학교), 갯골생태농업연구소

3월엔 지역센터 마을활력소와 갯골 생태농업연구소에 있었다. 막 지역에 내려와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을 흡수하는 시기였다. 이때 단체에 대해 알 만하고, 익숙해질 즈음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그보다는 많은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지만.

7)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학교와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밀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비누를 만들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다. 생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시에도 농산물을 거래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을 도시와 직거래하는 풀무생협, 마을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동네마실방 뜰도 협동조합이다.



1층: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2층: 갯골생태농업연구소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갯골생태농업연구소

지역활력소는 지역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이 되고자 한다. 지역 소식들이 담긴 뉴스레터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공부하는 활동 ‘마실이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외부 손님들에게 지역을 안내하는 일도 한다. 지역 교육과 원예 사업 등 지역의 사업들은 지역활력소에서 논의되고 주관한다.

갯골농업연구소는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 만들어진 연구협동조합이다. 지역과 학교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의뢰하는 일,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곳이다. 지역의 수질, 토양 분석, 생태교육, 논 생물 조사, 유기농·밭 운영 등을 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조사하고, 자료화하여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역 이해하기

연구소 건물 1층에 지역활력소가 있다. 나는 일주일의 절반은 지역활력소, 절반은 연구소 일을 하면서 지냈다. 지역활력소에서는 마실이학교의 지역 자료 정리를 하고, 두 달 정도 마실이학교(공부 프로그램)를 다녔다. 마실이학교 공부 프로그램은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8강으로 진행되었고, 지역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 가이드에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지역의 모습과 단체를 익혔다. 설명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그곳의 의미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곳인지 감을 잡게 했다. 지역 자료 정리하면서 읽었던 내용들은 초반에 지역의 성향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실이학교를 다니고, 지역 가이드에 따라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 하지만 그곳의 의미와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몰랐던 만큼 나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지역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내가 미숙한 탓도 있지만 내가 아직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단체의 의미나 사람들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다.

또 한 가지 인턴십 기간 동안 내가 한 일은 지역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사화해서 지역센터 홈페이지 <마실 소식> 코너에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마실 소식>은 끝 부분에 부록으로 첨부했다.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글을 쓰면서 내가 한 활동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 좋았다. 지역에 와서 많은 것을 보았던 초기에 한꺼번에 많이 쓰고 그 후로 점점 뜸하게 썼던 것이 좀 아쉽기는 하다. 눈에 띄는 행사에 주로 주목했는데 일상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작은 일들도 소중하게 다룬 글도 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

연구소에서는 일본의 <현대농업>잡지 특집 제목을 우리말로 옮겨 정리하는 일을 했다. 현

장에서 급히 필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연결해서 일하게 해주셨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30년 정도 농업이 앞서 있어서 우리나라엔 없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 농업연구소니까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정리해 자료화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간이 좋았다. 원래 일본어 자체도 좋아했지만, 그것보다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작업을 하면서 공부에는 도움이 됐지만, 돌이켜보면 현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 사실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게 가장 큰 한계였다. 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것을 배우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깊이 있게 일하면서 내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족했다.

4월 -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밝맑도서관

일상 속에서 찾아온 권태기

4월엔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이하 마문연)와 밝맑도서관에 있었다. 이 시기는 단체에서 내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일상의 자잘한 일들에 별 의미를 못 느꼈었다. 가이드에 따라다니는 것처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히 흥미로운 일도, 행사도 없어서 3월에 비해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일상에 익숙해지다 보니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치열하게 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이곳에 있는 의미를 못 찾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때였다. 그때 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렇다면 그때 일이 아니라 사람을 봤으면 어땠을까? 내가 처음에 올 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었던 건 아닐 텐데... 그보다는 사람들의 모습과 얘기를 접하면서 내 미래를 그려보고 싶었던 것일 텐데, 라는 걸 나중에 현장멘토 쌤과 얘기를 하다가 깨닫게 됐다.

일에서 의미 있다, 없다를 가렸던 것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단체에서 하는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좀 더 즐겁게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나는 질문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편한 사람이라 내게 들어오는 정보만 소화하는 편이다.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하고 그 후부터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남의 생각은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야지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갈 것 같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는?



밝맑도서관(2층: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마문연에서는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각 마을들을 조사해 마을지를 발간한다. 마을지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다.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구술생애사도 진행중이며 지역소식을 담은 <지역과 학교>잡지도 발간한다. 위인의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상도 역사임을 알고, 그것을 기록하는 가족사 캠프도 준비중이다. 지역의 인문학 연구소로 지역의 자료들을 보관·보존하는 아카이브가 되길 바라는 곳이다.

밖밖도서관은?

밖밖도서관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야 한다, 농촌에도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풀무학교 설립자 이찬갑 선생님의 뜻에 공감하여 농촌의 평생학습을 위한 장소로 지어졌다. 전공부 수업,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좌들이 열리며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쓰인다. 농촌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도시의 방식만을 봐 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온 것이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왔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나 방식도 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지역의 협동조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은 아직 개관 전이라 기증 도서에 도장 찍고, 책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회원 분들께 보낼 리플렛 발송 작업도 도왔다. 도서관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열리는 강의들도 듣게 됐다. 백승중 선생님의 역사강좌나 홍순명 선생님의 농민교양국어, 도서관에서 하는 전공부 수업도 일하면서 틈틈이 들었다.

마문연은 도서관 2층에 있어서 마문연과 도서관 일을 같이 할 수 있었다. 마문연에서는 주로 녹취를 풀었다. 마을지 조사를 위한 개월마을 이장님 인터뷰와 구술생애사 기록을 위한 이승진 선생님 인터뷰, 풀무학교 오홍섭 선생님 인터뷰 녹취를 풀었다. 녹취를 풀면서 사람들이 살아온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역에서 살아온 분들의 얘기들을 통해 풀무학교와 지역에 대해서도 배웠고, 지역에 뿌리를 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백승중 선생님의 역사강좌에서 풀무학교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들었다. 풀무학교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했기에 지역으로 뻗어나간 협동조합들이 많다. 학교가 마을의 단체와 협동조합을 모두 만든 것이 아니라 풀무학교를 창업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활동하면서 이루어진 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갈라져 나와 각 단체들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 지역에서 빛을 발할 꿈을 꾸고 있다.

지역에서 꿈을 꾸자

그걸 들으면서 덕산이 생각났다. 간디학교도 지역과 함께 할 고민을 하면서 풍물장,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빵카페 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학교가 그걸 모두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늘면서 작목반, 취미로 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풀무처럼 지역에 있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지역에 스며들면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다.

또,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자기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실이학교에 다니는 지역의 몇몇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셨다. 풀무학교의 설립자인 이찬갑 선생님은 학교를 세울 1950년대 당시 이미 도시교육, 경쟁교육이 아닌 농촌교육, 다양성을 말씀하셨다. 지금 농촌 아이들은 농촌에 살면서도 자기 사는 곳에 나는 풀이름도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 농촌에서 나고 자랐지만 들일을 하지 않고, 학원에 다니며 도시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간디학교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있으니 지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려보고, 자기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농촌에 농업 외에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 심심하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농촌에도 농업 외에 다양한 일이 있고 원하는 일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역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대개 직업을 생각하면 도시에 있는 한정된 직업만을 생각하기 마련이

지만, 앞으로는 농촌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현실이 도시밖에 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몰려 살고, 몇 만개가 넘는 직업 중에 직업은 고작 열 몇 개밖에 떠올릴 수 없는 현실이 난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농촌하면 흔히 농업만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곳이 주는 선물인 것 같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든 동네마실방 ‘뜰’이나 연구소, 지역 먹거리와 빵을 판매하는 풀무학교생협, 전공부와 개인이 공동출자해 만든 갯골목공실 등 다양한 단체가 그 예가 되어준다. 물론 밀바탕은 농업이 중심이 되지만. 이곳에선 직업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해진 몇몇 직업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5월 -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 중간 정리

농사에 대한 생각의 변화

5월엔 열흘 간 전공부 체험을 하고, 한 주 동안 인턴십 중간 정리를 했다. 전공부에서는 지역과 농촌의 기반인 농업의 중요성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배웠다. 짧았지만 농업에 대한 생각과 내 몸이 그 전과 달라진 걸 느꼈다. 전에는 일하는 것이 그냥 힘들어서 농사를 멀리 했었다면, 전공부에 갔다 와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몸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게 됐다. 몸으로 일할 때 잡생각 없이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좋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조금은 느꼈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봐 온 엄마의 텃밭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태적인 삶, 대안적인 삶’이란 걸 전에는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면 현장에서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들이다. 학교에서는 그런 가치들을 강조하지만 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학교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학교에서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진정한 배움은 남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교 밖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

전공부는 어떤 곳?

풀무학교 고등부를 마치고 바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지역의 현장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2년제 전공과정인 만들어지게 되었다.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며 달마다 포럼을 열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전에 인문 수업, 오후에 농사 실습을 하며 농번기에는 한 달 동안 실습 주간으로 인문 수업 없이 하루 종일 실습을 한다. 식사, 원예, 축산 등 당번을 정해 학생 자치로 운영된다. 1학년은 논과 밭 등 농사 전반에 관련된 실습을 하며 흐름을 익히고, 2학년이 되면 논과 밭을 하나씩 맡아 관리하며 관심 있는 주제로 논문을 쓰며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기른다.

전공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생활해보니 전공부는 단순히 농사만을 배우는 학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농민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농업을 기반으로 삶을 전망하게 된다고 한다. 전공부를 창업하고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도 한다. 일반 대학은 고기(지식)를 던져주는 곳이지만, 전공부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한다. 인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공부를 창업(졸업)한 언니들이 전공부 오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전공부는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 아냐?’ 라고 생각해서 일단 나는 배제하고, 농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떠올렸다. 전공부에 다녀온 지금은 꼭 그렇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일하는 게 꽤나 즐겁고, 몸으로 일하는 건 힘들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나 수고가 드는 일인지 모른다면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또 하나, 인턴십을 오고부터 전공부 체험을 할 때까지 목요일마다 전공부 일본어 수업과 농부와 인문 수업을 같이 들었다. 3월엔 바빠서 수업까지 듣는데 좀 빠듯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농부와 인문 수업에서는 매주 생활글을 한 편 이상씩 써서 같이 읽고, 좋은 글을 같이 읽으며 생각을 나누는 수업이다. 일지와는 또 따로 생활글을 쓰면서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게 도움이 됐다. 이제 나는 ‘글’이라는 걸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이고, 글을 쓰면서 즐거우니까 그것만으로 좋다.

중간 정리

처음에 현장멘토 쌤이 3-4월은 지역 단체를 체험하고, 다음은 그 중에 해보고 싶은 곳을 정해서 깊이 해보라고 했었다. 나는 다양한 곳을 체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다음은 안 해본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난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 같다. 현장멘토인 형일 쌤은 내가 그동안 단체와 일 중심으로 지역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사정, 생각을 들어보면서 나를 전망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도구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고, 이때까지 해 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집에서 한 주 동안 하고 왔다. 지역 밖에서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근데 막상 가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 남에게 자극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 나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인 것 같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월- 인터뷰, 다시 연구소로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시작하기

6월에는 한 주 동안 인터뷰하고, 한 주 동안 인터뷰한 거 녹취를 풀면서 중간 중간 모내기나 밭일을 했다. 인터뷰를 하고 전과 다른 관점과 시선을 접하면서 신선한 자극도 받았다. 나에게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싶다고 느꼈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위로도 받았다. 하지만 더 이상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부족한 건 명확하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난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길이 생기겠지, 하고 편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경험이 의미 있을진 몰라도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금의 나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을 견디고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다. 전처럼 이것저것 하는 건 많은 것을 알게 해줄진 몰라도 깊이 알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끝으로 인턴십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 현장멘토 쌤은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인턴십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기간을 채우는 것보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인터뷰 하면서 접한 새로운 시선과 마음가짐을 갖고 깊이 있게 일해보고 싶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박 겉핥는 식으로 이것저것 했다면, 이번엔 좀 현장의 일을 제대로 하면서 일하는 자세를 배우고 싶어서 마지막 2주 동안 연구소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전에 듣던 강의나 전공부 수업도 빼기로 했다. 그것까지 듣는 건 내 욕심이었으니까. 중요한 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아니라, 지루하고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일상을 견디는 힘이다. 난 그걸 배우고 싶었다. 또, 일에서 의미 있다, 좋다, 나쁘다를 가리지 말고 그냥 일에 빠져서 충실하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전에는 연구소 소속이지만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편하도록 소속을 붙인 거였고, 연구소 일을 별로 하지 않았었다. 연구소에서 지금 시기에 바쁜 논 생물 조사를 도우면서 교육농장 밭일도 같이 하기로 했다.

농사에 대한 의미

논은 단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다. 논 생태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시선이 최근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논에 어떤 생물이 얼마나 사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논에 사는 생물이 논과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논 생물 조사를 통해서 연구한다. 지금은 양평의 관행 논과 유기 논⁸⁾의 생물상을 비교하고, 장곡 지정리의 축분 넣은 논과 안 넣은 논⁹⁾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다. 홍동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홍동천 생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나는 밭에 자라는 작물 이름도 잘 몰랐지만 일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예전에 간디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골에 있다는 것이었다. 자연 환경이 좋았고, 어렸을 때 자연이 좋다고 느꼈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자연 속에서 사는 것과 농사일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생명을 기르고, 먹거리를 수확하는 일이 농사고, 일을 하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농사를 멀리하다 보니 자연에서 사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것이 되었던 것 같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사일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고, 생명을 기르는 일이고, 땀 흘려 일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전에는 농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 와서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었다.

번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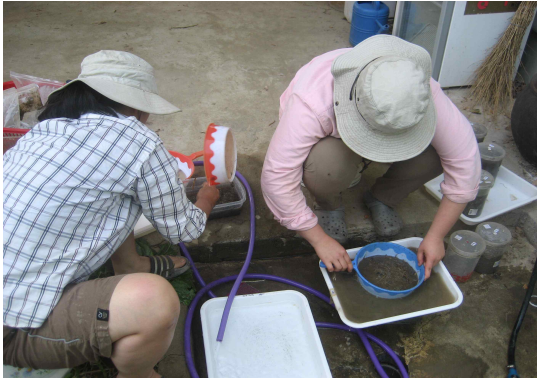
6월로 인턴 기간은 끝났지만, 연구소에서 하는 양평 논 생물 조사와 황새복원센터 조사 알바, 홍동에서 열린 한일 논생물 조사 교류회에도 참여하면서 그 동안 배운 것들을 연결해서 활동했다. 양평 논 생물 조사에서는 유기재배 논과 관행재배 논⁹⁾의 차이를 조사했다. 나는 6월과 7월, 2번을 같이 다녀왔다. 1m² 정량 조사⁸⁾와 퀴드라트⁹⁾ 조사, 산화환원전위 조사를 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관행 논에서는 긴꼬리 투구새우와 풍년새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둘 다 보기 드문 종인데, 관행 논에 많이 서식하는 걸 보니 농약을 친 논에서도 잘 사는 것 같다. 유기 논은 생물이 다양했고, 패충류가 많았다.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알고 싶어 한다.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것까지 알 순 없다고, 그냥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랫동안 관찰해서 이런 양상을 보인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확실하게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인문 쪽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론 지을 수 있지만, 과학은 검증되지 않으면 미루어 짐작해서 결론을 낼 수 없다.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한다고 한다. 조사할 때 옆에서 보조하고 기록하면서, 동정(생물 분류, 수 세기)

8) 어떤 생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 어떤 생물이 살고 있지만 조사하는 건 정성 조사라고 함.

9) 조사할 때 쓰는 네모난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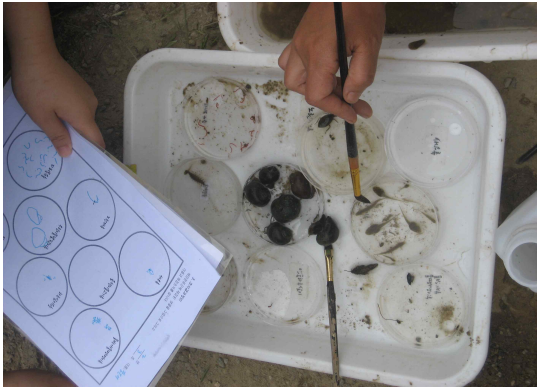


채집해 온 논 생물 표본 씻기

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황새복원센터에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예산군 광시면에 황새복원마을을 만들어 센터에서 관리 중인 황새를 방사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곳 논에 황새의 먹이가 되는 개구리, 개구리의 먹이가 되는 작은 생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올해 6회째인 한일 논 생물 조사 교류회에도 참여했다. 7/21-23일, 2박 3일 간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논 생물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



동정하기(분류)

진 흥동에서 열렸다. 흥동은 선두적인 곳이다. 유기농업이 처음 시작된 것만 해도 그렇고, 풀무학교도 그렇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정신이 멋있다. 풀무학교도 2-30년 전엔 지역에서 '똥통학교'로 불렸었고, 유기농업을 처음 시도하신 분도 미친 사람 취급 받았었다는데,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성과를 거뒀다.

교류회에서 생태계, 습지로서의 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 받았다. 생태학 쪽으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본어 공부도 더 해야겠다고 날 자극시켜 주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고마운 곳이다. 배운 걸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3. 지역 사람들에게 배우다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일하면서 눈에 보이는 단체나 기관보다 그곳의 사람들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갖고 왔던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일에 대한 생각, 그 속의 이야기를 들어야할 것 같았다. 같이 일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꼭 '인터뷰'를 해야 할까?, 라는 망설임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부족함을 채우고,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길을 찾고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 동안 지역에 있으면서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때보다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주리라 믿었다.

총 4명을 인터뷰하고 녹취를 풀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았다. 풀무학교 고등부와 전공부를 창업하고 각각 지역활력소와 갯골농업연구소에서 일하는 박푸른들, 권혜길 언니. 풀무학교를 창업하고 대학 진학 후 공동체 여행을 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도서관 일을 하는 김우인 언니, 초창기 산청간디 교사로 일했고 지금 갯골농업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배지현 선생님이 그들이다.

인터뷰 내용 중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과 와 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옮겨보았다. 질문 외에 진한 글씨는 내가 공감했던 부분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전공부에서의 배움

풀무 전공부는 지역에 있는 학교이고, 농업과 인문학 등을 가르치는 학교다. 언니들이 지역에서 일하기 전에 전공부를 나왔고, 나보다 앞서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생각으로 선택을 했고, 배웠는지 궁금했다.

• 전공부에서 배운 건 무엇인가요?

혜길언니 농업에 대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게 전공부에서 배운 가장 큰 배움인 것 같아. 내가 농대를 갔어도 아마 농업인의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거야. 농촌이든, 도시든, 세상 굴러가는 거든... 여긴 선생님들이 농민, 농부들이잖아.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농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 (...)

‘농업이란 일이 필요하구나,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은 먹고살아야 하니까 해야 되고, 이게 세상의 중심이네?’ 전공부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농업을 무시하고, 자기랑 상관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어? 이걸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건데’라고 느낀 게 가장 크고.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농업이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길 했을 때, ‘아, 나도 농업을 지원하는 일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렴풋이 생각했어.

• 전공부에 입학한 이유는?

혜길언니 첫 번째는 농사는 언제가 되었든 배워야겠구나,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농사를 배우고 싶었고. 고등부에서는 공부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어.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나는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 (...) 그러다가 풀무학교에서 하는 무교회 집회에 여름방학 때 가게 됐어. 거기서 배지현 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길 하셨거든. 선생님이 내 얘길 듣고 전공부의 정민철 쌤한테 한번 가보래. 갔더니 정쌤이 일반 대학은 고기, 일반 지식을 던져준대. 근데 전공부는 그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거야.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길 듣고 아, 그럼 평생 공부하려면 지식을 던져주는 곳보다 내가 지식을 잡는 법을 아는 게 먼저겠다 해서 전공부에 갈 마음을 먹게 된거지.

들언니 전공부를 간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할 때 계속 농업이란 게 끼어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나는 뭘 해도 자꾸만 난 농업하고 엮이겠다고 생각했었어. 그때 정말 막연했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를 도와서 밭일을 막 했어. 일을 하다가 문득 풀무생협(농산물직거래판매)을 보면서 무는 몇 그램 이상이 나가면 버리고 몇 그램 이하가 나가면 버리고 그 규격에 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무 하나가 규격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잖아. 왜 그렇게 되지? 하고 약간 의아한 마음이 있었어. 그럼 내가 이런 걸 좀 바꾸기 위해서 농업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농업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선 가공밖에 길이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농가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일단 농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런데 풀무생협 사람들이나 아이쿱(생협)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농민의 마음을 알겠어. 근데 나도 의미가 좋아서 거길 가

도 결국엔 똑같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농사 먼저 지어보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농사를 배울 거면 가까이에 있고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풀무전공부에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풀무전공부에 왔어. 그때 농업을 배워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각오가 결심이 딱 잡혀 있었잖아. 그런데 전공부에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농업이든 내가 글을 쓰던 인터뷰를 하던 뭐든 간에 그냥 그 **농민적인 가치 안에서만 한다면 다 농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애.** 그래서 무슨 일을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

길은 모두 이어져 있다

나는 사실 좀 불안했었다. 길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모르겠고, 좋아 하는 게 있어도 그 쪽으로 나가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다. ‘길을 못 찾으면 어찌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인턴십은 이곳을 선택했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저야 하니까 그만둘 수도 없었다. 중간에 그만두기도 싫었다. 기왕 한 거 끝까지 해보고 싶었다. 인턴십을 어디로 갈 지 정하던 그 시점에서 나는 내가 농촌으로 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곤 환경을 주제로 알아보리라 생각했었다. 근데 지역에서 배우고, 인턴이 끝난 지금 되돌아보니 내가 한 활동이 맨 처음 생각했던 주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다.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로 갔었다면 그 나름대로 배웠을 테지만, 여기서 받은 느낌과 소중한 것들은 얻지 못했을 거다. 오히려 농사일을 하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환경에 대해 더 와 닿는 게 많았다. 더럽혀지는 환경을 살리고자 애쓰는 것도 환경운동이지만, 농사를 짓거나 그것에 연관된 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농사를 배우면서 일을 하면서 그게 왜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들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농사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고, 그 중 어느 길을 선택해도 결국 하나로 이어질 것 같다. 일단 가다보니 길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걸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대학, 가야 할까요?

언니들은 (일반)대학(전공부는 일반 대학과는 다른 느낌이다)을 가지 않고 농촌에서 자기 삶을 전망하면서 일하며 배우고 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대학은 필수 코스가 되어버리고 도시에서의 삶이 보편적인 지금 시대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대안적인 삶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머리로는 아는 듯한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할 지 모르겠다. 학교에선 대학을 가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선 다른 길을 상상하기가 참 어렵다. ‘대학 안 가면 어찌게?’ 라는 주변의 시선과 말들도 무시하기 어렵다.

난 그전까지 대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접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대학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도 대학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얘기하곤 했지만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에 다들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도 좋겠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는 마음으로 가면 얻을 수 있는 건 없겠다고 생각했다.

직접 해 보는 게 중요해

우인언니는 대학을 좋아했다고 한다. “내가 다녔던 학과랑 내가 솔직히 잘 맞는다고도 생각을 잘 안했거든? 근데 대학 자체 분위기가 풀무학교랑 어울렸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가치관이랑 어긋나지 않아서 (좋았고). 전공 수업 이외에 교양 과목이 많았고, 수업이 되게 흥

미로워서 흥미가 확 붙었어.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양의 차원으로써 열심히 해보자 생각했어. 그러다보니까 여러 기회들이 주어지고... (중략)

대학도 자기한테 맞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건 되게 중요해. 그냥 말로 듣고 판단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자기가 경험을 해 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때 말하면 될 건데.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대학을 가서 오 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학교는 아무래도 비인가 대안학교라 그런지 학교 분위기가 학력에 대한 집착이 없는 편이다. 그렇다 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더라도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할 것 같다. 지금은 나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혜길언니는 과학 분야는 기본지식이 절실한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갈 수 있을 때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고 얘기했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상황은 다르니까 이해한다. 그런데 무조건 부정하는 게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다. 대학 말고, 다른 길을 찾고 싶다.

앞길이 불안하고 막연해

앞길이 불안한 건 지금 시기에 다들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어떻게 살지? 뭐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은 다 하는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같다.

• 길을 선택할 때 불안하지 않았나요?

들언니 엄청 불안했지. 전공부 다닐 때는 2학년 때 절반은 그 생각만 하면서 지나갔어. 그런데 결국 답을 내린 건 전공부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 전공부 때는 가슴 떨리는 일을 하자,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쭉 적어. 거기서 내가 가장 시간을 쏟고 싶은 게 뭔지, 가장 몰두하게 되는지를 봐. 그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해서 난 기록이나 정리 같은 걸 선택했던 거야.

근데 지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럼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세상엔 적성이란 건 없대. 왜냐면 지금 대학교 애들 다 학점 위주로 대학을 가고 있잖아. 그런데 개네들은 학점 위주로 그렇게 가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볼 때 세상엔 적성이란 건 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 일을 맡으면 그 일에서 또 자기 식대로 풀어 나간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연결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결국 내가 선생님이 적성인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자기 적성대로 풀어 나가는 것 같아.

우인언니 진로는 솔직히 대학 다닐 땐 고민을 안 했어. 뭐 하고 싶다는 생각도 거의 없었고.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걸 하자고 생각했어. 우연히 1년 동안 영국에 가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 봉사도 하고, 영어 학교에서 같이 영어도 배우고, 현지인들이랑 살면서 현지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 그냥 외국과 여행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여기 가면 공동체를 한번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인터뷰랑 이것

저것 준비해서 3학년이 시작될 때 바로 영국으로 갔어. 그때부터 대학에서는 배우지 못한 대안적인 사회를 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떼제 같은 공동체에도 가보고, 혼자 여행도 하기 시작했어. 그런 공동체를 다니면서 풀무에서 배웠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공동체나 생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고.

대학을 마치기 전에 공동체를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떠나. 한 달반 동안 공동체를 돌아봤는데, 그때까지는 공동체의 개별 조직들을 만나다가 그 때부터 네트워크, 큰 조직을 만나게 돼. 그 사람들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넓어지는 거야.

그땐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 그러니까 막 삶에 대한 자극을 받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연한 게 있지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상으로 들어오는 거야. (...) 그러면서 진짜 살아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 같아. 한국에 돌아가서 옛날에 막연했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 봐야겠구나,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나서 막연하진 않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걱정되거나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 자기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막연해 보이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조금씩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

우인언니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사람은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도 가지만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말에 공감이 가는데,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일이 엮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지만, 내가 이곳에 인턴십을 오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이고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걱정은 내려놓고, 조금씩 준비하기

배지현 쌤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준비를 했었다고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씩 공부를 했다.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조금씩 했다.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꿈을 가지고 노력을 조금씩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막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다는 느낌이 들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길이든 선택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한 선택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이곳 선생님들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과보단 과정이랄까.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 큰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난 당장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배우다 말았던 적이 많다. 짧은 시간에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집중을 잘 하는 편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은 쉽게 포기하곤 했다. 하나를 오랫동안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더 빨리 얻고 싶다는 욕심만 앞설 때 내 자신에게 ‘천천히, 깊이 있게, 제대로’ 하라고 제동을 걸어줘야겠다.

지역에서의 배움

어떤 일이라도 끝장을 보자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도 생각했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쏟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앞길이 안 보일 때, 꾸준히 조금씩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쌤이 그러셨다. 확실한 꿈이 없더라도 계속 붙잡고

하다 보면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긴다고 어딘가에서 들었다. 이번 인턴십도 확실한 꿈을 갖고 온 건 아니었지만, 어떤 게 중요하든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림이 조금은 보인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그 일에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할 테니까.

일 자체는 사실 즐겁지만은 않고, 대개 그 과정은 힘들다. 그렇지만 일의 의미를 보고 일한다는 것을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 당장 의미 없게 느껴지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견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가벼운 흥미만을 쫓아서 다닐 때는 쉽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일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흥미나 이익만 쫓을 수는 없다고, 공적으로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부모님, 학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 내 안에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함께 사는 세상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일과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 맞물려서 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걸 볼 때 지역은 자기만족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환경인 것 같다. 개인적인 도시와는 정반대다. 농촌 지역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다. 사람도 많지 않으니 오가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농사일만 해도 혼자 하기는 힘든, 같이 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일이다.

학교에서 더불어 행복한 사람, 생태적인 삶, 공동체를 자주 말하는데, 이 지역에선 그런 얘기들을 말로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철학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와 닿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도대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편하게 살면 살수록 지구 어딘가는 더럽혀지고,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한 누군가에게(남에게, 자연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는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짐을 덜기 위해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아직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몸을 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사는 데 익숙한 탓이다. 손가락만 쓰지 말고, 내 몸을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내 몸의 주인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니까.

천천히, 바보처럼, 꾸준하게

• 언니도 처음 일할 때 3개월은 스캔만 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들었네! 난 내가 스캔을 해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난 그게 어떤 결과물로 어떻게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시간을 내가 버텼느냐 못 버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중략) 난 그게 하나의 맥락이었던 것 같애. 내가 그때 스캔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역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때 지역 연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 녹취 푸는 것도 지역을 공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됐고. 마실이학교 공부 프로그램 하면서 도움이 되는 지점도 많았고.

배쌤! 일의 결과나 일의 조건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려서 나갈 것이다’ 예측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그 일을 보는 것 같아. (중략)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 있으면 의욕

이 확 나거든. 내가 논생물을 하고 있더라도 마실이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가 궁금하잖아. 알고 싶어서 거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일만 빨리 해 봤자, 어떻게 하는 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빵 만들 사람은 5년, 10년 간 그 일을 묵묵히 하면 아무리 느린 사람도 그걸 하게 되거든? 그렇게 자기 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이걸 어떻게 합니다, 를 아는 건 쓸모가 없는 거야.

당장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 6개월 엑기스만 빼 먹은 사람이랑 3년씩 한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건 똑같아. 3년씩 바보같이 있는 것.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 근데 그런 엑기스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경험하거나 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일상에서 의미를 찾자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버텨나, 를 묻는다면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고 버텨다.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한 거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단체와 그 일을 이해하진 못했다. 생각해보면 다양한 걸 배우고 싶어서 일상의 자잘한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건데, 실은 그런 일들도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의미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었는데 반복되는 일상 말고, 재밌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 같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있고, 아직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가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다.

배쌤이 말씀하셨다. 지루한 일상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자기 생각의 틀이 확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자기의 흥미만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늘 흔들리고 어떤 일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다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의미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에는 무의식중에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하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 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도 없을 거다. 사회에 나가면 분명 전보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겠지. 학교에선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 환경이었지만 그게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를 세워서 뭔가를 꾸준히 해서 목표를 이뤘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 단시간에 결과를 내고 스스로 뿌듯해하며 자기만족에 그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발전이 없다 해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걸 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말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해도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것을 배우고 싶다는 내 생각의 틀을 안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옆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나는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남은 인턴 기간 동안(2주) 한 곳에 몰두해 보기로 한 것이다.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배쌤이 말씀하신 ‘일상을 견디는 힘’, 그런 자세를 배우고 싶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전에 다양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 같다. 그래서 후회는 없고, 그것도 그냥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좀처럼 성과가 없는 지지부진한 시기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되는 때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기타를 배울 때 연습해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다가 그래도 계속하다보면 어느 순간 잘 풀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성장 곡선은 오르막이

아니라 계단식이라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흥미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건디는 힘이 필요하다. 계속 했을 때 어느 순간 반갑게 맞보는 성취감은 정말 짜릿하다. 원치 않는 공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입시 환경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학교처럼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학교에 바라는 것

꾸준히 노력해서 보람을 느껴보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학교에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유를 존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지만 뭔가를 꾸준히 해서 성취한다는 느낌은 그것에 비해 적었던 것 같다. 하나를 끝으려면 제일 컷던 게 논문이다. 하나를 깊이 있게(지금 생각하면 깊이는 없지만;)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게 논문이었다. 학교는 다양한 체험을 하기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렇지만 지루하더라도 한 가지를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은 부족한 것 같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것 말고,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면의 힘을 끌어올려주길

논문 말고도 학생 하나하나 제대로 봐 주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피드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믿어주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힘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인 학습,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혼자 하게끔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지점에서 도움을 주는 건 분명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 주는’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다.

나는 밖에서 배운 값진 것들이 많다. 학교에서는 그런 배움이 부족했다. 그래서 목말랐다.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보다 밖에서 배웠던 시간들이 좀 더 큰 울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언제나 현장에서 배우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울타리가 돼 준건 사실이기에 현장에 나가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외부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 자극이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꽤 있었다. 지금도 그렇고. 아직 나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하지만 받아들여서 안 좋은 결과는 거의 없었다. 나름대로 그 속에서 배웠다.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내 몫이지만, 나한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일단 책임감 있게, 끈기 있게 해야 얻는 것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든다.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괴로움

• 일하면서 기쁘거나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들언니 (지역사회를 공부하는 마실이학교 담당, 지역활력소 간사) 사람들이 지역을 공부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말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지. 그게 공부에서 비롯된 것일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마실이학교를 하면서 나도 공부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잖아.

혜길언니 (지역에서 의뢰하는 일,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갯골농업연구소 연구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줄 때. 내가 찾은 의미들이 있잖아. 그런 의미들을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공감 받지 못할 때 좀 외롭고, 슬플 때가 있

어. 그래서 내가 찾은 의미들을 사람들이 공감해준다고 느낄 때 기분이 좋지.

우인언니 (박람회서관 실무자, 고등부 영어 교사) 풀무학교 고등부 강의하는 것도 재밌어. 애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좋아. 내가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의)사소한 일들이 즐거운 것 같아.

배쌤 | 어떨 땐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즐겁지. 일을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해낼 때 좋고.

그럼 나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나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끝낼 때 보람이 있고, 공부도 내가 좋아서 할 땐 정말 즐겁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 기쁘다.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든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힘들었다.

반대로 힘들고 고비였던 때를 물었더니, ‘처음 지역에서 일할 때 자기에게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사람들하고 일할 때 안 맞는다는 걸 느낄 때. 인간관계,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들 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해도 안되는 게 있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 같이 일하면서 소통을 잘 풀어나가지 못할 때. 나는 일의 의미를 보고 일하는데, 공감을 못 받을 때 힘들고 외롭다.’ 고 얘기했다. 그런 때는 그냥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다.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고 싶다’는 방향을 지금 찾는 중이라서, 다른 사람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자세는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배쌤은 ‘일의 조건이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그냥 그 일에 푹 빠져서 하는 게 좋다.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일을 보고 일하라. 사람은 다 똑같기에 사람을 보고 일하면 일할 수가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 고 하셨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건 쓸모없다, 의미 없고 바보 같아 보여도 일상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 지점에서 굉장히 자극받았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중에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았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무엇을 더 깊이 해 봐야겠다’ 가 아니라 ‘저기가 궁금하네? 저길 봐야겠다’ 고 생각했으니까. 얕은 호기심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태도를 한곳에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나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었다.

우인언니는 지금도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삶을 통해서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왔겠지. 나는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공동체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 **진지한 건 좋지만 심각하게 자기를 괴롭히거나 이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진지한 문제도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가볍게, 즐겁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 가지 문제를 갖고 깊이 고민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지치거나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가치관이 긍정의 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은 들었습니다. ‘**떨 하던 이게 진짜 싫고, 이걸 선택한 게 후회된다, 그러기 보단 이걸 해 보고 싶고 좋아서 하고 싶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의 경우는 무엇을 선택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후회했던 적은 있다. 나도 좀 더 긍정적으로, 후회하기 보다는 그 후회할 만한 경험도 내 발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혜길언니는 ‘이렇게 대안적인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대안학교를 다녀도 길을 찾기는 참 어렵다. 대학 말고는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이 지역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다고, 그런 길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혼자 길을 개척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수 있는 현장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 그런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다. 언니들은 일하면서 동시에 공부할 수 있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도 하는데, 같이 살아가는 법을 살면서 배워가는 것 같다.

지역과 학교

지역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연결 지어 일을 하고 있다. 지역의 학교(전공부)와 현장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다. 개인이 풀어나가기 힘든 일들을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같이 해 왔다. 그 일을 해 나갈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음에 풀무학교 졸업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일을 했었고, 지역으로 나온 후에도 학교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곳도 꽤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곳도 있다.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지역의 현장에서 배우고, 학교가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자는 풀무의 정신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흘러 경험과 역량이 축적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겠지. 여기만 특별한 곳이 아니라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만들어내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다. 다만, 이 지역은 오랜 시간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단시간에 딱딱 만들어진 것에는 감동과 깊이가 없다. 빨리 결과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지역에 머물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생기고 인터뷰를 하고 보니 단체의 일보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더 크다는 게 분명해졌다. 지역에서 관계 맺고, 자리 잡고, 일하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에 인턴 4개월은 짧았다. 난 속성 과정을 한 거겠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듣지 못한 속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면서 자극받게 되었다. 그 전까진 흥미 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의미 있는 일만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젠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이렇게 받은 게 많은데 난 도대체 도움이 된 게 있을까, 좀 되돌려주는 것이 있었음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인터뷰 한 사람들은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힘들 때 곁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했다. 이곳으로 오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서, 계획했던 걸 뒤엎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인터뷰는 하지 않았지만, 4달 동안 신세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최은미 선생님, 인턴십 현장멘토로 옆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형일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하다. 각자의 현장에서 인턴십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어렵겠지만 학생을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있어도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등을 탁 쳐줄 수 있는 사람 말이다. 학교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도움 받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내 인턴십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상당히 큰 의지가 됐다. 그때 솔직하게 내 심정과 상태를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문제가 있을 때 툭 털어놓고 얘기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상황은

나아진다.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의 이해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인턴십의 의미를 찾는 게 인턴십이라 하지만, 혼자 의미를 찾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현장에서 혼자 해결해야 할 몫이 커지는 게 인턴십이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앞으로 나아가기

이 챕터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화두에 대한 결론이다.

나 자신과 똑바로 마주보기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많이 자극받았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봤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알게 되니 신선하고 새로웠다. 내 생각의 틀을 깨닫게 되었고, 좀 바꿔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 불안하고 막연한 것은 당연한 고민임을 알고 나서 조금 위로 받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느꼈다. 이때까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나 혼자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습관인 것 같다. 나의 문제를 똑바로 마주보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어떤 것도 결심하지 못했나? 그전에는 학교와 부모님이 제시하는 대로, 추천하는 대로 따라갔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도 어찌면 다 내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더 이상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믿고 살아온 걸지도. 주사위에 한 면만 보고 산 것이 아닌가, 다른 면을 생각하긴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학교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제 선택하는 건 내 몫이다.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접했다면, 이제는 내 주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 다른 관점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만나고 싶다. 내 발이 가는 곳이 나를 좌우한다.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는 알 수 없다. 내가 생각한 것들도 지역에서 배운 것들이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했을 테니까 내 생각에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을 아쉬워하기보단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겠어?

가고 싶은 길

처음에 지역에서 인턴십을 하겠다고 오면서도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았었다. 전엔 내 앞길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때가 때인지라 좀 더 고민해보게 되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곳에서 어렵듯하게나마 그 길을 찾은 것 같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곳이더라도 학교와 현장, 두 갈래 길이 있다.

졸업하고 어느 학교를 택한다면, 전공부에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내가 농사지으면서 살 것도 아닌데...’ 하면서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 생태나 환경 쪽에도 관심이 있고, 농촌에서 농업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 지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현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부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를 배우고 싶다.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전공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자연이 좋다는 생각도 한몫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은 안했지만, 산으로 들로 그리고 엄마 따라 밭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했던 것 같고 그런 환경이 좋았던 것 같다. 간디학교 지원서를 쓸 때도 나는 자연

이 좋다고 그래서 학교에 오고 싶었다고 썼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난 생태적이고 자연을 지키는 그런 일에 관심을 쏟기에는 스스로의 문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논문 주제가 자연주의 시각으로 본 평론이었던 것도 그 무의식적인 생각이 작용한 것 아닐까? 자연이 좋은 건 편안해서인 것 같다. 아직도 일하는 건 힘들고 좋지만은 않다. 그래도 생명의 신비, 일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농사까지 ‘자연’ 그 전부를 좋아해보자고 생각했다. 머리로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하면서 생명을 보살피면서 느껴보자. 인턴이 끝나고 논 생물 조사를 같이 하면서, 집 밖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다.

또 하나는, 전에는 호기심으로 지역이나 단체를 접근했었다면 이제 한눈팔지 말고 한곳에서 일에 집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 뿌리가 되는 간디학교가 있는 덕산이든 이곳이든 지역과 관계 맺으며 살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을 좀 더 살기 좋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생태·환경에 관심 가지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다.

일반 대학은 현재는 가고 싶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찾지 못해서 가지는 않을 거다. 전에는 대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접해서 나 자신도 탐탁찮게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골똘히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한 듯이 대학에 가야한다는 대부분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혼자 떨어지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데 남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찾아보면 이런 길을 택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 말을 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당당하게, 스스로 떳떳하게, 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때 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은 해도 사실 겁도 나고, 주변의 시선에 아직 떳떳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결심했으니 쉽게 포기하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울테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난 어느 길을 택하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괜히 선택했다는 후회는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선택을 한 직후에 하는 건 너무 이를 것이다. 또, 이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느낀 건 처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어도 관심이 없었어도 내가 직접 부딪혀서 배운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 지식보다 더 값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몸으로 부딪히면서 깊이 배워가고 싶다.

나는 아직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지만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내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결심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한 대로 가보자. 확신이 없어도 가다 보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릴 거라고 믿고. 가보기 전에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지는 말아야겠다.

부록; 인턴일지 밑줄긋기☆

3/16. 이곳에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 해야 한다. 농촌 마을은 그런 점이 다르다고 형일 쌤이 말하셨다.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정말 멋진 분들이다. 나도 이 마을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3/17. <현대농업>이라는 일본의 농업 잡지를 번역·정리했다. 목차를 번역하다가 나의 실력에 한계와 좌절을 느끼고는 결국 특집 제목부터 차근차근 하기로 마음먹었다. /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한다. 이곳의 젊은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희망임을 느낀다.

3/19. 연구소에서 일하는 언니들과 친해져서 얘기도 많이 나눴다. 도움 될 만한 얘기도 많이

듣고, 낯선 곳에 있어 외로웠던 마음도 좀 가라앉았다. 인턴십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좋다.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운다면 크게 성장해서 학교로 돌아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3/21. 농민교양강좌 시간에는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메슬로우’의 이론에 대해 얘기했다.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의 17가지 모습을 읽으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냐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며 살아야겠다.

3/23. 감자씨는 묵은 감자라고 토막토막 자른 감자를 석회가루에 묻혀서 심었다. 4평짜리 두 고랑을 혼자 심었다. 오랜만에 일하니 몸에서 빼그덕 소리가 난다. 그래도 재밌었다. 몸을 써서 일하는 즐거움이란 이런 걸까?

3/24. 전공부 글쓰기 수업을 들었다. 작년 한 해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니, 글을 참 많이 썼다. 신문부에서 라디오 방송까지. 거의 매일 글을 썼다. 그러면서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열심히 적어볼란다. ... 사람들이 써온 글을 같이 봤는데 얕은 글도 있고, 심오한 글도 있었다. 글에는 그 사람이 나타나 있어서 각기 다른 그 사람 고유의 느낌이 있다. 그런 점이 신기하고, 또 그래서 재미있다. 글은 쉽게 솔직하게 써야 좋은 글이었는데, 내 글은 어떤지 궁금했다. 뭘 쓰든 편하게 쓰고 싶다.

잘 쓴다는 게 뭘까? 의문이 들었다. 쉽게 읽히는 글이 잘 쓴 글이라고 한다. 그런 글은 읽으면 영상이 펼쳐진다. 인상적인 수업이었다.

3/28. ‘감정은 내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 속 스승에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얻게 된다’

3/30. 마음을 편히 하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자.

3/31. 시란 거창하고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솔직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다.

‘글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써봐라.’

낯선 곳에 있으니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같이 있을 땐 서로가 소중한 걸 잘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니 깨닫게 된다. 몸이 멀리 있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또 아닌가보다.

잠시나마 바깥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니, 그 순간이 너무나도 즐겁다. 내 템포로 천천히 가자. 여긴 회사가 아니니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점이 좋다.

4/2. 무심히 그냥 지나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곳에도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다. 그곳엔 아주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은 인간만이 아니니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와 닿는다.

4/5. 계속해서 녹취를 풀고 있다. 백승중 선생님이 말하길, 몇 십 년후엔 사라질지 모르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 이 자료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세상에 남는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셨다.

4/6.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해 왜 그런지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4/7. 정말 나는 5년 동안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학교는 뭐든 해볼 수 있는 자유로운 온실 안이었구나 하고. 난 학교가 여러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그만큼 난, 학교 밖에서 얻은 것들이 많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니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아보고, 계속 생각하고, 질문도 하자.

4/15.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잘한 일이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사소한 일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다. ‘일’이란 게 다 즐거울 순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야만 하겠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며 사는 사람들도 일 자체가 다 즐겁진 않다

고 하니까.

4/18. '일어서기 위해 넘어지고, 이기기 위해 패하고 깨기 위해 잠들었다.'

4/20.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4/27.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나부터 내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것 같다.

5/1. 지역을 깊이 있게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겉이 아닌 내부를 깊이 알 수 있어야 한다.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나 자신이 성장하려면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영원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단체와 그곳에서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 사람들과 깊이 얘기 나누면서 알아가는 것. 좀 더 치열하게 살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릴 것. 항상 생각하며 질문할 것. 내 한계를 인정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5/18. 전공부 장길섭 쌤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 재앙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냐고. 자기가 먹는 쌀을 자급하는 농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농부는 회사원이 아니기에 윗사람이 시켜서 농사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하고 싶은 대로 농사지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5/19. 전공부에서는 일하는 법은 물론이고,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즐거움을 배운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도 함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5/22. 어떤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 생각 등이 중요한 것이다.

'대안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꼭 '대안'이란 말로 묶고 싶지 않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걸까' 라는 질문을 하는 과정이 인턴십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5/30. '힘들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단체에서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고, 해석하지 못했다. 그 핵심을 읽어내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체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5/31. 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해 본다.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머리로만 알던 걸 실제로 체험하면서 추상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같다.

6/1. 무언가 막히는 게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6/8. 녹취를 풀다 보면 인터뷰할 땐 못 느꼈던 생각도 든다.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좋다. 녹취를 풀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3-4시간씩 몰입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던 도움이 되겠다는 거다.

부록2: 생활글

4/25.

배움의 길

김수영이 말하길 시는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 한다. 머리로, 가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 한다. 그것을 읽고 박노해 시인의 시가 떠올랐다. 그분도 시에서 '사람의 중심은 머리도, 가슴도 아닌 발바닥'이라고 했다. '생각은 너무 빨리 바뀌고, 가슴도 너무 빨리 식는다.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며 내가 가는 곳이 내 생각을 좌우한다고 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배웠다. 생태적인 삶, 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사람 ...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밖에 나오면 숨가쁘게 돌아가고, 소중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자유로웠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편안했던 것 같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학교가 고맙다. 학교 안에서의 배움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배움의 공간은 학교뿐만이 아니었다. 인권과 나눔, 생명, 평화, 공동체 ... 추상적인 느낌이었던 가치들은 학교 밖에서 제대로 배웠던 것 같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 아무리 말하고 같이 얘기해본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배운 게 아니다.

이 지역에 와서 느끼는 게 많다. 지역에서, 농촌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구나, 여느 농촌과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직업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는구나.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으로 돌아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긴 지역에 남아서 일한다는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겠지. 나도 사실 농촌에서 일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었으니까. 농촌에서는 다양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배우면서 희망이 생긴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길은 하나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 내 길을 찾고 싶다. 그 길에는 언제나 배움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부록3; 마실 소식 (지역센터 홈페이지 올렸던 글)

트랙터 마차 타고 동네 투어~

3/22 화요일 오후. 흥동 지역을 둘러보러 강원도 소금강 마을의 주민 분들이 견학을 오셨습니다. 흥성 환경농업교육관에서 지역과 유기농업에 관한 주형로 샘의 강의를 듣고, 동네를 견학하러 밖으로 나오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트랙터 마차를 타고 지역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약 40명 정도. 트랙터 두 대에 10명씩 두 번 운행한다고 합니다. '트랙터에 어떻게 열 명이 탄다는 거지? 좁지 않을까?' 생각하던 저에게 트랙터 마차가 손짓합니다. 트랙터 마차를 보곤 빵 터지고 말았지요. 트랙터에 10명쯤 탈수 있게 짐칸을 연결해 놓은 마차(?)입니다. 양쪽으로 나 트랙터 마차다 하고 플랜카드까지 붙어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아... 이런 트랙터 마차에 타게 된다니 영광입니다.

지역 견학을 오신 분들에게 지역을 안내하는 일은 마실이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트랙터 마차와 함께 지역을 안내해 줄 분은 마실이학교 담당 푸른들 언니와 친환경작목회의 재혁 쌤입니다. 저는 푸른들 언니 쪽에 붙어서 줄레줄레 따라다녔어요^^

트랙터를 타고 갯골 생태농업 연구소에 내려 연구소와 마을활력소를 안내하고, 풀무 전공부를 돌아 갯골목공소 쪽으로 내려왔어요. 두 번째 팀이 갔을 때 갯골목공소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공소에서는 가정에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고, 흥동초등학교, 장애인들에게 목공교실도 연다고 합니다. 유심히 둘러보던 어떤 분께서는 맘에 드시는지 우리 지역에 와서 목공 가르쳐 줄 분이 없느냐고 물기도 하셨답니다.

그 다음은 가까이 있는 풀무학교 생협까지 걸어가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와 빵을 판매하는 생협과 함께 그물코 출판사, 느티나무 헌책방을 둘러봤어요. 느티나무 헌책방은 지역 주민이 일하다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졌는데, 외지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답니다. 몇 분은 마을책과 책받침을 사 갖고 가셨어요. 다시 트랙터를 타고 풀무생협과 미생이세상을 지나쳐, 출발지인 흥성 환경농업교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팀당 1시간 반의 일정으로 갯골을 중심으로 지역을 돌아보았는데요. 마을을 오가며 보았던 낯익은 곳들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들으니 새로웠고, 흥동 지역 마을책에서 본 단체들도 직접 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날이 춥긴 했지만, 길이 험할 때마다 심하게 튀어오르는 트랙터를 타고 달리며 상쾌한 바람을 즐겼습니다. 할아버지 몇 분은 바람막이용으로 플랜카드를 얼굴에 둘둘 싸매고, 한 마디 하십니다. '내가 지금 별 받고 있나보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다' '평생 잊지 못할 거다' 하하하~ 춥지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 다들 즐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트랙터를 타고 바람을 헤치는 힘든 투어 일정을 소화해낸 지역 안내자 두 분과 견학 오신 손님 분들, 바람 속을 뚫고 트랙터 마차를 운전하신 문당리 지역 주민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인도 속의 인턴

INTERN 'IN' INDIA

'I Learned life in intern'
인턴 안에서 삶을 배웠다.



Bong bong

— 목차

1. 인턴십 준비... 시작 !!

- 1-1. 봉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
- 1-2.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
- 1-3. 생명누리 공동체(인도<해외>)를 선택하게 된 이유.
- 1-4. 생명누리에 가기전의 준비과정.

2. 생명 누리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

- 2-1. 생명누리의 뜻과 목적과 이상
- 2-2. 인원 (인도지부)
- 2-3. 생명누리에서 사업 진행 중인 곳
- 2-4. 공동체 생활

3. 내가 담당할 일들

- 3-1. 담당 부서(아동 결연부, 총무부(빵))
- 3-2. 암베드카 마을 담당
 - 3-2-1. 이브닝 클래스
- 3-3. 대략적인 일과
 - 3-3-1. 일과 세부 설명
- 3-4. 인턴십으로 간 생명누리 공동체 안에서의 내 위치

4. 인턴십.. 만만치 않군(힘들었던 점)

- 4-1. 언어 소통 문제
- 4-2. 공동체
- 4-3. 예배(종교의 문제)
- 4-4. 생활 적응의 문제(기후, 음식 등)
- 4-5. 집안일
- 4-6. 비자에 의한 생활 장소 문제

5. 인턴 후...(느낀 점)

- 5-1. 인도의 아이들과 만남.
- 5-2. 4개월간의 지나간 인턴을 마친 직후
- 5-3. 자원봉사자들의 생활
- 5-4. 인턴십을 통한 나의 성장

<부록>

- 인턴십이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인턴을 통한 경험 - 미래의 연관성)

- 첨부

- 자원봉사자 인터뷰
- 활동 일지

1. 인턴십 준비... 시작 !

1-1. 봉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

4학년 때 까지만 해도 나는 완전히 개인주의를 선호했다. 봉사라면 질색이고 왜 그런 활동을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 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4학년, 5학년에 필수로 해야 하는 무빙 스쿨을 다니며 하고 싶던 활동과는 다르게 썩 내키지 않는 봉사 활동들을 했고, 그 외에도 사회 운동가이신 어머니를 따라 한번 썩 봉사를 가는 활동을 통해 나에게 봉사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봉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며 행복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남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한 것이다. 나에게서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내가 봉사를 선택하게 된 것에 크게 작용하게 된 듯하다.

내가 개인주의임에 따라서 한 번도 내가 직접 계획해서 봉사를 해본 적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직접 계획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더라도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직접 계획해서 하는 봉사는 성취감이 있고 그냥 따라가서 하는 봉사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그저 남을 따라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봉사 단체와 contact하고 내가 직접 계획해서 해보고 싶어져 봉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1-2.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

-인턴십 전-

봉사는 풍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퍼주는 것이지만, 그 주고받는 위치는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봉사자들이 자신의 돈, 시간, 노력 등을 소비해서 그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이고 더 낮고 높은 사람은 없기에 동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사실 인턴십 전에는 봉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인턴십 후-

봉사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풍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에 대한 내 견해는 약간 다르다. 봉사를 하는 것은 자원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봉사는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는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돈, 시간, 노력 등을 소비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 같다. 자신의 마음과 어느 곳에서라도 하지 못할 경험을 얻으려면 그에 마땅한 대가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마다 소비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다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봉사를 통해 얻는 어떠한 것(행복한 마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이런 소비보다 훨씬 큰 대가인 것이다.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기에, 이런 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을 잘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남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자화자찬으로 뽐 낼 수야 있겠지만 말이다.

봉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받들어 섬기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을 뜻하는데, 남을 돕는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공존을 해야 한다. 한사람 썩 이렇게 연결되어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떨쳐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연결되어있는 것이기에, 그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나’ 만큼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나와 공존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나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나는 정말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사실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별로 관심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에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나’를 위한 것이다.

1-3. 생명누리 공동체(인도<해외>)를 선택하게 된 이유

한국에서 하는 봉사는 그저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생명누리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 교육과 먹을 것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서비스 한다는 것은 일반 봉사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생명누리 공동체가 다른 NGO와 다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1가지. 단순한 생계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우리가 생각하기에)들이 생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적인 독립을 위한 국제 NGO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특별해 보였고, 나도 그런 일에 보탬이 되고 싶어 굳이 멀리 인도에 있는 생명누리 공동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나’를 위해서 이다. 현재까지 살아온 나는 아무런 걱정과 고생을 전혀 해보지 않은 것 같기에 나를 한 번 채찍질 하고 싶어 인도를 선택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살았던 나는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차라리 한번 고생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속된말로 ‘사서 고생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생을 사서 배움을 얻는 것이 내 생각이기에, 일부러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갔던 이유가 크다. 그리고 대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의 삶이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어 나가게 되었다. 한국 안에서만 살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1-4. 생명누리에 가기 전의 준비과정

인턴십을 시작하기 바로 전 방학 시작 후에는 인도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매일 매일의 시간을 영어와 함께 보냈다. 영어와 친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이 과정이 힘든 축에 속했는데, 인도에 있던 시간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때만 해도 나는 인도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 밖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인도 안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제일 중요한 인턴 준비기간의 마지막 시간인 방학은 영어와 함께 보낸 것이다.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크게 나열하자면

(인턴십 주제 생성 - 주제에 따른 단체 조사 - 단체와의 접촉)

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인 ‘인턴십 주제 생성’은 쉽게 내가 원하는 것(봉사)을 찾아서 완료하게 되었고, 두 번째 ‘단체 조사’에서 애를 먹었다. 봉사 쪽의 단체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하여 몇몇 단체에 접촉을 시도해봤는데, 나이 제한으로 원서조차 내지 못하고 거절당한 곳 까지 있다. 이 과정에서 짧으면 2주~3주 길면 1달이 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2주 만에 ‘생명누리공동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자기소개서와 해외자원봉사자 지원서를 써서

순조롭게 면접까지 가게 되었다.

처음 생명누리 관계자들을 볼 때, 다들 좋은 분위기를 엄청나게 풍겼지만, 이 단체마저 나를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겁이 났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면접에 붙은 후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생명누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고 생명누리에 가서 대충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를 언급 받았다. 그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생명누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하는 곳의 현지인 중에서는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영어에 자신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나로서는 김빠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생명누리에 대한 환상이 약간씩 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근히 인도로 출발하기 전 나를 속 썩였던 인도의 비자 문제가 있었다. 2010년부터 인도의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간도 짧아져서 관광 비자로는 인도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지 못하고 학생 비자로는 1년 동안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자인 만큼 준비 서류도 여러 가지가 된다. 내가 준비하기 힘든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 인도 출발 2주일 전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 입국이 늦춰질 수도 있었기에 내 출발이 순조로웠다고는 볼 수 없다.

2. 생명 누리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 ?

2-1. 생명누리의 뜻과 목적과 이상

생명누리란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는 세상이란 뜻으로 본래의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생명누리공동체는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양성해내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생명농업을 하는 국제적으로 일으켜가려고 하는 국제 NGO이다.

◆생명누리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일

1. 지도자 양성

인도에서 가난하고 천하게 태어난 인도의 아이들(불가촉천민, 고아들)을 훈련시켜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해 나갈 지도자를 키우는 사업.

*마을계발을 위해 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필요한 것은 그 마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좋은 마을이라도 지도자가 없는 마을은 계발을 하기가 힘들기에 지도자 양성은 마을 계발에 꼭 필요한 것이다.

2. 생태적 마을공동체 건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을계발사업.

*생명누리의 주된 목표는 마을이 자립적으로 성장하고 계발하여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퍼주기만 하는 도움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일어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3. 생명을 살리는 생명농업

죽어가는 땅과 자연을 살리는 바른 농업 사업

*생명과 자연을 생각하는 생명누리가 중요시 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무농약으로 마을 안에서 자체적인 농장을 운영한다. 작은 곤충 하나하나 생명으로 생각하는 생명누리는 무 농

약이 사람을 살리고 지구도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며 생명 농업을 하는 농장을 마을 안에서 운영한다.

2-2. 인원 (인도지부)

지부장님 - 인도 지부의 총 책임자

부지부장님 - 지부장님의 보조

지부를 담당해서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은 2명밖에 없고 그 외는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자원봉사자 - 평균 20명 정도 있음

2-3. 생명누리에서 사업 진행 중인 곳

총 4개의 마을 - (깔루루, 마넴빨리, 베바나 할리, 암베드카)

이 마을들은 인도에 있는 벵갈로르에서 북쪽으로 차로 약 3시간이 걸리는 힌두푸르란 지역에 속해있는 곳이다.

1. 이브닝 클래스

- 이브닝 클래스는 생명누리 자원봉사자로 오게 되면 꼭 맡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마을 계발 사업의 주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생명누리의 마을 계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은 모두 이브닝 클래스를 진행 중이다.

이브닝 클래스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의 교육의 질과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브닝 클래스는 그 것을 보충하려는 의도와 함께 마을의 자라나는 새싹들을 마을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이브닝 클래스 편을 참조*

2. 생명 농업(보고서 내용 중 포함)

=====

- 깔루루

1. 이브닝 클래스

2. 생명 농업

생명누리에서 가장 사업이 활성화 된 마을로, 위의 기본 적인 사업 외에도 'Self help 그룹 컴퓨터 클래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원봉사자 투입 인원 : 총 8명

- 마넴빨리

1. 이브닝 클래스

2. 생명 농업

자원봉사자 투입 인원 : 총 5명

마넴빨리는 생명누리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 된 장소이다.

- 베바나 할리

1. 이브닝 클래스

자원봉사자 투입 인원 : 총 2명

베바나 할리는 암베드카 나가르와 비슷하게 마을 센터가 없어서 학교의 장소를 빌려서 수업을 한다.

=====

- 암베드카 마을 <내가 담당할 마을>

자원봉사자 투입 인원 : 총 2명

1. 이브닝 클래스

생명누리의 지부장님의 말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에 끼여있지 못한 불가촉천민(불가촉천민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우리 마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다고 함)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인구 수는, 마을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서 측정하기 힘들지만 대략 5천명~1만명 정도로 그렇게 작은 마을은 아닌 듯하다. 학교도 총 3개, 교회도 약 3~4개가 자리잡고있다. 마을 사람들의 직업은 95%가 비정규 일당 노동자이고 나머지 5%가 백수이거나 선생님, 장사꾼이라 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종교가 힌두교가 50%, 기독교가 50% 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불가촉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에 카스트제도에서 자유로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생명누리에서 이 마을을 마을 계발 사업 대상으로 삼은 것이 올해(2011) 2월 중순 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명누리에 갔을 때는 생명누리가 하는 사업들이 모두 초기라서 정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

2-4. 공동체 생활

생명누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삶,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생명과 평화 사상과 더불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다. 매주 생활 나눔(가족회의와 비슷함)을 일요일 밤마다 한 번씩 하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좋은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내가 담당할 일들

3-1. 담당 부서

(아동 결연부, 총무부‘뺑’)

아동 결연부

◆아동결연부란 ? : 아동결연부는 생명누리의 운영자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결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아동결연이란 ? : 아이들을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과 일 대 일로 연결시켜서 후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후원자들은 후원을 한 아동의 정보를 매년 2번 이상 받게 되어 있어서 그저 후원만 하는 일반 적인 기부와는 다르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시킨다. 그리고 이 아동결연사업이 거의 모든 NGO 단체들의 운영자금을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라 생명누리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 하나이다.

- 기존 아동 결연 아동 관리

> 내가 맡았던 마을은 올해(2011-2)부터 생명누리의 혜택을 받기 시작한 마을이라서 기존 아동 결연에 포함되 있던 학생들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아동결연부로서 해야 할 기존 아동 결연 아동 관리에 관해서는 전혀 할 일이 없었다.

- 신규 아동 정리, 관리, 추가

> 기존 아동 결연 아동이 없는 관계로 내가 주력해야 할 일은 신규 아동의 아동 결연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주로 해야 할 일은 생명누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상 정보를 조사한다. 그 조사한 정보를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 있는 인도에 후원하길 원하는 후원자와 연결을 시켜준다. -여기서 약간의 모순이 생기는데, 후원자가 보내준 돈이 바로 그 후원자와 결연된 아동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누리에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후원이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긴 하지만 여러 사업으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접적으로 돈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은 후원자와 결연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그 다음 지속적으로 그 아동들의 건강 상태 체크, 지속적인 사진 촬영 등으로 후원자들에게 보낼 자료들을 관리하게 된다.

- Scholarship 제도 도입

위에서 말한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혜택이 가지 않고 간접적인 혜택만이 아동들에게 제공 되는 것' 을 바꾸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바로 'Scholarship 제도' 이다. 아동 결연 아동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간접적인 혜택이 아닌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매월 후원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아동 결연 아이들의 통장을 개설하여 넣어주는 것이다. 하나의 메인 통장을 개설하여 그 안에서 아동 결연 아동들의 통장을 개개인으로 개설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은행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다. Identity card 라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인도의 신분증이다. 인턴 기간이 끝나기 2주 전에 준비되기 시작했던 제도라서 이 안에서 나의 역할은, 내가 맡은 마을의 아동 결연 아이들의 Identity card의 복사본을 받는 것과, 그 전에 Scholarship 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했다.

총무부

생활과 아이들의 영양에 관련된 Bun 을 담당함 (재정, 주문, 관리) - (활동 내용 첨부 파일 참고)

생명누리의 마을을 자치적으로 살리기 위한 일들에도 단계가 당연히 있는 법이다. 일단 필요로 필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다. 마을마다 생활수준이 조금 다르지만, 생활수준이 정말로 심각한 곳은 생명누리에서 아이들을 위해 가져가는 빵을 주식으로 삼는 가족도 있다. 그래서 매일 마을에 들어갈 빵과 자원 봉사자들이 아침마다 먹는 빵 한 봉지(24개입)를 관리하고 주문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것과 같이 예산 신청, 결산 등의 업무를 보고 매일 가져가는 빵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주문하는 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빵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빵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빵을 못 먹을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un 을 혼자 담당하는 것의 부담이 만만하진 않았다.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스쿠터를 타고 빵을 배달하는 등의 힘듦도 감수해야만 했다.

3-2. 암베드카 마을 담당

- 매일 사진 정리와 일지 작성

생명누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내가 하는 활동들은 모두 다 기록되어야 했다. 생활일지는 쓰지 않고 이브닝 클래스와 관련된 일지와 사진들만 정리하는 것이었기에, 딱히 힘든 점은 없었다.

- 월말 마다 월말보고서(월간기획서, 월간계획서, 기안서, 결산서, 월간보고서, 회의록)작성

3-2-1. 이브닝 클래스

이브닝 클래스는 생명누리 자원봉사자로 오게 되면 꼭 맡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마을 계발 사업의 주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생명누리의 마을 계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은 모두 이브닝 클래스를 진행 중이다.

이브닝 클래스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의 교육의 질과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브닝 클래스는 그 것을 보충하려는 의도와 함께 마을의 자라나는 새싹들을 마을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브닝 클래스를 진행 방식은 마을마다 각각 다른데, 기본 적으로 일주일에 5번 씩 약 2시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된다. 진행 방식도 다르고 수업의 내용도 약간씩 다른데, 내가 담당했던 마을의 이브닝 클래스에 대한 대략 적인 정보와 수업들과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다.

암베드카 이브닝 클래스 출석부에 등록된 아이들 : 약 40명

암베드카 이브닝 클래스 평균 출석률 : 약 20명 ~ 30명

암베드카 이브닝 클래스 장소 : 생명누리의 소유가 아닌 마을 안 교회의 앞마당을 빌려서 수업함.

암베드카 이브닝 클래스 담당 자원봉사자(총 2명)

진행 방식 - 일주일의 수업을 반 씩 나눠서 주 담당을 정해서 진행한다. 주 담당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주 담당의 수업을 보조한다. 그리하여 이브닝 클래스를 진행하는 날에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 가기로 한다.

수업 시간 - 주 6일, 하루 2시간(오후 4시 ~ 6시)

수업 내용 : 음악, 미술, 영어, 체육, 문화생활(영화 감상, 음악 감상, 한국어 등)

대주제	소주제						
음악	오카리나	한국동요	외국동요	타악기	춤배우기	기본음계	
미술	수채화	크로키	낙서하기	집그리기	가족그리기	자연표현하기	
영어	영어동요	영어단어	알파벳	영어게임-가위바위보, 동물 맞추기 등등			
체육	수건돌리기	마라톤	술래잡기	피구	배구	림보놀이	잡기놀이
문화생활	영화-애니메이션		한국어	음악 감상-한국팝송, 클래식, 외국팝송 등			

* 일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그림 1 이브닝 클래스 미술 수업



그림 2 이브닝 클래스 음악 수업



그림 3 이브닝 클래스 영어 수업

3-3. 일과

아침	오전 5시 30분 기상 - 6시 예배 - 7시 마침 7시 30분 ~ 8시 아침 식사 시작 - 9시 아침 업무 시작 - 12시 30분 까지 아침 업무	
점심	12시 30분 점심 식사 시작 - 2시 까지	
오후	2시 ~ 3시 30분 : evening class 수업 준비, 오후 업무 시간 3시 30분 ~ 4시 : 담당 마을로 이동 (evening class) 4시 ~ 6시 : evening class 수업 진행	
저녁	6시 30분 ~ 7시 : 저녁 식사 8시 ~ 9시 (30분) : 예배 10시 이후 : 취침	
일요일	아침 5시 30분 기상 - 6시 예배 - 7시 마침 7시 30분 ~ 8시 아침 식사 시작 - 9시 30분 ~ 12시 30 분 - 주일 예배 4시 ~ 6시 - 이브닝 클래스	

Evening class 는 주 6일 들어감
따라서 생명누리에서의 휴일은 토요일임

3-3-1. 일과 세부 설명

- 아침 업무 시간

1. 아침 브리핑 타임 - 서로 앞으로 할 수업들과 이전 수업들의 진행 상태 계획 공유<마을 별>
2. 문서 작업 - 전날 일지 작성, 전날 사진 작업,
+ 월말마다 월에 활동했던 여러 가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함
3. 이브닝 클래스 수업 준비
4.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 구입, 수업 용품 구입
5. 아동결연 사업 사진, 자료 정리

- 오후 업무 시간

1. 아침 업무 시간까지 처리 못한 잔업 처리
2. 이브닝 클래스 수업과 간식 준비

3-4. 인턴십으로 간 생명누리 공동체 안에서의 내 위치

지부장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내가 인턴십으로 지원한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생명누리 안에서의 내 위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겨우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자원봉사자로 오는 사람들도 길면 1년, 짧으면 1달로 오는 사람들이었고 봉사 활동도 똑같거나 그 이상 했기에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

4. 인턴십.. 만만치 않군(힘들었던 점)

4-1. 언어 소통 문제

인도에서 생활문제와 겹하여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이들과, 현지인들과의 소통이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 만큼 진짜 어렵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내가 갔던 곳이 영어를 쓰는 곳이 아니라 오직 현지 언어(뿔루구어)만 사용하는 것이다. 영어라 해도 힘들었겠지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를 새로 배워서 바로 실생활에, 수업에 적용해야 하는 소통의 힘듦은 뭐라 말 할 수가 없다. 실생활과 수업 말고도 아동결연의 신규아동 추가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해야 하는데 현지 언어가 매우 미숙하니 영어가 조금 되는 마을 사람과 함께 다니며 아이들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도 힘든 일에 속했다.

4-2. 공동체

학교에서 질리도록 했던 공동체 생활이지만, 여기 와서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사회의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봉사 단체의 공동체였는데, 이런 곳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촛불을 키고 자봉 형 누나들, 지부장님과 함께 밤새도록 회의를 했을 때는 우리 학교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특성상 일어나는 '다 같이 함께 하자' 라는 태도들.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학교에서도, 여기에서도 공동체로 인해 힘들었던 것은 같은 것 같다. 개인 시간을 너무 많이 빼기는 것과 개인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

4-3. 예배(종교의 문제)

내가 간 곳이 기독교 선교 단체이기에 하루에 1시간씩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드린다는 것. 사실 이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이었겠지만, 이렇게 전혀 생활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인턴십의 역할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나에게 종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를 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기도겠지만, 나는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기독교 신자들의 타 종교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다. 물론 모든 기독교 신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 말이다.

4-4. 생활 적응의 문제(기후, 음식 등)

인도에서의 생활을 만만하게 봤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했던 대로 인도에서의 생활은 환경이 열악했다. 첫째로, 가장 힘들었던 위생 문제.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설사가 나버리는 열악한 위생 상태가 나를 힘들게 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인도에서의 생활은 먼지와 더러움과의 생활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사실 이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 음식이 내 몸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도 먹는 것.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은 Oh my GOD 이다. 그리고 물 문제.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내오는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역시나 설사로 직행이다. 일일이 미네랄워터를 사서 먹는 번거로움도 있었지만, 번거로움 외에도 물의 보충이 절실히 필요한 인도생활에서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만큼 고역이 따로 없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는데 마시면 설사를 하는 물이라니.... 정말 어려운 선택이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더위가 한창일 때는 40도 까지 올라가는 미친 듯 내리쬐는 폭풍더위와의 전쟁과, 길 거리를 다니다 보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보면 얼굴이 찌푸러지는 그런 이물질들과 함께 사는 삶에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다.

4-5. 집안일

어느 사람들은 이게 뭐 별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씩 식사 준비와 청소를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기간이 오면, 내가 밥하러 왔나 봉사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동체를 위한 일(집안일)이 많다. 밥을 하는 것은 두 명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아서 정말 쉬운 토스트, 계란, 우유, 샐러드 메뉴를 준비를 하게 되어도,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 외에 다른 요리를 하려면 더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 넘게 밥하고,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 것은 고역이다. 힘든 것은 둘째 치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다. 나는 분명히 봉사를 하러 왔는데, 왜 종일 집안일만 하게 되어야 되는 거지? 라는 물음을 자주 던지면서.

4-6. 비자에 의한 생활 장소 문제

알다시피 인도의 비자는 2010년도를 시작으로 비자를 따낼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지고 인도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졌다. 그에 따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학생 비자 외에는 6개월간의 관광비자와 봉사 비자는 받기 힘들다는 다른 생명누리의 지시에 따라 학생 비자를 따게 되었다. 힌두푸르(생명누리 공동체의 기숙사가 있는 곳)에는 대사관에 제출 할 수 있을만한 환경의 영어 학원이 없어서 사정 상 힌두푸르와 가까이 있는 큰 도시인 벵갈로르의 한 학원에 등록하여 학생 비자를 딸 수 있게 되었다.(물론 내가 진행한 것은 아니고 생명누리에서 대행해주었다.) 그 때문에 법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벵갈로르의 영어 학원에

등록한 학생 비자를 가지고 힌두푸르 안에서 사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그 때문에 경찰이 자주 생명누리의 숙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자주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현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일을 발화점으로 2주간 자원봉사자 전원 함께 -자원봉사자는 모두 나와 같은 뱅갈로르의 영어 학원에 등록 되어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 뱅갈로르로 쫓겨 나있던 적이 있었다. 불법으로 체류하고 이렇게 쫓겨난 것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활하기 힘든 인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작지 않고 크게 힘들었던 것 같다.

5. 인턴 후...(느낀 점)

5-1. 인도의 아이들과 만남

처음에 이 아이들과의 만남은 새로웠다. 만나자마자 옷깃을 잡고(?) '너 이름 뭐니' 라고 내 면상에 삿대질을 하며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물론 한국어로 말했다. 그것도 반말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앞으로 내가 운영 할 이브닝 스쿨에 들어 올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는데, 까불긴 하지만 정말로 순수하고 귀여운, 활동적인 아이들이라는 것이 아주 깊게 느껴졌다. 내 피부가 하얗다면서 바군디(좋다는 의미)를 연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했다.(시간이 지나며 그 말은 사라졌지만) 생명누리에서 특히 아이들이 활동적인 마을이라 나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내 성향과 반대라서 오히려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만남이 더욱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항상 이쁠 것 같고, 항상 귀여울 것 같은 아이들이라 첫 만남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첫 느낌은 이 아이들의 산만함을 보고 어떻게 집중시키나 하는 걱정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첫 만남 때는 내가 분위기를 잡아야지 결심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5-2. 자원봉사자들과의 생활

4개월 동안 함께 해온 동료였지만 깊게 친해진 사람은 없었다. 모두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간을 마친 후 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을 열지 않은 것 같다. 매일 재밌게 친하게 지내서 대인관계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래도 힘든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생명누리의 자원봉사자의 분위기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혼자 온 나는 그 분위기에 끼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5-3. 생명누리 공동체에 있으면서 아쉬웠던 점

여러 아쉬웠던 점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브닝 클래스의 수업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이다. 수업은 영어 동요 파일과 미술 용도의 프린트 물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봉사자의 능력으로만 이브닝 클래스가 진행되는 것이다. 매일매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업을 준비 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쉬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절대 배우지 못하는 수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루 때우기 수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수업의 질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고 생명누리 자원봉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브닝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한 가지 더, 나의 인턴 기간이 끝날 때 썸 교육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브닝 클래스의 수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간 것이다. 신기하게 내가 갈 때 썸 이브닝 클래스의 수업이 정리되고 새로운 프로그램 들이 개발 된다고 하니, 아쉬운 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에게 한 걸 같이 대하지 못한 것이다. 교사로 있으면 힘든 것이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주어야 하는데 예쁘고 착한 아이들만 많이 좋아해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은 인턴이 끝나는 날까지 내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5-4. 4개월간의 기나긴 인턴을 마친 후

일단, 이렇게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인도 안에서의 인턴 생활을 마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와 동시에 내 생활로 완전히 녹아버린 생명누리 안에서의 생활이 끝난 다는 것이 전혀 현실감 있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이 인턴을 한 것은 그저 학교에 인턴십을 이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인턴십에서 나의 성장을 보고 느끼며 이런 것이 인턴십이구나, 이런 것이 참 배움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란, 한 사람으로써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나의 계발에만 신경을 쓰던 나에게, 내 생활과 많이 다른 단체에 가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단체의 한 사람으로써 인정을 받는** 생활이 나에게 필요했던 제대로 된 배움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생명누리를 떠난 다는 것이 슬펐는데 생명누리 보다는 나와 4개월간 정말 가까이 생활했던 아이들을 떠난 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인도를 떠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는데, 그와 동시에 들게 되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다. 무사히 마친 것 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인턴십 보고서 작성, 인문학 캠프의 걱정 보다, 한국에 돌아 갈 기쁨보다도 큰 것이 아이들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중에도 생각한 것이지만, 끝날 때도 이 생각이 났다. ‘내가 봉사하러 왔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봉사를 받고 배우는 것 같다.’ 항상 잘해주고 싶은 아이들, 선생님 보다 형, 오빠로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 앞으로도 절대 못 잊을 것 같다.

5-6. 인턴십을 통한 나의 성장은?

인턴십을 생활하기 힘든 인도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힘든 것을 겪고 내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했던 목적이 정말로 큰데,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르게 된 것 같다. 열악한 생활환경 상태의 극복과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와 함께 한 마을을 담당하여 책임감 있게 혼자서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진행하면서 내 결정에 대한 일에 대해 추진력 있게 진행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혼자 해외에 생활하면 당연히 길러져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에 우유부단하던 나로서는 나의 이러한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것만으로도 **인턴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다른 문화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를 하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보게 되는 내 마음이 이해력이 더 늘어나는 듯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부록>

- 인턴십이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인턴을 통한 경험 - 미래의 연관성)

누가 생각해보도 특별한 경험인 해외 봉사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 할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세밀한 방향으로 나누어 보자면, 쉽지 않은 인도 생활과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외국 사람과의 접촉과 상생 등으로 한국 안에서 편하게 생활해서 생긴 속 좁은 사고방식을 조금씩 허물었던 것 같다. ‘지금 충분히 나도 힘들다, 몸이 피곤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할 수 없다.’ 등등의 변명으로 이루어진 내 삶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인턴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런 사고방식,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성장한 것이 이 인턴십이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준 가장 큰 영향 일지도 모른다. 이 것 말고도 내가 이 글에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인턴십이 내 삶의 길에서 방향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를 말하고 싶다.

인도에서 물갈이를 하면서 앓아누운 것,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의 배려가 부족해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운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말에 잘 안 따라서 혼자 심술 내서 수업을 하지 않았던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수업의 아이디어를 모자란 머릿에서 짜 내었던 것, 아이들이 다쳐서 올 때 위로 했던 것, 새로운 만남과 아쉬운 이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 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했던 나....

이 것 외에도 내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경험으로 쌓여서 내 인턴을 빛내준 것 같다. 내 삶의 길에 활력을 넣어준 것 같다. 내가 손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에 부끄럽지 않은 자신감 등을 얻었다.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해보이던 내가 인도에서 힘든 삶을 긍정적인 사고로 극복하니, 앞으로 어떠한 힘든 것도 두렵지가 않다. 숨기지 않고 나는 나라는 '자신감'이 내가 이 인턴십, 인도에서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이며 이 선물이 앞으로의 내 삶 안에서 가장 큰 영향과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변화들로, 이번 인턴십은 내 삶의 TURNING POINT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

— 첨부 파일

— 자원봉사자 인터뷰

생명누리 자원봉사자 인터뷰

변상현(23)

- 생명누리에 오게 된 계기와 생명누리에 오기 전에 봉사 활동에서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봉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러 다큐를 보는 도중에 아프리카의 어려움에 관한 것.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에 다시 복학하기 힘들 거 같음. 그래서 휴학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 장기 봉사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장기 봉사에 대해 열심히 검색했는데 그 중 가장 와닿고 현실적인 곳이 생명누리 였다.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나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고 싶어서 왔다.

- 생명누리에서 맡고 계신 직무(업무)

이브닝 클래스 선생님(마넴빨리), 아동 결연 총괄

- 국제 자원 봉사에 대한 생각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 처음에 올 때는 자신이 봉사를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확신이 안섰는데, 막상 와보니 그런 마음과는 관계없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 따라가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밖에 하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다.

- 생명누리의 첫 인상.

국제적인 NGO 인데도 불구하고 참 허술하고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다.

- 인도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느낀 점은?

생각 보다 너무 깨끗했다. 나는 이전에 들었던 정보들로 인해 엄청 더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했다. 길거리가 돼지우리 급일 줄 알았다.

- 현재까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한 달이 되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경험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얻은 것은 없는 것 같고 잃은 것이 크다고 생각 된다. 그렇게 크게 잃은 것은 없지만 이 쪽에서의 생활에 관해서는 생활 부문에서 몇 수 접어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고, 봉사 활동에 공동체 생활까지 하기에 개인 시간도 많이 없는 것이 흠인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로 첫 번째는, 기본 적인 책임감.-1년을 신청했는데 바로 갈 순 없으니.- (나는 마음에 안들면 하루 이틀만에 갈 수 있지만)두 번째 여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요즘에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의 생활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

-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소감

아이들이 우리 말을 배우고 우리도 아이들의 말을 배우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약간씩 융화가 되는 느낌이 너무 좋다. 너무 언어를 모른 다는 것은 의사 소통에서 너무 힘들다. 하지만 서로의 의사 소통이 힘든 만큼 의사 소통에 성공을 했을 때 느끼는 희열은 크다.

- 생명누리에서 봉사하기 전과 현재-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에서 달라진 점을 발견 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한 달 밖에 되지 않아서 행동 습관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한 달만에 쉽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재 내 자신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다른 문화의 사람이랑 우리랑 다를 줄 알았는데, 생활 해보니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다름을 수용 하는 힘을 기르고 있는 것 같다.

생명누리 자원봉사자 인터뷰

이선우(19)

- 생명누리에 오게 된 계기와 생명누리에 오기 전에 봉사 활동에서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봉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찾고 있는 중에 해외 봉사란 것이 나에게 무언가 큰 선물을 줄 거 같아서 오게 되었다.

- 생명누리에서 맡고 계신 직무(업무)

컴퓨터 클래스 선생님(칼루르마을), 이브닝 클래스 선생님(칼루르 마을)

- 국제 자원 봉사에 대한 생각

처음 왔을 때는 국제 자원 봉사라 하면 무조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란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 듯 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뭔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 생명누리의 첫 인상.

국제적인 NGO 인데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 현재까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거의 9개월 동안 생명누리 안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직 매우 크게 와 닿는 느낌은 없었다.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잘 따라주고 하면서 내가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소감

처음에 왔을 때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소통이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이 길어지니 현지 언어의 구사 능력과 서로의 눈짓 발짓으로 서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소통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 보다 낫다는 느낌까지 받아서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 생명누리에서 봉사하기 전과 현재-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에서 달라진 점을 발견 했다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 같다. 함께 생활하는 삶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함께 하는 삶과 나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봉사 기간이 끝나게 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만큼은 예전의 나태한 모습과 지금의 성실한 모습을 충분히 구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 같다.

별을 노래하다.

#농사 농자가 별을 노래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있다.

우도연

목차

1 들어가며

1-1. 나의 속사정

2 공동체 탐방

*시골집을 다녀와서

2-1 변산공동체학교 소개

2-2 시간표&달력표

2-3 변산에세이

3 인턴 후 나의 속사정

3-1 간디와 변산공동체학교 비교(개선할 점)

3-2 농부가 되 본 소감

1 들어가며

1-1 나의 속사정

간디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난 도시 토박이였고 간디학교에서 농사를 배울 수 있음이 너무도 좋았다. 그러나 막상 입학하고 농사를 했으나 힘들고 따분하여 멀리 하였다. 곧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와 방향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하였다.

그렇게 어느덧 중3이 되어 논문 쓸 시기가 되었다. 평소에 부지런하시던 농사쟁을 모티브 삼아 농사 관련 된 논문을 생각하던 나는 엄마가 즐겨보시던 농사&철학 관련 서적을 주의 깊게 읽었다.

자급자족 관련 된 논문을 썼는데 미숙한 나로서는 이론적 이해도 안 되고 농사일도 안 하다 보니 공부와 삶의 연관적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가 없었다. 그러던 중 간디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라는 책을 읽고 저자의 대안적 삶에 대해 약간이나마 이해 할 수 있었다. 알 수 없는 의문을 품은 채 논문은 흐지부지 넘어 가고 어느덧 고등학교2학년이 되었고 상미쌤의 추천으로 변산공동체학교를 알게 되었다.

윤구병 선생님의 책을 읽던 중 이 곳에 가면 나의 의문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간절히 들었다. 그렇게 변산에 3주간 손님으로 갔고 첫1주간 나의 체력과 몸은 박살이 났다. 그러나 웬지 모를 뿌듯함과 정신적인 평화는 신기할 정도로 좋았다. 비록 남은2주와3주도 매일 매일이 초죽음이었지만 힘든 고비를 넘기며 잠재되어있는 우울증과 폭력성 등이 자연스레 없어진 걸 느꼈다.

공동체 식구들과도 정이 들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변산을 떠났고 간디학교에 왔다. 간디에 와서는 갈수록 나태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졌다. 웬지 모를 우울함과 공허함은 나를 또 공습했고 심지어 도난을 하기도하였다. 그러다보니 배우기 위함보다는 행복해지기 위해 더욱더 변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나를 파악하신 상미쌤은 문화의 밤에 오셨던 임락경 목사님이 계시는 시골교회를 추천하셨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1달간 다녀오고 집에서 변산 공동체, 시골교회 둘 중에 어느 곳을 갈지 무척 고민하였다. 고심 끝에 변산에 가기로 결정하고 4개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2 공동체 탐방

*시골교회를 다녀와서 (1월~2월)

시골교회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공동체이다. 지체장애인, 노약자, 비장애인 30명과 함께 농사를 기본적으로 지으며 양봉, 간장, 된장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하며 산다. 아토피, 당뇨, 만성질환자들이 쉬면서 임락경목사님의 자연치유 방법에 따라 생활하기도 하고, 귀농하실 분들도 와서 몇 개월씩 묵으면서 자연농법을 배우기도 한다. 시골교회에는 십자가도, 간판도 없다. 임목사님은 기존의 목사들과 너무도 달랐다. 항상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시켜주시며 농담을 달고 사셨다.

겨울이라서 농사일은 없었고 나무를 하거나 내부 보수공사와 청소를 했다.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어 장애인분들과 처음에는 서먹했으나 그것도 잠시, 금방 친해졌다. 같이 있으면 너무 웃긴 일들이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었다. 그러던 중 변산공동체학교에서 5년간 식구로 사시다 온 분이 이곳에 손님으로 오셨다. 그 분과 방을 같이 쓰다 보니 변공에 관해 많은걸 듣게 되었다. 목공쌤으로 계시다 오셨다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망치질, 톱질 등 단순한 것 하나까지 정교한 자세를 잡아주셨다.

강원도 산골이라 워낙 추워서 바깥일을 할 때면 제기를 가지고 다니시며 남자식구분들과 쉴 때마다 제기차기를 했는데 무척 재미있었다. 그분 덕분에 더욱더 빨리 적응 할 수 있었다. 하루는 그분과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골교회에 오랫동안 살던 식구2분과 함께 하게 되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뜯고 새로운 벽지를 붙이는 작업이었다. 하루 종일 종이에 풀칠만 하다 보니 배움의 자세는 흐려지고 따분했다. 그러다보니 실수도 연발했다 실수 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셔서 울컥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이곳에 온 목적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게로 트럭까지 옮길 때면 난 초상 치렀으나 그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눈 덮힌 산을 사뿐히 내려가셨다. 장작패기를 할 때였다. 우습게보고 내리켰다가 크게 혼났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밑에 받침목을 점검하고 한곳만 내리쳐야한다고 가르쳐주셨다. 나무를 쌓는 것 또한 신중하게 三 > 川 이런 식으로 쌓는데 비슷한 크기끼리 쌓으며 균형 또한 일정해서 예술작품과도 같다. 외부인이 봤을 때 ‘집주인이 부지런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골집의 난방과 온수는 오로지 화목보일러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며 나무도 많이 비축해놔야 한다. 불에 연소 여부도 항상 체크해야하는데 돌아가면서 당번들이 한다. 불 피울 때의 요령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불당번 할 때마다 순조로웠다. 그 외에 아침밥 당번, 설거지 당번, 잔반통을 닭장에 부어주는 당번도 했는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지도해주신 분 역시 지체장애를 가지신분이셨다. 말씀 한마디마다 자부심이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다. 자잘한 일, 큰일 가리지 않고 무척 열심히 하셨다. 그 모습에 배울 수 있었다.

바깥일이 없는 날은 종일 식당에서 콩 고르기를 하는데 이리다 열반에 드는 건 아닌지.. 일요일 아침8시면 예배시간이 있다. 무슨 의식의 순서도 없고 그냥 둘러앉아 딱히 찬송가도 아닌 노래 한곡 부르고 각자 돌아가면서 자유발언하고 끝을 맺는다. 난 주로 새로 알게 된 점이나 느낀점, 웃긴 사건들, 반성 등을 털어놓았다. 아침식사로 시골집에서 농사지은 밀과 팥으로 만든 팥 찜빵과 고구마나 감자가 나오며 꿀 차나 유자차가 나오곤 하였다. 식구분들은 한참 먹을 때라며 많이 챙겨주셨다.

매일 저녁 8시면 50배를 하는데 cd를 틀고50배가되면 쏜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잡고 다니던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앞드려 절 하는건 절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알고 있던 돈 냄새 나던 교회와는 모든 면에서 달라서 충격적이며 고정관념이란 걸 알게 됐다. 밥시간이 되면 대기줄이 생기는데 벽에 걸린 그림에 예수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같은 옷차림으로 밥을 받는 그림이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교회의 모습보다 이처럼 소박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시골교회가 나의 감성을 자극했다. 지내면 지내수록 교회라는 느낌보단 공동체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간만에 쉬는 날에 PC방을 갔다가 해가 저서 나온 뒤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버스를 타고 겨우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모든 분들이 애타게 걱정하고 계신 것이었다. 따끔하게 혼이 나고 일단 밥 먹으라며 반찬과 국을 주시는데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다. 시골교회가 끈끈한 가족애가 나는 이유는식구들 저마다 깊은 상처들이 많아서 인 것 같았다.

손님들이 오시면 이곳에 살고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께 자식이나 가족에 대해 물어보곤 하는데 그건 아니 될 노릇이다. 나 또한 뭣 모르고 한 분에게 이것저것 과거를 물어보았다가 고아원에 나서 자라고 아내와 이혼해서 딸과도 떨어져있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었다. 그분은 평소에 일은 물론이거니 생활도 잘하시고 대인관계 면에서도 원활하신분이기 때문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신병 약으로 인해 폐인이셨다고 하셨다. 임락 경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먹고 일하고자고 생활하다보니 정상인에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말

씀하셨다. 그렇듯 이곳은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처이자 작업장이며 터전이었다. 이러한 공동체를 나는 마음깊이 존경하며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음에 안심했다.

마침 다가오는 설 연휴가 1달째 되는 날이었다. 식구 분들에게는 설은 반갑지 않은 날이었다. 온통 TV나 신문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지내고 옷놀이하는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아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너무 우울한 것만은 아닌 것이 목사님, 원장님, 식구 분들이 어울려서 전통놀이도 하고 목욕탕에도 가며 떡국도 끓여먹기 때문이다. 명절시즌이 택배포장으로 제일 바쁠 때라 아쉬운 인사를 하고 떠났다. 빈손으로 안보내시고 이것저것 싸주시려는 것을 겨우 뿌리쳐 된장만 받아왔다. 춥지만 따뜻한 겨울이었다.

2-1 변산공동체학교 소개

먼저 변산공동체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다. 1995년 충북대 철학과 윤구병교수님은 기존 교육과 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몇몇 제자들과 변산에 내려와 공동체를 세우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한다. 체초제, 농약, 비닐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람 똥, 소똥, 식재료 부산물, 조개껍데기&생선뼈등을 섞어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하며, 집도 아궁이 달려있는 흙집으로 함께 지어서 사는 등 도시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시작한다.

2-2. 1주일시간표&달력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5시반	농사일 (쌈채수확)	식사당번	농사일	농사일	농사일 (쌈채수확)	농사일	농사일
8시	아침밥						
9~12시	근현대사	국어	농업	농사일	농사일 여성학	운동부	농사일
1시	점심밥						
2~3시	농사일						
4시	새참						
5~7시	농사일						
8시	저녁밥						
8시30분	작업회의						
10시	취침						

#워낙 상황이 자주 바뀌어서 정확한 시간표를 짤 수가 없다. 계절이 바뀌면서 시간표도 바뀐다. 비가 오면 바깥일을 쓴다. 농번기에는 야간수업으로 변한다. 화요일 식사당번은 밥과 국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쌈 채소를 뜯어서 아침을 먹자마자 포장해서 문턱 없는 밥집으로 보낸다. 김희정 대표님의 국어와 농업수업은 농사철에는 일하면서 한다. 수업방식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영상시청, 쌤의 주입식 교육 등이 있다. 보시다시피 작업회의 때 하루 일을 필기하는 것 외는 독백을 하며 일기 쓸 시간이 희박하다. 언제나 새벽 5시30분에 기상이라 무조건 10시안에는 잠을 자야한다.

농사일지#4월말부터 일지작성

#1주시간표에서 다룬 수업, 식사당번, 짬채소 보내기는 달력 표에 넣지 않았다.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변산공동체 도착	독	립	부	생	활	-
-	21 식구로 생활	-	-	-	-	-
-	-	-	-	31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고사리채취. 하우스정리	쭈캐기, 범씨과종, 장가르기. 매주빵아서 된장만들기.	못자리만들 기,된장가르 기,하우스정 리,닭장비늘 씻우기,고사 리깍기	고사리채취, 닭200리양 계시작, 열무숙기
나무하기, 못자리만들 기,민들레,쭈 캐기	비내림	비내림	모판깎기, 고구마가식	부안나눔장 터	새벽대청소 간디학교모 임	30

#나눔장터란 격주로 목요일마다 부안시내에 나가서 하는 행사이다. 공동체에서 생산한 농산물, 천연염색옷, 약초 등을 팔고, 홍보하기 위한 공동체 소개 글과 택배판매가 가능한 물품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눠준다.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독립부이적. 고사리꺾기	퇴비퍼오기, 경운기밭갈기, 고추밭만들기	고추밭만들기 기마무리, 퇴비뿌리기, 감자순질러주기	지름박골가서 개망초베오기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15 변산도착	광주5.18관련 영상시청,감상문	광주답사	볍씨소독,논 독베서 고추밭에 멸칭하기	고추밭멸칭, 지춥대박기	논독풀베서 고추밭멸칭, 감자밭복주기	
일지無	일지無	들깨밭만들기, 가지 옮겨심기	고추밭식초 뿌리기,고추 밭멸칭,당근 웃거름,생강 밭멸칭	고추밭주변 에들깨와자 소엽 옮겨심기	일지無	지름박골가 서부엽토굽기, 참외43주 옮겨심기,고 구마두둑만 들기
쉽	고추밭멸칭, 첫고추따기	31일 공동체모내기				

5월 특이사항

#어느정도 몸이 농사일에 적응해서 2일부터 독립부에 다시 들어갔다. #과수원에 적화가 급한 시기라 9일정도 다녀왔다. 공동체에 나와 비슷한 시기에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사과농사가 궁금하다고 하여 집에서 함께 일하고 돌아왔다. #집으로 떠난 날 독립부밭에 대량의 고추모종을 옮겨 심었으나 함께 못했다. #5월17일에 광주5.18을 되새기고자 공동체 사람 전체가 답사에 다녀왔다. 희생자분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순회하고 그때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도 갔으며, 광주시내에선 주먹밥 나눠주기 행사, 헌혈행사, 음악공연에 참여했고, 그 때 당시 무고한 시민과 시위자들을 감금시켜 만행을 저지르던 수용소에 가서 체험하기도 했다.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감기몸살	공동체모 내기	공동체모 내기	공동체모 내기
참깨밭 김매기.	6일 정호랑부 안나들이	보리베기, 참깨숙아 서 빈곳에 옮겨심기	참깨숙기	오이지주 세우기,옥 수수김매 기, 보릿단 뭍기.트루 먼쇼시청	보릿단뭍 기, 죽음의 보리탈곡	수확한보 리밭에 퇴 비뿌리고 밭갈기, 단 오제

보릿짚멸칭, 옥수수밭김 매기,오이,참 외식초뿌려 주기,토마토 지주해주기	공동체마늘 수확,들깨고 구마밭김매 기,알타리김 치담그기	일지無	일지無	16일 고등부&독 립부모내기	콩심을밭 갈 기,고추밭김 매기	식초물뿌리 기,밭갈기
고추밭멸칭	고추결순치 기,쌀뜯물& 오줌섞어서 고추에뿌려 주기	모줄에 맞춰 서 매주콩심 기	고구마줄기 잘라서밭에 다 옮겨심기 (정식)	공동체콩심 기,고추순따 기	24 일지無	25 일지無
26 일지無	27 일지無	콩밭매기	콩밭매기	30 콩밭매기		

6월 특이사항

#5월31일부터6월4일까지 공동체모내기를 했다. 농아학교인 애화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이틀간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갔다. 6월1일날 감기몸살에 걸려서 종일 앓다가 다음날 모내기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니. 일요일에 다 나왔다. 6일날 동갑내기친구 정호와 부안시내 나들이를 했다. #9일날 송헌이가 무빙스쿨로 왔다. #11일인 단오제때 상현썸이 오셨다.#작물에 식초를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뿌려주면 병충해에 효과적이다. 주로 고추에 뿌려준다. #16일날 고등부&독립부 공동논에 모내기를 했다.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논 모매우기	콩모종 옮겨 심기,호박밭 풀베기,고추 밭김매기,재 뿌리기,감자 수확
호박 주변 풀 베기,하우스 정리	감자수확, 밭 주변 풀베 기,오줌&쌀 뜯물발효액 뿌리기	5일 일지無	참깨밭김매 기	밭갈곳풀베 기,참깨밭김 매기,콩밭김 매기	장마	장마, 당근 뽑기
장마 17일 인턴십종료	장마	장마	장마	장마	콩밭매기	논 옷거름

7월 특이사항

#7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산청간디학교6학년 나라와 나눔이가 왔었다. 인턴십기간이라 1주

일간 왔다간다고 했다. 제천과는 많이 다른 게 산청간디6학년은 수능준비 때문에 인턴기간이 짧았다. #당근수확을 제때 못해서 바람 들었다. #1주일이나 되는 장마덕분에 독서도 하고 공동체에 오랫동안 살고계신 식구분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변산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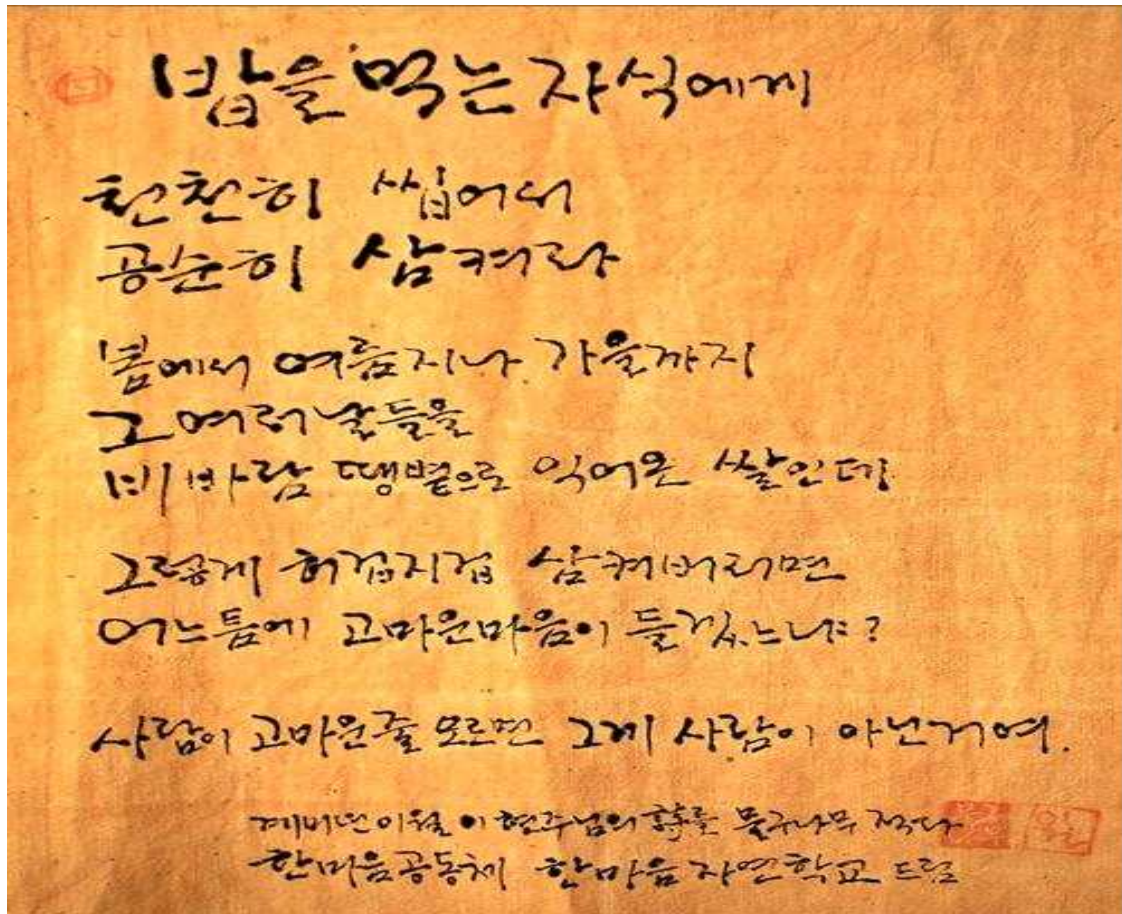
3월 13일 일요일~ 3월 20일 일요일

제목: 새로운 삶

본격적인 인턴십의 시작이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집을 나섰다. 6시간에 걸쳐 변산에 도착했다. 그 반가움이란 산뜻한 봄향기와 어우러져 무빙스쿨때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무거운 배낭을 메고 40분을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매정했다.

공동체 식당 쪽으로 들어가니 낮익은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드문드문 계셨다.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니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마침 저녁밥시간이라 그곳에 밥을 푸는데 없던 글귀가 붙어져있었다.



이런 글귀인데 이 글을 읽고 밥을 먹으면 과식을 하지 않게 된다.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에 낮익은 아저씨가 앉으셨다. 저번 1달간 지낼 때 손님으로 오셨던 조술 아저씨다. 변산에 있으면서 이분에게 근현대사와 철학을 배우게 된다. 아내, 자식3명 총 가족이 5명인데 전부 변산공동체로 완전히 오셨다고 하셨다. '졸라 고생 할꺼야.'라고 하셨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작업회의로 바뀌었다. 자기소개를 하고 정식인사를 했다.

작업회의가 끝나면 각 부서별로 회의를 또 한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다음날 일정을 잡는다. 이곳은 대안학교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부, 독립부, 식구, 손님 정도의 개념이 있

으며 이곳에 있으면 이중 한곳에 소속된다. 또 어느 것에 소속되더라도 농사가 기본이다. 고등부&독립부 필수 수업이 있는데 근현대사, 국어, 농업, 여성학이다. 근현대사는 위에서 말했듯이 술이 아저씨가 하시고, 국어, 농업은 김희정 대표님, 여성학은 여자 식구 분 이신 정은 누나가 가르쳐주신다. 이곳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실천되는 곳이라 학생들에게서 학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만 죽어라 하는 것도 아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텃밭정도 가꾸며 가끔 공동체일을 도와주는게 전부다. 그 외에 시간에는 인문학수업과 개인 시간이 차지한다.

고등학생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드니 중학생까지는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부와 독립부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의 추천으로 독립부에 들어갔다. 독립부는 말 그대로 독립을 하기위해 만들어진 부서이다. 변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기존학생들과 떨어져 자기에 땅을 주체적으로 계획해서 농사지며 일정부분을 문턱 없는 밥집에 납품하며 돈도 벌고 가끔 울력을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한다. 번 돈은 독립부 통장에 저금하며 종자 값이나 경운기 기름 값 같은 공동체에서 빌린 것들을 값을 때 쓴다. 사실 독립부라는 말 자체도 모순인 것이 모든 사물은 상호관연을 맺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 논리를 생각한다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독립부의 의의는 스스로 주인 된 농부가 되는 것이기에 홀로서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19살 정호와 18살 수연이, 변산 토박이 온이와 열이 나까지 포함해서 독립부는 총5명이었다. 반갑게 맞아주었고 나또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농사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은지라 도움 주시는 분이 계셨다. 우리는 그분을 ‘금란이모’라 불렀다. 공동체식구로 몸담그시다가 남자식구분과 결혼을 해서 공동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독립하신분이다. 이러한 독립식구가 다섯 가정 정도 된다. 독립식구가 자립 할 때까지 공동체에서 의식주나 농사지을 땅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독립부 숙소를 짓는 중이라 고등부아이들과 섞여서 한동안 손님숙소에서 지냈었다.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독립부일이 시작되었다. 마을주민께서 대나무 숲을 개간한다며 쓸만큼 베어가라고 하셨다. 각자 톱을 한 자루씩 들고 대나무를 베서 4줄기씩 질질 끌면서 독립부 밭으로 가지고 온 뒤 결가지들을 조선땀으로 쳐내고 본줄기는 오이지주대로 쓰기위해 한 곳에 쌓아 놓고 잔가지는 불쏘시개 쌓아놓은 곳에 쌓아 놔다.

다음은 호박구덩이 파는 작업을 했다. 곡괭이를 한 자루씩 들고 인분과 짚이 적당히 들어갈 만한 깊이의 구덩이를 팠다. 2인1조로 양동이에 인분을 담은 뒤 양동이손잡이를 세우고 대나무를 끼운 뒤 앞사람뒷사람 무게중심을 잡아가며 구덩이로 날라서 붓고 짚을 깔고 다시 흙으로 덮곤 했다. 그대로 1주정도 묵혀두었다가 호박씨를 심는다고 하셨다. 다음일로는 비닐하우스 정비였다. 헐어있는 비닐을 걷어내고 새로운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었다. 말은 쉽지 작업반장 인용아저씨의 지도하에 힘겹게 할 수 있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저녁시간이 되어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작업회의를 마치고 독립부회의도 마치고 숙소 와서 씻고 바로 잠을 잤다. 1주일간 독립부아이들 일 수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별로 못하고 일만했다. 애들은 웃고 떠들며,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까지 하면서 일을 해도 나보다 빨랐다. 1주일간 있으면서 몸은 점점 좋아졌으나 독립부 아이들과는 서먹해진 상태였다. 독립부에 민폐일 것 같아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어른들 밑에서 배운 뒤 다시 독립부로 돌아오기로 했다. 아이들은 내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3월21일~4월30일

제목: 나도 공동체식구

이제부터 어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며 함께 생활한다. 숙소도 어른들이 사시는 메주방

으로 옮겼다. 통칭 메주방이 된 이유는 아궁이에 달려있는 가마솥에 메주콩을 삶고, 삶은 콩을 옮겨 담은 뒤 방안에 이불로 덮어놓고, 곰팡이를 피게 한다. 메주 담글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식구들이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메주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옆 사람이 방귀를 껴도 모르니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녹록치 않았다. 일을 못한다며 꾸짖거나 하시지는 않았지만 같은 일을 해도 나의 노동량이 적은듯했다.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모시고는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식구분의 말씀에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바꾸고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독립부에 있을 때 뒤 처지지 않겠다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다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식구 분들도 열심히 하려는 나의 진정성을 파악하시고 농담이나 사소한 배려로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셨다.

4월부터 벼농사가 시작되는데 염수선부터 볍씨파종, 못자리 만들기, 모판 깔기 등을 했다. 농한기라서 쭉, 고사리, 민들레 등을 캐러 다니거나 된장 만들기, 하우스 만들기, 흙벽돌 짚기 등에 일들을 했다.

손님이 오셨는데 ‘개척자들’이라는 해외봉사 단체에서 오셨다며 식구로 살려고 왔다고 하셨다. 자신을 민철이형이라 부르라고 하셨다. 메주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제천간디학교도 어느 정도 알고계시고 그곳에 인턴집으로 갔던 동근, 다은 등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인지 인턴집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셨다.

그 분과 같이 일을 할 때면 너무 웃겨서 긴장감이 풀어진다. 친동생처럼 대해주셔서 나중에는 속사정까지 예기 할 수 있게 되었다. 형의 여자친구는 현재 개척자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셨고 결혼 해서도 공동체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하셨다. 보리탈곡시즌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무척 고생을 하시고는 도시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시고는 다음날 떠나셨다. 잘 설득해서 내년부터는 함께 살 것이라고 하셨다.

5월1일~5월31일

제목: 독립부로 귀환

식구들 밑에서 1달간 배우며 타이틀하게 생활하다보니 약간의 일 센스가 생겼다. 식구들이 지속적으로 내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외롭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론 또래아이들이 그림고 친해지고 싶었다.

김희정대표님께 조심스레 독립부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깐 번덕이 심하다며 웃으시며 화를 내셨다. 독립부의 리더인 정호(19세)와 멤버들과 합의하에 결정하고 들어가게되면 작업회의 때 알림 하라고 하셨다. 정호와 아이들은 흔쾌히 승낙해주었고 식구로 지내며 어른들과 같이 일했던 걸 높이 평가해주었다. 중2 김채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새로 들어오고 열이가 약초부로 이적했다. 정호, 나, 수연, 온, 채영 총5명이었다.

다음날부터 함께 일하는데 항상 계획해주시던 어른들이 안계시니 우리끼리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퇴비장에서부터 4포대씩(80kg) 수레에 싣고 밭으로 날라서 뿌린 뒤 경운기로 밭을 갈고 쇠스랑으로 이랑, 고랑을 만드는 작업인데 아이들에 능력에 감탄했다. 힘과 체력은 둘째 치고 경운기조립과 운전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았다. 인원수는 적는데 밭은 크다 보니까 일이 하루 안에 끝나지 않아서 다음날 마무리했다. 독립부로 귀환한지 1주일이채 안돼서 집(과수원)일 때문에 9일가량 떠나게 되었다. 사과농사에 관심 있으신 손님분이 계셔서 함께 일을 하고 왔다. 공동체에 도착하고 다음날 광주5.18을 되새기고자 공동체전체가 대절된 버스로 광주에 다녀왔다. 미디어로만 접하다가 직접 체험하니 훨씬 더 깊이 와 닿았다. 식구로 있을 때 해봤던 벼 염수선, 파종, 못자리 만들기, 모판 깔기 등을 독립부에 들어와서 반복했다. 고등부&독립부 공동 관리하는 논의 있기 때문이다. 해봤던 일들이라 망설이

지는 않았다. 논일 외에는 독립부와고등부는 각자의 밭에서 별개로 농사를 짓는다.

고추밭이 워낙 넓어서 김 매는게 감당 안 되었다. 정호와 경운기 뒤에 트레일러를 장착하고 아이들은 뒤에 타고 정호는 운전한 채로 저수지 근처까지 갔다. 근처에 주차하고 저수지의 메말라있는 부분에 방대하게 쌓여있는 낙엽을 큰 포대에 가득 담아서 경운기 한차가득 싣고 우리 밭으로 옮겨서 고추밭 멀칭을 해주었다. 고난이도의 일로 꼽히는 일이었다. 밭이 워낙 넓은지라 낙엽 나르는 일을 4~5번했다. 고생스러운 일이나 견뎌내고 나면 다른 일들을 할 때 역량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다.

몸도 마음도 점차 농부와 닮아 감을 감지 할 수 있었다.

6월

제목: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하는 농번기

5월31일부터 모내기를 시작했다. 첫날 너무 들뜬 나머지 몸을 막 사용했나보다. 다음날 몸살이 나서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다. 신기하게도 같은 방을 쓰는 정호와 열이는 멀쩡한데 온이와 나만 지독하게도 걸렸다. 하루 동안 쉬고 다음날도 몸 상태가 여전히 안 좋아 쉬려고 했으나 농아학교인 애화학교에서 단체로 모내기 체험하러왔기에 친해지고 싶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모내기를 했다.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라 수화를 모르는 나에겐 딱히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웃으며 인사정도밖에 못했다. 인원이 많은 탓에 금방 끝이 났다. 근처 초등학교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팀워크가 생명인 스포츠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안 되는 것은 치명적일 것이라는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빛나가고 정확한 패스와 잘 맞는 호흡으로 변공학생들을 압도했다. 결과는 비밀이다. 모내기가 끝난 후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다. (달력표참조)

7월

제목: 이별준비

공동체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학생들과도 서먹하지 않으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다 싶은 독립부친구들과는 더 이상 숨길게 없는 사이가 되었다. 어른들 또한 완전한 공동체학생으로 해주셨다.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유대감이었다. 생각해보니 이 분들은 처음부터 날 가족처럼 해주셨지만 정작 본인이 간디학교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까이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다.

어느덧 몸과 마음은 이곳을 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동안 공들인 밭, 논을 놓고 떠나자니 아쉬웠다. 간디학교를 포기하고 이곳에 정착할 생각도 했었다. 책임감과 내가 키운 작물에 애착이 생긴 것이다. 농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걸 배운듯했다.

3-1. 인턴후 나의 속사정

간디학교와 변산공동체 학교비교

저마다 갖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변공의 교육철학이 좀 더 뚜렷하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삶, 자급자족하는 삶, 생태적인 삶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실천되는 철학이 강력하다. 그에 비해 간디학교는 사랑과자발성이라는 두루 몽실한 철학 때문에 배움과 실천이 연결이 안 된다.

간디학교의 다양한 인문학수업에 비해 변공은 수업 수가 적고, 주로 일을 많이 하기에 공부할시간이 부족하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등 자기 성찰 할 시간이 부족하다. 간디학교에서는 철학을 책과 수업을 통해 배운다면 이곳은 직접 몸소 실천하며 배우는 곳이다.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단순한 노동,

시골살이에 불과 한 것이다. 주인 된 농부가 되려면 독서와 공부가 필수이다. 간디학교에서의 충분한 학습 덕에 변산 공동체의 단순한 삶 속에서도 흐르는 대로 살지 않고 배우기 위해 노력했었다. 또 간디학교의 규모가 대안학교치고는 크다보니까 한명한명 소통하기가 어렵다. 그에 비해 변산은 드나드는 손님까지 합 해봐야 많아야 40명이 될까 말까다. 이곳의 신비한 점은 처음 온 손님이나 계속 있던 식구나 허울이 사라진다. 처음 본 사이라도 일하다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나 또한 수시로 바뀌는 손님들 덕분에 다양한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말했듯이 저마다 갖춘 장점들이 있다. 나같이 미숙한 아이가 비교하자니 스스로 부끄럽다. 비교는 그만두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 인 것 같다.

3-2. 농부가 되어본 소감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새벽5시반부터 하루를 시작하다보니 아침 형 인간으로 살면 '뭘 해도 하나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똥을 천대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닭을 때 쓰는 종 이조차 신문지를 오려서 사용하는 등 어떻게 해야 자연을 덜 파괴하며 인간이 살아 갈 수 있을까 끈임 없이 질문하며 살아야겠다. 진로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선시되어야겠다. 1학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소에 존경하던 극한직업을 체험 해보니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농사 지어야한다. 농사만큼 대안적인 직업은 없으며, 또 없을 것이며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중한 시간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동안 사회에 잠깐 발 담그고 온 저희들의 이야기 잘 읽으셨나요? 개성 넘치는 맥주병따개답게 다양한 단체와 현장에서 모두 다른 것들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자기가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풀어내고 싶다는 마음에 보고서도, 발표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인턴십은 학교 안에서 배웠던 가치들을 현장에서 배우고 생각하게 해준 계기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소비문화에 찌든 도시에서 때론 지치기도 했고,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사회에서 나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힘들기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모두들 한 뼘 더 자라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생각들과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시간, 그때 했던 생각과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모두 감싸 안고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
•
•

처음 맡은 편집, 힘들었습니다. 미숙하기도 했고, 욕심은 많은데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지요.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렸지만, 어찌 됐든 무사히 나오게 되어 다행입니다.

먼저, 인턴십과 우리를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든든한 멘토 상현쌤,
인턴십 나가기 전에 많이 신경 써주셨고, 멀리서 마음으로 후원해주시는 현숙쌤,
급하게 표지 부탁했는데도 맥병 특징을 잘 살려서 진짜 멋지게 그려준 영원한 맥병 빛나,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빠른 손으로 편집 거의 다 도와주고,
맥병 사진 작업해준 혜민 정말정말 고맙고. 편집 도와준 아이들도 감사.

그리고 각자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달리고 온 14명의 맥병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인 김현지